

북한군사관계사료총서 2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

# 6·25전쟁 보고서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 장 하 재 평

모든 학문分野는 그 나름대로의 영역과 理論을 가지고 있지만, 歷史學만은 폭넓은 학문의 領域과 달리 독특한 역사학 이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고, 역사학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固有한 학술이론이 없으면서 역사학이 기본 학문으로 강한 생존능력을 지니는 것은 학술적 논리전개를 모두 史料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歷史는 史料로 말한다”는 의미는 곧 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역사학의 저서와 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은 새로운 사료를 얼마나 발굴했으며, 그 사료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分析하여 체계화했는가에 두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5전쟁의 研究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보다 과학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서 進一步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발발 후 반세기를 지나면서 그간의 연구성과는 山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 모든 저서와 논문들이 잘 읽히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반 독자들에게 외면되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논리전개의 기본이 되는 史料가 이미 사용된 것이거나 재인용되어 독자들에게 논리전개의 신선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6·25戰爭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6·25전쟁 관련 資料를 蒐集 整理하여 6·25戰爭史를 綜合한다」는 원대한 학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동안 접하지 못한 국외자료를 수집·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실의 일환으로 「라주바예프 보고서」를 4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라주바예프는 6·25전쟁 당시 북한주재 소련의 군사고문단장파 북한대사를 겸임한 현역군인(육군중장)으로서 전쟁상황과 관련된 龐大한 자료를 수집·평가하고 그 代案까지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라주바예프의 報告書는 소련이 6·25전쟁에 깊이 관여한 역사적 증거이며, 유엔군과의 교전에서 有利한 戰爭局面을 造成하기 위한 소련의 外交政策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군사 전문가의 안목에서 정리되어 있으므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군과 중공군 참전의 역사는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특히 소련의 「世界 共産化」 시각에서 본 6·25전쟁의 실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할 수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당 연구소가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를 번역 출간하는 목적은 우리 학계가 전혀 접하지 못한 북한과 소련측의 1차 사료를 학계에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25戰爭史」를 정립하려는 데 있습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이며,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

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6·25戰爭史」를 읽고 그 敎訓과 代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구성과들이 독자들에게 외면당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쟁방지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의식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人類와 文化를 파괴하는 전쟁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우리의 意志와 無關하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사례를 연구하여 적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體系的으로 整理하는 努力이 先行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발간하는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는 국방정책 담당자와 전략전술 전문가, 그리고 6·25전쟁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료를 수집 번역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책자로 완성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2001년 6월 일

## 한국어판 라주바예프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추바쉬ン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대령,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장)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러시아자료의 출간 사업」에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가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는 이미 5년 이상 한국현대사 및 북한현대사 관련 러시아군사(軍史)문서에 대한 공동의 조사연구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6·25전쟁 시기 북한 주재 소련대사이자 소련군사고문단장이며 소련무관이었던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장군의 문서 일부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동시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은 한국인들에게는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 6·25전쟁기 소련군사고문단장, 북한 주재 소련대사,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1900~1980년)의 생애

바르파노브 발레리 니콜라예비치  
(러시아연방군 총사령부 군사연구소 부소장, 역사학 박사)

1950년 6월에서 10월까지 6·25전쟁의 제1단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쟁의 전 기간 동안 저명한 소련군 사령관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중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이자,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이며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의 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50년 11월 6일 그는 자신의 전임자인 켈렌찌이 포미치 쉬띠꼬프 대장을 대신해 이 직책에 부임하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이러한 지위의 외교관 교체는 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조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례적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것은 통상 매우 중대하고, 불가항력의 사태가 있을 때이다. 쉬띠꼬프와 라주바예프의 교체가 바로 이에 속한다. 경험 많은 군인이자 외교관이었던 켈렌찌이 쉬띠꼬프가 그렇게 성급하게 물러나게 된 배경은 평양의 상실과 남조선에서의 패배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일은 소비에트연방과 스탈린 자신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격

분한 스탈린은 쉬띠코프 대사뿐만 아니라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바실리에프 중장을 모스크바로 소환했다. 6·25전쟁의 전황은 그만큼 심각하여 모스크바 정부에 최고위 수준의 즉각적인 작전상(실제적) 개입을 요구했다. 1950년 9월 말 모스크바 근교의 스탈린 별장에서는 유명한 소련군 사령관이자 장차 국방상의 지위에 오르게 될 에르·야·말리노프스키 소련 원수를 북조선에 파견하여 그에게 전반적인 지휘를 맡겨 불리해진 정세를 타개하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자신의 수중에 거대한, 사실상 무한한 권력과 지휘권을 집중시킨 모스크바 정부의 유일한 使者는 블라지미르 라주바예프 장군이었다. 라주바예프 장군과 같은 사례는 소비에트연방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소비에트연방이 지구상의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해 온 이래 일 개인에게 국가적이고, 외교적이며, 군사적인 권력을 집중시킨 경우는 결코 없었다.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예외는 소비에트연방 원수인 웨·이·추이코프일 것이다. 그는 중장이던 1941년 당시, 장개석 국민당 군대의 군사고문단장이자 무관의 직위를 겸직하였지만, 소련대사라는 직위만큼은 다른 사람이 수행하였다.

그러면 모든 규정과 관례를 깨고, 스탈린이 그토록 신임해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6·25전쟁 전 기간동안 세 가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도록 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라주바예프 장군은 6·25전쟁이 진행되던 3년 내내 단지 두 개의 직책만이 아니라 3개의 직책 모두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의 용기와 환상적인 사업능력, 의무

감 및 세련된 문화적 태도에 경탄하고 매혹되지 않을 수 없다.

라주바예프 장군은 1950년 말 북조선에 도착할 시점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는 1900년 1월 16일 꾸르스꼬이주(州) 쉬그로프스키 지역 알렉세예프카 마을에서 유리공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2년 그루지야의 찌플리스(뜨빌리시의 옛날 이름)로 옮겨와 근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는 1916~1917년 건설현장의 잡역부로 일했고, 이후 1917~1918년 청소부로, 그 다음에는 다시 건설현장의 날품팔이 노동자로 일했다. 1921년에는 민간인 생활을 마감하고 찌플리스 시 국립박물관의 석공이자 콘크리트공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군에 입대하여 사병에서 장성이 되었고, 그간의 군 경력을 통해 진정한 군사전문가로 성장하였다.

1921년 1월 그가 보임된 최초의 군 직위는 지구상의 모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인 일반 사병이었다. 그는 제11군 제20보병사단 제176보병연대 저지부대의 赤軍 병사가 된 것이다. 이후 제13바꾸 간부과정에서 수확하게 되는데, 1922년에 이 교육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초에 불과했다. 1924년 그는 보병간부학교를 졸업했으며, 1934년에는 프룬제 군사아카데미를 졸업했고, 다시 1939년에는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를 우등으로 졸업하게 된다. 이후 라주바예프 장군은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을 위해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배움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전쟁 전에 그는 소대장, 중대장, 보병연대 참모장의 직위를 거쳤고 군관구 참모부의 과장으로서 참모업무에 종사했다.

여기 1936년 10월 라주바예프 대위에 대한 근무평정서의 일부

를 발췌해 보고자 한다. “...그는 부대장으로서의 근무에 매우 정력적이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높은 규율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매우 박학다식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커다란 열성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그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훌륭히 대처하는 민첩한 부대장임을 드러내 보였다...”

1939~1940년 핀란드와의 전쟁시 그는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1940년 1월 전선에 도착하여 당시 주공을 맡았던 제9군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전투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라주바예프 대좌는 1940년 5월 최초의 무공훈장인 적성(赤星)훈장을 수여받았다.(라주바예프 장군은 생애를 통해 혁혁한 전공으로 12차례나 소비에트 무공훈장과 수많은 메달을 받았고, 외국의 무수한 훈장과 메달도 받았다.)

그는 모든 동년배와 마찬가지로, 블라지미르 라주바예프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기는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이었다. 그는 자카프카스 전선군으로 재편성되는 자카프카스 군관구의 부참모장으로서 이 전쟁을 맞이했다. 라주바예프는 전선군 작전과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1941년 12월 대 이란작전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소련군 부대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942년 10월 라주바예프 소장은 자카프카스 전선군 제37군의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잠시 1942년 10월에 작성된 라주바예프 장군에 대한 전투활동평가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다재다능한 지휘관이다. 작전분야에서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상황을 대담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개진한다. 참모업무에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끈기 있고, 엄정하며, 과감하고, 용감하며, 창의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43년 4월에는 남부 전선군 제2근위군의 참모장으로서 대도시 해방에 참여했고, 꼬림 공격작전에 참전하여 세바스토폴을 해방시켰으나, 노보라시이스키 부근에서 경상을 입었다.

1944년 4월 13일자 최고 총사령관 스탈린의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 부대들은 탱크부대와 보병부대의 맹렬한 공격에 힘입어 적군의 주요한 방어 거점인 꼬림의 수도 심페로폴 시를 장악했다. 심페로폴 시의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라주바예프 소장의 부대가 발군의 공적을 세웠다.”

1945년 2월 라주바예프 중장은 제1쁘리발틱 전선군 제1기동타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제1기동타격군은 라주바예프의 지휘 하에 독일군 꾸를란츠키 부대의 격멸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종전 후 1946년 3월까지 라주바예프 장군은 민스크 군관구 예하부대들을 지휘하게 된다. 1946년 이 군관구가 해체된 이후 라주바예프는 소련 무력 총검열관 제1부관으로 임명된다. 그는 1950년 10월까지 이 직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스탈린이 바로 그에게, 50대로서 전투경험이 풍부한 라주바예프 장군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수행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 11월 신임 소비에트연방 특명전권대사이자, 군사고문단장이며, 무관인 블라지미르 라주바예프 중장이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그가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에서의 초기전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남조선 군대가 부산 방면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후 승리의 여신은 더 이상 조선인민군에 미소짓지 않았다. 1950년 9월 중순의 전선상황은 격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결코 이롭게 전개되지 않았다. 미군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미군과 남조선 군대는 조-중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군 내에는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소련 대사였던 쉐렌찌이 쉬띠꼬프는 모스크바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정부기관과 외교단이 평양에서 소개되었다. 주민들은 때를 지어 평양을 떠나 북으로 가고 있으며, 주민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조차 당혹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소련에 대한 북조선측의 불만, 즉 조선인민군에 대한 소련의 군사원조의 규모와 형식에 대한 불만이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급박한 전황 하에 모스크바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측 지도부의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교체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라주바예프에게는 전선을 돌며 상황을 연구하거나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다. 북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그는 산더미 같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에게 소련 대사로서의 활동과 군사고문단장이나 무관으로서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모든 직위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경과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의 다방면에 걸친 활동 측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의 활동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동이 바로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으로서의 업무였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가 지휘했던 바로 이 영역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을 재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개개 전투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제외하고). 전투활동의 계획과 조직 및 실행에서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전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5월 16일자 및 11월 29일자 소련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에는 246명의 소련군사고문이 배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 2월 초 조선인민군 내에 모두 162명의 소련 전문가들이 복무했으며, 같은 해 3월 말에 이르러 소련군사고문의 수는 15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맹렬한 전투활동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나 각 사단에서 근무했으며, 나중에는 주로 조선인민군 군단 참모부나 종종 제2제대(梯隊) 또는 후방 참모부에서 근무했다. 소련 무력 총사령부는 전 소련군사고문단원과 전문가에게 조선인민군 선견부대나 참모부와 함께 38선을 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켰다. 1950년 10월 1일자 스탈린의 전문에는 이러한 지시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전문에서 스탈린은 소련군사고문단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포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던 것이다.

모스크바 정부의 이 지시는 한국전쟁에 소련이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비밀에 부치고자 했던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련군사고문단원들은 사실상 익명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러한 것은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조선인민군 소련군사고문단장으로서 라주바예프 장군의 활동은 전선에서 조성된 위기상황이 일부 소련군사고문단의 과오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스탈린은 조선인민군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에 대한 시정지시가 첨부된 자신의 전문에서, 현재의 급박한 정세가 소련측 군사고문단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그는 소련군사고문단은 주요 전선에서 4개 사단을 빼내어 서울 방면에 배치하도록 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시의적절히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이것이 서울 근교의 미군에게 전술적으로 결정적인 우위에 서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라주바예프는 전임자의 잘못을 시정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자신의 업무를 모두 새로이 조정해야만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고문단원들이 선견부대로 배치되는 것을 불허했던 모스크바의 지시를 지체 없이 정확하게 이행하였다. 1951년 2월 22일자 전문에서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 총사령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2군, 제3군, 제5군에는 소련군사고문단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곳에서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부대들은 38선 이남에서 전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소련군사고문단원에게는 38선의 월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사고문단장이라는 직위에 부과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조선인민군에서 복무하는 소련군사고문단원의 활용 범위와 성



격에 대한 소련군 지도부의 지시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군 총사령부로 보내는 분기별 정기 보고서에서 “소련군사고문단원 활동의 기본방향은 지상이나 해안에서 굳건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공세로 전환한 적군이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라주바예프는 새로운 로켓장비의 양도와 관련하여, 항공부대의 창설에 맞춰 조선인민군 공군 구성원의 재교육에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소련 교관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소련 영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의 조선인 학생들 중에서 비행사를 양성하는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왕복문서에는 2개 로켓전투비행연대와 1개 폭격비행연대의 창설을 위한 인원의 양성과 지상공격기 조종사들과 항공기 정비공들의 양성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소련군사고문단장에게 가중되는 업무가 점점 증가되어 그에게 추가 통신장비와 보조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50년 12월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군 총사령부의 쉬쎌멘코 장군에게 중국영토 내에 새로 편성된 조선인민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소련군사고문단원들과의 원만한 통신유지를 위해 3대의 무선전신기와 그 보조인력, 4명의 암호해독자와 암호문서를 추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요청은 신속히 처리되었다.

소련군사고문단장으로서 라주바예프 장군이 수행한 활동에 대한 평가는 조선인민군의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 결과가 대변해 주고 있다. 소련고문단의 활동은 조선인민군 부대의 전투력을 현저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부대와 중국인민지원군

부대 간의 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전선의 상황은 현저히 안정되었다. 조선 정부가 여러 차례 모스크바로 서한을 보내 일단의 소련군사고문단원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하는 문제를 협의해 온 것은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 결과로 볼 때 전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라주바예프 장군은 군사고문단장의 자격으로서뿐만 아니라 소련대사의 자격으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했다.

매우 중대한 군사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것과 함께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대사의 자격으로 엄청난 양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스탈린과 김일성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 간의 왕복서한이 그를 통해 전달되었다. 전선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자, 그는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북조선의 국내정치생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보보고를 모스크바로 발송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 군사정치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만났고, 몸소 김일성을 정기적으로 만났으며, 항상 사태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라주바예프 대사는 소련각료회의, 외무성, 국방성, 총사령부로 조선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곤 했다. 그런데 조선측의 요구사항은 종종 광범위한 인민경제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가 소련대사의 자격으로 사실상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소련의 정책을 시행한 그의 활동상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2월 소련 대외무역성 부상과 외무상이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라주바예프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이 자신과의 비

공식적인 대화에서 한반도에서 전투행위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소련측이 제공한 차관의 상환조건을 협의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주바예프 동지는 전투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차관의 상환조건을 협의하자고 조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련 대외무역성과 외무성은 라주바예프 동지의 의견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1953년 11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는 라주바예프 소련대사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최고위급의 양국 공식 대표단의 영접, 전송, 수행과 같은 순수한 의전업무도 그의 활동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했다. 예를 들면 1952년 8월 그는 스탈린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에 동행했다. 장차 있을 모택동의 방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군의 구조와 무장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동지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라주바예프 동지는 모스크바로부터 승낙을 얻었는지 문의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대사의 자격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협상의 준비와 실행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그가 서명한 상당한 양에 달하는 전문이 남아 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대표단 성원, 예상되는 협의대상 문제들, 외교문서 텍스트의 합의 등에 대한 것이다.

라주바예프 장군이 북한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 그가 부임하여 직무에 들어간 날짜가 1950년 11월 18일이라면, 그가 모스크바로 소환된 날짜는 1953년 9월 29일이다. 우리는 문서상 그가 북한에서

소환된 이유를 밝혀 줄 만한 확인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교전 중인 국가에서 광범한 직위를 겸임했던 3년의 기간은 그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순전히 정기적인 인사교체의 시기가 도래해 이 직위에 전문적인 중견 외교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쟁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문서보관소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라주바예프 장군이 조선에서 소환된 주요한 이유는 이상에서 언급한 순전히 공식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주바예프 장군은 풍부한 전투경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정치 활동가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외교관으로의 역량을 보충해 줄 수는 없었다. 그가 전례 없는 막중한 고위 직책들을 겸직하게 됨으로써 전투전문 장군의 어깨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 부과되게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경주용 말일지라도 두 개의 안장을 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중국 속담을 기억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이다. 사실 라주바예프 장군에게는 단지 두 개의 안장이 아니라 세 개의 안장이 걸쳐져 있었으며, 그것도 3년에 걸친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그가 이 짐을 떠맡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의 거대한 용기와 환상적인 사업능력, 의무감 및 세련된 문화적 태도에 경탄하거나 매혹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 라주바예프 장군의 활동은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활동에는 비록 그 자신의 개인적인 과오는 없었다 하더라도 오판과 실수는 있었다. 예를 들면 그가 모스크바의 지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51년 2월 스탈린은 라주바예프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자신의 지시를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준엄한 질책을 하였다. “당신은 조선인민군 사단에 대한 1월 30일자 나의 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내 전문을 읽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전문은 지령이 아닌, 나의 제안입니다. 내 지시가 당신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나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긴급한 문서들을 모스크바에 제때 보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의 텍스트가 1951년 1월 5일에야 비로소 소련으로 발송되었다. 그러나 이 서한은 이미 1950년 11월 2일부로 김일성이 서명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스탈린은 북조선측에 공식답변이 늦어진 데 대해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11월 말 김일성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스탈린은 “비행사 양성문제에 관한 당신의 전문을 우리측의 과실로 뒤늦게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실수는 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인되지도 않았다. 소련 대사 라주바예프 장군을 그다지 총애하지 않았던 소련 외무성과 라주바예프 사이의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꼬였다. 문서보관소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라주바예프 대사와 모스크바 정부의 직속상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냉랭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전문의 텍스트는 이 관계가 이따금 매우 긴장된 상태로 발전해 갔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51년 11월 말 라주바예프 앞으로 보내진 외무성 제1부상 안드레이 그로피치의 전문은 성격상 외교서한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어조와 외교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조선 동지들은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당신은 용인할 수 없는 경솔한 처신을 하였다. 당신이 조선인 동지들에게 그들이 언급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이 문제를 중국 동지들과 협의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신의 과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일을 명심하시오.”

이후로도 소련 외무성과 라주바예프 대사 사이에는 교감이 없었고 언쟁만이 지속되었다. 이 점은 1952년 3월 초에 그로미코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에서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로미코는 라주바예프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련 외무성의 견해로는 라주바예프 동지의 제안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출판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측의 성급함과 초조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련 대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라주바예프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이 임무와 다른 많은 임무도 비교적 잘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1953년 7월 소련 무력 총사령부 부참모장이 자필 서명한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웨·엔·라주바예프 중장의 근무평정서 텍스트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 평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라주바예프는 1950년 12월부터 현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새로운 업무영역을 신속히 숙지하여 막대한 규모의 다양한 임무를 훌륭히 처리하였다. 부대의 전투활동 조직은 물론 예비부대의 양성에서 조선인민군 사령부에 커다란 원

조를 제공하였다. 항상 조선인민군 사령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해 왔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장군이며,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이 우수하며, 군사적 사전교육을 받았고, 우수한 組織家的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의 경력과 참모업무의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실제 업무에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 낼 줄 안다. 예하 군사고문단원들의 사업을 능숙하게 잘 지도하며 그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군사고문단원들의 사업방법과 형식을 총괄하고 향상시키는 학습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술선수범하며 규율을 엄수하는 장군...” 이 평정서는 군사고문단장이라는 현 직책의 수행에 전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평정서의 텍스트는 1954년 5월 소련 원수 게·까·주코프가 의장으로 있던 소련 최고사정위원회의 전적인 찬성을 얻었으며, 1954년 8월 소련 원수이자 소련 국방상이었던 엔·아·불가닌에 의해서도 승인되었다.

1953년 10월 조선에서 귀환하자 라주바예프 장군은 소련 검열 총국의 참모장 직위에 임명되게 된다. 그리고 1954년 10월에는 연해주군관구 참모장에 임명된다. 그는 연해주군관구 총사령관의 제 1비서로 1956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에스·비류조프 원수가 서명한 그에 대한 근무평정서가 잘 전해 주고 있다. “...말은 바 임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 규정을 준수하는 엄정한 장군이다. 지상군 부대에서 근무를 계속하려 한다. 방공(防空)부대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보로쉴로프 군사아카데미에서 일하는데 동의를 표명했다. 그의 복무가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군 부대에서 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50년대 중반 마침 보로셀로프 총사령부 군사아카데미의 교수·강사요원 및 지도요원의 인사교체가 시작되었다. 소련군 최고 지휘부의 간부양성 분야로 각 부대와 국방성 중앙 실·국의 경험 많고 재능 있는 장성들과 장교들이 이 곳에 부임하였다.

1956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련 원수 이·에스·꼬네프가 지도하는 특별위원회는 군사아카데미의 강사업무에 종사할 25명의 장군과 장교를 선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이 군사아카데미의 피교육자로서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지휘관 및 참모 직책에서 업무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이 중에 웨·엔·라주바예프 장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부터 라주바예프의 군 경력은 새로운 정리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아카데미에서 그는 처음 전략전술강좌의 선임강사 직책으로 출발했지만 1956년 12월에는 방공(防空)강좌장의 직책을 취득하게 된다. 그는 이후 1968년 9월 의무복무 기간을 종료하여 퇴직하기 직전까지 12년간 이 직책을 맡았다. 군사아카데미에서 근무하던 중 라주바예프는 준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전임 강사와 교수 직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수십 편의 학술논저도 저술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전쟁의 전투경험을 연구한 저서도 있다. 그는 또한 연해주군관구의 교재도 집필했으며, 방공학(防空學) 관련 강의서도 작성했다.

라주바예프 장군이 지도하는 강좌는 항상 선진적인 강좌로 평가받았으며, 강좌장 라주바예프는 아카데미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방상으로부터 여러 차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여기 총사령부 아



카데미 교장 말론진 상장이 서명한 평가서의 텍스트를 인용해 보기로 하자. “라주바예프 중장은 다방면에 통달한 지휘관이다. 그는 훌륭한 작전·전술 소양을 지니고 있고, 방공(防空)부대의 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 라주바예프 동지의 우수한 자질은 그가 이전에 복무한 직위에서 풍부한 전투경험과 실무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군사아카데미의 방공(防空)강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는 그에게 위임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국가고시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방공(防空)강좌 수강생들은 아카데미 졸업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고 있다. 방공(防空)부대 참모부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며 라주바예프 동지는 시의적절하게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새롭고 현대적인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 아카데미 내에서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

최상위의 전문성과 직선적이며 개방적이고 평생을 새로운 지식과 탐구를 추구해 온 그 자신의 성격을 고려하고, 반세기에 걸친 그의 군 복무 생활을 고려한다면,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장군은 당연히 소비에트 국가의 군사 엘리트의 대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투 지휘관, 군 사령관, 군사 외교관, 최고급의 숙련된 교육자 - 이것이 바로 라주바예프 장군이 걸어온 생애 중 가장 중요한 경력이다. 실로 운명이 그를 어디로 내던진다 하더라도 훌륭하고 명예롭게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것이다.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는 1980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그는 현재 그루지야 공화국 영토 뜨빌리시 시에 묻혀 있다.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азуваев  
1900-1980 гг.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Практически всю войну в Коре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ее первого этапа (с июня по октябрь 1950 г.).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КНДР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главным военным советник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и военным атташе при советском посольстве в этой стране являлся известный советский вое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азуваев. Как известно, 6 ноября 1950 года он сменил на этом посту сво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Терентия Фомича Штыкова<sup>1</sup>. Смена дипломатов такого ранга в разгар войны - шаг чрезвычай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и важный. Как правило, причиной тому служат весьма веские, прямо скажем, форс-мажор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из правил и этот случа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столь скоропалительной отставки опытного военного и дипломата Т. Штыкова стали сдача Пхеньяна и поражение на юге Кореи, что не могло не нанести удара по авторитету СССР и самого Сталина, который в негодовании отозвал в Москву и самого посла, и глав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асильева. Обстановка на фронта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едставлялась настолько серьезной и требовавшей неотложного оператив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что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1950 г. на

---

<sup>1</sup> Т. Ф. Штыков (1907 - 1967 гг.) - 1948 - 1950 гг. - посол СССР в КНДР, с 1951 г. - на партийной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подмосковной даче Сталина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о направле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звест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ачальника, будуще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марш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Р.Я. Малиновског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 взял на себя об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обстановкой и выправил создавшееся положение.

Однак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не было и единственным посланцем Москвы, сосредоточившим в руках огромную, практически необъятную власть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спорядительские функции оказался генерал Владимир Разуваев. Подоб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как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и мировая, ни, тем более советская практика не знали. За всю многолетнюю историю оказания советской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различным странам и народам мира (и всего ее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ощутили на себе почти 90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в Европе, Азии, Африке 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никогда один человек не сосредоточивал в своих руках все ветв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й власти, Пожалуй, единственным известным нам исключением является Маршал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И. Чуйков, когда в 1941 г., будуч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ом он совмещал посты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и военного атташе при гоминьдановская китайской армии Чан Кайши. Однако обязанности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выполнял другой человек.

Кто же был этот человек, нарушивший все мыслимые и немыслимые правила и законы, кому так безоговорочно доверял Сталин, кто осмелел не только взвалить на себя столь тяжкий 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груз, но и с честью пронести его через все годы войны в Корею.

Образно говоря, на генерале Разуваеве было даже не два, а целых три седла, которые он пронес на себе целых долгих три года войны. Поистине, огромному мужеству,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чувству долга и высочайшее гражданственной позиции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ельзя не удивляться и не восхищаться.

Работа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в Корею не была безоблачной, были в ней и просчеты, и ошибки, хотя зачастую личной вины его в них не было. Известны, например,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вшие у него при неправильном понимании установок из Москвы. В феврале 1951 г. Сталин в своей телеграмме на имя Разуваева довольно жестко отчитал его за неточность понимания его указаний: “Вы не поняли мою телеграмму от 30 января о корейских дивизиях. Еще раз прошу ознакомить Ким Ир Сена с моей телеграммой. Она является не директивой, а мо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Вы же мне отвечаете, что мое указани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Вами. Вы не поняли мою телеграмму ...”.

Имели также место случа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доклада генералом ср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Москву. Так, текст письма Сталину от Ким Ир Сена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СССР только 5 января 1951 г., тогда как сама телеграмм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сьбой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Ким Ир Сеном 2 ноября 1950 г. Более того, Сталин был вынужден оправдываться перед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за задержки ответов из Москвы: в телеграмме на имя Ким Ир Сена в конце ноября 1950 г. ему пришлось объяснять “Вашу телеграмму о подготовке летных кадров

получил с опозданием по вине советского аппарата”.

Конечно, подобные вещи не забывались и не прощались.

Довольно сложные отношения у Разуваева складывались с советским МИДом, который, видимо, не очень жаловал посла - генерал. Анализ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казывает довольно прохлад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сла со сво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московским начальством. А тексты некоторых телеграм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эти отношения были иногда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ми “Так, телеграмм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 Громыко, отправленная в конце ноября 1951 г. на имя Разуваева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ась чрезвычайно жестким дл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Ровесник XX века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к концу 1950 г. – ко времени прибыти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прожил большую, трудную и сложную жизнь. Он родился 16 января 1900 г. в селе Алексеевка Шиг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емье стекольщика и портнихи.

Свою трудовую биографию он начал в 1912 г. поступив в Тифлисе (Грузи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илища в 1916-1917 гг. трудился чернорабочим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ах, затем, в 1917-1918 гг. – был дворником, затем опять чернорабочим на стройке, закончив гражданскую карьеру в 1921 г. каменщиком-бетонщико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г. Тифлисе.

Всю свою сознательную жизнь с военной службой, пройдя ее с самых низов до вершины своей военной карьеры, став настоящим военны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м.

Первой его военной должностью, которую он занял в январе 1921 г. явилась самая главная должность в

любой армии мира – простого солдата. Он стал красноармейцем загради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176-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20-й стрелковой дивизии, 11-й армии. Затем учеба на 13-х Бакинских командных курсах, которые он закончил в 1922 г. Но это был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Потом всю свою жизнь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не только верно служил своей Родине, не и постоянно учился. В 1924 г. он заканчивает командную пехотную школу, в 1934 г.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им. Фрунзе, и Военную академию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с отличием в 1939 г.).

В межвоенный период прошел должности командира взвода, помощника командира и командира роты,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находился на штабной работе в качестве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штаба округа.

Вот выдержки из аттестационно отзыва на капитана Разуваева от октября 1936 г. : " ... показал себя весьма энергичным, трудолюбивым и активным в работе командиром.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по службе. Обладает весьма обшир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ой. Свою работу проводит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и на больших творческих началах ..., выказал себя весьма расторопным командиром, быстро ориентируется в обстановке и хорошим распорядителем ...".

В годы войны с Финляндией (1939-1940 гг.) добровольно изъявил жела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январе 1940 г. прибыл на фронт и был назначен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9-й армии, действовавшей на гла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 успешное выполнение боевых задач в мае 1940 г. полковник Разуваев получает свой первый боевой орден – орден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а всего ратные заслуги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были отмечены 12 советскими боевыми

орденами, многими медалями, а также многими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Главным этапом в жизни Владимира Разуваева, как и почти всех его ровесников, стала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941-1945 гг.

Войну эту он встретил на посту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Закавказ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который был вскоре переформирован в Закавказский фронт, а Разуваев стал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оперативного отдела фронта. Он лично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разработке операции против Ирана (декабрь 1941 г.), которая была успешно осуществлена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октябре 1942 г. генерал-майор Разуваев назначается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37-й армии Закавказского фронта. Вот строки из боев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датированной октябрём 1942 г. : "... С работой вполне справляется. Способный командир. В оперативном отношении подготовлен хорошо. Оценивая обстановку смело и твердо излагает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Имеет большой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штабной работы. Настойчивый, требовательный, решительный, смелый, инициативный и лично храбрый командир ...".

В апреле 1943 г. –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2-й гвардейской армии Южного фронта, командовал подвижной группой войск, участвовал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ряда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Крым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освобождал Севастополь. Под новороссийском был легко ранен.

Выписка из приказа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Сталина от 13 апреля 1944 г. гласила: "Войска 4-го Украинского фронта в результате стремительной атаки танковых соединений и пехоты овладели столицей Крыма г. Симферополь – основным

опорным пунктом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В боях за овладение г. Симферополь отличились войска генерал-майора Разуваева".

В феврале 1945 г.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Разуваев назначается командующим 1-й ударной армией 2-го Прибалтийского фронта. Которая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ела ряд успешных операций по уничтожению Курлянд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и немецких войск.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до марта 1946 г.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командует войсками Ми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а после его расформирования в июле 1946 г. назначается 1-м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ного инспектор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На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он находился до октября 1950 г. и именно с нее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командировку в Корею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Теперь, вероятно, стало ясно, почему Сталин доверил именно ему – 50-летнему боевому генералу выполнение столь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дания.

И так, в ноябре 1950 г. новый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главный военный советник и военный атташе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Владимир Разуваев прибывает к новому месту службы.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следство ему досталось непростое. После первых успешных боев на Корею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гда южнокореюские войска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ступить на Пусанский периметр военная удача отвернулась от Корею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Общая ситуация на фронте резко изменилась не в пользу КНДР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1950 г., когда америка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провело успешную высадку десанты в районе г. Ингон, а американские и южнокореюские войска вышли к пограничным с Китаем рекам Ялу и Тумынь. В стране и арии усилились поражен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Тогдашний советский



посол Т. Штыков докладывал в Москву: "Проведена эвакуация из Пхенья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дипкорпуса. Население массами покидает Пхеньян и уходит на север, настроение населения подавленное. Наблюдается растерянность и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ость как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так 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кругах ...". Более того, все явственнее проявлялось недовольство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масштабами и формой его помощ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Именно в эти условиях, а вернее под их давлением Москво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рочной и кардинальной замене вс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оветским аппаратом в КНДР.

Времени ни на раскачку, ни на изучение обстановки и постепенного в нее встраивания у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не было. С первого дня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он с головой окунулся в выполнение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воих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 то время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отделить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посту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от деятель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или военного атташе, настолько все они были так тесно переплетены между собой.

Сейчас же, по прошествии полувека с тех событий мы можем попытаться рассмотреть каждое направление его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и многог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приоритетных явилась его работа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пр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возглавляемого им именно этого участка работы.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в войне в Корее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та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планирова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личного прямого участия в боях) в котором бы ни принимали самого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вое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ям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т 16 мая и 29 ноября 1950 г. численность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пр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А)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в 246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1952 г. в КНА работали всего 162 совет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а, более того, к концу марта того же года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было сокращена до 152 человек. До начала актив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они работали в Генеральном штабе КНА и в дивизиях, в последующее –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штабах соединений и частое второго эшелона и тыла КНА.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уществовал категорический запрет Ген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на переселение 38-й параллели вместе с передовыми соединениями и штабами КНА. Суть этой установки прояснена в телеграмме Сталина от 1 октября 1950 г., в которой он в жестоком манере потребовал чтобы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наших советников надлежит принять все меры к тому, чтобы ни один военный советник не попал в плен.

Это указание Москвы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в максимальной степени законспирировать участ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войне в Коре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ветским военным советникам приходилось действовать фактически инкогнито. А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могло не налож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на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чало деятельности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на посту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при КНА была осложнена тем, что в создавшейся кр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на фронте была определенная вина и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В телеграмме Сталина сопровождавшейся директивой об улучш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етников в КНА прямо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в созда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повинны и наши военные советники, которые не добились точного и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приказа Главкома о выводе с основного фронта в район Сеула четырех дивизий, что принесло американцам под Сеулом большую тактическую выгоду...".

Новому Главному советнику пришлось не только исправлять ошибки сво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но и во многом по-новому строить свою работу. Так, твердо и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выполнял указания Москвы по поводу недопущения советников на передовую. В телеграмме от 22 февраля 1951 г.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докладывал в советский Генштаб: "При 2-й, 3-й и 5-й армия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нет, и они не могли быть, т.к. указанные армии ведут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южнее 38 параллели, а нам переход 38-й параллели воспрещен...".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его задач на этом посту была практическая реализация установок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на характер и масштаб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в КНА. В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ежеквартальных отчетах в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докладывал, что основное их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ачивалось на мобилизации всех сил и средств КНА для создания прочной обороны на сухопутном фронте и на морских побережьях и срыва намер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перейти в наступление и осуществить высадку крупного морского десанта на побережье.

Одновременно им проводилась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учиванию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ВС КНА в связи с переходом на новую реактивную технику и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авиационных частей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 зоне его внимания была в этой связи проблема

подготовки летчиков из числа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при активном участии советского инструкторского состава, а также 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Приморье). Речь в переписке шла о подготовке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для двух реактивных истребительных полков и одного полка бомбардированной авиации,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е штурмовиков и авиатехникой.

Степень интенсивности работы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казалась настолько высока, что ему понадобилось выде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связи с обслуживающим персоналом. В декабре 1950 г.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обращается к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генералу Штеменко с просьбой о выделении трех радиостанций "РАФ" с обслуживающим персоналом и четырех шифровальщиков с шифродокументами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адежной связи с подчиненными ему военн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находившими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при штабе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Просьба была немедленно удовлетворена.

Основной оцен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на посту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етского советнического аппарата в КНА. Она находила свое прямое выражение не только в повышении боеспособности частей КНА, их успеш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частями китайских народных добровольцев но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в 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на фронте.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ым следствием того яви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ые об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Москву по поводу разреше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групп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орденами КНДР. Решением и оформлением этих задач генералу Разуваеву приходилось заниматься

и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и в качестве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Наряду с активным и прямым решением сугубо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огромный объ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аботы выполнялось генералом Разуваевым и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Через него шла вся переписка Сталина с Ким Ир Сенем и Мао Цзэ-дуном. Досконально зная обстановку на фронте, он регулярно информировал Москву о ситуации не только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но и во внутривосточной жизн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егулярно встречался с высши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НДР, лично с Ким Ир Сенем, постоянно держа руку на пульсе событий, посол Разуваев направлял запросы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в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МИД,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Причем просьбы эти зачастую касались решения самого широкого спектра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адач. В качестве наглядного примера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один документ, наглядно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этом посту, в котором он, фактически определ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всей 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его союзника. В докладной записк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Сталину в феврале 1953 г.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посол СССР в КНДР тов. Разуваев сообщает, что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Ким Ир Сен в неофициальной беседе с ним высказывал пожелание обсудить условия погашения кредита<sup>2</sup> по окончани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Корее. Тов. Разуваев в связи с этим считается не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обращаться к корейскому

---

<sup>2</sup> Речь ид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ССР кредита 14 ноября 1951 г. в сумме 60 млн. рублей для оплаты товаров, услуг и неторговых расхо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у за официаль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по тому вопросу с согласования условий погашения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кредита произвест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предложение тов. Разуваева поддерживают". В ноябре 1951 г. Бюро Президиума ЦК КПСС приняло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в так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Разуваева.

Немало времени занимала в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чисто протокольная работа: встречи, проводы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фициальных делегаций обеих стран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Так, в августе 1952 г. он по личному указанию Сталина сопровождал в Москву Ким Ир Сен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Перовскую делегацию. Информирова о предстоящем визите Мао Цзедуна Ким Ир Сен, в частности, писал: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ряда вопросов о структуре и вооружен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с нами поедет Главный советник тов. Разуваев, о чем он запрашивает разрешения из Москв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в качестве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занимал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по поводу заключения перемирия в Корее. Извест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писанных им телеграмм, посвященных различным аспектам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о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й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предполагаемых вопросах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о согласовании тексто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и др.

Точными датами пребывания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в Корее являются 18 ноября 1950 г. – прибытие и вступление в должность, и 29 сентября 1953 г. – время отъезда в Москву. У нас нет точных документальн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донных об истинных причинах его отъезда из страны. 3-х летни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воюющей стране с совмещением всех руководящих постов очень велик. Возможно, что просто пришло время плановой замены и назначения на эту должность кадров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дипломата, тем более, что войн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закончилась<sup>3</sup>.

Однако на практике, исходя из анализа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ого периода,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отзыва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а из Кореи лежали, как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далеко от чисто формальных.

Наличие богатого боевого опыт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е могла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отсутствию опыт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еятеля, а тем боле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такого ранг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ряд ли облегчало положение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совмещение им столь высоких 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должностей, вкуче возложивших на плечи боевого генерала чересчур тяжелый груз. Здесь к месту, наверное, вспомнить китайскую народную пословицу - "Даже на хорошего скакуна два седла не наденешь". Образно говоря, на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было даже не два, а целых три седла, которые он пронес на себе целых долгих три года войны. Поистине, огромному мужеству,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чувству долга и высочайше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ельзя не удивляться и не восхищаться.

Работа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в Корее не была безоблачной, были в ней и просчеты, и ошибки хотя

---

<sup>3</sup> Генерала В.Н. Разуваева на посту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в КНДР сменил кадровый дипломат, имевший большой опыт работы в совет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за рубежом и работы в центральном аппарате МИД СССР Сергей Петрович Суздаев, проработавший в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до 1955 г.

зачастую личной вины его в них не было. Известны, например,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вшие у него при неправильном понимании установок из Москвы. В феврале 1951 г. Сталин в своей телеграмме на имя Разуваева довольно жестко отчитал его за неточность понимания его указаний: “ Вы не поняли мою телеграмму от 30 января о корейских дивизиях. Еще раз прошу ознакомите Ким Ир Сена с моей телеграммой. Она является не директивой, а мо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Вы же мне отвечаете, что мое указани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Вами. Вы не поняли мою телеграмму ...”

Имели также место случа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доклада генералом сро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Москву. Так, текст письма Сталину от Ким Ир Сена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СССР только 5 января 1951 г., тогда как сама телеграмм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сьбой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Ким Ир Сеном 2 ноября 1950 г. Более того, Сталин был вынужден оправдываться перед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за задержки ответов из Москвы: в телеграмме на имя Ким Ир Сена в конце ноября 1950 г. ему пришлось объяснять “Вашу телеграмму о подготовке летных кадров получил с опозданием по вине советского аппарата”.

Конечно, подобные вещи не забывались и не прощались.

Довольно сложные отношения у Разуваева складывались с советским МИДом, который, видимо, не очень жаловал посла - генерала. Анализ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казывает довольно прохлад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сла со сво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московским начальством. А тексты некоторых телеграм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эти отношения были иногда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ми. Так телеграмм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А. Громыка, отправленная в конце ноября 1951 г. на имя



Разуваева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ась чрезвычайно дл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тоном и изобиловала такими не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дипломатов выражениями, как “обращаем Ваше внимание на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Ваших действий ...”,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выступили без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нами...”, “ ... Вы действовали недопустимо легкомысленно. Ваша вина усугубляется и тем, что Вы не потрудились даже выяснить у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огласовали ли они вопрос с упомянут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с кита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 “Учтите это на будущее”.

О том, чт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так и не было найдено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и трения между МИДом и послом продолжали существовать,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А. Громыка Сталину, датированная началом марта 1952 г., с критикой действий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 По мнению МИД СССР, предложение товарища Разуваева является неприемлемым. Опубликование такого интервью могло бы быть истолковано как проявление поспешности и нервозности корейско -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ы ...”

Словом, проблем у генерала Разуваева и на посту советского посла было немало, однако и с этими задачами, и со многими другими, в целом, он справлялся неплохо. Об этом, в частности, убедительн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текст служебной аттестации на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генерал - лейтенанта В.Н. Разуваева,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написанный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июле 1953 г.: “Работает в должности с декабря 1950 г. За это время проявил себя с положительной стороны.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обстановки быстро освоил новый участок работы, отличающийся большим объемом и разнообразием задач, оказал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командованию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ойск, а также в подготовке резервных частей. Установил и все время поддерживал правиль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командованием армии ... Будучи всесторонн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м генералом и, имея хорошее общее и полит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хорошую вое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хороши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большой командный стаж и большой опыт штабной работы, быстро и прави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в обстановке и делал правильные выводы для своей пр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Умело осуществляет руководство работой подчиненных ему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пользовался у них авторитетом. Много уделял внимания вопросам изучения обобщен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методов и форм работы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 Инициативный,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й и требовательный генерал ...

Вывод: Занимаемой долж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ветника впол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анный текст в мае 1954 г. был полностью одобрен Высшей аттестационной комиссией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арш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Г.К. Жукова и утвержден в августе 1954 г.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СССР Маршало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 Булганиным.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из Кореи в октябре 1953 г. генерал Разуваев назначает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Главной инспекц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а в октябре 1954 г. становится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войск ПВО -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ПВО, работая в этой должности с июля 1956 г. Общ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 этом периоде его жизни дает текст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дписанный его начальником маршалом С. Бирюзовым: “ ... со свои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справляется, оператив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и требовательный генерал. Имеет стремление продолжать службу в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ах, для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не является перспективным. Изъявил согласие работать в академии им. Ворошилов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ля пользы службы целесообраз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в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ах или в системе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середине 50 - х годов как раз начался процесс обновления руководящего и профессорско -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Военной академ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им. Ворошилова. На работу в эту кузницу кадров высшего командного состава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привлекались наиболее опытные и способные генералы и офицеры из войск и центр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 1956 г. по указанию ЦК КПСС 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рш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С. Конева отобрала 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в академию 25 генералов и офицеров. в основном ее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кончивших академию с отличием и золотой медалью и получивших опыт работы на крупных командных и штатных должностях. Среди них был и генерал В.Н. Разуваев.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начинается последний этап его долгой военной карьеры. В академию он вначале пришел на должность старше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афедры стратегии и опе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 в декабре 1956 г. занял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кафедры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на которой прослужил 12 лет, вплоть до своего увольнения в отставку в сентябре 1968 г. по выслуг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сроков обязательн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в академии он защитил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получил ученые звания доцента и профессора, список его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исчисляется десятками, в том числе выпустил

монографию по изучению боевого опыта войны в Корее, выпустил учебник по ПВО, лично разработал курс учебных лекций по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е.

Возглавляемая генералом Разуваевым кафедра всегда числилась в передовых, а ее начальник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ощрялся не только командованием академии, но и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Вот что, в частности, гласил текст аттестации, подписанный начальником академ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ом армии Малондиным: "Генерал - лейтенант Разуваев В.Н. всесторонне развитый командир. Имеет хорошую оперативно - тактическую подготовку и специ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о вопросам ПВО войск и страны. Эти качества Товарища Разуваева подкрепляются богатым боевым опытом и практическим стажем работы на предыдущих должностях.

По долж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кафедры ПВО академии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ется с порученным ему делом: слушатели группы ПВО по ряду оценок комиссией гос. экзаменов имели при окончании академии хорошие и отличные показатели. Поддерживая тесную связь со штабом ПВО страны, товарищ Разуваев своевременно вносит в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академии все новое и современное.

... Пользуется авторитетом в академии, хороший командир, должности впол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

По итогам своей почти полувекск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высочайшему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по своему характеру - прямой, открытый, пытливый, всю жизнь стремящийся к познанию нового - генерал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азуваев заслуженно принадлежал к военной элите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оевой командир, военачальник. военный диплома,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педагог - вот основные вехи его служебного пути. И везде, куда бы ни

забрасывала его судьба, он с честью и достоинством выполнял свой солдатский долг.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азуваев умер 5 августа 1980 г. в г. Москве, похоронен в г. Тбилиси (ныне - территория Грузи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라주바예프 약력〉

1900. 1. 16            소련 쿠르스꼬이주 알렉세예프카에서 출생
- 1912                    그루지아의 찌플리스 초등학교 졸업
- 1921                    군 입대(赤軍 사병)
- 1924                    보병간부학교 졸업
- 1934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졸업
- 1939                    총 참모부 군사아카데미 졸업
- 1939~1940            핀란드전쟁 참전(적성 무공훈장)
- 1941                    이란전쟁 참전
- 1942~1943            자카프라카스 남부전선 참전
- 1945                    중장 승진. 제1발틱전선 사령관
1950. 11. 6~1953. 9    북한주재 소련특명대사, 군사고문단장, 소련무관
- 1953                    소련 검역총국 참모장
- 1956~1968            소련 군사아카데미 방공학(防空學) 강좌장
1968. 9                전역
1980. 8. 5             모스크바에서 사망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라주바예프 문서의 성격

이 책은 6·25전쟁 당시에 소련군 현역 육군중장인 라주바예프가 전쟁관련 자료를 수집 평가하여 소련 상부기관에 보고한 문서를 번역·편집한 것이다. 그는 1950년 11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북한 주재 소련특명대사로서 무관을 겸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소련 군사고문단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소련대사 등 3개의 주요 보직을 겸한 직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보고서는 6·25전쟁에 대한 소련과 북한의 시각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문서의 입수경위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6·25전쟁 관련 국외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6·25전쟁사’를 종합한다」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러시아 국방성 중앙문서관리소에 보관 중인 6·25전쟁 관련자료 중 러시아 정부가 비밀 해제한 것을 수집·선별·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6·25전쟁과 관련된 소련측의 자료집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것이다.



## 문서의 편집과 내용

라주바예프의 보고서는 전쟁 당시 촌각을 다투는 정책보고서였고, 본 연구소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체계화되지 않았다. 본 연구소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문서를 연대별 혹은 내용별로 재분류하고, 장절(章節)로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군사고문단의 보고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비서부와 외무성 보관문서 및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문서를 장절에 편성하여 참고하게 한 것이다.

## 독자의 유의사항

이 자료집은 6·25전쟁 당시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가 상급기관에 보고한 전쟁보고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성격은 북한과 소련의 입장에서 남한과 미국을 적국으로 인식하고 서술한 문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북한과 소련이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 조선인민군 → 북한군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공화국 → 북한
- 중국인민지원군 → 중공군 혹은 중국군
- 적 → 국군과 미군
- 남조선군, 괴뢰, 이승만군 → 국군

- 인민유격대 → 주로 남한에서 비정규전을 감행한 북한군 전위조직
- 간섭군 → 미군이나 유엔군을 지칭

반격계획 → 북한과 소련은 전쟁 전에 남침계획을 완비하고 남침 구실을 합법화하고자 사전에 ‘반격(反擊)’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또 전후에도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반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쟁전 북한은 『보병연대의 강행도하』(군관훈련강습소, 1949. 7)나 『보병연대의 행군』(군관훈련강습소, 1949. 8)과 같은 군사교범 및 각종 지침서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군사작전의 출발점을 반격작전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 사용된 반격이라는 용어는 곧 남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방전쟁’도 역시 남침전쟁을 의미한다.

##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독자의 이용에 편의를 주기 위해 분야별·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1, 2, 3, …

항 : 1), 2), 3), …

목 : (1), (2), (3), …

세목 : (가), (나), (다), …

: ①, ②, ③, …

《예외》 : ‘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목이 아니면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목’에 해당하는 (1), (2), (3)의 번호를 달았다. 본문에서 별도로 분리시킨 경우도 예외적으로 ①, ②, ③의 번호를 달기도 했다. 번호를 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번호 없이 본문 좌측 상단에 ‘고딕체’로 소제목을 표기하였다.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을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원문의 상태가 흐려서 판독불능인 지명 혹은 부대명 등을 추정할 경우와 주기의 성격을 띤 내용은 [ ] 속에 넣었다. 그리고 보

충적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 ]나 ( ) 안의 : 부호 다음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 ] 속이나 ( ) 속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는 [ ]를 이용하였다.

3. 한자의 표기는 저명한 지명일 경우는 가급적 생략하고,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와 중심적인 지역의 지명,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인 경우에 한하여 ( )나 [ ]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원문에 판독 불가능한 지명은 ○○○으로 표시하였다.
4. 본문에 나오는 잡지나 도서명은 『 』를 이용하였고, 신문이나 논문의 명칭은 「 」를, 기타 결의문·호소문 등은 ‘ ’를 이용하여 구분 표기하였다.
5. 본문은 소련의 문서를 번역한 것이므로 가급적 번역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이한 현대문으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과 적군측 사료인 점을 감안하여 본래 내용과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례》 반격, 해방전쟁, 제105땅크사단, 비행기 사냥꾼조,  
이승만군, 간섭군, 남조선군, 전사, 군관, 조선인민군 등

6. 이 책의 각 권별 목차는 가급적 본래의 보고서 제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중복이 되거나 지나치게 장문으

로 된 경우는 독자의 이해와 활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 변형시킨 제목으로 재편집하였다. 원문은 제4권에 모아서 참고하게 하였다.

7. 이 책의 각종 <표>의 명칭은 본래 명칭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용하되, 명칭이 없는 표는 본문의 내용과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명명하였으며, 각 권별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순번을 표기하였다.



---

## 목 차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한국어판 라주바예프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라주바예프의 생애  
라주바예프 약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일러두기

제 1 장 미군 포병운동에 대한 평가(1950. 7~12) ..... 1

제 2 장 조선인민군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  
(1950. 6. 25~1951. 7. 1) ..... 10

1. 기갑 및 기계화부대 작전 10
2. 작전경과 13
3. 서울 해방 후 제105땅크사단 작전 17
4. 제16기계화여단 작전 27
5. 제17기계화여단 작전 30
6. 기갑 및 기계화부대 운용에 대한 평가 33

---

<b>제 3 장</b>	<b>조선인민군 전투력 강화대책[1951. 4]</b> .....	<b>57</b>
	1. 조선인민군 재편성	57
	2. 조선인민군 현황(1951. 4. 1)	63
	3. 조선인민군 재교육	65
	4. 군단급 부대 간부 재배치	71
	5. 사기상태와 군당 정치사업	78
<b>제 4 장</b>	<b>조선인민군 포병부대(1951. 4. 1)</b> .....	<b>85</b>
	1. 포병부대 현황	85
	2. 재편성 및 임무	93
	3. 개선대책	97
<b>제 5 장</b>	<b>조선인민군 통신부대(1951. 4. 15)</b> .....	<b>99</b>
	1. 통신부대 재편성	99
	2. 인원 및 장비보충	105
	3. 통신부대 개선사항	109
	4. 통신부대 전투훈련	112



---

<b>제 6 장</b>	<b>조선인민군 공병부대(1951. 4. 15)</b> .....	<b>115</b>
	1. 공병부대 재편성	115
	2. 유격대 작전지원 및 해안방어 설비	117
	3. 교육훈련	122
	4. 인원 및 장비현황	126
	5. 공병부대 개선대책	127
<b>제 7 장</b>	<b>조선인민군 기갑부대(1951. 4. 10)</b> .....	<b>129</b>
	1. 기갑부대 재편성	129
	2. 교육훈련	132
	3. 전비준비태세	132
<b>제 8 장</b>	<b>조선인민군 공군(1951. 4)</b> .....	<b>134</b>
	1. 공군부대 재편성	134
	2. 부대지휘 현황	141
	3. 전투훈련	144
	4. 전투준비태세	146
	5. 공군부대의 보급	147
	6. 기술교육 운용	148

---

<b>제 9 장</b>	<b>조선인민군 해군(1951. 4)</b> .....	<b>156</b>
	1. 해군부대 재편성	156
	2. 부대지휘 현황	161
	3. 전투훈련	162
	4. 전투준비태세	164
	5. 해군부대의 보급	164
	6. 기술교육 운용	165
<b>제10장</b>	<b>후방상황(1951. 4)</b> .....	<b>168</b>
	1. 후방부대 재편성	168
	2. 후방지휘부 강화	168
	3. 전방부대 지원능력	169
	4. 군의국 현황(1951. 4)	175
<b>제11장</b>	<b>조선인민군 제5, 7군단에 대한 검열결과 보고서</b> <b>[1952. 6. 28]</b> .....	<b>183</b>
	1. 개 요	183
	2. 전투준비태세	185
	3. 작전계획, 전투, 사격 훈련계획	187
	4. 군관요원 및 참모 양성	189

---

5. 특과부대 및 소부대 훈련	190
6. 훈련시 병력 차출	190
7. 하사관학교 교육	190
<b>제12장 조선인민군 전선부대 상황(1951. 9~10)</b>	<b>199</b>
1. 미군 및 남조선군 작전	199
2. 전방부대 전황	200
3. 인원 재배치	201
4. 보급상황	204
<b>제13장 조선인민군에 대한 총결론[1951. 5. 11]</b>	<b>206</b>
1. 조선인민군에 대한 평가	206
2. 전선부대 상황에 대한 결론	209
<b>제14장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평가</b>	<b>212</b>
1. 제13병단의 작전(1950. 10. 27~11. 7)	212
2. 제13병단의 미군에 대한 작전(1950. 11. 26~12. 2)	213
3. 제9병단의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에 대한 작전(1950. 11. 27~12. 10)	215
4. 중국인민지원군이 평가한 미군 및 남조선군의 전투 능력	219
5.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능력	223

---

<b>제15장</b>	<b>개성회담시 남조선군과 유엔군의 활동</b>	
	(1951. 7. 10~1952. 1. 10) .....	233
	1. 개성회담 초기 전선상황	233
	2. 개성회담 중 전선의 변동	234
<b>제16장</b>	<b>피아의 작전 개관(1952. 1. 1~1953. 7. 27)</b> .....	240
	1. 양측의 병력배치	240
	2. 인민군과 연합군의 전투	242
	3.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의 작전(1953. 7. 13~18)	249
<b>제17장</b>	<b>미군 작전의 개관[1950. 7~1953. 3]</b> .....	258
	1. 미군 참전과 공격작전	258
	2. 소련 고문단 보고	283
	3. 미군 지휘부 편성	293
	4. 방어작전	301
	5. 상륙부대 운용	307
	6. 공수부대와 헬기	314
	7. 포병운용	319
	8. 공병지원	328

---

<b>제18장 미군과 남조선군의 포병(1952. 1. 15)</b> .....	<b>337</b>
1. 포병부대 현황	337
2. 지휘 및 통신	343
3. 전투대형 및 사격	348
4. 전투능력	353
<b>제19장 미군과 남조선군의 공병(1952. 3)</b> .....	<b>361</b>
1. 공병부대 현황	362
2. 방어지역 아전축성	366
3. 장애물 운용	368
4. 도로, 교량 및 도하작업	373
<b>색 인</b> .....	<b>385</b>

## 표 목 차

〈표 2-1〉 간부교육 및 재교육 현황(1951. 4. 15) .....	70
〈표 2-2〉 조선인민군 지도성원에 관한 정보(1951. 4. 1) .....	71
〈표 2-3〉 비행기 사냥꾼조의 성과 .....	80
〈표 2-4〉 민족보위성 산하 각급부대의 무기(1951. 4. 1) .....	86
〈표 2-5〉 조선인민군 탄약보급 상황(1951. 4. 1) .....	87
〈표 2-6〉 조선인민군 각급 포병부대의 통신기재 보유현황 .....	90
〈표 2-7〉 조선인민군 포병지휘부 성원구성 .....	91
〈표 2-8〉 통신부대 및 지대의 총 보충현황 .....	105
〈표 2-9〉 기본 유형별 통신장비 보충현황 .....	107
〈표 2-10〉 해안부대가 구축한 방어설비 .....	121
〈표 2-11〉 각 군단 공병장비 보급현황 .....	126
〈표 2-12〉 공병부대 인력충원 일람표(1951. 4. 15) .....	127
〈표 2-13〉 공병부대 차량보급률 .....	127
〈표 2-14〉 조선인민군 항공부대 현황 .....	135
〈표 2-15〉 공군부대 무선통신 기재 확보율 .....	143
〈표 2-16〉 조선인민군 항공기술대대 장비 보급률(1951. 4. 15) ...	148
〈표 2-17〉 조선인민군 후방 예비식량 현황(1951. 4. 10) .....	171
〈표 2-18〉 조선인민군 하복지급 일람표(1951. 4. 10) .....	172
〈표 2-19〉 각 부대 배치차량(1951. 4. 1) .....	173
〈표 2-20〉 유류 비축량(1951. 4. 1) .....	174
〈표 2-21〉 각 보병사단 전투 및 사격훈련 검열결과 .....	194
〈표 2-22〉 특수부대들의 전투훈련 검열결과 .....	195
〈표 2-23〉 후방부대 물품보급 상황(1951. 9. 1~28) .....	204

---

<표 2-24> 남조선군과 중국 제20군의 전력비교 .....	251
<표 2-25> 제9군단의 화포·박격포 보유현황 .....	339
<표 2-26> 제10군단의 화포·박격포 보유현황 .....	340
<표 2-27> 미군과 남조선 군대의 화포·박격포 총 수량 .....	340
<표 2-28> 피아 포병화기 기본 구경 비교 .....	342
<표 2-29> 미국·영국군 포병부대 구분 .....	342
<표 2-30> 미군 포로 증언으로 파악한 적 포병대대의 통신기재 ....	346
<표 2-31> 미군 포병의 탄약 소비량(1951. 12. 16~1952. 1. 16) ..	350
<표 2-32> 조선인민군 방어중심에 대한 미군의 포탄 할당량 (1951. 10. 1~7) .....	351
<표 2-33> 105mm 곡사포대대의 전투용 탄약세트 .....	354
<표 2-34> 미군 보병사단 포병참모부 조직도 .....	357
<표 2-35> 미군 보병사단 포병대대 조직도 .....	358
<표 2-36> 보병사단 야전공병대대 조직도 .....	376
<표 2-37> 야전공병부대 기술장비표 .....	376





## 제 1 장 미군 포병운용에 대한 평가 (1950. 7~12)

- (1) 조선에 투입된 미 보병사단들이 막강한 포병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지도부는 모든 유형의 전투에서 주요 타격세력으로서 임무를 공군에 부여하고 포병에는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 (2) 미군은 중요 방면에 4개 내지 6개 포병대대로 편성되는 대규모 포병집단을 조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제1제대에서 방어하는 보병연대에는 1개 포병대대가 보강되었으며, 공세를 취할 때는 2대 포병대대까지 보강되었다. 모든 유형의 전투에서 각 대대에 대한 중앙의 지휘통제가 유지되었다. 보병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전체를 1개 방면에 집중시키는 경우는 보여지지 않았다.
- (3) 보병에 배속된 포병의 사격 및 보병에 대한 지원임무 지휘는 보병지휘관에게 부여되었으며, 대공 및 대포병 사격의 경우에는 포병지휘관에게 부여되었다(군단포병지휘관, 사단포

병지휘관). 임무는 기본적으로 포대급 및 대대급 단위에 부여되었다. 사격임무의 수행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대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 각각의 포병대대로부터 4명의 장교가 파견되었는데, 그들 중 3명의 장교는 전방관측요원과 화력수정요원으로, 그리고 1명의 장교는 사격통제 및 보병과의 연락을 위하여 연락장비를 가지고 투입되었다.
- 사격임무나 표적확인 임무가 화력수정 장교에 의해 확인되면, 표적의 상태와 그 성격이 통신장교와 대대사격 통제반에 통보된다. 통신장교는 전방관측 장교로부터 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대대장에게 보고한다. 동시에 사격통제반은 포병중대들이 수행할 사격의 표적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한다.
- 대대장은 표적의 중요도, 전개되어 있는 상황 및 보병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포병중대장과 사격통제반에 어떠한 포병중대가 어떠한 표적에 사격을 가할지 결정하여 명령을 하달한다.
- 포병중대장은 포병중대 사격진지에 위치하여 대대 사격통제반장으로부터 표적에 대한 데이터를 수령하고, 포병중대에 명령을 하달한다. 이후 화력수정 장교와 사격통제반을 통하여 표적에 대한 수정사격(修整射擊)과 본 사격이 실시된다.

(4) 미군 포병에 의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사격수행 방식은 2개 내지 3개 포대에 의한 2km 내지 3km 중심을 갖는 집중사격이었다. 공격전에서는 연속적인 화력집중 방식이 이용되었다.

주요 표적에 대하여도 70문 내지 100문의 대포가 동원되는 2개 내지 3개 대대 이상의 화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전선 전투와 서울 전투에서만 확인되었다). 사격은 3분 내지 5분에 걸쳐 1개 내지 2개 포대가 순서에 따라 3발 내지 6발의 포탄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일제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대는 분당 1문의 포가 8발 내지 1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5분 이상 지속되는 사격의 경우에는 1문의 포가 분당 4발 내지 6발을 발사하였다. 포대의 경우에는 항상 1/2포대(포 3문)가 순서에 따라 일제사격을 가하였으며, 1/2포대간 사격간격은 10초 내지 15초인 형태로 사격이 실시되었다. 도로나 협곡, 산악애로 등에 대하여 각각의 간격이 100m 내지 150m 규모인 3개소의 포병사격으로 이동조애사격을 실시하는 경우가 목격되었다. 이는 대규모 전차중대에 대한 동시적 타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거리 사격이나 탄막을 운용하는 경우는 목격되지 않았다. 야간의 경우에는 4km 내지 5km의 유효 살상범위를 갖는 억제 및 피로사격[야간 요란사격]이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 (5) 박격포가 광범위하게 운용되었지만, 정확도에 있어 포사격을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박격포 사격은 광범위한 전선에 걸쳐 짧은 중심에 산개된 소규모 전투대형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60mm 박격포 사격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 (6) 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보병 전투대형이나 개별 표적들에 직접 사격을 가하는 기동화기인 전차의 이용을 제외한다면,

미군은 화포로 직접 조준사격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88mm 대전차포와 57mm, 75mm 무반동포[무반동총] 등은 조선 인민군 전차 및 병력과 대결에서 보병에 의해 비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 (7) 미군은 포병항공 관측이 운용하는 높은 수준의 정찰 및 통제장비 뿐 아니라, 대포병 및 대박격포 사격을 위한 포병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병은 항공기의 대포병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이 임무에 투입되었다. 관측소들에 대한 기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대포병 사격은 포탄의 정확도나 밀도 면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와 다른 점이 없었다. 포대를 파괴하기 위한 사격은 실제로 운용되지 않았다.

- (8) 적은 방어시에 중심 깊은 전투대형을 운용하였다. 중심에 2개 내지 3개의 예비 화기진지가 선정되었다. 대량의 예비탄약(800~1,000발)이 비축되었으며, 서로간에 유선통신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방어를 위한 진지구축 및 위장은 운용되지 않았다. 전단지역으로부터 포 방열지역까지의 평균 이격거리는 105mm 및 155mm 포의 경우 다음과 같았다.

- 방 어 시 : 4~8km
- 공 격 시 : 3~5km

- (9) 관측은 기본적으로 지상 및 항공기로부터 육안관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사진, 음향 및 레이더 관측이 목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단 예하 포병 부대들은 모든 종류의

관측장비들을 보유하였으며, 장교들은 이 장비들의 사용법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 사단 포병부대장은 10대의 항공기로 편성된 화력수정용 관측기를 보유하였는데, 그 중 8대는 포병대대의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각 대대당 2대), 나머지 2대는 사단 포병부대장 재량에 따라 운용되었다.

- (10) 미군 포병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탄약을 매우 많이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대는 방어시 하루에 1,000발 내지 1,200발의 포탄을 사용하였다.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의 포탄을 보유한 미군 포병은 대개의 경우 표적을 파괴할 때 많은 양의 포탄을 사용함으로써 기대한 결과를 얻어냈다.
- (11) 공격작전시 보병 및 전차에 대한 포병지원은 항공기와 밀접한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방어선을 돌파하는 경우와 적의 중간방어계선에서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동원하여 목표물에 강력한 공격을 실시한 후에, 포병이 동일 목표물에 2km까지의 중심을 갖는 짧은 시간(5~15분간) 동안 포격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 전차를 앞세우고 150m 내지 200m 뒤쳐져 보병이 목표물을 공격하였다. 전차는 5대 내지 10대가 1개 집단을 이루어 (때때로 드물게는 13~20대) 전장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보병은 소규모 집단들(일반적으로 소대)을 이루어 전개하였다. 보병 주력은 차량에 탑승하여 공격부대들의 300m 내지 1,000m 후방에 제2제대를 이루면서 뒤따랐다. 공격이 실패하거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 저항거점들에 대한 항공기의 공

격과 포격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저항거점들에서의 저항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반복되었다.

미군 전차는 포격에 매우 취약하였다. 제1제대 집단에서 2대 내지 3대의 전차가 파괴되는 경우, 대전차장비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차공격은 중단되었으며, 보병이 방어군의 대전차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리라 예상되는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전차공격이 재개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자주 목격되었다. 반격에 대한 방어시에도 포병은 반격지역에 항공기가 공격을 실시한 후에 짧은 시간(5~15분간) 동안 포격을 실시하였다. 그 후 항공기와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병이 전차와 협조 하에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반격집단의 전차 5대 내지 10대 중 단 한 대의 전차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차들은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그 지점에서 사격을 실시하거나 은폐를 위하여 그 지역에서 벗어났다.

- (12) 미군은 대구경(105~155mm) 곡사포체계를 보유하였는데, 이는 산악에서 궤도[차량]에 의한 기동을 광범위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동 구경의 막대한 포탄은 조선인민군 병력에 매우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 (13) 수정사격(修整射擊)은 기본적으로 감시소에서 이격되어 있는 전차나 항공기의 관측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대개의 경우 4발 내지 6발의 조명탄에 의해 시작되고, 그 후 세열포탄[시한신관을 결합한 고폭탄]이나 고폭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격통제는 보통 조명탄으로 하였다. 연막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이탄과 연막탄이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목격되었

다.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수정사격 방식은 개략적으로 배열된 유효한 3점 파열방식에 의한 표적획득이었다. 그 후 즉시 표적에 대한 사격이나 3발 내지 6발의 조준사격이 실시되었다. 75mm 이상의 구경을 가진 포를 위한 원격신관[시한신관]은 산악에서 수정사격을 매우 수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4) 미 해군은 1950년 7월부터(주로 동해에 연한) 연안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군의 지상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 부대, 도로, 항구, 둑, 포병 등이 해안으로부터 10km 내지 15km 중심에서 함포사격을 받았다(영덕, 천전동[영덕 부근], 포항동). 그 외에도 9월에는 해군이 야전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천(제물포), 포항동, 영덕 등의 주요 항구들에 대하여 수차례의 함포사격을 실시한 후, 함정을 동원하여 지상군을 상륙시켰다.

- (15) 미군 대대포병 지휘관들의 전투수행 능력, 특히 포병중대(포대)와 대대간 관계에서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대 및 연대 예하 박격포중대들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떨어졌다. 포병 장교들의 경우 사단·군단 간의 사격통제, 대전차방어계획 수립 및 조직 등에 있어 취약한 면을 보여 주었다. 이는 미군부대의 방어전 및 공격전 수행 전반에서 표출되었다.

대전차 포병 소속의 구성원들은 포격에 매우 취약하였으며 전차공격, 심지어는 매우 적은 수의 전차공격을 방어할 경우에도 견고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대개의 경우 사격은 전차

가 포의 유효사거리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실시되었다.

(16) 조선에서 미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대포·박격포 체계들이 운용되었다.

- 포                    57mm 및 75mm 무반동포  
                          57mm 대전차포  
                          75mm 산악용 곡사포  
                          105~155mm 야전 곡사포  
                          203mm 야전 곡사포[8인치]  
                          37~40mm 대공포
- 박 격 포        60mm 및 81mm 박격포  
                          106.7mm 박격포(강선이 있음)[4.2인치]
- 대전차로켓포60mm 및 88mm ‘바주카’

포병의 수송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신속기동용 트랙터가 운용되었다.

- ① 소구경포와 박격포의 수송을 위해서는 ‘빌리스(Villis)’, ‘닷지(Dodge) 3/4’ 및 여타 3.5톤 3축 견인차량들이 운용되었으며,
- ② 대구경포의 수송을 위해서는 2.5톤 휘발유 및 디젤 견인차량 ‘GMC’, ‘Studobekker’와 경전차 샤시를 장착하고 시간당 30km의 속도를 내는 장갑차형 11톤 견인차 등이 사용되었다.

(17) 전쟁에서 미군이 운용한 전차는 다음과 같았다.

- ① M-4 전차
  - 76mm 포            : 1문



- 7.62mm 기관총 : 2정
- 12.7mm 기관총 : 1정
- 전면장갑 40~60mm

## ② T-26 전차

- 90mm 포 : 1문
- 7.6mm 기관총 : 2정
- 12.7mm 기관총 : 1정
- 전면장갑 101mm

(18) 조선인민군이 대포병 공격을 위한 항공기 및 포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아무 때나 필요한 방향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포병을 차량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적인 위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장이나 화기진지를 위한 공병설비[포상] 등을 하지 않은 채 진지지역들에 대규모의 포병을 집결·배치시킬 수 있었다.

## 제 2 장 조선인민군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 (1950. 6. 25 ~ 1951. 7. 1)

### 1. 기갑 및 기계화부대 작전

#### 1) 전차 및 모터사이클부대 현황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의 창설은 조선인민군의 건설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평양에 배치된 소련군 제10기계화사단에 전차장, 운전병, 포장(砲長), 기술병 등과 자주포 분야 및 전차 전문군관 등의 전문분야에 따라 전차병 양성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3개월 간의 교육을 마치고 배출된 인력을 근간으로 1947년 12월에 제203독립교육 땅크연대가 조직되었다.

1948년 5월에는 제203교육 땅크연대에서 최초의 교육생들이 배출되어, 제105기계화여단의 창설에 투입되었다. 제203교육 땅크연대는 제105기계화여단 병력뿐 아니라 각 보병사단을 위한 6개 자

주포대대 병력과 차량화연대 운전병들도 배출하였다.

1949년 5월 교육연대 교육생들을 바탕으로 3개 탱크연대로 편성된 제105탱크여단, 1개 차량화연대 및 수색대대(모터사이클) 등이 창설되었다.

제105기계화여단은 평양에 여단참모부, 제107탱크연대, 정찰대대, 모터사이클대대 등이, 철원에 제203탱크연대가, 그리고 남천[개성과 사리원 사이, 평산]에 제109탱크연대가 배치되었다.

1950년 5월 장갑차량 및 모터사이클 등으로 장비된 제603경기계화연대가 창설되었다.

## 2) 전차 및 기계화부대 운용계획

조선인민군 지도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제105기계화사단의 2개 탱크연대(제107 및 제109연대)와 차량화 저격연대를 조선인민군 주공방면인 철원-서울 축선에 투입한다. 조공방면인 남천동(南川洞)-개성 축선에 제1사단과 함께 제203탱크연대(-1개 대대)를 투입한다.

부여된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주공 방면인 철원-서울 축선에 서는 제4 및 제3사단과 협조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 신읍리[포천] 지역까지 진출한 후, 제107탱크연대, 제109탱크연대 및 차량화 저격연대가 보병의 전과를 확대하면서 당일 오후 늦게 의정부 지역까지 진출한다. 전투 2일째 되는 날 제4 및 제3사단과 협조하여 서울을 점령한다.

제203탱크연대 예하 1개 탱크대대는 제4보병사단과 협동으로

철원-신망리-의정부 방면으로 공격한 후, 의정부에서 주공부대와 합류한다.

제203땅크연대(-1개대대)는 남천동(南川洞), 개성 축선으로부터 서울로 보조공격을 실시하고, 제1보병사단과 협동으로 서울을 서북방에서 점령한다.

제603차량화 저격연대는 제12보병사단이 적 방어선을 돌파하면, 춘천-홍천-원주 방면의 적 후방으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과 합류, 적의 병참선을 마비시키고 적이 서울로부터 후퇴하는 퇴로를 차단한다.

- (1) 인민군 기계화부대의 주공방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하지만 제107땅크연대와 제109땅크연대 및 차량화 저격연대를 위하여 선정된 진출로가 집중공격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즉 제109땅크연대는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 방치되었고, 38선을 돌파하여 13km를 진격한 후에 제107땅크연대의 진격로로 합류하여 동 연대의 후미를 따라 진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의정부까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당시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땅크대대는 독자적으로 제3보병사단과 함께 철원, 신망리, 의정부까지 양호한 경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 (2) 제603차량화 저격연대는 연대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로를 따라 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차량화부대 활동역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전선에 평행한 연락로도 없는 산악지형이 진격로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제603차량화 저격연대의 강점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생각컨대 제603차량화 저격연대는 예비로 두었다가 서울을 점령한 후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한 돌파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 2. 작전경과

### 1) 제105땅크여단의 서울 해방 및 한강 진출

#### (1) 제105땅크여단 예하부대의 임무

제107 및 제109땅크연대, 차량화 저격연대[제603모터사이클 연대] 등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되었다.

- 제107땅크연대는 제1차량화 저격대대와 함께 철원, 신읍리[포천], 의정부, 서울 경로를 따라 진격하여 북쪽에서 서울을 점령한다.
- 제109땅크연대는 제2 및 제3차량화 저격대대와 함께 철원, 화대리(신읍리 동북방 14km), 서파[소흘리], 부평리(의정부 동방 14km), 전도리[부평리 서남방 8km], 상리[현 상봉동 부근], 서울 경로로 진격하여 동쪽에서 서울을 점령한다.
-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제12보병사단을 뒤따라 진격하여 홍천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되며, 서울의 적 병력이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원 방면으로 진격한다.

#### (2) 각 방면별 전투행동

1950년 6월 25일 20분간의 포격을 실시한 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05기계화여단 예하 보병부대들은 적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을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늦게 제107땅크연대가 의정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제109땅크연대는 서파[소홀리]에 도달한 후 신읍리 [포천] 방면으로 진격방면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격에 적합한 도로가 없어서 계획된 경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제109땅크연대는 6월 26일 오후 늦게 의정부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4보병사단과 제203땅크연대 예하 제3땅크대대는 매우 강력한 적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1950년 6월 27일 새벽에 의정부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제1보병사단과 제203땅크연대 예하 제1 및 제2땅크대대는 임진강 선까지 진출하였지만, 적이 교량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도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격을 멈추고 교량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제203땅크연대 예하부대들은 1950년 6월 28일 오후 늦어서야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6월 27일 새벽 동안 주공방면인 의정부 지역에 집결해 있던 부대들이 재편성을 실시한 후, 여명에 맞추어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부록 No. 2 참조).

### (3) 의정부 - 서울 지역에서의 전투행동

적은 야간 동안에 공격군을 분산시킬 가능성 여부를 탐지하고 서울 지역에서 새로운 병력을 추진 배치하는 한편, 후퇴하는 병력을 함세시켜 6월 27일 아침에 황급히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교량들을 파괴하고, 일부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다.

한편 이때부터 이승만군의 수개 항공편대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107땅크연대, 제109땅크연대 및 차량화 저격연대 병

력이 제4보병사단 예하부대들과 협동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지만, 수유리 지역의 도로 좌우측 고지들로부터 적의 조직적인 소총과 기관총사격 및 포격에 의한 저항을 받았다. 소하천 및 관개용수로들에 놓여 있던 교량들이 파괴되어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으므로, 아군은 전투대형을 확산시키지 못한 채 행군제대 대형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부록 No. 3 참조).

#### (4) 제105기계화여단장의 결심

[제109땅크연대] 제1 및 제2땅크대대는 수유리까지의 진출을 최근임무로 하고 그 후 서울까지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적을 공격한다.

제3땅크대대는 도봉산(의정부 서남방 6km) 지역에 화기진지들을 구축한 후, 그 곳에서 제1 및 제2땅크대대의 진격을 화력지원한다. 이후 전차들을 화력지원하면서 점령한 적화력 은폐지역에서 다른 화력 은폐지역으로 진격한다.

차량화 저격연대는 논을 건너 고지의 적을 공격하며, 좌우측에서 전차를 엄호한다.

제109땅크 연대장은 이상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즉각 행동에 착수하였지만, 파괴된 교량들을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다. 제1땅크 대대장이 자진하여 대열의 선두에 섰으며, 그 뒤를 제2땅크 대대장이 따랐고, 세 번째 차량에는 제109땅크 연대장이 탑승하였다. 각 대대는 참모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진격하였다. 적은 서울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여단은 6월 27일 오후 5시 무렵에 최근임무를 완수한 후, 수유리 서쪽 3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대전차 장애물인 관개용 수로까지 육박, 6대의 전차만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머지 전차들도 계속적인 진격을 위해 도하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은 아군전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투입하였지만, 대전차 장애물을 넘어선 6대의 전차는 차량화 저격대대와 합동으로 6월 28일 새벽 0시 30분경에 서울로 돌입해 들어갔으며, 6월 28일 새벽 6시 무렵에는 5대의 전차가 사전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서울시가에서 먼저 이승만 정부의 중앙청, 교도소, 전신국 등을 점령하였다. 5대의 전차가 이 목표물로 분산 투입되었다.

한강교 점령의 임무를 부여받은 전차는 교량으로 가는 경로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시가지를 배회하였으며, 겨우 교량에 진출하였을 때는 이미 교량에 폭약이 설치된 후였다. 전차장은 교량을 건널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 교량은 6월 28일 아침에 적에 의해 파괴되었다.

6월 28일 새벽 6시, 주력이 서울로 진입해 들어갔으며, 서울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후 조선인민군은 3일간 그 곳에 머물러 이승만 군대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였다. 요컨대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적을 계속 추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적은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 3. 서울 해방 후 제105땅크사단 작전

## 1) 제105기계화사단 차량화 저격연대의 한강 도하

한강 도하구역인 공항지역에서는 적 2개 보병대대 병력과 1개 장갑차대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9일 새벽 차량화 저



〈T-34 전차〉

제 원	주	포 : 85mm	항속거리 : 200km
	중	량 : 32 ton	보조무장 : 7.62mm 기관총 2정
	속	도 : 55km/h	승 무 원 : 5명
	포탄휴대량 : 56발		

격연대가 아무런 소음 없이 한강 좌측[남측] 강변으로 도하하여 강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차량화 저격연대는 여명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 공항을 점령하였으며, 당일 오후 늦게 영등포에서 전투를 전개한 후 그 곳에도 진지를 구축하였다. 연대는 적의 맹렬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교량복구와 전차도하를 지원하였다.

1950년 7월 3일 도하가 완료되었다. 제109땅크연대는 한강에 얽은 여울이 없었기 때문에 철교를 통해 도하를 시작하였다. 7월 3일 새벽까지 제109땅크연대 소속 7대의 전차만이 도하에 성공하였다. 교량의 폭이 좁아 전차들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전차들은 무개화차에 실려 파괴된 장소까지 인력으로 이동되었으며, 목재로 수리된 곳부터 무개화차에서 하역되어 자력 이동하였다(부록 No. 5 참조). 미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차의 도하는 야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7월 4일 새벽 전차의 도하경험을 바탕으로, 제109땅크연대 소속 35대의 전차와 제203땅크연대 소속 자주포 16문이 도하하였다. 이후 나머지 모든 전차들이 도하하였는데, 그 중 대다수는 교량을 통하여, 그리고 일부는 당시에 징발되거나 건조된 나룻배를 통하여 도하하였다.

제105땅크 사단장의 결심에 따라 주공은 제3 및 제4보병사단과 협동으로 수원-천안 방면으로, 그리고 조공은 인천 방면으로 향하게 되었다. 각 연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제109땅크연대는 제4보병사단 예하 1개 연대와 함께 부평, 인천 방면으로 진격하여 7월 4일까지 인천을 점령한다.
- 제107땅크연대는 제4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와 협조하여 수원

방면으로 진격한다. 최근 임무는 7월 4일까지 수원을 점령하는 것이고, 이후 7월 7일까지는 천안을 점령한다.

제203땅크연대는 제3보병사단 예하 1개 연대와 협조하여 제107땅크연대의 좌측에서 동곡리[현 서울 도곡동 일대], 판교, 금곡리, 수원 방면으로 진격한 후, 제107땅크연대와 합동으로 수원을 점령한다. 이후 107땅크연대의 뒤를 따라 천안으로 진격한다.

## 2) 수원 점령 전투

1950년 7월 4일 아침 10시, 제107땅크연대가 진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적에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오후 4시 무렵에 수원 근교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그 곳에서 적의 소규모 저항을 받아 1시간여의 전투를 치른 후, 오후 5시에 제105땅크 사단예하 부대들이 수원에 진입하였다. 제203땅크연대 역시 적에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수원에 입성하였다.

제109땅크연대는 인천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부평(富平) 지역에서 적 병력 1,500명을 사살하였으며, 그 날 늦게 인천을 해방시켰다. 보병이 인천에 진입하자 동 연대는 사단과 합류하였다.

적 손실

- 장 갑 차 : 2대
- 57mm 대전차포 : 1문
- 차 량 : 10여 대
- 전 사 : 500명

### 3) 병점(餅店) 부근 전투

1950년 7월 6일 새벽 5시, 기계화사단은 진격을 재개하였다. 적 1개 보병연대 병력과 포병이 병점[수원 남방 7km] 북방 4km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는 이승만군 이외에도 미군이 투입되었다(부록 No. 6 참조).

T-34 전차 5대와 보병으로 구성된 선두부대가 적 방어중심으로 투입되었으나, 5대의 전차 전부가 포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미군이 최초로 이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방어중심에서 전차를 파괴하는 전술이 운용되었다.

#### 제105땅크 사단장의 결심

- (1) 자주포대대 및 땅크대대에 보병이 보강될 때까지 화기진지에서 적 화점들에 사격을 가한다.
- (2) 사단장 예비인 제2 및 제3땅크대대는 보병과 협동으로 병점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적을 공격한다.

아침 7시, 제13보병연대가 도착하자 13분간에 걸친 포격을 실시한 후 공격으로 전환하여 112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 및 제3땅크대대는 제13보병연대의 전과를 확대하면서 병점을 점령하였다.

### 4) 천안(天安) 부근 전투

제4보병연대는 제1군단 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제105땅크사단과 협동으로 천안, 조치원, 대전 방면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 임

무는 7월 7일까지 천안을 점령하고, 계속하여 조치원, 대전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적은 포병이 보강된 보병연대 병력으로 안성천(安城川)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간선도로 및 철로의 교량들을 파괴하고, 강변을 따라 지뢰를 매설하였다. 적 방어주력은 성환에 집결하여 있었다.

#### 제105땅크 사단장의 결심

- (1) 제107땅크연대는 차량화 저격연대와 함께 제4보병사단 예비 1개 연대와 협동으로 평택, 당현리[평택 서북방 10km], 동암리[천안 서북방 8km], 천안 방면으로 진격한다.
- (2) 제203땅크연대(-1개 땅크대대)는 제3보병사단과 협조하여 안성, 진천, 청주 축선을 따라 진격한다.
- (3) 예비대인 제109땅크연대는 제107땅크연대의 전과확대를 준비하면서 제107땅크연대의 뒤를 따른다.

#### (가) [107땅크연대의] 전투행동 과정

보병이 야음을 틈타 안성천을 도하한 후, 여명을 기하여 포병과 전차의 포격지원을 받으면서 당현리 방면으로 적의 방어지역 전단을 공격하였다. 적은 아군 보병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제107땅크연대는 강을 도하하여 후퇴하는 적을 추격, 7월 7일 늦게 천안을 점령하였다.

7월 8일 새벽 5시, 천안에서 조치원으로 진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신리[천안 서남방 24km], 구룡리[천안 서남방 4km] 지역에서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야음을 틈타 적이 그 곳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였다. 그에 따라 전투는 오후 2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2시에 적 항공기의 집중공습으로 인해 아군의 공격이 중지되었는데, 이 공습은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 제107땅크연대는 제4보병사단 예하부대들과 함께 방어로 전환하였다.

7월 8일에는 적 항공기가 대규모로 출현하였는데, 그 결과 아군의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7월 9일에 다음과 같이 부대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제107땅크연대는 예비대로 뒤 처지고 제109땅크연대가 전투에 투입되었다.

#### 제105땅크 사단장의 결심

- (1)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는 차량화 저격연대와 함께 제3보병사단과 협조하여 구룡리, 문주리[조치원 남방 6km], 대전 방향으로 진격한다. 최근 임무는 구룡리에서 적을 격파하고 유천리[천안 남방 13km] 지역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이후 계속 진격하여 조치원을 점령한다.
- (2) 제109땅크연대는 제3보병사단 제2연대와 협동으로,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가 유천리 지역까지 진출하면, 유천리-공주 방향으로 진격한다. 최근 임무는 광정리[공주 북방 17km]를 점령하는 것이고, 이후 금강을 도하하여 공주를 점령한다.
- (3) 제107땅크연대는 예비대로 제203땅크연대의 뒤를 따른다.

### (나) [203땅크연대의] 전투행동 과정

1950년 7월 10일 여명을 기하여 시작된 공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적 방어선을 비집고 들어간 제8사단과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는 하루 동안 대규모 항공지원을 받은 적의 격렬한 역습에 맞서야 했으며, 저녁 8시 무렵에야 방어선의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전투 결과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는 최근 임무만을 완수할 수 있었다.

7월 11일, 제109땅크연대는 제4보병사단과 협동으로 여명을 기하여 광정리 서북방 25km에 위치한 고지[현 현충사 부근 고지군]와 235고지를 공격하였으며, 오전 10시 무렵에 광정리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오후 늦게 금강까지 진출하였다. 7월 12일 여명에 앞은 여울을 이용하여 금강을 도하한 후, 7월 12일 새벽 6시에 공주를 점령하였다.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는 제8보병연대와 함께 진격을 개시하였지만, 적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고 7월 14일 새벽 5시에야 조치원을 점령하였다.

조치원에서 후퇴한 남조선군 제7보병사단과 미 제34보병연대는 미호천[금강 지류]과 조치원 지역까지 후퇴하여, 그 곳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 (다) 제1군단장의 명령

- ① 제3보병사단은 제107땅크연대,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함께 조치원, 부강리, 대전 방향으로 진격한다.
- ② 제109땅크연대는 제15보병사단과 함께 공주, 유성, 대전 방

면으로 진격하여 제3사단과 협동으로 대전을 점령한다.

- ③ 제203땅크연대(-1개 대대)는 제2보병사단과 함께 청주에서 미암리[증평 동북 2km], 괴산, 문경으로 진격한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적은 제24보병사단과 제27보병사단 병력으로 금강 선을 따라 공주, 미호천, 청주, 괴산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대전 지역에는 전차 53대와 57mm 대전차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제105땅크 사단장의 결심은 다음과 같았다. 7월 15일 하루 동안 금강과 미호천을 정찰하고 전차의 도하를 준비한다. 제3보병사단 예하 제7 및 제8보병연대가 미호천 대안을 점령하면, 제107땅크연대와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를 제3보병사단의 전과확대를 위하여 부강리, 대전 방면의 전투에 투입한다.

#### (라) [제107 및 203땅크연대의] 전투행동 과정

7월 16일 새벽 4시 30분, 제7 및 제8보병연대가 20분간의 포격을 실시한 후에 공격을 개시, 미호천을 도하하였다. 하지만 적의 역습으로 인하여 최초의 공격전개선으로 후퇴하였다. 제105기계화사단장은 제107땅크연대와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공주로 우회기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7월 18일 새벽 공주 지역에서 금강을 도하하여 7월 18일 새벽 6시에 금학리[공주 남방 1km], 유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정오에 유성을 점령하였다. 대전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7월 18일 오후 늦게 대전 남방 4km 지점의 철로까지 진출하였으며, 그 곳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결과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7월 20일 오후 2시 무렵 대전을 해방시켰다.

### 5) 대구 부근 전투

대구로의 진격에 나선 제105기계화사단과 제3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은 7월 22일 현리[현재 이원리 : 옥천 동남방 8km 지점]에 도달하여 금강의 적 방어부대를 격파하였지만, 금강 도하시 강 맞은편 명천리, 금정리 지역에서 적의 강력한 소총과 기관총 및 포사격을 받고 도하를 중지하였다. 7월 23일 제107 및 제203땅크연대 예하 1개 대대가 초강리 지역에서 강을 도하하여 오후 2시에는 오탄리 남방의 철도선까지 진출하였으며, 이후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계산리, 금정리 지역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 차량화 저격연대장의 결심

- (1) 차량화 저격연대는 영동을 남쪽으로부터 점령하기 위하여 금정리, 묘동리 방면으로 진격한다.
- (2) 제3보병사단 7연대는 533고지[백마산 : 영동 동북쪽 5km] 지역에서 간선도로를 감시·차단하기 위하여 탑선리[백마산 북쪽 3km], 우천리[백마산 동북 6km] 방면으로 진격한다.

7월 24일 오후 6시에 시작된 공격은 7월 25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7월 25일 저녁 8시에 영동을 점령하였다. 제7보병연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533고지 지역의 간선도로 점령에 실패하였으며, 그에 따라 적은 영동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

적은 영동에서 철수한 후 유리한 자연지형을 이용한 격렬한 저항으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광분하였다.

적 공군력의 대량 투입이 자주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였다. 진격은 야간에만 재개될 수 있었다.

7월 27일, 황간을 해방시키고 초강천에 도달하였다. 적은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동시에, 사전에 구축된 방어진지들을 보강하였다.

1950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격렬한 전투를 벌인 결과 제3보병사단이 제105땅크사단과 함께 낙동강에 접근하였다. 1950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낙동강 부근의 방어진지들을 돌파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8월 9일부터 아군은 방어로 전환하였다.

## ※ 결 론

- (1) 논 등의 단절지는 전차의 기동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적 지상군 부대의 저항이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5땅크사단은 적 보병부대를 격파하거나 혹은 적을 완전히 포위하고 적 후방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였다.

제105땅크사단은 도로를 따라 진격하면서 보병부대로 하여금 자기부대의 측방엄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전차부대의 진격속도를 보병부대의 진격속도에 맞추었다. 이에 따라 측방을 엄호하는 보병의 진격이 늦어져 측방이 노출되는

경우에, 도로를 따라 진격하던 탱크사단이 측방에서 적에게 사격을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곤 하였다. 그 결과 전차부대의 진격속도가 늦어져 보병부대의 진격속도까지 낮아졌다.

- (2) 당시 적의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적은 초기 전투행동에서 막대한 손실을 당함에 따라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막을 만큼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은 유리한 계선에 강력한 저항거점을 구축하고, 그 거점들에 대전차포를 보강하는 한편,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동방어전술을 채택하였다.

#### 4. 제16기계화여단 작전

1950년 6월 6일 철원에서 제16기계화여단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이 여단은 각각 21대의 T-34를 보유한 2개 탱크대대, 각각 450명의 병력을 보유한 2개 차량화 저격대대, ZIS-3[SU-76 자주포] 8문을 보유한 1개 포병대대, 76mm 대전차포중대, 자동소총중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기계화여단의 병력충원을 보면, 전차병은 제203교육탱크 연대에서, 차량화 저격병은 징병자들로부터, 포병 및 박격포병은 23일에서 30일간의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연대에서 충원되었다.

## 1) 무기 및 장비

T-34 전차 44대가 6월 16일에 지급되었다. 소총과 자동소총은 7월 22일, 박격포는 7월 25일, 대공기관총은 7월 28일에 지급되었다.

제16기계화여단은 기본적으로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조직되었다.

이들은 1950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철원역에서 기차에 탑승하였다.

기계화여단은 7대의 기차에 탑승하였다. 마지막 기차가 1950년 7월 31일 새벽에 출발하였다.

1950년 8월 4일 제16기계화여단은 서울에 도착, 이후 3일간 야간에만 한강을 도하하였다. 도하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당시 철교가 한 번에 1량 내지 2량의 화차만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제16기계화여단은 수원역에서 하차하였다. 360km에 달하는 수원, 천안, 공주, 논산, 전주, 남원, 순천 경로를 따라 순천으로 진격하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고서, 제16기계화여단은 8월 22일에 제1 및 제2땅크대대와 차량화 저격대대를 순천 근교에 집결시켰다. 당시 남아 있던 전차는 총 12대였다. 진격 중 적 항공기에 의해 6대의 T-34가 파괴되었으며, 전차 14대는 고장으로 뒤에 남았다.

## 2) 전투행동

적은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 병력으로 덕암리[덕암동, 순천 동방 2km], 샘목리[덕암리 북방], 350고지[봉화산, 순천 북동방 3km] 선에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당시 조선인민군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제47보병사단은 340고지[현 순천 남산, 순천 남서방 2km] 동북사면 구역, 순천 중심가, 석현리에 대한 공격정면을 확보하였다.

제16기계화여단은 순천 서북방 3km 정면을 확보하였다.

8월 23일 새벽 6시, 제16기계화여단 예하 전차 12대와 차량화 저격대대가 제47보병사단과 합동으로 순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도시로 진입, 철로선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적은 봉화산 방면으로부터 전차 10대와 차량화 저격중대 병력으로, 그리고 355고지 서측 사면으로부터 현남리 지역에 배치된 포병의 사격지원을 받는 전차 5대와 보병으로 역습에 나섰다.

제47보병사단은 공격에 늦었으며, 역습이 시작되었을 때 공격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제16기계화여단은 전차 6대를 상실한 채, 공격전개선으로 철수하였다.

1950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6기계화여단은 적극적 공세를 취하지 않은 채 전선 각지에서 방어임무에 투입되었다.

9월 16일 적이 공격을 시작하자 여단은 후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물포에 상륙한 상륙군이 서해 연안으로 신속히 진격, 여단을 포위하였다. 여단은 소규모 집단으로 분리되어 포위를 돌파하였다.

## ※ 결 론

- (1) 여단 창설에 부여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 즉 일부 무기는 전선으로 출발하는 날 지급되었으며, 전차 교육연대로부터 여단에 보충된 전차 승무원들은 단기훈련만을 받고 투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차 작동에 서툴렀다.
- (2) 여단에 주어진 전선까지의 이동경로가 지나치게 길었다. 또한 부여된 전투임무인 ‘서해 및 남해안에 잔존해 있는 소규모 적 집단들의 격파’도 부차적인 것으로, 사실상 여단의 진격을 곤란하게 하는 한편, 결정적 전투를 위하여 여단의 병력과 장비를 보존한 상태에서 이동을 마친다는 지도부의 본래 의도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 (3) 순천 부근에서 있었던 최초의 공격에서 보병사단과 기계화 여단 간의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공격에 성공할 수 없었다.

## 5. 제17기계화여단 작전

1950년 7월 6일 인포리(평양 남방 18km)에서 제17기계화여단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이 여단은 전차 21대씩으로 편성된 2개 탱크대대, 각각 450명으로 구성된 2개 차량화 저격대대, ZIS-3[SU-76 자주포] 8문을 보유한 1개 포병대대, 82mm 박격포 9문을 보유한 박격포중대, 대구경기관총 9정을 보유한 대공기관총중대, 모터

사이클정찰중대, 통신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기계화여단 병력 충원을 보면, 전차병은 제203땅크 교육연대로부터, 차량화 저격병은 징병자들로부터, 포병 및 박격포병은 15일부터 30일간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연대에서 충원되었다.

### 1) 무기 및 장비

T-34 전차 44대가 7월 16일에 지급되었다. 소총과 자동소총은 7월 22일, 박격포는 8월 7일, 대공기관총은 8월 8일과 8월 14일에 지급되었다. 제33, 34보병연대가 여단에 배속되었으며, 여단은 제17기계화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사단은 1개월 동안 훈련을 마친 후에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림역(평양 동남방 5km)에서 열차에 탑승하였다. 기계화사단은 기차로 이동하다가 한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개성 지역에서 다른 열차로 옮겨 탑승하였다.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제33 및 제34보병연대가 개성에 잔류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대들은 그때까지도 무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기계화사단의 나머지 부대들은 영주까지 기차로 이동하여 8월 28일에 기차에서 하차한 후 교동[군위 동남방 15km, 수서리 지역] 지역으로 진출, 그 곳에서 제2군단 작전지역으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단은 험준한 지형 및 적에 의한 제공권 제압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주에서 교동까지 90km의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하였다.

2개 땅크연대, 2개 보병대대, 자동소총중대, 정찰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및 장비지원중대 등으로 편성된 제17기계화사단은 8월 29일 기계에 집결하여 제2군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제17기계화사단은 400고지[현 신령 서북방 6km 화서리 부근, 갑령재를 감제할 수 있는 430m 고지]와 신령[영천 서북방 15km]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영천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격한다(부록 No. 7 참조).

이와 관련한 제17기계화 사단장의 결심은 다음과 같았다.

- 400고지의 적을 전차 5대와 정찰중대의 경기관총 20정으로 보강된 자동소총중대 병력으로 공격한다.
- 400고지를 점령한 후 2개 탱크대대를 투입하여 신령을 공격하고, 계속 진격하여 영천을 점령한다.

## 2) 전투행동

400고지에 15분간의 포격을 실시한 후에 T-34 전차 5대의 엄호를 받는 자동소총중대가 강력한 자동소총 및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400고지의 적을 공격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자동소총중대와 전차는 계속 진격하려 하였지만, 대포 및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적 보병과 전차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 계속적 진격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17기계화사단은 방어로 전환하였다. 전투결과 적은 1개 대대병력의 병사 및 장교를 상실하였고, 전차 2대, 40mm포 3문, 중기관총 6정 등이 파괴되었다. 제17기계화사단은 9월 15일까지 격렬한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이 구역을 방어하였다.



제17기계화사단은 9월 15일 제2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치산동[치산리, 팔공산 북동방 6km]-400고지 선을 제3보병사단에 인계한 후, 군단장 예비로 전환되어 교동에 집결하였다.

9월 16일 적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2군단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안동 북쪽 방향으로 총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제17기계화사단장은 제2군단장으로 부터 죽암리[상주 동방 9km], 안동 구역의 낙동강을 연하여 방어선을 구축, 적이 낙동강으로 진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제2군단의 후퇴를 엄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6. 기갑 및 기계화부대 운용에 대한 평가

### 1) 낙동강 방어작전 경과(부록 No. 8 참조)

9월 19일 적 선두부대가 낙동강에 도달하였으나, 인민군 제17기계화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적은 전차 3대와 장갑차량 1대를 상실하였다. 적은 계속하여 1개 보병중대 병력을 투입하여 기계화사단의 우측방을 우회, 계평동[안동 서방 7km] 지역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안동 서쪽 지역에서 안동-영주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7기계화사단이 포위되었다. 기계화사단은 하루 동안 포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전을 전개하였다. 9월 20일~21일 야간에 포위를 돌파하고 웅천동[안동 북방 13km]으로 진출하였으며 9월 21일 늦게는 영주에 집결, 영주 남방 2.5km 지

점에 있는 제방을 따라 우측방은 서천[낙동강 지류]에 의존하고 좌측방은 박봉산[389m, 영주 동방 5km]의 산줄기에 의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부록 No. 9 참조).

## 2) 전투과정

적은 9월 22일 아침 제17기계화사단의 방어선까지 접근하였으며, 계속해서 1개 보병대대와 전차 8대, 장갑차량 3대 등을 투입하여 공격을 감행해 왔다. 하지만 아군의 강력한 저항과 전차 및 자주포의 조직적 사격에 직면하여 적은 전차 2대와 장갑차량 2대를 상실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9월 22일 오전 10시, 적이 항공기 30대의 공중지원을 받으면서 재차 공격을 가하였으나, 이 공격도 우리 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날 다섯 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이 모두 격퇴되었다.

오후 4시경, 제17기계화사단장은 정찰병들을 통하여 적이 영주를 우회하여 풍기를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6시에는 적이 서울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수하였다. 당시 제17기계화사단장 예하에는 3발 내지 6발의 예비탄약을 보유한 전차 6대와 자주포 2대, 1 내지 2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류 차량화 저격병 250명 등이 남아 있었다.

9월 22일 저녁 8시, 기계화사단장은 1개 중대로 하여금 사단의 후미를 엄호하게 하면서, 나머지 사단 전력은 전차와 공병부대를 전방에 두고 자주포 2문, 대포 2문과 포병, 궤도차량 5대 등이 그 뒤를 따르는 전투대형을 유지한 채 풍기로 향하는 간선도로를 따

라 기동하여 풍기의 적을 격파하고 단양까지 후퇴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9월 22일의 이 후퇴 기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전차와 자주포의 탄약이 고갈되었으며,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1개 자동소총 중대는 전투를 벌이면서 영주로부터 후퇴하였던 것이다. 기계화사단장은 남아 있던 전차 4대와 자주포 1문을 파괴하고 전장에서 이탈하여 단양까지 도보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23일 늦게 기계화사단의 생존전력이 지휘부와 함께 단양까지 후퇴하였다. 단양에서 제17기계화사단장은 최고사령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생존 전차병과 기계화사단 지휘부는 [평안북도] 정주에 집결한 후, 병력을 보충하여 여단으로 재편성하라.’

무기와 장비의 보충을 위하여 서울에 남아 있던 기계화차량 연대들은 적이 총공격을 감행할 때에도 그 곳에 계속 주둔해 있었다. 9월 14일 인천에 상륙한 적 상륙군이 신속하게 서울로 접근해 들어왔다. 제33 및 제34차량화 저격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함께 서울 방어를 위하여 한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월 26일 적은 1개 보병사단 병력으로 한강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병사 및 장교 600여 명, 105mm 곡사포 3문, 60mm 박격포 10여 문, 81mm 박격포 4문, 중기관총 8정 등을 상실하고 공격을 중지하였다.

제33 및 제34차량화 저격연대와 사단 포병연대는 서울 방어부대와 합동으로 적의 맹렬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9월 29일까지 방어선을 유지하였다.

9월 29일 제33차량화 저격연대와 사단 포병연대는 서울 방어부대 및 제34차량화 저격연대의 후퇴를 엄호한 후, 다른 부대들과 합류하여 후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33차량화 저격연대는 적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다가 9월 30일 후퇴를 시작하였다.

### 3) 태천강(泰川江) 방어전

제17기계화사단은 정주 지역에 잔여병력을 집결시켜 동 사단을 근간으로 하는 제17기계화여단으로 재편한 후, 정주 지역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단은 1개 탱크연대, 1개 76mm 자주포대대, 1개 포병대대, 5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었다. 10월 23일에는 T-34 전차 44대와 승조원 40명, 76mm 자주포 12문, 76mm 포 4문 및 생산노동자들로 구성된 270여 명의 노무부대, 3개 저격대대 등이 보강되었다.

여단은 10월 23일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적이 공수부대를 숙천에 투하하여 북쪽 방면으로 진격한 후, 안주를 점령하였다. 제17기계화여단은 보유 전력으로 태천강과 황해 남부 해안을 따라 갈현동(정주 서남방 12km)과 박천 구역에 방어선을 구축한다. 각 부대의 방어 위치를 보면, 제1보병대대는 대령강을 따라, 제2보병대대는 장흥동[박천 북방 15km]에서 대령강 철교[태천 남동방 4km]까지, 제3보병대대는 태천강을 따라 배치된다.

이에 여단은 편성도 채 완료하지 않고 무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T-34 전차 44대, 76mm 자주포 12문, 76mm 포 4문 등과 함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부록 No. 11 참조). 미처 제공되지 않았던 무기와

탄약은 방어과정에서 각 참호에 직접 지급되었다.

10월 25일 적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은 대령강을 도하한 후 제1보병대대 구역의 사단 방어선을 4km 까지 압박하였지만, 인민군 전차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 공격을 멈추었다. 10월 26일 여명을 기하여 사단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적을 공격하여 강까지 격퇴시켰다. 하지만 사단은 항공기의 공격을 받고 재차 공격 출발지점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7일 적 보병이 전차 10대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결정적 공격을 가하였다. 전투는 10월 29일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제17기계화여단은 대규모 공중 집중공격과 보전협동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29일에 정주를 포기하였다.

10월 30일 제17기계화여단장은 신의주 지역으로 후퇴하여 1개 치안대대, 제583저격연대 예하 1개 대대, 대공포대대, 제47땅크연대(전차 10대), 신의주 위수부대 등과 합동으로 남시(신의주 남방), 비현[신의주 남동방 19km]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이 북쪽 방면으로 진격하여 신의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후의 일인까지 이 방어선을 사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적이 맹렬한 공격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적의 전진이 정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적은 400여 명의 병사와 장교, 전차 9대, 대전차포 6문, 기관총 12정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11월 2일 여단 예하부대들이 중국인민지원군과 연합하여 반격에 나섰다. 적은 격렬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각종 장비와 차량들을 남겨 둔 채 황급히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11월 7일 신의주에서 130km 떨어진 박천을 점령한 후, 적의 역

습을 격퇴하고 탈환한 지역을 유지하면서 청천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제17기계화여단은 지시에 따라 11월 11일 태천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장비와 병력을 보충받고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제17기계화여단은 11월 15일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재차 제17기계화사단으로 개칭되었다.

11월 23일 제17기계화사단은 정주에서 중국인민지원군에 포위된 미 제1보병사단과 제24포병여단 등의 적 집단을 격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국인민지원군과 협조 하에 5일간 전투를 벌인 결과, 적 집단은 80명의 병사 및 장교가 포로가 되고, 전차 2대, 대포 3문, 기관총 3정을 상실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2월 6일 제17기계화사단은 제1방어선을 초상리[희천 서북 8km], 낭림리[소백산 남방 8km], 신서리[홍남 서방 21km]로 하는 등 방어선을 연속적으로 구축하고 평양-강동-원산간 도로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의 뒤를 따라 제2제대로 진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단은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에서 위수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강을 따라 17km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2월 8일 적은 조선인민군 제1군단 정면에서 공격전으로 전환하여 제8 및 제47보병사단을 수원 방면으로부터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제17기계화사단장은 현 방어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펼쳐 적의 한강 도하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 4) 한강 방어작전 경과(1951. 2. 10~3. 13)

적은 제8 및 제47보병사단을 압박하면서 2월 10일에 한강에 도달, 계속하여 행주, 난지도 구역에서 한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의 조직적인 직접 조준사격에 의해 도하에 실패하고,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전차 3대, 차량 9대를 포함하여 많은 수의 전사상자를 냈다.

2월 11일 적은 영등포 지역에 제25보병사단 제○○보병연대[미 제25보병사단에 배속된 한국군 제25보병연대를 지칭] 예하 1개 보병대대와 전차 17대, 차량 30대를 집결시켰다. 오후 5시 30분경, 공군 공격기 27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전차 25대와 1,400여 명의 보병 병력이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행주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제17기계화사단 제34보병연대가 참호 속에 은거한 전차 5대 및 자주포 2문과 함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적이 도하를 위하여 집결할 당시에는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이 강 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제방에 진입하였을 때 500미터 거리에서 강력한 직접 조준사격이 이루어졌다. 이 전투에서 노획한 영국제 전차(75mm 포) 포장(砲長)은 전차 5대와 차량 약 12대를 파괴하였다.

2월 12일, 적은 철교지역에서 전투정찰을 실시한 후, 2개 중대 병력을 동원하여 일부는 뗏목으로, 그리고 일부는 파괴된 교량을 이용하여 도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보병사격을 통해 적의 도하 시도를

좌절시켰으며, 한 명의 적도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951년 2월 12일 야간에 제17기계화사단 제33보병연대 예하 2개 소대가 영등포 지역을 기습침투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 적 진영은 혼란에 빠졌다. 이 소대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8대의 탄약 수송차량과 유류 저장소를 방화 혹은 파괴하고, 1개 보병대대 병력을 분산시켰으며, 경기관총 8정, 중기관총 5정 등을 노획한 후 여명을 기하여 복귀하였다. 이 작전에서 아군은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2월 13일 중대 병력으로 재차 수행된 영등포 서쪽에 대한 기습 침투공격은 적에게 보다 큰 혼란을 주었으며, 아군은 적병 90명을 살상하고 탄약창고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차량 4대와 전차 3대를 전소시켰다. 이로 인해 적은 강변에서 철수하여 영등포 남방고지를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사단 정면에서는 2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적극적 전투행동이 벌어지지 않았다.

3월 13일 제1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7기계화사단은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제1군단 예하부대들과 함께 서울에서 개성 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제17기계화사단 제33보병연대는 군단 전체가 개성까지 후퇴하는 것을 엄호한 후에 사단과 합류하였다.

4월 29일 제17기계화사단은 사리원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5월 15일 제17기계화사단은 서해 연안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울 방어전에서 적이 입은 손실은 다음과 같았다.

- 장교 및 사병 전사 : 1,400여 명



- 포 로 : 3명
- 항공기 격추 : 33대
- 전 차 : 15대
- 차 량 : 40대
- 기관차 파괴 : 1량
- 화차 파괴 : 4량
- 경기관총 및 중기관총 파괴 다수

아군은 적 전차 14대, 60mm 박격포 6문, 차량 17대 등을 노획하였다.

## ※ 결 론

### 조선전구에서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운용

- (1) 협곡, 많은 수의 관개용 수로와 논 등이 있는 산악지형에서 전차를 운용할 때, 승조원, 소대, 중대 등은 보병과 자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대대나 연대의 경우에는 산악에서의 통신이 두절됨으로 인하여 보병과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차병을 훈련시킬 때는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위한 특별교육이 요청된다. 즉 전차 승무원들을 교육할 때 그들이 심하게 경사져 있거나 구릉 및 저지대 등 산악에서의 사격이나 전술적 행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차 승무원들은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지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급회전 및 급경사 등이

있는 협소한 도로를 운행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보병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차의 기동과 사격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 전차 조종수의 양성은 전차의 생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조종수 교육시 급회전을 동반하는 협소한 도로 및 고개 등에서 최소한 10시간의 실제 운전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

(2) 산악지형에서는 보병 및 포병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소규모 집단으로만 전차를 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전차와 포병의 협조체제, 전차, 보병 및 공병 간의 협조체제가 치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훈련시에는 소대급 이상의 협조체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공격전을 수행할 경우에도 전차를 5대 내지 10대씩의 소규모 집단으로 운용하거나, 주요 방면에 기계화사단 전체를 전투대형을 갖춘 채 단일 경로를 따라 진격시킬 수 있다.

- 땅크연대는 선두에 공병과 보병이 보강된 전차중대를 두고, 측방에 진격선과 평행하게 저격부대를 두면서 산개대형으로 도로를 따라 진격한다. 이 경우 전차는 보병의 진격속도에 자신의 진격속도를 맞추어야 하며, 사격을 통하여 보병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계화사단을 그와 같은 형태로 운용할 경우 취약점으로는 적의 공중 공격과 느린 진격 속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기계화사단의 공격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계화사단 전투대형 전체에 대한 대공엄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4) 기계화사단의 공격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계화사단과 보병부대들간, 전차, 포병, 보병 및 공병간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격계획 수립에는 최소 3일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실제 공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사단에서 각 소대에 이르기까지 도상 혹은 모형사관으로 전투에서의 패배 혹은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단 참모부들은 기계화사단과 보병사단 간의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때때로 연락군관을 통하여 군단장의 명령을 구두로 전하는 것 이외에는 공식적이고 특별한 지도를 하지 않았다. 기계화사단은 전투 투입시 충분한 포병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전차는 과도한 손실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전력의 일부를 측방업화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항공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차 및 기계화부대들은 많은 손실을 당하였으며, 주간공격은 전면 중지되고 야간 혹은 여명에만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전차들은 현지에서 신속하게 위장되었지만, [관독 불능=위장이 불량할 시에는 적 정찰기에 발각되어 파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5) 방어전에서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운용은 전차의 강력한 사격과 적 포병 및 전차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공병장애물의 효과적 결합을 보여 주었다. 방어시에는 많은 수의 전차가 고정진지에서의 화기로, 그리고 일부는 예비로 운용될 것이다. 방어시 화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저지대에 연하여 측방사격을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정진지에서의 화기로 운용되는 전차는 기관총

사격을 통하여 전차공격조를 엄호해야 한다.

(6) 해안지역 방어시 전차의 운용

전차는 해안지역 방어시 언덕 사면에 땅을 파고 고정시켜 넓은 수평사격 정면을 갖는 고정진지에서의 화기로 이용될 수 있다. 화점이 되는 전차의 위치는 해안선에 되도록이면 가깝도록 선정해야 한다.



<미군 M-26 퍼싱전차>

제 원	주 포 : 90mm	포탄휴대량 : 70발
	중 량 : 39.1 ton	보 조 무 장 : 30구경 기관총 2정
	속 도 : 40km/h	50구경 기관총 1정
	항속거리 : 160km	(한국전투입('50년 8월))
	승 무 원 : 5명	* T-34 전차에 대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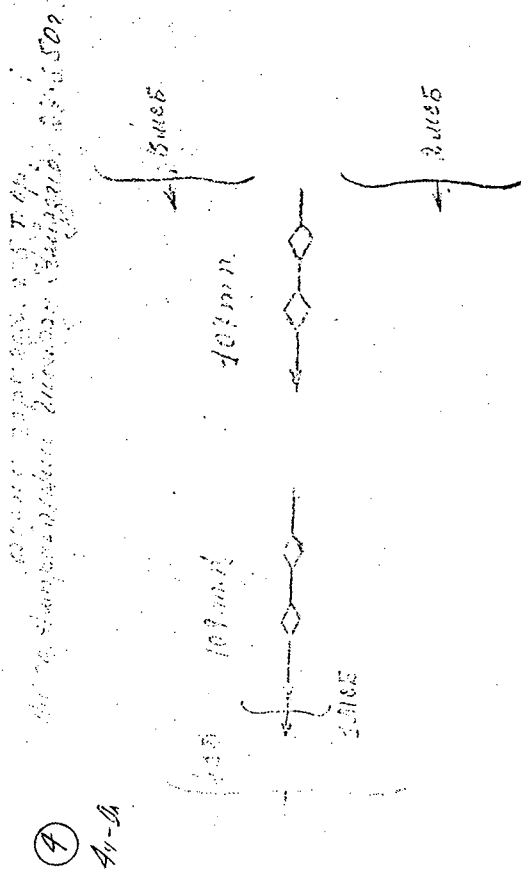
전차의 수가 충분한 경우 일부 전차는 역습이 예정되어 있는 방면의 경로와 사격지점 등이 사전에 준비된 예비대로 운용할 수 있다.

### 미군의 전차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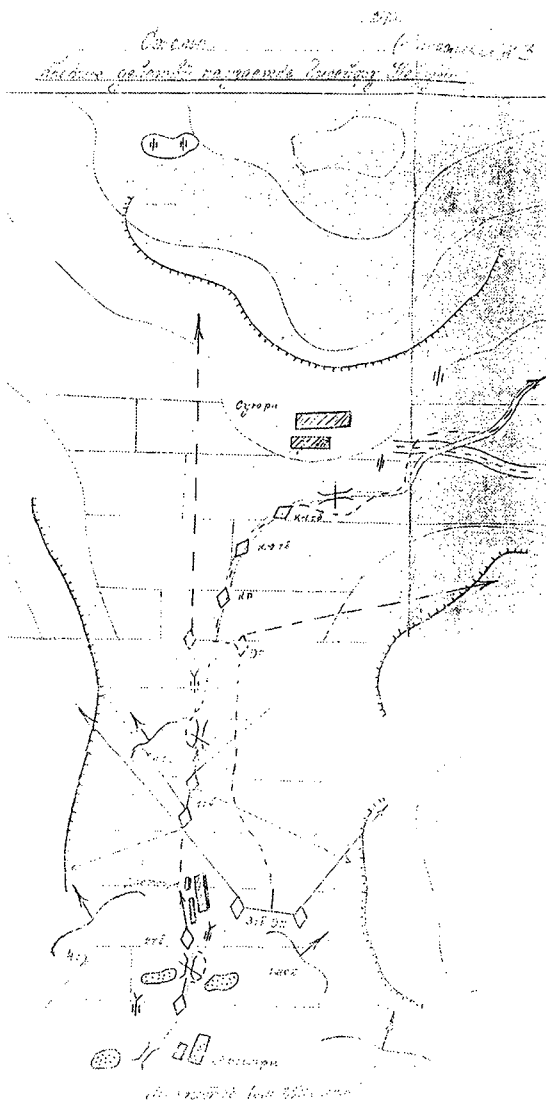
조선전구 전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적의 전차운용은 조선인민군의 전차운용과 유사하였다. 즉 공격은 측방에 보병을 동반하고 소규모 집단으로 도로를 따라 산개대형으로 이루어진다.

방어시 전차와 자주포는 고정진지에서의 화기로 이용되지만, 상당부분은 예비로도 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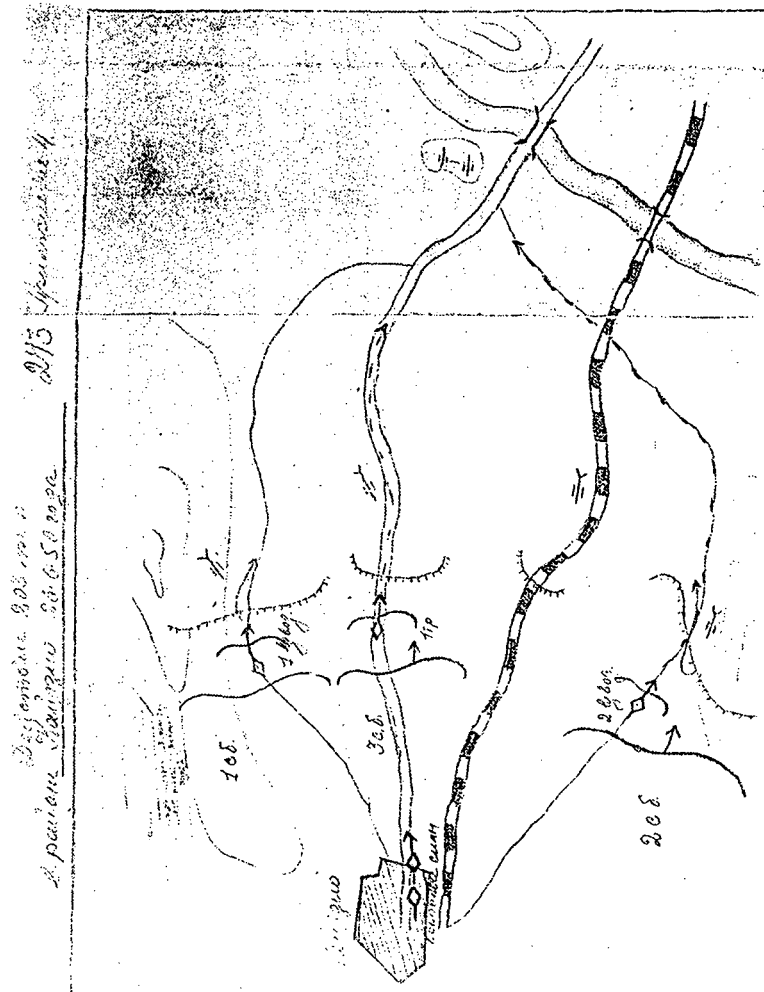
부록 No. 2 1950년 6월 27일 의정부, 서울 방면에서의 제105전차여단 전투대형



부록 No. 3 의정부, 서울 지역에서의 전투행동도



부록 No. 4 1950년 6월 26일 개성 방면에서의 제203땅크연대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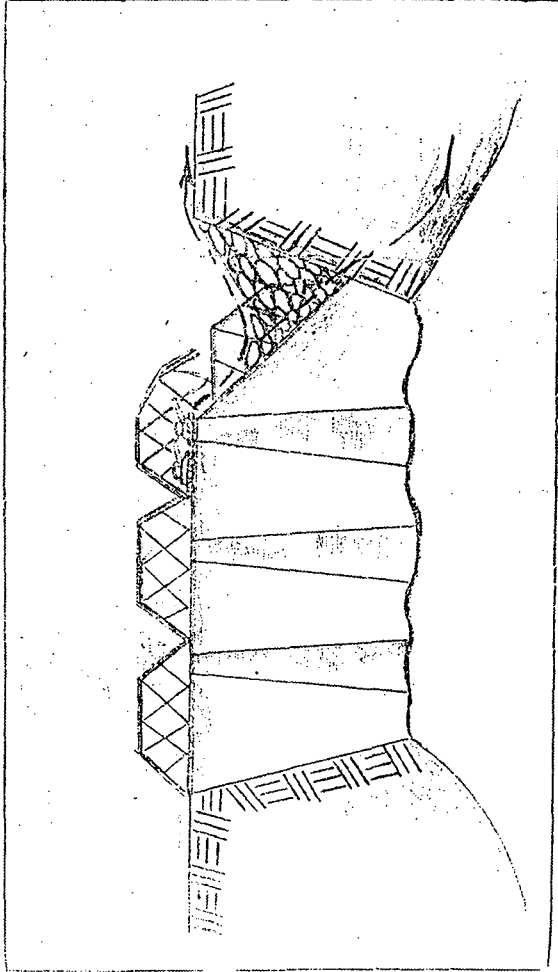


부록 No. 5 서울 지역 한강에서의 전차 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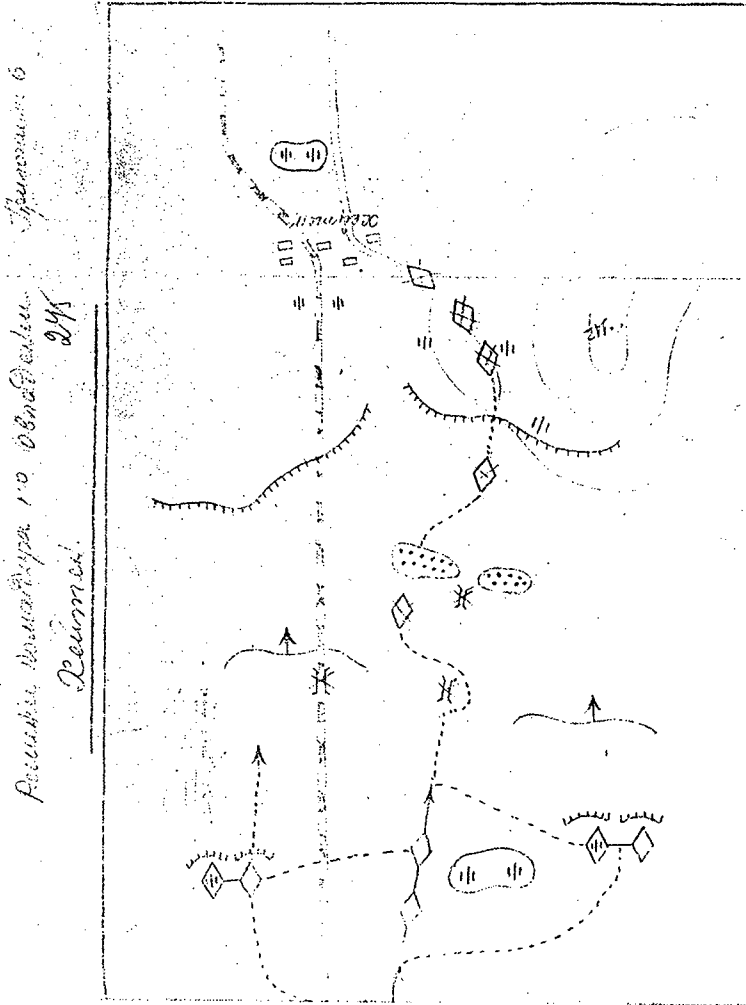
244 *Спереди*

*Числа в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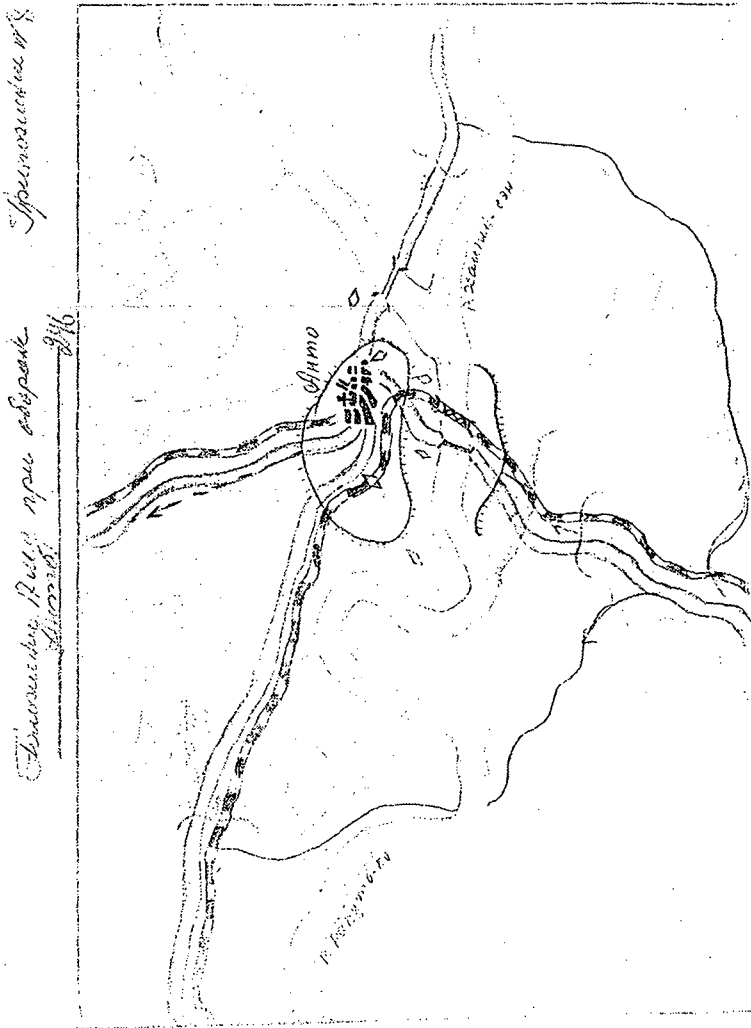
*Переправа танков через р. Хан-го в районе Квандж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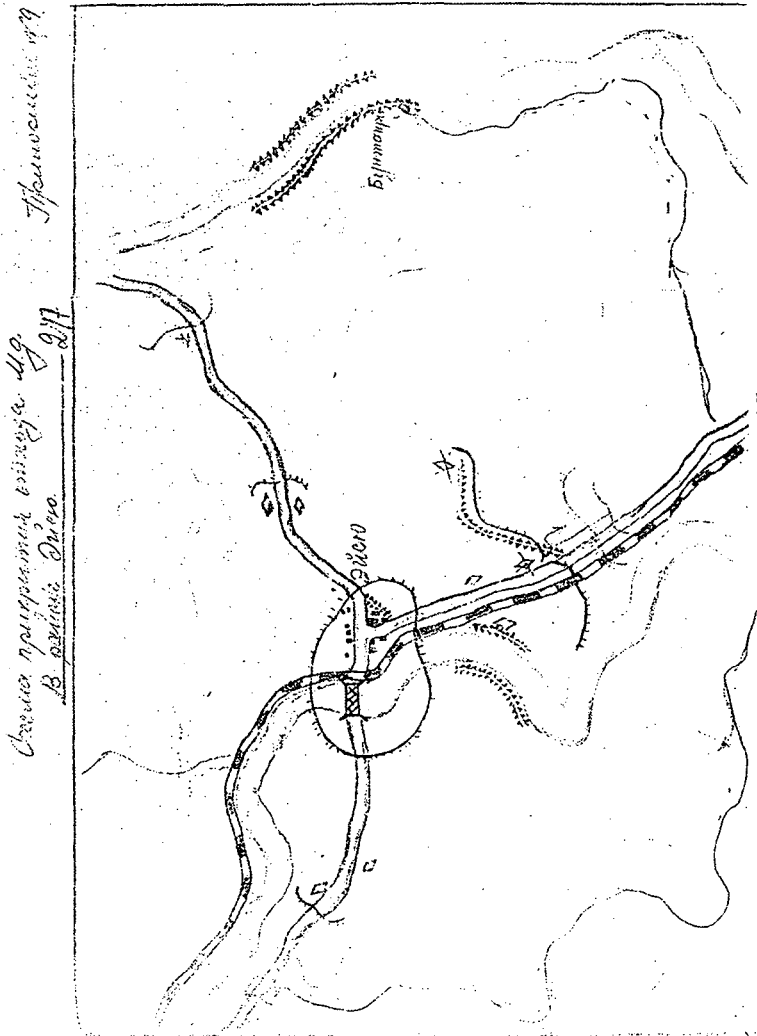
부록 No. 6 병점 점령 관련 지휘관(제105땅크사단장)의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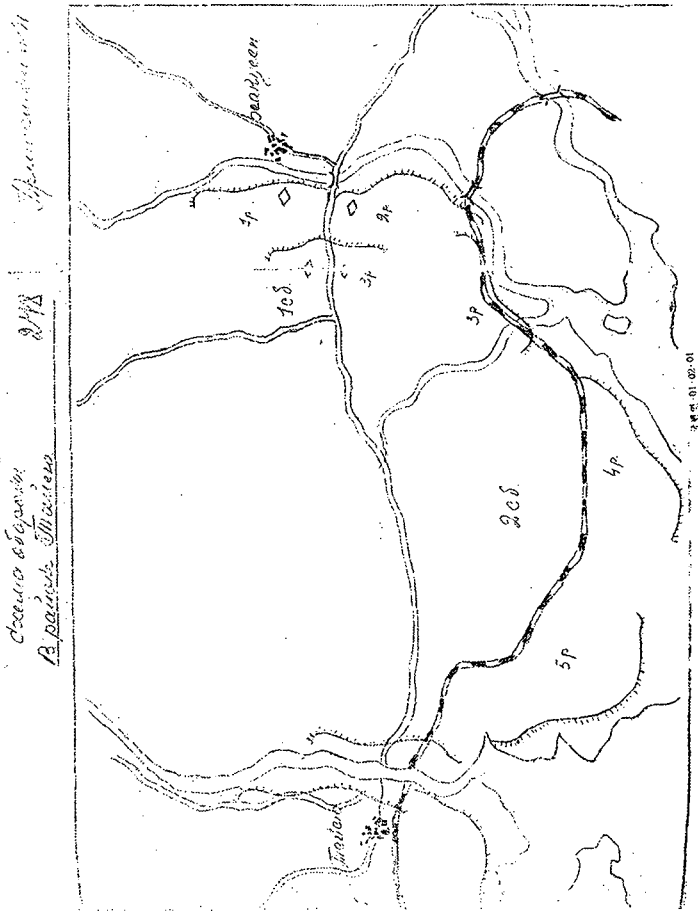
부록 No. 8 안동 방어시 제17기계화사단 상황



부록 No. 9 영주 지역에서의 기계화사단 방어도



부록 No. 11 정주 지역 방어도





소련군 총참모장 슈테멘코(Штеменко С. М.) 동지 수신

1951년 4월 조선인민군 부대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첨부 : 144쪽

1951년 5월 4일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Разуваев)





## 제 3 장 조선인민군 전투력 강화대책[1951. 4]

### 1. 조선인민군 재편성

조선인민군 부대는 후퇴(1950년 10월~12월)로 인해 군관과 특히 하사관들의 심대한 손실을 입었다.

포위망에서 벗어난 부대들은 대체로 독자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위이며, 총기조차도 지니지 못한 분산된 부대(소집단)가 되고 말았다. 포병물자, 통신기재, 기타 견인장비가 필요한 군사장비들은 수송수단의 심대한 손실로 말미암아 대다수가 방치되고 말았다.

전선의 실패로 인하여 군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었으며, 이 저하된 사기는 중간계선을 방어하는 군대의 저항력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적은 조선 전체의 병참선에 대해 공중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면서 주요 철도를 파괴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탄약, 식량, 기타 군수품들의 보급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청천강, 덕천(德川), 함흥을 연하는 선으로 군대를 후퇴시킨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실질적으로 미군과 남조선군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지속하려는 조선인민과 민주정부의 결의는 조선로동당의 지도 하에 조선인민을 진보적으로 재단합시키고 미 식민주의자들을 자기 조국의 국경 밖으로 축출하려는 노력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군 지도부와 생존한 군관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막대하고도 난해한 임무들이 부여되었다.

-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것
- 부대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것
- 각급부대에 인원과 무기를 보충하고 보충된 인원을 교육하는 것
- 하사관과 군관 등 필요한 간부를 교육하는 것
- 특히 지휘관으로서 전투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모든 제대의 참모군관들을 교육하는 것
- 끝으로 공세로의 전환을 위한 예비자원을 축적하는 것

이들 임무의 해결방안은 군 총참모부와 참모부 지휘기구를 부분적으로 축소하여 현역부대의 군관요원을 증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사업을 위해 1950년 11월 28일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견고하고 단일한 군조직 구조(총참모부에서 개별부대에 이르기

까지) 확립

- 새로운 구조에 따라 새로운 정원표를 작성할 것. 이전에 존속한 모든 것은 완전치 못한 것이므로 폐지할 것. 각 병과의 사령관이 총참모장의 승낙 없이 정원변경을 절대 금지시킬 것
- 총참모부와 군단지휘부의 지휘기구를 20~40% 감축하고 면직된 군관들을 각급부대 보충인원으로 돌릴 것
- 군관 구성의 연구 및 그들의 해당 보직의 적합성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1950년 12월 15일부터 1951년 2월 1일까지 증명하고, 추천 및 필요한 부서 이동을 실시할 것. 가장 잘 훈련된 구성원들을 참모사업에 배치할 것
- 전시에 지휘업무에 배치된 군관들의 이론지식 보충 및 습득을 위해 군관학교 산하에 3개월 과정의 강습을 실시할 것
- 참모군관(반, 대대, 사단)의 양성을 위해 군 지휘부 산하에 단기 강습(월간학습)을 실시할 것
- 다른 범주의 참모군관들의 기능 업무 숙련과 지식의 연마를 위하여 지휘관 학습 및 참모훈련 체계에 포함 실시할 것

1950년 10월 조선 북부 영토에서 필요한 예비병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3개 군단 사령부 예하에 9개 보병사단과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다. 창설된 각 부대들은 무장, 훈련,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지방으로 이동하였다.

### 1) 예비병력의 훈련

만주에서 군대의 기본적인 전투준비 조직을 위하여 특별히 작성된 프로그램(5개월 교육예정)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

에서 미침략자들과의 전투경험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부문은 소부대(분대·소대·중대·대대) 훈련과 발달한 도로조건, 전선에 평행하게 연한 도로조건, 그리고 소로마저도 제한되어 있는 산악조건에서의 작전훈련에 있었다. 공격시 주력훈련은 통상 포위 및 적 후방 돌파와 연계되었다.

방어시에는 감제고지, 기동로, 산악애로(隘路)에서의 방어조직에 큰 관심을 두었다.

다수의 부대들은 해안방어와 관련하여 제기된 전투임무에 따라 행군 및 반격훈련을 받았다. 산악조건에서 총기 조준사격을 훈련하였는데(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왜냐하면 전투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산악 사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을 시 경보병화기 사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군대훈련 과정에서 참모부 소속 군관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단계의 지식교육 및 숙달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50년 11월 전반기에는 각 부대별 지휘관 소집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제시된 학습방식에 의한 전술훈련과 기타 계획된 중대와 대대의 학습진행 방식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소집은 군단의 경우 연대장들을, 사단에서는 대대장과 중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 교육훈련과 물자보장

만주에서 전투훈련은 매우 험난한 조건 속에서 실시되었다. 무

기도 없을 뿐 아니라 학습도구와 참고서도 없었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인원들의 재능과 창조성, 제안 덕분에 전투훈련 과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소총, 기관총, 대전차 로켓포, 박격포 등 각종 모조무기가 제작되었고, 여러 사격도구, 사격장 시설, 돌격지대, 운동장이 마련되었다. 1951년 1월까지 부대들은 무기 없이(모조품을 가지고) 훈련하였다. 그럼에도 전사의 개인훈련과 특히 전술, 제식, 체력 훈련에 대한 조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951년 1월(무기 수령 후에) 소대, 중대, 대대의 조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부대들은 전술훈련만 받았고 자체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51년 1월 말경, 만주에서 교육을 이수한 부대에는 기본 계획에 따라 전투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은 해당 부대들이 전장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음을 보여 주었다.

전투훈련에서 가장 높은 성적 및 조직도는 7군단 예하부대들이 차지하였다.

### 3) 조직 재편성

195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직정원 조치 결과, 50개의 개별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중에는 2개 비행사단, 비행기술사단, 2개 비행장 건설대대, 비행장 건설노동연대, 3개 고사포연대, 1개 철도 건설연대, 3개 독립땅크대대, 12개 자주포대대, 3개 독립통신

대대, 최고사령부 예하의 3개 예비연대, 기타 부대가 포함된다.

- 제105땅크사단은 기계화사단으로 재편되었다.
- 도로국 기관 및 부대(이전에 존속한 3개 도로국 및 16개 독립도로건설대대 대신에 3개 독립도로건설연대가 편성되었다.)
- 독립항공기술대대들은 독립항공기술사단으로 재편되었다.
- 교육기관 및 군관 예비부대가 재편되었다.
- 후방부대 및 기관, 포병부대, 병원, 최고사령부 지휘부서 등에 새로이 감축 편성된 정원표가 적용되었다.

52개 부대 및 기관이 해체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5개 보병사단(제38, 41, 42, 46, 48보병사단), 2개 보병여단(제31, 69보병여단), 33개 독립보병연대, 4개 수의시설, 9개 병원, 12개 독립 통신중대, 1개 화물 수송대대, 3개 육운국, 제8군단 야전국, 기타 군단 예하부대들이 포함되었다.

전투물자(무기, 전투장비 등)의 확보에 따라 국, 기관,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의 조직편제와 정원구조는 정리되었으며, 과잉의 상부구조 내에서 후방시설이 해체되었다. 이것은 군대 지원체제의 향상을 가져왔다.

해산된 사단 및 여단의 인적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은 23,816명은 차출되어 전투보충부대로 이관되었다.

모든 병과 편제 및 정원표가 조직구조와 전투임무에 적합하게 도입되었다.

전투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충을 위한 예비인력의 모집 및 훈련을 목적으로 최고사령부 예하에 12,000명으로 구성된 3개의 예

비연대가 편성되었다. 이들 연대의 인원이 30,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동원징병자들의 충원에 의한 것이다. 그 밖에도 제1, 2, 3, 5군단 예하에 손실을 보충하는 예비연대들이 있다. 이들 연대는 병원에서 퇴원한 인원들로 충원되고 있는데, 이후에는 최고사령부 예비연대의 보충대대로부터 충원될 것이다.

하사관 예비병력의 양성 및 충원은 특수교육부대(각 군단 예하 전차교육연대, 통신교육연대, 공병교육대대, 포병교육연대, 보병교육연대 등)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 2. 조선인민군 현황(1951. 4. 1)

### 1) 지휘기관

- (1) 총참모부, 각 병과 사령부, 최고사령부
- (2) 야전전선사령부. 전선 구성에는 4개 군단(제1, 2, 3, 5군단)이 포함된다.
- (3) 7개 야전군단 사령부는 제1, 2, 3, 4, 5, 6, 7군단이다.

### 2) 군단 편성

군단 예하부대에는 독립통신대대, 독립공병대대, 독립차량운송대대, 군단예비연대, 교육연대, 군관예비대대, 2개 내지 3개의 야전이동병원, 군단보급기지가 있다.

전투부대인 제1, 2, 3, 5군단 예하에는 3개 보병사단이 있으며, 제4군단에는 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1개 보병여단이 있다.

제6군단에는 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이 있다.

제7군단에는 4개 보병사단과 2개 보병여단이 있다.

### 3) 보병사단 편성

사단사령부, 3개 보병연대, 포병연대, 대전차포병대대, 고사포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정찰중대, 수송중대, 의무대대, 후방부로 구성되며, 보병사단의 편제상 정원은 10,082명이다.

### 4) 기계화사단 편성

사령부, 전차연대, 2개 기계화연대, 독립고사포대대, 76mm 사단포병대대, 자주포대대, 120mm 박격포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정찰중대, 수송중대, 의무대대, 기술지원중대, 행정중대로 구성되며, 기계화사단의 편제상 정원은 6,880명이다.

제105기계화사단은 2개 전차연대, 포병연대, 산악포병대대, 기술보장대대, 기타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05기계화사단의 편제상 정원수는 9,001명이다. 5월 1일자로 기계화사단들은 단일 편제로 바뀌어진다.

### 5) 보병여단 편성

사령부, 6개 보병대대, 포병대대, 120mm 박격포대대, 기관총중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정찰중대, 의무중대, 수송중대, 후방부로 구성되며, 보병여단의 편제상 정원은 5,223명이다.

### 3. 조선인민군 재교육

#### 1) 간부 현황

전쟁발발 초기(1950년 6월 25일경) 조선인민군은 군관 예비대가 없었다.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에는 15일부터 20일까지 단기 강습을 마친 군관들이 파견되었다. 그와 같은 병력보충은 부대의 전투력을 오히려 저하시켰다.

현재는 부대들이 양적으로 충원되었을 뿐 아니라 각 군단 및 최고사령부 예비대의 예비군관들이 보충되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1950년 11월부터 군관학교 재교육 강습은 5개월 내지 6개월에 걸친 보다 장기간의 교육기간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금년 4월에 5개월 내지 6개월간 필수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일부 군관들로 전선부대를 충원하고 군사교육을 못 받았거나 또는 미미하게 받은 군관 일부를 이들로 교체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1951년 4월 15일 보병소대장 647명, 공병 114명, 통신 88명, 포병 400명, 고사포병 223명, 탱크 212명 등 도합 1,684명이 군관학교에서 배출되어 작전 중인 제1, 2, 3, 5군단에 주로 배치되었다.

같은 시기에 214명의 보병군관이 자질향상 강습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는 대대장반 95명, 사단참모군관반 30명, 연대참모군관반 89명이며, 포병군관은 134명이 강습(포병대대장 6명, 참모군관 19명, 포병중대장 103명)을 받았다.

강습 이수자들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4월 15일까지 4개월 반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인원보충 및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인원들과의 교체를 위해 군에 파견되었다.

1951년 3월 17일 군부대 충원을 위해 최고사령부 예비교육연대에서 1,471명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본 연대에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15일까지 3개월 반 동안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모든 조치는 부대의 전투력 강화 및 군관요원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군관학교 및 강습소에서는 교육 및 교수 사업이 개선되었다. 최고사령부는 모든 학교 및 학원에 대해 훈련·교수 사업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였다. 학교들은 학습 및 실물교재들을 보충받았다. 그리고 전쟁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최고사령부는 1951년 5월 15일 군관학교에서 군관후보생을 졸업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수업을 마친 군관들은 인원보충 및 군사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군관들과 교체를 위해 부대에 파견될 것이다.

졸업 후, 즉 1951년 6월 1일경 군의 모든 교육기관은 항공학교를 제외하고 만주지방에서 조선으로 이동할 것이며, 1951년 6월 15일부터는 군관후보생들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에 들어갈 것이다.

강건(姜健)종합군관학교에서는 포병군관 간부의 양성과정을 포병종합학원으로 분리 독립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포병군관들의 교

육 및 재교육이 전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군관학교와 포병학교의 교육생 모집은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군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교육기간은 6개월로 정해지고 있다. 재교육은 다음 인원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① 보 병	: 1,550명
② 공 병	: 460명
③ 통 신	: 400명
④ 모든 특기의 포병	: 1,526명
	합계 : 3,936명

## 2) 간부의 자질향상 및 재배치

(1) 1950년 12월 15일부터 1951년 2월 1일까지 주로 모든 군관들의 자격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보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고 대신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군관들을 등용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부대 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실패한 전투지휘, 군기위반, 기타 다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원이 보직 해임 및 강등되었다.

- 군 단 장 : 1명
  - 사 단 장 : 6명
  - 사단참모장 : 1명
  - 보병연대장 : 6명
- 총 : 14명

유능한 군관들이 다음의 보직으로 등용되었다.

- 군 단 장 : 2명
- 군단참모장 : 2명
- 사 단 장 : 7명
- 사단참모장 : 4명
- 보병연대장 : 24명

총 : 39명

- (2) 중앙지휘기관 및 후방부대가 30% 내지 40% 가량 축소되었고 면직된 인원들로 전선부대 간부들을 강화시켰다.
- (3) 조직문제에 대한 군단장들의 협의회 및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의 학습회가 진행되었다.

### 3) 지휘관과 참모장의 능력

1951년 4월 1일 현재 조선인민군 전군 지도성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 지도간부들의 기본적 결함은 충분한 군사훈련, 전술적 식견, 그리고 병기 및 병과의 활용과 더불어 대규모 구성군 집단에서 지휘경험 등이 부족한 데 있다. 군단장 7명 가운데 1명만이 군사학교를 졸업했으며 (1년 반 정도의 교육기간), 다른 1명은 6개월 정도의 강습을 마쳤을 뿐이고 나머지 5명은 사실상 군사교육 경험이 없다. 그 중 3명은 초등학교 교육만을 이수하였다.

군단참모장 7명 가운데 3명만이 군사교육을 받았고, 보병사단 및 여단지휘관 28명 중 19명, 참모장 27명 중 7명, 보병연대장 67

명 중 34명이 군사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현황은 다른 지도적 직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구성군의 강화 및 선임집단 예비군관들의 부족과 관련하여 민간 지도일꾼 및 당일꾼 출신들이 군의 지도적 직위에 등용되었다.

군단 이하 구성군의 지도일꾼 중 다수가 과거 유격대 지휘관들로 임명된 것은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군 간부들의 교육

군관학교 및 강습소에서 일부가 졸업한 후 1951년 4월 15일 현재 <표 2-1>과 같은 인원들이 교육 중에 있다(공군 제외).

유격대 출신들로는 모든 군단장과 군단참모장 4명, 보병사단 및 여단 지휘관 21명, 보병연대장 13명이 해당된다. 통상 각급부대의 지도자급 구성원은 조국에 헌신하는 조선로동당 당원들이다.

지도간부들의 결함 가운데는 자신과 특히 부하들에 대한 엄격함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부 간부들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한 편이다.

대체로 군관들은 높은 직위에의 임명을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로 낮은 직위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일부 지도일꾼들은 군대 내의 일상사업을 좋아하지 않으며, 부대들을 시찰할 경우 부대의 활동, 규율, 생활상의 기본문제들을 피상적으로 관찰한다. 군사지식의 보완 및 전쟁경험 연구활동도 미진하다.

<표 2-1> 간부교육 및 재교육 현황(1951. 4. 15)

군관학교 및 강습소 명칭	병 과	후보생수	비고
강건종합군관학교	1. 보 병	1,205	
	2. 중기관총	381	
	3. 정 찰	77	
	4. 대전차로켓포	69	
	5. 공 병	346	
	6. 통 신	168	
	7. 122mm 곡사포	133	
	8. 76mm 사단포	146	
	9. 76mm 연대포	105	
	10. 45mm 포	160	
	11. 120mm 박격포	27	
	12. 82mm 박격포	214	
	계	3,018	
땅크교육연대		380	
정치학교		1,415	
강건군관학교 예하 강습소(그중 포병포대)		25(?)	
연료부문 일꾼 교육강습소		40	
후방일꾼 교육강습소		506(?)	
수의(獸醫)일꾼 교육 중앙강습소		100	
의료학원		213	
자동차기술 교육강습소		40	
	총 후방근무자	919	
회계일꾼 교육강습소		43	
	합 계	5,813 [3,681]	

〈표 2-2〉 조선인민군 지도성원에 관한 정보(1951. 4. 1)

No	직위	인원수	연령			출신			당적	교육정도			군사교육			진직					
			22	25	30	35	노동	농사		상로	무고	중중	초	군사학교(1년6개월이하)	군사학교(6개월이상)	유격대지휘관	인민군사령부	정치위원	민간직위		
1	군단장	7		1	6		7	7		1	3	3	1	1	5	7	7				
2	군단참모장	7		5	2		7	6	1	3	1	1	2	1	3	3	4	6	1		
3	사단/여단장	28		5	11	12	1	27	27	1	4	6	4	14	7	2	19	21	24	4	
4	사단/여단참모장	27		23	4		5	4	18	25	2	7	3	5	12	11	9	7	2	26	1
5	보병연대장	67	4	39	17	7	18	19	30	65	2	3	7	15	43	21	12	34	12	67	
6	연대참모장	61	5	49	7		22	16	23	57	4		14	8	38	29	13	19		60	1
	합계	197	9	116	45	27	46	39	112	187	10	17	32	36	112	70	40	87	46	190	7

#### 4. 군단급 부대 간부 재배치

최고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1951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제6, 7, 8군단 예하부대들을 조선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제6군단(제18, 19, 36보병사단)은 1951년 1월 28일 도보로 훈장 [琿江] 지역에서 사리원(평양 남방 56km 지점)으로 행군하기 시작하였고, 2월 20일경 군단 예하부대들이 예정지역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제7군단(제13, 32, 37보병사단)은 1월 28일 판취[本溪]역에서 안주역까지 철도로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조선철도에 대한 적 공군의 끊임없는 공습으로 인해 군단 예하부대들은 나머지를 도보 행군을 하여 2월 16일경 예정지역에 집결을 끝마쳤다.

제8군단(제42, 45, 76보병사단)의 부대들은 옌지[延吉], 투먼[圖們], 나남을 통과하는 철도를 이용하여 함흥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적들은 이 철길에서 증가된 군용열차의 이동을 발견하고 철도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였다. 나남, 길주, 단천 구역에서 교량들이 파괴되었으므로 이 노선에서의 철도운행은 중단되었다. 제76보병사단과 42보병사단 일부 병력은 단천 지역에서 내려 도보 행군을 계속해야 했다.

제45보병사단과 잔여 42보병사단 병력은 철도로 옌지에서 지린[吉林], 하이룽[海龍], 통화[通化], 째안[輯安]을 거쳐 강계 남방 40km 내지 50km 지점까지 수송되었으며, 이 곳에서 도보로 예정지역에 도착했다. 집결은 3월 3일경에 끝났다.

제6, 7군단 예하부대는 이동시에 조직성과 높은 규율을 발휘하였으며, 그 결과 예하 각급부대의 재배치는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조직성의 미비와 흐트러진 관리능력은 제8군단 및 76보병사단 지휘부에서 노출되었다. 군단참모부는 행군시에 부대들을 통솔하지 못했으며, 부대이동에 관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단천 지역에서 교량들이 파괴되었을 때 부대를 하차시켜 도보로 이동하지 못하고 교량이 복구되도록 며칠 밤낮을 기다리면서 군용열차에서 대기하였다. 교량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여러 차례 총참모장의 명령이 하달된 후에야 부대는 하차



하였다.

행군시 부대 통솔상의 일반적 결함으로 통신조직의 미비 및 상급 참모부에 대한 지연된 보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참모들은 군단참모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군단참모부는 단호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참모부에 부대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 조직구성과 전투임무

1951년 4월 15일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대는 7개 군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들 가운데 4개 군단은 연합사령부[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연합사령부를 지칭]의 지휘 하에 작전 중이며, 3개 군단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할 하에 있다.

연합사령부의 지휘 하에는 제1, 2, 3, 5군단이 있다.

제1군단은 제8, 19, 47보병사단으로 구성되며, 개성과 문산(汶山) 지역 작전집단의 우익에 위치해 있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서울-인천(제물포) 방면에서의 공격전 및 방어전 과정에서 훌륭한 준비태세와 높은 규율, 강력한 사기를 보여 주었다. 군단 예하 각급제대에서는 ‘적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비행기 공포증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군단 예하 각급부대들은 미국과 남조선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풍부한 경험을 획득하였다.

제3군단(제3, 15, 45보병사단)은 춘천 동북방 15km 내지 20km 지점에서 작전 중이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미국 및 남조선 군대와와의 전투를 통하여 공격전 및 방어전, 특히 산악지형 작전에서 풍부한 경험을 획득하였고, 적 후방을 포위, 침투하는 전술을 익혔으며,

포위의 공포를 극복해 냈다.

제2군단은 제2, 13, 27보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단 각 예하부대들은 상당한 전투경험을 습득하였다. 장기간 적 후방에서 작전한 부대들은 매복과 기습공격, 도로가 없는 산악지역에서도 장기간 행군하는 방법을 익혔다.

제5군단(제6, 12, 32보병사단)은 미국 및 남조선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커다란 전투경험, 특히 적 후방에서의 작전경험을 얻었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소부대 수준뿐 아니라, 대부대 수준에서도 산악전투를 훌륭하게 치러 냈다. 산악지대에서 장기간 야간행군 전술도 익혔다.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제4, 6, 7군단이 있다.

제4, 제5, 제9, 제10 보병사단과 제105기계화사단, 제26육전여단으로 구성된 제4군단은 청천강 지대(신의주 남동쪽 35km 지점)에서 조선의 서부해안 방어를 담당하였다. 진남포 지역은 방어지대에서 적 해병대 및 공수부대의 침투를 막는 기본임무가 주어져 있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방어전 수행을 위해 주요 방면에 교통호와 연락로를 구축하였고, 소대·중대·대대 방어구역과 감시소를 설치하였으며, 유선 통신망을 부설하였다. 정찰을 통하여 반격을 위한 전개선이 준비되고 있다. 해안가 및 주요 방면의 중심에는 대전차지뢰 13,642개와 대인지뢰 33,459개, 지향성지뢰 700개가 매설되었다. 그 밖에도 철조망장애물 12.5km가 설치되었다.

해안 강화 및 방어인지 구축과 더불어 전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적 해병과 공수부대의 격퇴, 섬멸이 가

능한 작전 형태들이 완성 중에 있으며, 중대 및 대대 조직을 계속하고 있다.

군단 예하부대들의 정치적, 정신적 상태는 건전하며 규율이 잘 잡혀 있다. 군단 예하부대들의 전투력과 전투태세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함은 포병부대 및 예하대에서 사격 통제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45mm 포에는 조준장치 21개가, 120mm 박격포에는 조준장치 11개가, 76mm와 122mm 포에는 관측장비(파노라마) 16개가 부족하다. 포와 박격포용 자동견인체계, 그리고 차량 수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제6군단(제18, 36보병사단, 제17기계화사단, 제23육전여단)은 진남포와 연안(延安)까지의 지역에서 조선의 서부해안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배치지역의 방어준비를 위해 군단 예하부대들은 110km에 이르는 옛 교통로를 개통, 복구하였으며, 감시소 및 대포·박격포·기관총 화기진지를 설치하였고, 개인용 엄폐호를 구축하였다. 주요 방면들에는 대전차지뢰 573개, 대인지뢰 3,532개, 지향성지뢰 14개가 매설되었다. 반격 방면에 대한 정찰도 이루어졌다.

실제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 각급부대에 대한 조직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을 전개선으로 진출시키고 반격을 가하는 훈련도 거의 완료되고 있다. 지휘관 학습체계(사단, 연대, 대대 지휘관 그룹 내에서)에서 적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침투할 경우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작전대안이 마련되었다. 2단계(군단-사단) 지휘참모훈련이 '해안방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부대가 자신의 작전방향을 숙지하고 임무가 부여된 구역으로 진출할 때의 소

요시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전개선 투입을 위한 비상경보훈련이 실시되었다.

군단 예하부대의 규율과 사기는 높으며, 제17기계화사단(제1군에서 편입)과 제23육전여단은 미국 및 남조선군대와의 많은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3, 37, 46, 7보병여단과 제24, 63육전여단으로 편성된 제7군단은 조선의 동부해안, 즉 통천(通川)에서 이원(利原)에 이르는 지역에서 적 해병 및 공수부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동시에, 성진(城津) 및 청진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배치지역에 교통호 약 700km, 연락로 235km를 개통, 복구하였고, 대전차지뢰 9,935개, 대인지뢰 7,083개, 지향성지뢰 350개, 철조망 장애물 15,836m, 방공호 600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각급제대 지휘관 감시소와 해안 직접감시소를 구축하였다. 각 감시소 및 각급부대 참모부 간에 유·무선 통신이 설치되었다.

군단 예하부대들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만주로부터 이동한 부대들은 대대급 훈련을, 그리고 현역 군단에서 배속된 부대들은 소대 및 중대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 결 론

- (1) 1951년 4월 15일 현재 조선인민군 군대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전투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 (2) 전쟁기간 동안 습득한 전투경험으로 군대는 포위된 상태에서의 전투와 적 후방에서의 작전을 배웠으며, 포위의 공포를 떨쳐 냈다.
- (3) 적 저공비행 전투기들에 대한 성공적인 대공사격의 실시로 1951년 1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4군단 예하부대에서만 비행기 21대를 격추시켰다. 각 부대는 대공사격법을 습득하였다. 비행기 공포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 (4) 모든 단계의 군관들은 자대 지휘에 있어서 커다란 경험을 습득하였다.
- (5) 무기, 전투장비, 차량 등의 태부족은 군대의 전투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 (6)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예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서 보여지는 유격대식 전투수행 방법은 군기의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협의회와 집회에서 명령에 대한 토론).
- (7) 해안방어를 수행하고 있는 각급부대는 향후 부대의 전투훈련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투준비를 지속해야 한다.
- (8) 각급제대 군관들의 이론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집단에서 지휘관 교육훈련을 계속하고 참모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9) 특히 동부해안의 경우 방어선 설비를 계속 보강해야 하며, 보다 중요한 지역에는 지뢰지대를 더 많이 조성해야 한다.

## 5. 사기상태와 군당 정치사업

1951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각급부대들이 향후 전투력과 사기를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군율의 강화와 각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당조직 및 군 정치기관의 조직적 역할 제고 등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모든 구성원은 선서를 하였다. 인원등록이 완료되었고, 병사수첩, 신분증명서, 출장명령서 등이 도입되었다. 도시 및 군 주둔지역에서 위수사령부가 조직되었다. 정치교양과 정세홍보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군 신문의 부수 및 판형이 확대되었으며, 3개 야전군단에서 많은 부수를 찍어 내는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 정치적 교육 강화를 위하여 연대, 대대 선동원들의 전군협의회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은 군대 내의 선동사업 임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모든 선동원들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최고사령부와 총정치국은 군의 사상사업 강화문제에 대한 작가, 예술가, 극작가, 작곡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고령의 군관들을 위해서는 정치훈련을 대신하여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소련 공산당의 전신] 역사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한 단기 강습으로 구성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체계가 도입되었다.

최고사령부는 교양사업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군관에 대한 명예재판소가 개설되어 사업을 개시하였다.

3월과 4월에 군 규율의 강화문제는 당 집회 및 당 열성자에 있어서 토론의 주제였다. 당위원회들의 회의에서는 규율을 위반한 당원들의 개인사건 629건이 심의되었다.

각 야전군단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방조치가 논의되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조국의 운명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교육과정, 특히 여유가 있는 농가와 상인 출신들 사이에서 아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 규율의 준수상태 및 사기양양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1950년 11월 초부터 12월 사이에는 약 900건의 탈영이 있었지만 올해 3개월 반 동안에는 그 수가 500건으로 감소되었다. 규율위반 횟수는 1/3로 감소하였다.

개개인의 전투력 및 사기의 성장을 특징짓는 명확한 실례로 '적 비행기 사냥꾼' 운동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올해 1월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발의에 의해 보병부대에서는 적 비행기 사냥꾼조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동지의 호소에 따른 이 사업은 대중운동으로 전파되었다. 각 연대(특히 서울 방면의 제1군단 소속)에는 2개 내지 3개의 비행기 사냥꾼조가 편성되었는데, 그들은 돌출한 언덕과 같은 곳에 화기진지를 설치하고 다양한 보병화기로 적 저공비행기에 사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동안에 적 비행기 403대가 격추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손실을 입은 적 항공기들은 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게 되었으며,

병력 및 각종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에도 주로 흐린 날씨를 이용하게 되었다.

비행기 사냥꾼조의 성과는 다음 도표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표 2-3> 비행기 사냥꾼조의 성과

부대	제 8 보병사단	제 17 기계화사단	제 19 보병사단	제 3 보병사단	제 15 보병사단	제 4 보병사단	제 5 보병사단	제 13 보병사단	제 105 기계화사단	제 18 보병사단	제 19 보병사단	제 23 보병여단	제 23 보병사단	제 39 보병사단	제 63 보병여단	합계
?	4		8		6											18
?	14	6	35	20		1			2	1						79
?	94	22	68	1		1	2	10	2	8	18	10	2	2	24	273 [264]
?	9		5	3		1	7		4	1					2	34 [32]
합계	121	28	116	24	6	3	9	10	8	10	18	10	2	2	26	403 [393]

많은 대원들은 적 비행기 격추 공로로 훈장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

전장에서 당·정치사업 조직은 얼마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전투에서 영웅적 공훈을 세운 대원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투에 참가하는 부대원들에 대한 구두 및 인쇄물을 통한 호소가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병과 전문가들에게 지침서가 제공되었다. 각급부대의 정치일꾼들은 전투환경에서 입당을 조직화하는 법을 익혔다. 이 모든 것은 전투에서의 불굴의 용맹한 영웅주의에 대한 교육을 가능케 하였다.

전투력 증강과 사기 강화에 대해서는 적 공수부대에 대한 노련한 포위 및 섬멸작전(제6군단 제19보병사단 후방에서 증강된 보병연대에 의한)이 입증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전투기간 동안 전사와 군관 10,000명 이상이 훈장 및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그중 20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본관이 이전 보고에서 지적한 많은 결함들은 매우 완만하게 치유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용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한 군단의 일부 군관들 사이에서는 부대지휘 및 인원교육에 일부 유격대식 방법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이 군단들 소속의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은 상급 지휘관의 전투 명령을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지대 구성원 집회에서 “공격할 것인가 혹은 후퇴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한 후 집회에서 상급지휘부의 명령에 일치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3군단과 5군단 예하 모든 부대들에서는 전투 후에 부대 구성원들 앞에서 ‘자아비판’, 즉 실책에 대한 반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제3군단과 5군단 예하의 많은 부대에서는 구성원의 범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문제를 집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사자들의 추념집회

를 실시한다(타오르는 촛불과 향 속에서 군무원들은 전사한 병사들의 홀랑했던 점을 회고한다).

당·정치사업에서 이 모든 왜곡현상은 총정치국 주재 정치기관장 협의회에서 비판되었으나, 최고사령부와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상기 군단들이 연합사령부 소속의 중국의용군과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방식을 비난하는 공식적인 지도훈령이나 명령의 발표를 재가하지 않았다.

군에 조성된 당조직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원들이 범한 과오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자아비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 및 건전한 당의 비판전개는 용의자—당조직의 통제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의 편에선 일부 지도일꾼들의 저항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당원 대중들의 정치적 적극성은 방치된 사업구역을 조명하고, 개인의 소극성, 정치적 무관심, 적대적 활동을 폭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더구나 군 내부뿐 아니라 군 당기관에서도 나타나는 첨예한 계급투쟁의 조건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테면, 4월에 공군 지휘부 내에서 종파집단이 적발되었는데, 정찰부장 및 건설부장들(일찍이 일제에 적극 협력했던)은 당원 14명 가량을 자신들 주위에 집결시켜 선출된 당위원회를 비난하는 방식을 통해 당위원회를 지도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당조직의 지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계속해서 종파 지도자들은 공군사령부의 명예를 해치고 그 직위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였다(이 집단 조직자들은 체포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 조직사업의 활기는 정치적 무관심, 실질적으로는 조선에서의 군사행동 개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련의 글들을 게재한 잡지 「군사지식」 편집진의 적대적 활동을 폭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문단들의 지원 하에 작성된 조사자료에 대한 총참모부의 반응은 극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 지도간부들의 낮은 사상 정치적 수준은 군대의 지도 및 인적 구성원의 교육에 계속 부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 군관들은 조선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 통찰력과 기지를 발휘하지 못한다. 구두 및 인쇄물을 통한 선전에서는 계급 및 계급투쟁, 조국방위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역할, 전쟁과 군, 조선근로자들의 지도력인 당, 제국주의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력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결함 및 과오와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초 조선로동당 당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우리는 「대중지도 및 대중과의 연계강화에 대한 당의 과제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당회의 보고서 작성을 도왔으며, 김일성 동지가 이를 보고할 것이다.

로동당 기관지 및 군 신문에 게재를 위해 고문단들의 조력하에 「비판과 자아비판-간부교육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논문이 준비되었다.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과제에 관한 보고가 준비되었는데, 이는 내각 부수상 박헌영 동지가 수행할 것이다.

군 정치기관, 정치기구, 당조직 사업의 강화를 위해 군의 당

정치사업 조직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일개 과정의 강의가 고문단들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현재 총정치국 군관학습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년 5월 이 강의록은 지휘관 및 군 정치기구용 지도교재로서 특별선집으로 발간될 것이다.

## 제 4 장 조선인민군 포병부대(1951. 4. 1)

### 1. 포병부대 현황

미군과의 전투경험 및 수행된 조직적 대응책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포병은 만족할 만한 준비를 갖추었고, 모든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포병부대는 만족할 만한 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전투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일련의 근본적 결함도 지니고 있다.

(1) 1951년 4월 1일 현재 조선인민군 포병화기의 수량은 군단 포병부대의 편제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력 통제장비가 매우 부족하다.

무기 및 장비의 부족은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인민군의 퇴각시기에 발생하였다. 그 밖에도 장비부족은 편제상 소요량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데서 심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최근 10개 보병사단에 보내진 포병장비는 수평각 측정기 일부와 포대경 90대였는데, 이는 이들 사단이 필요한 소요량을 채우지 못하는 양이

다. 장비부족은 화력통제 및 정찰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표 2-4〉 민족보위성 산하 각급부대의 무기(1951. 4. 1)

번호	무기명칭	편제상 수량	실제수량	부족분	부족분 대비(%)	비고
1	TT 권총	58,370	31,728	26,642	54	1951. 4. 1일 현재 경찰과 경비대를 제외한 군 만을 계산
2	소총	132,768	116,144	16,604	87	
3	카빈소총	133,420	16,488	116,932	12	
4	기관단총	71,234	47,130	24,100	66	
5	데그타레프보병기관총	10,016	4,827	5,189	48	
6	중기관총	4,832	2,463	2,369	50	
7	12.7mm 데그타레프· 슈파긴 대구경 기관총	1,565	531	1,034	34	
8	14.5mm 대전차로켓포	3,636	1,866	1,770	51	
9	37mm 소구경 고사포	421	197	224	47	
10	45mm 대전차포	1,103	538	615	49	
11	76mm 연대포	321	135	186	42	
12	76mm 사단포	360	312	48	87	
13	82mm 박격포(?)	?	?	?	?	
14	120mm 박격포	450	257	193	57	
15	122mm 곡사포	288	169	119	59	
16	85mm 중구경 고사포	73	45	38	63	
17	수평각 측정기	800	80	720	10	
18	쌍안경	4,740	3,000	1,740	63	
19	포대경	528	100	428	19	

1951년 이승만군과 미점령군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에서는 상당량의 무기가 노획되었다. 이것들은 수리를 거친 다음 각급 포병부

대의 보충 병기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조준장치는 부착되지 않았다. 부축장비는 45mm포 조준장치 50개, 연대포 및 사단포 파노라마 관측장비 80개, 85mm고사포 조준장치 12개, 데그타리프식 자동소총 9정의 조준장치, 시준의(視準儀) 12개 등이다.

고사포장비도 편제량에 미달한다. 위도측정기(緯度測程器) 32개, 고사포 통제장비 7개, 거리측정기(1m) 39개, 거리측정기(4m) 10개, 측량용 컴퍼스 등과 같은 장비도 많이 부족한데, 이것들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한 차례 지급된 적이 있다.

<표 2-5> 조선인민군 탄약보급 상황(1951. 4. 1)

종류 부대	탄약	7.62mm경기관총탄	7.62mm중기관포탄	12.7mm대구경기관총탄	14.5mm대전차로켓포탄	16mm신호탄	37mm소구경고사포탄	45mm대전차포탄	76mm연대포탄	76mm사단포탄	85mm고사포탄	86mm중포탄	122mm곡사포탄	82mm대박격포탄	120mm박격포탄
각군단	24	22	35	12	17	0.9	15	16	10.2	28	1	2	14	10	16
탄약고	8.7	15	32	9	69	2.8	6.7	18	28	29	2	6.5	12.4	17.8	28
조선인민군 전체	32.7	37	70	21	86	3.7	21.7	34	38.2	57	3	8.5	26.4	27.8	44

탄약계산은 신호로켓, 85mm 고사포, 86mm 중포를 제외한 사단탄약 정량으로 하였다. 탄약은 신호권총(키트), 포, 전차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위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군단별로 아주 제한된 양의 탄약이 있을 뿐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체생산으로 탄약을 보충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1951년 계획에 따르면, 군수산업은 다음과 같은 군수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 82mm 박격포탄 : 15,000발
- 120mm 박격포탄 : 7,500발
- 중구경 고사포탄 : 36,000발
- 소구경 고사포탄 : 1,000,000발
- 120mm 곡사포탄 : 25,000발
- TT탄약 : 25,000,000발
- 82mm 박격포 : 810문
- 120mm 박격포 : 220문

군수산업의 이 계획은 어떤 원인으로 완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 TT탄약은 화약과 전관[뇌관용화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되지 못하고, 120mm 박격포탄 역시 화약재료의 부족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월 1일 현재 82mm박격포 15문과 120mm박격포 10문과 기관단총이 일부 생산되었다. 기관단총 가운데 300정에 대해서는 이미 시사를 실시하였다. 포병총국 탄약고에 보관될 것이다. 여러 이유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기된다.

- ① 모든 종류의 탄약을 소련에서 사들여 신속히 공급하도록 요청할 것. 왜냐하면 각 현역 군단들에 탄약정량[기본휴대량]의 200%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탄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탄약을 반출해야 하며, TT탄약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도 탄약정량의 200%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필요한 탄약제조를 위해 전관, 화약, 기타 재료의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

### (2) 각급 포병부대에 대한 견인차량 보장수준

1951년 4월 1일 현재 포병용 견인차량 수량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편제상 소요뿐 아니라 실제 소요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선인민군 포병은 82/120mm 박격포를 제외하고도 1,653문의 각종 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인차량은 570대에 불과한데, 이는 각급부대 탄약 통제 및 운반을 위한 소요량을 제외하고 포병의 실제 소요의 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운반체계로서 45mm, 76mm 연대포와 120mm 박격포는 마차를 이용하며, 견인차량은 각급부대 탄약 통제 및 운반을 위한 소요량을 제외하고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모든 화포의 81%를 보장한다.

### (3) 각급 포병부대 통신기재 보장수준(〈표 2-6〉 참조)

통신기재 보장수준표는 각 보병사단 포병지휘관 예하의 포병부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편제표에 없는 각 군단 포병지휘관 및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 예하 지휘관측소 지대의 통신기재는 고려하지 않았다. 지휘관측소 지대의 통신기재 부족은 전투시 중앙집중식 화력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군단은 매우 제한된 수의 통신기재만을 보유하고 있다. 전화기는 소요량의 15% 내지 31% 정도만이 보급되었고, 제1, 2, 7군단의 경우 전화선은 14% 내지 43%, 교환기는 3% 내지 23%, 무전기는 11% 내지 39%만 보급되었다.

<표 2-6> 조선인민군 각급 포병부대의 통신기재 보유현황

군단	편제				실제수량								부족량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전화기	전화선 km	교환기	무선기	전화기	전화선 km	교환기	무선기	전화기	전화선 km	교환기	무선기	전화기	전화선 km	교환기	무선기	전화기	전화선 km	교환기	무선기
1군단	219	576	30	69	69	248	7	18	31	43	23	25	150	328	23	51	69	57	77	75
2군단	219	576	30	69	33	161	1	7	15	27	3	11	186	415	29	62	85	73	97	89
3군단	219	576	30	69	39	417	5	31	17	72	15	51	180	159	35	38	83	28	85	49
4군단	334	860	45	110	53	519	8	18	16	50	18	16	281	341	37	92	84	40	82	84
5군단	정보부재																			
6군단	정보부재																			
7군단	376	972	50	128	92	142	2	49	24	14	4	39	284	830	48	79	76	86	96	61

이러한 보급수준은 각급 포병부대들이 전투시 화력통제를 수행할 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각 군단 포병지휘관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다.

- ① 포병지휘관측소 포대편제를 즉각 도입하고, 그들에게 통신기재를 지급할 것.
- ②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 참모부 편제에 포병지휘관측소 포대를 도입, 통신기재를 지급하고 4명으로 구성된 통신부를 조직할 것. 통신부는 통신기재 사용과 보존 통제, 통신요원에 대한 전투교육을 담당할 것임.

### 조선인민군 포병부대 인원보충

군단 포병지휘관 예하에 통신부와 통신지휘관의 부족으로 인해

조선인민군 포병의 통신병 및 무전병 교육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 1951년 4월 포병학교 및 포병지휘관 양성 강습소의 졸업생 배출과 더불어 연대를 포함한 그 이하급 부대의 군관이 편제표에 따라 완전히 보충되고 있다.

(2) (판독 불가능)

(3) 각급 포병부대의 전사는 95% 정도 보충되었다.

(4) 조선인민군 포병지휘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7〉 조선인민군 포병지휘부 성원구성

직 위	연 령				출 신			당적	교육정도			군사교육			전직		
	인원수	22	25	30	35	노농	사상	로무	고	중	중	초	군사학급(1년6개월)	강습소(6개월)	군사교육무	전유격대지휘관	인민군사령부
군단포병사령관	5	-	2	2	1	-	1	4	1	-	5	-	-	3	2	1	5
군포병참모장	4	-	-	4	-	1	1	2	-	4	-	2	-	2	-	1	4
사단포병지휘관	22	-	9	8	5	5	5	12	-	22	-	2	6	8	6	8	5
사단포병참모장	26	5	7	8	6	6	9	11	-	26	-	7	8	11	11	10	5
포병연대장	30	2	7	19	2	10	9	11	-	30	-	6	9	15	4	14	12

이 도표는 조선인민군 포병지휘부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반의 원인은 군대의 수준 낮은 교육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이지 않게 전달되는 명령 및 그 실행단계의 통제부족 때문인 것이다.

## 2. 재편성 및 임무

### 1) 야전포병

- (1) 각 보병사단 예하 포병연대는 3개 혼성 포병대대로 구성되었다. 제1포병대대는 야포부대이며, 제2포병대대는 곡사포부대, 제3포병대대는 산악포부대이다.

포병연대 제1, 2포병대대의 재편은 완료되었다. 제3포병대대는 병사와 군관들이 보충되었다. 기마병이 편입되었고, 포병 장비가 준비되고 있다. 산악포병의 장비는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2분기로 예정되고 있다).

제1, 2, 3, 5군단 예하 각 보병연대 포병의 인원과 물자 충원이 이루어졌다.

- (2) 1월 1일부터 포병부대는 조국 시스템[소련제 장비물자]은 물론이고 이승만군과 미 점령군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에서 얻은 전리품 중 포병물자와 병기들을 확보·수리하는 커다란 조직 편성작업을 펼쳐 나갔다. 4월 1일 현재 287문의 야포, 박격포, 고사기관총을 확보하였다.

모든 물자는 포병기술자들에 의해 정비되었고, 각급 포병부대에 보급되었다.

## 2) 고사포병

- (1) 각종 구경 포를 보유한 3개 군단 고사포병연대가 창설되었는데, 여기에 군관, 하사관, 전사들이 충원되었다. 이들 연대에 포병물자는 1951년 2/4분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 (2) 작전수행 중인 제19, 제20군단 포병연대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 각종 구경 포를 보유한 연대의 제2포병대대는 소구경 고사포대대로 재편되었다.
  - 고사기관총중대를 대신하여 3개 고사기관총중대로 구성된 고사기관총대대 편제가 도입되었다.
  - 편제의 변동에 따라 이들 연대의 구성에는 1개 소구경 고사포중대, 2개 고사기관총 중대가 편성되고, 1개 중구경고사포 중대가 연대 편제에서 제외되었다.
- (3) 제6, 7, 8군단 예하 각 보병사단 고사포대대의 편제에서 각각 1개 소구경 고사포중대, 고사기관총 4정씩을 차출하여 군단 예하 각 사단 고사포대대의 창설에 전용하였다.
- (4) 중앙고사포 수리공장이 설립되었으며, 해당 인력이 충원되었다.

### 3) 포병 보급

1951년 3월 조선인민군 포병에 대한 보급기관은 공식적으로 포병총국으로 불려졌으며, 정세에 맞추어 포병총국 고유의 일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포병총국은 8개 부서와 직할 포병창으로 구성되어 있다(후방 포병창 1개소, 중앙 포병창 5개소, 전방 포병창 1개소, 중앙 및 이동수리소).

포병총국 포병창과 중앙수리소는 편제대로 완전하게 충원되지 못했다.

포병총국은 현 편제대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으며, 사업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 ① 군수공장에서 제조되는 군수품목의 확대와 관련하여 군수공업부서(군사대표)를 재검토 내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TT 탄약, 두 종류의 박격포탄(82mm, 120mm) 담당 군사대표직을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 ② 편제표에 재정부서를 도입하여 전쟁성[민족보위성을 뜻함]과 산업성(産業省) 간의 정산, 화물운송 정산, 포병수리소 및 포병창에서의 물품구입 및 작업생산 정산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③ 군수품 주문부서도 역시 필요하다.
- ④ 공군과 해군 전문가들로 병기 및 탄약부서를 강화한다.

#### 4) 포병 수행임무

- (1) 제4, 6, 7군단 포병 앞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부와 동부해안 방어에 대한 포병지원 전투임무가 놓여 있다.  
포병부대는 해안방어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전방면과 대안에 따라 포병의 전투배치 지역이 선정되고 화기진지와 감시소가 구축되어 있다. 화력계획이 수립되었고, 화기가 배치되었다. 기초자료가 갖추어졌고, 개별구역들에서 시사(試射)가 이루어졌다. 해양과 인근 도서에 대한 24시간 관측체계가 수립되었다. 전술훈련을 통해 보병 및 전차와의 협조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들 군단의 포병 지휘체제가 조직되었고 수행되는 임무에 따라 분산 배치되었다.
- (2) 제1, 3군단 포병은 미 점령군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전투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 (3) 제2, 5군단 포병은 2개 제대로 분리되어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의 훈련계획과 강령에 따라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 결 론

- (1) 조선전구와 같은 환경에서 적 포병과의 전투수행을 위해서는 각 사단별로 3개 포병대대로 구성된(각 대대 포 12문) 한 개 이상의 대포병 사격능력을 갖춘 포병연대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포병 무기체계 가운데 152mm 곡사포가 가장



효율적이고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군단 포병과 포병연대의 대포병 사격수행을 위하여 군단 포병사령관 예하에 청음(聽音)·광학·도상(圖上)정찰 소대들로 구성된 포병지휘관측소 포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 (3) 대박격포사격 실시 및 도로망이 미비한 곳에서 작전하는 보병연대와 대대의 강화를 위해 1개 120mm 독립박격포대대(3개 중대로 구성, 각 중대 박격포 6문)를 추가로 보병사단 편제에 두어야 한다.

### 3. 개선대책

각급 포병부대에 대한 최상의 지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

- (1) 군단 포병사령관 예하 조직편제에 포병지휘관측소 포대를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통신기재를 지급할 것.
- (2) 조선인민군 포병사령관 예하에 통신부를 설치할 것.
- (3) 포병 군관들의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해 보건대, 군단 포병사령관 예하 조직편제에 고문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포병총국장 예하 고문관을 군단 혹은 전선규모의 사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관으로 선별 및 교체할 필요가 있음.
- (4) 각 군단의 전투력 구성(병기 및 탄약의 실수량)과 병기보존에 대한 책임조처에 관해 군단장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을 것.

- (5) 창고 조명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왜냐하면 단전으로 인하여 창고에서 작업할 때 아세틸렌 가스등이나 다른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5 장 조선인민군 통신부대(1951. 4. 15)

전쟁의 전 기간 조선인민군 통신부대는 전투경험을 고려하면서 중단 없이 자체 조직을 향상시키고, 전투훈련의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복잡한 전투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실천적인 사업경험을 습득하였다.

1951년 4월 15일 현재 조선인민군 통신부대는 조직적 조치를 완결지었다. 통신부대는 조직의 양과 질, 그리고 사기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인민군의 지휘를 보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각급 통신부대에 대한 통신기재의 보급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부대의 전투력 수준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 1. 통신부대 재편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통신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직적인 조치를 실시하였다.

- (1) 전선 독립통신연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독립통신연대로 재편되었다.
- (2) 예비통신연대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통신하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신교육연대로 재편되었다.
- (3) 1950년 12월 총참모부 예하 군보병학교에 편성된 독립통신대대는 전선참모부 독립통신대대로 재편되었다.
- (4) 무선통신 강습소 및 무선장비 강습소는 총참모부 독립무선통신대대로 재편되었다.
- (5) 18개의 독립 전신건설, 전신운용, 전신선 중대들은 전선참모부 4개 독립유선통신중대, 총참모부 2개 독립전신건설중대와 4개 독립전신운용중대로 재편되었다.
- (6) (판독 불가능)
- (7) 후방참모부 독립통신중대가 편성되었다.
- (8) 전선참모부 군사우편기지가 편성되었다.
- (9) 통신장비를 위한 전지를 생산하는 제2호 공장이 설립되었다.
- (10) 군단지휘부의 해체와 관련하여 제8군단 독립통신대대는 전선통신부대로 보충되었다.
- (11) 해체된 제41, 42, 43보병사단 및 제31, 69보병여단 소속 각급 통신부대는 제1, 2, 3, 5군단 통신부대에 보충되었다.

통신부대에 대한 모든 조직적 조치는 모든 단계에서 통신소통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사업은 각 작전부대 전투임무의 수행 및 예비대 교육과정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통신부대의 조직구조는 전투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부정적 측면 및 모든 단계의 전투상황에서 지휘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부대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가운데 구축되었다.

통신부대 재조직에 대한 예정된 사업은 1951년 4월까지 완전히 집행되었다.

### ※ 결 론

통신국은 많은 결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통신부대 재조직 과제를 잘 처리하였다.

조직적 조치가 실행된 후 조선인민군 통신부대는 지휘통신이 가능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통신부대 지도는 총참모부 통신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통신국은 다음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 작 전 부
- 전화전신부
- 무선전신부
- 이동통신부
- 야전우편부
- 공 급 부
- 간 부 부
- 대 열 부
- 재 정 과
- 기 밀 과
- 총 무 과

통신국은 조선인민군 통신부대장을 겸하고 있는 통신국장이 이끌고 있다.

### 1) 총참모부 통신부대

통신부대장의 예하에는 다음과 같은 부대들이 있다.

- 독립통신연대 : 이 연대는 총참모부 통신거점[중계소]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통신거점의 임시회선과 상용회선들을 설치 및 이용하는 임무를 지녔다. 통신연대는 2개 통신거점의 편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독립통신교육연대 : 이 연대는 중앙 직할 통신부대와 전선 직할 통신부대에 소요되는 모든 전문분야별 통신하사관 양성을 임무로 하고 있다.
- 독립통신대대 : 이 대대는 통신부대장의 이동예비대이며, 각 독립무선통신부대 및 전선사업을 보장하고 통제업무를 실행한다.
- 제1, 2, 3 독립유선통신운용대대 : 이들 대대는 조선인민군이 이용하는 상용통신선의 설치, 복구, 운용을 임무로 하고 있다.
- 제1, 2 독립전선건설중대, 제1, 2, 3, 4 독립전선운용중대 : 이들 중대는 통신선의 설치, 운용, 복구를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중대들은 통신부대장의 예비대이며, 각 군단의 통신망 보강을 위해 활용된다.
- 독립후방통신중대 : 이 중대는 후방 참모부의 통신업무의 전개 및 보장을 임무로 하고 있다.

- 중앙군사우편기지(116명) : 우편기지는 부대와 공민 간의 우편 연락을 보장하며, 각급부대에 정기간행물이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발행물 등을 배달한다.
- 중앙군사통신수리소(73명) : 수리소는 모든 종류의 통신기재의 수리를 보장한다.
- 중앙군사통신창 : 이 통신창고는 통신기재의 수령, 자재와 유선도구 및 전원의 운용, 장비의 보관, 조선인민군 각급부대에 대한 장비 지급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 제1, 2전지공장(제1공장 216명, 제2공장 231명) : 이 공장들은 통신부대 전신기구의 전원을 위해 BAC-80형 양극 건전지와 3-C형 건전지를 생산한다. 두 공장의 정확한 생산고는 하루에 양극건전지 600개와 건전지 5,000개이다.

## 2) 전선 직할 통신부대

전선 통신부대장 예하에는 다음의 부대들이 있다.

- 전선 독립통신대대 : 이 대대는 전선에서의 통신거점 전개 및 보장, 통신거점의 임시회선 및 상용회선 설치, 운용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대대는 2개 통신거점의 편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제1, 2, 3, 4 독립유선통신중대 : 이 중대들은 상용통신선의 복구 및 운용, 전선선의 부설, 군내 통신(통신소통 운용을 보장한다)을 임무로 하고 있다.
- 전선 군사우편기지 : 이 우편기지는 전선 예하 각급부대의 우

편연락 보장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중앙군사우편기지와 전선 군사우편소들의 우편물 교환을 보장한다.

### 3) 군단 직할 통신부대

군단 통신부대장 예하에는 다음의 부대들이 있다.

- 독립통신대대 : 이 대대는 군단 참모부에서 사단 참모부까지의 전반적인 통신과 제2제대간 통신 및 협동작전의 통신을 보장한다.
- 사단 통신지대 : 사단 통신부대장은 예하에 독립통신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병연대 통신부대장은 예하에 독립통신중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선부대들에서 보병사단은 표준적인 통신지대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부대에 대한 재조직 수행을 통해 기존 조직상에 존재하던 결함들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통신부대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들이 있다.

- (1) 이동통신장비 지대들의 편제는 차량과 모터사이클의 사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현재 이 지대들은 차량과 모터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를 보유할 전망이 없다. 이들 지대의 편제를 도보연락병이나 기마전령의 이용에 의거하여 재편해야 한다.
- (2) 군사우편소 편제는 이동통신장비 지대와 동일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 ※ 결 론

(1) 조직 재편이 실시된 이후 통신부대 조직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현재의 통신부대 조직은 각 부대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이동통신장비 지대 및 군사우편소의 편제를 운송수단의 실제능력에 의거하여 재편해야 한다.

## 2. 인원 및 장비보충

## 1) 통신부대의 인원

1951년 4월 1일 현재 통신부대의 충원수준은 다음의 자료와 같다.

〈표 2-8〉 통신부대 및 지대의 총 보충현황

계	급	편제인원	실제인원	부족인원	충원비율(%)
군	관	2,733	2,705	28	99
하	사 관	7,133	6,714	419	95[94]
전	사	17,440	14,916	2,524	85[86]
합	계	27,306	24,335	2,971	90[89]

군관 28명의 부족인원은 후방 및 의료부문 군관들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해당 국들에게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4월과 5월에는 군관학교에서 250명 규모의 군관이 배출될 것이다.

이 예비군관 성원들은 전장 손실인력으로 보충되거나 임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군관들과 교체될 것이다.

하사관 419명의 부족은 교육지대 강습생들을 배출하고 노련한 전사들의 하사관 진급 등에 의해 1951년 5월 1일까지 보강될 것이다.

병사들의 부족은 총참모부 예비대 병력으로 보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 신청서가 발급되었다.

## ※ 결 론

- (1) 통신부대에서의 인원부족은 주로 병사들의 부족에 기인한다.
- (2) 인원보충이 가장 부실한 곳은 전선직할 각급 통신부대, 제4군단, 중앙직할 통신교육연대 등이다.
- (3) 1951년 4월 25일까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예비대로 전사 부족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 2) 통신기재 보유

기본 유형별 통신장비 보충현황은 <표 2-9>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존 부족분 중 일부는 소련에서 통신기재들을 입수하는 것으로 보충될 것이다. 부족분에 대한 두 번째 보충방법은 중화인민공

화국에서 통신기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1951년 4월 1일까지 통신기재, 운용자재, 전원설비 등은 모두 108,131,266원어치가 구매되었다. 올해 2/4분기에는 무전기, 강력한 교류설비, 전원생산 재료 등이 중국으로부터 구입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들 품목의 구매에 242,865,000원을 할당하였다.

〈표 2-9〉 기본 유형별 통신장비 보충현황

No.	통신장비 명칭	편제수량	실제수량	부족수량	보장비율 (%)
1	RAF 무전기	24	8	16	37[33]
2	RSB 무전기	66	29	37	44
3	RBM 무전기	1,367	882	485	64[65]
4	13-R 무전기	-	244	-	-
5	A-7-A 무전기	522	246	376[276]	27[53]
6	무선수신기	136	42	94	30[31]
7	?장치 EZS-1, 5	72	28	44	39
8	모르스식 전신기	60	30	30	50
9	교환기 PK-30	35	28	7	80
10	교환기 PK-10	900	378	552[522]	42
11	전 화 기	9,584	3,990	5,994[5,594]	44[42]
12	케이블(?) [km]	16,879	12,662	4,147[4,217]	75

부족분에 대한 세 번째 보충방법은 고정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고정무선기 약 15개 소대, 교환기 10대, 전화기 400대가 이용되고 있다.

부족분에 대한 마지막 보충방법은 적으로부터 노획한 통신기재

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전리품은 아래와 같이 수집되었다.

- 전신케이블 : 5,460km
- 전 화 기 : 166대
- 무 선 기 : 9개소

통신부대에 대한 통신기재 보충은 극히 불충분하다. 통신기재의 부족은 통신부대의 전투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통신부대에 통신기재를 보충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통신부대는 산하에 전원 생산공장 2곳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공장의 하루 생산능력은 BAS-80형 양극전지 600개, 또는 3-C형 전화기 전원전지 5,000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 생산능력은 조선인민군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양극전지의 경우 하루 1,200개를 생산해야 한다. 양극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지공장들의 인원을 100명 정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 상응하는 인원요청이 제기된 상태이다. 1951년 4월 15일 현재 위 두 공장은 20일 동안 전원생산을 위한 필수 재료가 확보되어 있다.

원활한 재료수급에 의한 전지공장들의 향후 작업보장을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에는 상응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조선인민군 대표는 재료구매를 위해 중국에 머물러 있는데, 구입된 재료에 대한 지불을 위해 149,315,000

원이 할당되었다.

### ※ 결 론

두 전원 생산공장은 조선인민군의 전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장들의 인원을 100명 가량 늘리고, 재료구매를 보장하며 그것을 생산하여 정기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 3. 통신부대 개선사항

195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행된 조선인민군 통신부대의 재조직은 통신부대 앞에 일련의 새로운 임무를 제기하였다. 일찍이 통신부대에 대한 지휘는 전선 참모부와 두 개 군단을 통해 실행되었다. 1951년 1월 조선인민군은 최고사령부 직할의 5개 작전군단과 형성단계에 있는 3개 예비군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선지휘를 재조직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에 통신부대의 구성에는 전선 독립통신연대, 독립유선통신운용대대, 예비통신연대, 지원부대 등이 있었다. 이 모든 부대들은 전투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며, 많은 인원 및 물자의 부족을 겪었다.

통신부대들 앞에는 당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제기되었다.

- ① 현역 군단들의 지휘통제를 보장할 것.
- ② 새로이 채택된 지휘체계에 의거하여 통신부대를 재조직할 것.

부대 등의 재조직뿐 아니라, 당면한 공격전에 대비시킬 필요가

있었다.

통신부대는 이 같은 기본과제를 집행하였다.

평양이 해방된 후로 통신부대에는 다음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 ① 최고사령부 통신거점을 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이 지점으로부터 지휘[망]를 조직하며, 이와 동시에 새로 형성된 전선 참모부에서 지휘를 조직할 것.
- ② 동부 및 서부 해안을 방어하고 있는 각급부대에 대한 지휘를 조직할 것.

통신부대들은 또한 각 단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계속해서 통신부대는 아래와 같은 과제를 부여받았다.

- ① 새로운 지역으로 행군을 완료한 제6, 7, 8군단에 대한 통신보장
- ② 철도를 통한 병력 및 화물 운송시 통신보장

통신부대에 부여된 이 과제 또한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다.

현재 통신부대 앞에는 다음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총참모부로부터 전선 참모부 및 제4, 제6, 제7군단 참모부까지 견고한 전화-전신 및 무선통신, 이동장비통신, 군사우편 연락을 보장하고, 또한 각 부대 내부의 확고한 통신을 보장할 것 등이다.

현재 총참모부는 제4, 제6, 제7군단 참모부와 사이에 전화와 전신 통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1군단과는 전화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선 참모부 및 제1, 2, 3, 4, 5, 6, 7군단 참모부와는 견고한 무선통신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구성군들 및 개별부대들과

의 이동장비통신과 군사우편 연락체계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최근 통신부대들이 자체사업을 현저히 개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신 사업에는 다음의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 ① 전화와 전신 회선은 질적으로 충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통신선 간의 유도(誘導)현상과 잦은 통신두절이 발생하고 있다. 적 항공기에 의해 손상된 통신선로의 복구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 ② (판독 불능)
- ③ (판독 불능)
- ④ (판독 불능)
- ⑤ 인원훈련 미비로 인해 물자(전화기, 무전기 A-7-A 등)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⑥ (판독 불능)

위에서 지적한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즉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 총참모부 통신지휘부/군단 통신부/통신부대 지휘관들의 엄격성 제고, 각급 통신부대에 대한 지도개선이다.

## ※ 결 론

통신부대들은 자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지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통신부대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기존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한 확고한 사업이 필요하다.

## 4. 통신부대 전투훈련

### 1) 군 관

군사행동을 개시하기 이전 통신부대에는 군관 약 1,0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150명의 군관은 2년간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군관들은 1년 가량 교육을 받았다. 군관학교는 통신군관과 지휘관들을 교육하여 배출해 왔다.

조선인민군은 고참군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어떠한 학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군사행동을 개시한 이후로 군관학교는 3주 내지 3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친 군관들을 배출하였다. 전체 군관학교에 의해 6,150명의 군관이 배출되었다. 현재 통신부대에는 약 3,080명의 군관들이 있다. 전사상자들을 포함하여 이들 가운데 약 1,800명이 다양한 교육기간을 거쳐 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나머지 1,280명의 군관들은 군사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하사관 출신이나 민간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용된 수치를 분석해 보면, 조선인민군 통신군관들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신부대장, 부대 통신책임자, 총참모부 통신지휘군관, 군단 통신군관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선임군관들의 경우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엄격한 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신참군관들은 야전에서 실무경험을 획득했으며, 이론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관학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 2) 하사관

전시에 각급부대에서 하사관들이 군관 직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통신부대에는 교육지대를 졸업한 고참 하사관들은 없다. 전시에 중앙직할의 교육부대가 없었다. 하사관 양성을 위한 통신교육연대는 올 2월에야 조직되었다. 각 보병사단 예하 교육지대들은 사단들이 계속해서 전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고참병들이 하사관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사관 교육수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사관들은 기자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필수 실기기능 및 이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병사

통신부대가 급속히 증강(1951년 4월 현재 통신부대는 3.5배 이상 증강되었다)됨에 따라, 군사행동 시기에 징집된 많은 수의 병사들 및 다른 특기를 보유한 병사들이 통신부대에 배속되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짧은 교육기간은 이 새로운 병사들이 교육을 끝마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전병, 전신수[유선병], 장비수리병 등의 교육 도중에 자주 발생하였다.

병사들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은 체계적이고도 잘 조직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결 론

- (1) 군관, 하사관, 병사들의 교육수준은 통신부대에 제기되는 임무의 요구수준에 뒤떨어져 있다.
- (2) 군관 재교육, 무엇보다도 고참 군관교육을 위해 군관학교 산하에 자격향상강습회를 둘 필요가 있다.
- (3) 보병사단의 하사관 교육은 군단 통신대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병사단 통신대대 편제에서 교육중대를 제외하고, 군단 통신대대의 편제에 150명 규모의 교육중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제 6 장 조선인민군 공병부대(1951. 4. 15)

### 1. 공병부대 재편성

#### 1) 공병 전투편성

제7군단 예하의 군단 공병대대는 예하에 공병을 보유하지 못했던 제4군단으로 완전 배속되었다. 각 보병여단 내에서도 공병대대들이 조직되었다.

조선인민군의 모든 공병부대에 병사와 하사관들을 완전 충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연합전선공병부대에 군관 예비대가 설치되었다. 기존공병 조직구조는 유지되었다.

각급 공병부대의 편제 인원은 변경되지 않았다. 각 공병연대의 편제에는 경·중의 2개 도하장비의 견인을 위한 차량을 증가시키는 변화가 있었으며, 각 공병연대에 25필씩, 교육대대에 7필의 말이 보충되었다.

## 2) 공병부대 현황

### (1) 최고사령부 예비공병부대

- 2개 공병연대 : 각 연대는 4개 공병대대, 1개 부교대대, 1개 공병정찰중대, 1개 지휘중대로 이루어져 있다.
- 공병교육대대 : 3개 공병중대, 1개 부교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 (2) 군단 7개 공병대대 : 각 대대는 3개 공병중대, 1개 도하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 (3) 각 보병연대에 2개 소대로 구성된 연대 공병중대

#### 조선인민군 군단 공병부대 현황

- 공병대대 : 46개
- 부교대대 : 2개
- 연대 공병중대 : 75개

공병부대는 [조선인민군] 총 병력 수 대비 5.6%에 달하고 있다.

전구의 특성과 전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투시 공병지원을 위한 각 공병부대의 밀도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4) 1월~3월까지의 공병운용

공병은 다음과 같은 기본임무를 수행하였다.

- 제1, 2, 3, 5군단의 전투행동을 기술적 측면에서 보장하였다.
- 38선에서 부대 퇴각시 공병장애물로 엄호

- 동부 및 서부해안 방어의 강화
- 전투훈련의 실시
- 공병장비 지원

전선에서 작전 중인 공병부대들은 아군이 38선으로 퇴각하기 직전까지 적에 대한 공병정찰을 실시하고, 지뢰지대에 통로를 부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전차지뢰 2,319개, 대인지뢰 2,100개를 제거하였다.

대전차지뢰 7,131개, 대인지뢰 963개, 지향성지뢰(노획물) 444개를 매설하는 등 지뢰 및 폭발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점령지역을 강화하였다. 철조망장애물이 설치되었고 토치카 87개소가 세워졌다.

## 2. 유격대 작전지원 및 해안방어 설비

적 후방에서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1950년 12월에서 1951년 1월에 공병부대는 총 300명 규모로 공병폭파단 2개 그룹을 준비하였다. 이들 그룹은 유격대 작전에서 사용되는 폭파장비와 지뢰 및 폭발물, 장애물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180명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공병그룹은 1950년 12월 10일 적 후방에 파견되었다. 각 대원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권총과 공병장비, 즉 전등, 나이프, 대전차지뢰 1인당 2개씩, 폭약, 신관 등을 휴대하였다. 공병들은 작전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작전 중인 유격대에 합류하였다.

각 25명씩 6개 소대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룹은 1951년 1월 유격작전 강화를 위해 파견되었다. 이 그룹은 역시 자동소총으로 무장하였고, 공병장비 가운데는 대전차지뢰 300개, 대인지뢰 500개, 폭약 120kg을 소지하였다.

유격지휘 참모부는 도로 및 교량 파괴, 그리고 폭파장비에 관한 유격폭파수의 작전방식을 설명하는 유격폭파수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유격대 내에서 공병들은 후방 교란활동 방식으로 작전을 전개하면서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부비트랩을 설치하며, 건물의 난방 시스템에 폭약을 장치하였다. 이러한 작전에 의해 적 주거지역 및 도로에 큰 손실을 주었다.

남조선군 군단 지휘관의 특별명령에 의해 주거지역 군대 배치와 다음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① 유격대에 의해 봉쇄된 의정부 - 신읍리(新邑里)[현 포천 부근]간 도로
- ② 시변리(市邊里) - 삭녕(朔寧) - 신망리간 도로
- ③ 신망리 - 의정부 등의 도로

공병부대는 38선으로 부대철수를 보장하면서 파괴활동과 도로 및 교량에 지뢰매설을 수행하였다. 철수지대의 모든 교통로에는 장애물이 설치되었으며, 700곳이 파괴되었고(교량 90개를 포함하여), 한 번에 지뢰 15개 내지 30개씩 86곳의 지뢰지대가 조성되었으며, 철도 47군데가 파손되었다. 그 밖에도 산악도로에서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다.

조성된 지뢰지대에 의해 제2군단 전선 정면에서 적 전차 12대, 제○군단 전선 전면에서 전차 2대, 제1군단 전선 정면에서 중형 전차 15대 및 차량 5대 등이 파괴되었다.

공병의 방어진원 임무에는 동해와 서해의 방어도 포함되었다. 즉 전술적 방어중심(해안으로부터 15~20km)에 지뢰 및 폭발장애물 설치, 현지 방어시설 구축, 이동장애물대(移動障礙物隊)의 조직 및 훈련, 작전을 위한 장애물을 조성하였다.

보고기간중 공병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었다.

#### 1) 서해안 지역

- 해 주 : 대전차지뢰 2,700개, 대인지뢰 10,000개. 총 12,700개 매설
- 진남포 : 대전차지뢰 5,533개, 대인지뢰 19,500개, 노획한 150mm 포탄으로 제조한 지향성지뢰 2,200개. 총 27,233개 매설
- 속 천 : 대전차지뢰 5,369개, 대인지뢰 9,688개, 전리품 포탄으로 제조한 지향성지뢰 1,000개. 총 16,057개 매설
- 정 주 : 대전차지뢰 3,441개, 대인지뢰 7,402개, 포탄으로 제조한 지향성지뢰 1,000개. 총 11,843개 매설

이리하여 서해안에서는 대전차지뢰 17,043개, 대인지뢰 46,590개, 지향성지뢰 4,200개가 매설되었다.

## 2) 동해안 지역

- 원 산 : 대전차지뢰 2,340개, 대인지뢰 1,700개, 전리품인 비행기 폭탄으로 제조한 지향성지뢰 230[330]개. 총 4,370개 매설
- 함 흥 : 대전차지뢰 7,600개, 대인지뢰 5,400개, 전리품인 비행기 폭탄으로 제조한 지향성지뢰 600개. 총 13,600개 매설

위와 같이 동해안에는 대전차지뢰 9,900[9,940]개, 대인지뢰 7,100개, 지향성지뢰 930개가 매설되었다.

대전차 지뢰지대는 적의 상륙이 예상되는 해안 지역 주변에, 그리고 80m 내지 100m 가량의 대인 지뢰지대 중심에 은폐되어 매설되었다. 해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도로의 중심에 대전차지뢰가 부설되었다. 대전차 지뢰지대를 포함하여 지뢰매설 지역의 중심은 통상 10km 내지 15km이다.

해안에는 대전차·대인장애물 설치와 더불어 지형장애물이 구축되었다.

웅진반도에는 도로 30군데에 폭 5m, 깊이 3m로 대전차호(壕)가 만들어졌으며, 호의 밑바닥에는 대전차지뢰를 매설하였다.

교량 6개를 폭파할 준비를 갖추었다. 동부해안에서는 교량 31개를 폭파할 준비를 하였으며, 기동로상의 주요 도로들에 대한 파괴 준비가 이루어졌다. 11개 지점에서는 항공기용 폭탄 500kg으로 폭파가 이루어졌다(군대가 이용하지 않는 해안에서 떨어진 도로들).

각 구성군에는 이동장애물 부대가 편성되었다. 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준비작업은 사전에 실시되었다. 적 전차의 접근이 예상되는 도로방면들에 구축된 지뢰매설 지역에 대한 정찰이 실시되었다. 121군데 지뢰지대 조성을 위해 대전차지뢰 5,334개, 대인지뢰 2,724개가 반입, 보관되었다. 도로 55군데에 지향성지뢰 매설을 위한 구덩이가 마련되었고 폭약 11,032kg이 반입되었다. 해안을 방어하고 있는 각 구성군들에 의해 현지에서 다음과 같은 설비들이 구축되었다.

〈표 2-10〉 해안부대가 구축한 방어설비

집행된 사업명칭	집행된 작업량	
	서 해 안	동 해 안
교 통 호(수리 혹은 새로 조성)	300.5km	700km
연 락 로	96	235
개 인 호	7,860	-
토 치 카	40	68
기관총용 참호	237	115
암 벽 호	20	43
포 진 지	74	35
지 휘 소	89	65
관 측 소	13	11

공병부대들은 도로·교량 작업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용도로 73km를 정비하였으며, 평양시에 대동강을 건너는 200m 길이의 수중교량 건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최고사령관용 지휘소 건설을 지원하면서 지하통로 총 연장 375.5m의 지하방공호 19개를 건설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루

5,420명의 인원과 폭약 751.3kg이 소요되었다. 공병부대들은 위장 작전 일반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면서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모의표적 49개를 제작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의 차량중대 17개 표적
- 모의 병력집결지 4개 표적
- 모의 도선장 2개 표적
- 모의 교량 1개 표적
- 야간 모의 차량 중대 표식 3개 표적
- 모의 지휘소 5개 표적
- 모의 전차 집결지 8개 표적
- 모의 비행장 1개 표적
- 모의 포병진지 6개 표적
- 모의 보병중대 2개 표적

3개월 동안 이들 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의 항공기가 유인되었다.

- 폭 격 기(B-29, B-26) 222대
  - 전 투 기 148대
  - 제트전투기 249대
  - 야간폭격기 8대
- 적 항공기들은 총 627회 출격하였다.

### 3. 교육훈련

#### 1) 부대지휘 현황

조선인민군 공병지휘참모부, 각 군단 공병과 각 공병연대 참모

부는 인원이 완전하게 보충되었다. 지휘군관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각 군단 공병부대장, 공병지휘 부서장, 사단 공병군관들은 대부분 조선인민군 군관학교 공병분과에서 실시하는 공병교육을 받지 못했다. 공병업무의 숙련은 소대장, 중대장, 연대 공병군관 및 기타 직책에서 실무 습득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무를 통해 발탁된 군관들의 전문적 지식수준은 만족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적인 결함으로는 이론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문적 군사이론 지식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공병업무 수행에 있어 주도권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투시 공병지원 과제를 해결하는 조선인민군 공병지휘참모부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모부에 대한 공병부대장들의 구체적인 과제 제기 부족, 참모부내 각 부서장 및 군관들의 업무상 책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다.

195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 군사참모 훈련은 자체 기능 및 의무의 습득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4월 5일 각 공병부대 상급고문들과 부서장들과의 실무협의회(그들 앞에 제기된 임무인지 점검을 위한)는 부서장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그들 앞에 제기된 임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병연대 참모부의 학습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3월에는 ‘이동장애물분대의 행동지휘’와 ‘작전장애물들의 전투준비태세 확립’이라는 주제가 학습되었다.

참모부 군기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긴급보고 분석표에 의하면 각 군단 공병부서들과 연대 참모부들의 보고수준이 낮다. 보고문

제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취해진 명령 발동과 같은 조치는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이 점에서 주요 결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병부대 책임자들의 엄격성 부족이다.

공병 지휘관들은 부대순방을 통하여 최고사령관이나 공병지휘 책임자의 명령이 수행되도록 통제한다. 하지만 파견되는 대표들은 출발에 앞서 받은 훈령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부대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며, 현지의 결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특히 제4, 7군단 공병부대장들은 이동수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뢰매설 및 해안방어 대책 강화과정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제4군단 공병과장은 제13사단 작업통제를 위해 15일간을 소모하였는데, 이러한 실례는 다른 임무의 수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 2) 전투훈련

공병작업의 수행 및 이에 대한 공병부대들의 업무과다로 인해 1개월 내지 3개월간 전투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5개월간의 전투훈련 프로그램은 20% 정도만 집행되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공병부대들은 해안방어와 전선에서의 각 군단 작전을 통하여 공병작업의 수행, 특히 지뢰 및 폭발물, 장애물과 야전축성 등에 있어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각 공병연대 예하 부교(浮橋)대대들은 2월부터 3월까지 압록강에서 도하장비 운용을 습득하였고, 장비가 집결됨에 따라 1951년

4월 10일 대동강에서 중교량장비와 NLP의 조립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공병교육대대는 5개월 프로그램을 5월 15일경 완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부대훈련 수행을 위한 물적기반은 조성되었으며, 부대들은 참호공사용 도구, 폭약, 지뢰(소련제 또는 적의 제품) 등을 지급받았다.

전선의 각 군단 예하 공병부대들은 방어진지 강화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임진강 도하지점들에 대한 공병정찰을 수행하고, 관련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각 연대장 및 독립공병대대장급 군관들은 대부분 군관학교 공병분과 계통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공병지원 사업과 공병작업 방법의 수행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있다.

중대장 및 소대장급 지휘군관의 경우 40% 가량이 전시 공병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군관학교 예하 3개월 강습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각 부내에서 군관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지뢰 매설, 지뢰제거, 도하 등의 작업방법 습득과 완성에 있다.

### 3) 준비태세

보유한 공병장비를 개량하고 보충한 이후,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951년 4월 10일 현재 도하장비의 40% 정도가 단동(丹東)에서 차단[정주군 남서면]역에 도착하여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각 공병연대에 장비수송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대 수송장비로는 장비를 운반할 수 없다.

인원과 기자재에 대한 등록 및 보고는 진행되고 있다. 인원등록부가 만들어졌고,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3월부터 4월까지 기간 동안 수중교량 건설과 평양 비행장 정비작업과 같은 야간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각 공병연대에 대한 비상훈련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공병 교육대대에서의 비상훈련은 실시되고 있고, 비상소집 지역에는 방공호들이 구축되었다.

#### 4. 인원 및 장비현황

<표 2-11>                      각 군단 공병장비 보급현황

품 명	군 단							제1 공병 연대	제2 공병 연대
	1	2	3	4	5	6	7		
?	728	600	1,000	600	586	1,600	3,600	400	600
?	5,359	7,039	11,419	3,000	6,537	15,050	22,050	160	100
?	779	988	806	2,000	714	390	990	150	250
?	100	150	200	300	123	350	640	210	250
?	262	264	439	150	245	625	1,220	52	100
?	100	100	200	-	100	315	615	50	100
?	100	60	100	60	66	165	165	60	100
?	65	40	60	60	53	100	100	72	30
?	100	100	200	-	100	310	610	200	100
?	5	5	10	-	5	18	18	19	8
대전차지뢰	3,091	1,970	2,220	2,750	3,017	2,250	2,420	3,620	1,000
대인지뢰	620	250	500	500	250	2,000	3,120	3,640	1,000
	1	1	1	1	1	-	-	-	-

비고 : 군단의 공병장비 보급률은 90%이다.

〈표 2-12〉 공병부대 인력총원 일람표(1951. 4. 15)

인적 구성원 범주	공 병 부 대								
	제1공병연대			제2공병연대			공병교육대대		
	편제	실제	부족	편제	실제	부족	편제	실제	부족
군관	267	267	-	266	265	1	46	46	-
하사관	326	348	-	323	317	6	92	94	-
전사	1,890	1,682	208	1,778	1,546	232	444	444	-

〈표 2-13〉 공병부대 차량보급률

차량종류	공 병 부 대								
	제1공병연대			제2공병연대			공병교육대대		
	편제	실제	부족	편제	실제	부족	편제	실제	부족
경차	1	1	-	1	1	-	-	-	-
3톤트럭	121	21	100	60	14	46	5	-	-
특수차	4	1	3	4	-	4	-	-	-
모터사이클	1	-	1	1	1	-	-	-	-

## 5. 공병부대 개선대책

- (1) 내무생활 및 전투행동에 있어서 공병 지휘상에 나타나는 취약한 측면으로는 군관성원들의 군사이론 교육부족, 상급 참모부에서의 활동 경험부족, 자신의 임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참모부 및 공병부서들은 전투행동 과정에서 전투시 공병지원업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2) 이와 같은 주요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명령 및 지시 하달, 통제 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 결 론

- (1)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는 다양한 형태의 전투에서 공병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 (2) 각 단계의 군관성원들은 각급부대의 지휘, 공병지원의 조직화 경험을 습득하였다.
- (3) 다양한 형태의 전투에서 수행된 공병지원을 통해 공병부대의 권위가 상승되었다.  
전군 지휘관들은 공병부대의 올바른 운용에 익숙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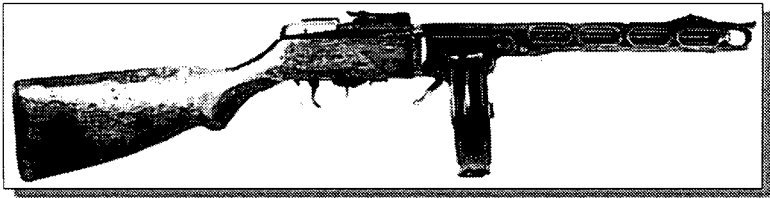
## 제 7 장 조선인민군 기갑부대(1951. 4. 10)

### 1. 기갑부대 재편성

#### 1) 기갑부대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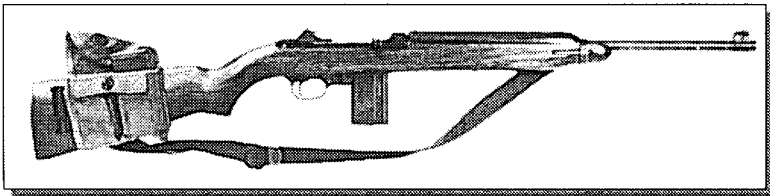
- (1) 퇴각 이후 전투차량 및 지원차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제105 기계화사단이 재편되고 인원이 충원되었다.
- (2) 노획한 미제 전차(T-26, T-46) 26대가 수리를 거쳐 해안방어용으로 원산 지역의 제103독립땅크대대, 함흥지역의 제104 독립땅크대대, 진남포 지역의 독립땅크중대로 배치되었다.
- (3) 새롭게 2개 독립땅크대대(제103독립땅크대대, 제104독립땅크대대)와 1개 독립땅크중대가 편성되었다.
- (4) 교육연대에 교관들이 충원되었으며, 새롭게 편성되는 12개 76mm 자주포대대와 제10기계화사단의 승조원 및 군관훈련을 위한 교육 및 물적기반이 구축되었다.
- (5) 기계화사단 및 땅크교육연대의 편제가 재검토되어 땅크교육

연대의 인원은 1,0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기계화사단 예하 전투부대 인원이 충원되었다. 기계화사단 예하 땅크연대 편제에 데그타레프·슈파긴 대구경 기관총중대와 자동소총중대가 편입되었고, 자동차 저격연대에는 데그타레프·슈파긴 대구경 기관총중대가 편제되었다.



<ppsh - 41 슈파긴 기관단총(따발총)>

제 원	구경 : 7.62mm	탄	창 : 35발 박스형, 71발드럼형
	중량 : 3.64kg	발사속도 : 900발/분	



<M1 카빈소총>

제 원	유효사거리 : 250m	유효발사속도 : 60발/분
	최대사거리 : 2,000m	탄 창 : 15발 또는 30발

- (6) 전차 운전교육(특히 야간운전), 승조원 훈련, 노획한 미제 전차에 대한 실제 사격연습이 실시되었다. 전투훈련 과정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 (7) 이 기간 기갑부대 예하 정비부대들은 전투차량 및 지원차량의 복구임무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의 수리를 마쳤다. 즉 T-34 전차 38대, 76mm 자주포 14대, 노획한 미제 전차 26대, 궤도차량 185대와 전차용 축전지 70개가 새로이 제조되거나 수리되었다.
- (8) 제105, 제17기계화사단은 다양한 편제로 조직되었다. 현재 편제가 재검토되고 있으며, 편제가 확정되는 대로 단일편제가 적용될 것이다.

## 2) 기갑부대 편성

제105, 제17기계화사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앞의 ‘1951년 4월 1일 조선인민군의 현황’을 참고할 것.

- 제208땅크교육연대는 땅크교육대대, 자주포교육대대, 기술보장대대, 운전학교(차량화대대), 기술보장중대, 군관훈련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 제103독립땅크대대와 제104독립땅크대대는 각각 4개 땅크중대, 즉 3개 땅크중대와 1개 자주포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 정비기지는 5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 독립땅크중대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 2. 교육훈련

각급부대 참모부가 충원되었으며, 부대교육과 전투활동을 조직할 능력을 갖추었다. 참모군관들에 대한 교육과 참모훈련이 진행 중이다. 교재의 양적인 부족은 교관들의 교육과 군관들의 자율적 학습에 걸림돌이다.

각 참모부의 규율(군기)수준은 만족스럽기는 하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각 부대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통제력이 부족한 점이 기본적인 결함으로 꼽히고 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직접 부대들에 하달됨에도, 각 부대들은 집행되는 사업이나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갑부대 참모부는 통신장비(무선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부대에 대한 지휘, 통제 및 적시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한다.

## 3. 전투준비태세

T-34 전차(땅크)와 76mm 자주포 등의 전투장비는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제17기계화사단의 경우는 예외인데, 이 사단의 전차 및 자주포용 엔진의 교체가 필요하다.

제105기계화사단은 예상 방면들로의 반격시에 실시하는 협동작전 문제를 해결하였다.

각급부대들은 예비용 연료, 특히 B-70 휘발유와 탄약을 규정량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기갑부대의 차량 총족률은 20%에 불과한데,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전투과정에서의 지원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각 부대들에 필요한 양만큼의 연료와 탄약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하계 작전운동으로의 이행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 ※ 결 론

- (1) 기갑부대 병사와 군관들의 정치적 정신상태는 매우 건전하다. 승조원들은 훈련되어 있어, 제기된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 (2) 제105기계화사단은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병사와 군관들은 잘 준비되었고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다.
- (3) 제17기계화사단은 현재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전차와 자주포는 엔진교체가 필요하다. 전차와 자주포를 편제에 맞게 보충하고, 예비연료 및 탄약을 규정만큼 확보해야 한다.
- (4) 제103독립땅크대대(원산), 제104독립땅크대대(함흥), 독립땅크중대(진남포)에 전차와 자주포를 편제에 맞게 보충해야 한다.
- (5) 12개 자주포대대와 제17기계화사단의 편성에 필요한 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 제 8 장 조선인민군 공군(1951. 4)

### 1. 공군부대 재편성

- 공군지휘부 및 예하 지원부대
- LA-9 전투비행(요격기)사단 참모부
- 2개의 MIG-15 요격기연대 및 교육을 위한 2개 항공기술대대로 구성된 사단
- 연길(延吉)에 소재한 비행기술항공학원
- 3개 항공기술대대
- LA-9 요격기연대 참모부

- (1) 충원 및 편성단계에 있는 항공기술사단의 편제가 확정되었다.
- (2) 각 항공기술대대의 편제상 정원이 감축되어(이전에는 대대당 729명씩이었다) 현재는 대대당 503명으로, 전체 항공기술대대에서 총 824명이 감원되었다.
- (3) 각 사단 및 연대 참모군관들, 그리고 비행대대 부대대장들의 훈련을 위해 90명 정원의 4개월 과정 강습과 70명 정원의 통신전문가 강습이 실시되었다.

각 항공기술대대장 및 공병기술 지도간부에 대한 월간소집이 실시되었다.

#### (4) 비행장 준비

강동(江東), 의주(義州), 강계(江界) 등의 지역에 프로펠러 항공기용 비행장들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준비 중에 있다. 신의주, 평양, 미림, 풍천, 온정리 등 기존 비행장들에는 유개호가 구축되었다.

안악(安岳)과 사리원(沙里院)에 프로펠러 항공기용의 새 비행장이, 그리고 평양 근교에 제트기용 새 비행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준비 중에 있다. 이전에 건설된 비행장들에 대한 정비 및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즉 제트기용 미림 비행장, 프로펠러식 항공기용 풍천, 평양, 온정리 비행장이다.

### 1) 항공부대

〈표 2-14〉 조선인민군 항공부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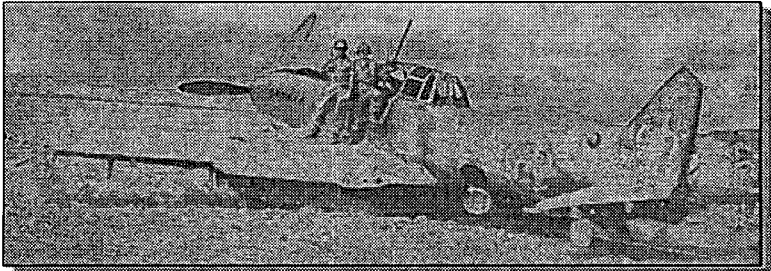
각 부대의 명칭	조종사수	항공기수	비행장 소재
1. 혼성비행사단			
IL-10 습격기연대	21	30	신의주
YAK-9 요격기연대	17	30	신의주
2. 추격기사단			
LA-9 요격기연대	23	30	훈 춘
3. 독립비행대대			
PO-2 야간폭격대대	18	1	신의주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1) 중국 영토 내에 배치된 MIG-15 조종사 65명과 사단참모부, 2개 연대 참모부, 2개 항공기술대대로 구성된 비행사단이 완편되었다. 교육은 1951년 3월 20일부터 중단되었다.
- (2) 소련 영토에서 실시될 LA-9 조종사 40명에 대한 훈련시기는 대략 1951년 4월 1일경이다.
- (3) 소련 영토에서 LA-9 조종사 60명의 훈련시기는 대략 1951년 6월 1일경이다.

연길(延吉)에 소재한 비행기술항공학원은 1개 습격기연대, 1개 요격기연대 및 2개 항공기술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항공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조종사 후보 : 570명
- 초급 항공전문가 후보 : 964명



<IL-10 습격기>

제 원	승 무 원 : 2명	무 장 : 23mm 기관포×2
	중 량 : 6,350kg	폭 탄 : 1,000kg
	최대속도 : 456km/h	



항공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 YAK-18 : 15대, 그중 12대는 엔진수명을 늘렸다.
- YAK-11 : 15대, 그중 10대는 엔진수명을 늘렸다.
- YAK-9v : 8대
- YAK-9p : 5대
- UIL-10 : 6대
- IL-10 : 6대
- LA-9 : 8대

## 2) 후방부대

비행부대의 지원을 위해 8개 항공기술대대가 편성되었다. 이들 부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4개 대대는 조선인민군 공군전투부대의 비행사업을 지원한다.
- (2) 2개 대대는 비행기술항공학원을 지원한다.
- (3) 2개 대대는 중국 영토에 위치한 제트기 사단 예하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립항공경비대들이 창설되었다.

## 3) 공군지휘부

공군지휘부 예하에는 다음과 같은 편제가 있다.

- 2개 공병대대
- 1개 비행기수리소
- 1개 공군병원
- 1개 통신중대

#### 4) 항공부대 임무

##### (1) 습격기연대

- 야전 비행장으로부터 2대씩 이륙하여 편대를 이루고 단 전투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순환’ 전투대형으로부터 항공기 1대씩 급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총사격을 실시한다.
-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저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비행을 실시한다.

##### (2) YAK-9p 요격기연대

- 제한된 규모의 비행장에서 2대씩 이륙하여 편대를 이루어 집단 전투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폭격기들을 동반하여 항로비행을 실시한다.
- 편대단위로 중고도에서 육안정찰을 수행한다.
-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비행 및 공중전 수행훈련을 실시한다.
- 비상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비상출격을 실시한다.
- 매복 비행장으로부터 적 비행기에 대처할 작전능력을 배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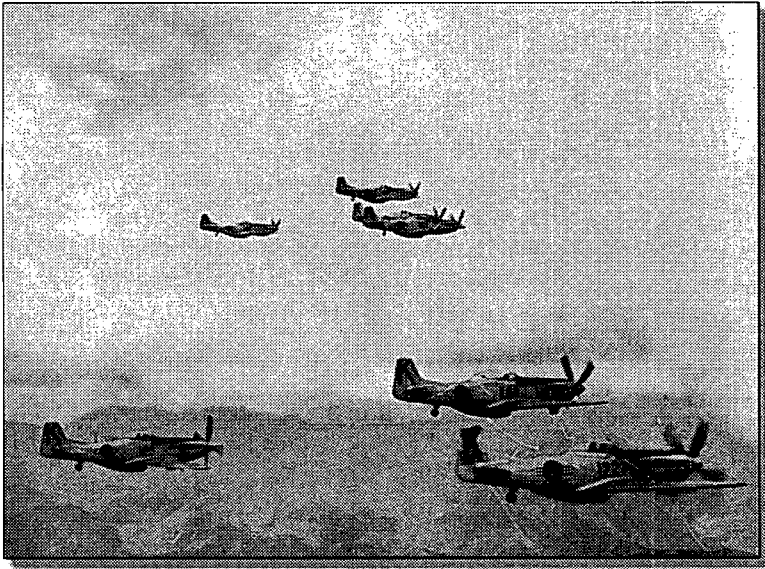
##### (3) LA-9 요격기연대

- 초급조종사들을 포함하여 편대단위 비행을 실시한다.
- 조종술을 연마하고, 중고도에서 편대단위 공중전을 실시한다.
- 급강하를 통한 지상표적 공격기술을 연마한다.

-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고도로 편대단위 항로비행을 실시한다.

(4) PO-2 야간폭격대대

- 야간 조종술 연마를 위해 선회비행 및 권역항행 훈련을 지속한다.
- 야간에 중고도에서 단독 항로비행을 실시한다.



<F-51 무스탕 전투기>

제 원	승 무 원 : 1명	무 장 : 구경 50 기관총 6정
	최대속도 : 703km/h	(실탄 1,800발)
	항속거리 : 1,610km	2,000파운드 폭탄

### (5) 비행기술 항공학원

(가) 1951년 7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이 완료할 것.

- LA-9 조종사 32명과 초급 항공전문인력 122명
- IL-10 조종사 32명과 초급 항공전문인력 161명

(나) 1951년 12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이 완료할 것

- LA-9 조종사 64명과 초급 항공전문인력 244명
- IL-10 조종사 64명과 TU-2 사격수 및 무선통신사 322명

(다) 나머지 비행사는 1952년에 배출할 예정이다.

### 5) 항공부대 임무수행

#### (1) 습격기연대

부여된 모든 임무는 완전히 실행되었다.

#### (2) YAK-9p 요격기연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수행되지 않았다.

- 조종사의 30%가 제한된 규모의 비행장으로부터 2대씩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 조종사의 30%가 편대단위의 항로비행 및 공중전 수행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 (3) LA-9 요격기연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수행되지 않았다.

- 조종사의 17%가 대형에서 벗어나 이후의 임무들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편대단위 항로비행 및 지상목표물에 대한 사격술을 완전히 연마하지 못하였다.

#### (4) PO-2 야간폭격대대

제기된 임무는 PO-2기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 2. 부대지휘 현황

### 1) 참모부의 총원 및 교육

- (1) 혼성비행사단 참모부와 예하 연대 참모부(YAK-9p 1개 습격기연대 및 1개 요격기연대)는 완전하게 충원되었으며, 전투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
- (2) LA-9 요격기사단 참모부는 군관들을 거의 완전히 충원하는 단계에 있다.  
참모군관 훈련은 양호한 편이다.  
LA-9 요격기연대 참모부는 완전하게 충원되었으며, 전투임무 수행준비가 아주 잘 되었다.
- (3) 비행기술 항공학원 참모부는 완전하게 충원되었으며, 훈련도 아주 만족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 (4) 항공기술사단 참모부는 거의 완전히 충원하는 단계에 있다. 전투부대의 전투활동 지원을 위한 군관훈련은 양호하다. 항공기술대대 참모부는 완전하게 충원되었고, 준비도 잘 갖추어졌다.

## 2) 참모군관 학습조직

참모군관들의 교육은 2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1) 이전에 항공부대에서 근무하였거나 참모활동 경험을 지니고 있는 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분야에서 지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 (2) 타 병과 출신이거나 이전에 참모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군관들을 대상으로 한 참모군관 교육을 위한 4개월 과정의 강습이 조직되었다.
- 강습은 두 개 반으로 편성되었다.

- 제 1 반 : 각 사단 및 연대 참모장, 각 사단 작전 및 정찰과장
- 제 2 반 : 각 연대 참모군관 및 각 편대(비행대대) 부부대장

강습을 마친 후 모든 군관들은 실무교육을 위해 각 부대로 파견되었다.

참모군관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선에 배치된 각 연대 및 사단 참모부, 전방 비행장들에서는 정기적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참모부는 2개 내지 3개 장소에 분산 위치해 있어, 반별 학습이 불가능하다.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 3) 군기현황, 명령의 수행, 통제조직

군관, 하사관, 전사의 군기는 만족할 만하다. 부도덕한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급 참모부의 일체 명령은 수행되고 있으나 속도와 명료함이 부족하다.

각급부대 참모부들은 예하부대들의 명령 및 훈령 수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그 결과 명령 및 훈령 수행과정에서 완만함과 부정확성이 나타나고 있다.

### 4) 통신기재 지원

각급부대들 간의 기본 통신기재는 무선기(무전기)이다. 유선통신은 부대 내에서만 가능하다.

〈표 2-15〉 공군부대의 무선통신 기재 확보율

통신장비 명칭	편 제	실 제	부 족 분
RAF 무전기	28	2	26
폭격기용 무전기	29	14	15
LBM 무전기	38	21	17
US 무전기	26	6	20
총 전 기	18	8	10
TAI - 43	406	112	294
야전전화	1,130	202	928
PK - 30, K - 10	37	8	29

연대는 물론이고 사단에서도 통신기재의 확보율이 매우 낮다. 기존의 무선통신 기재는 각 부대의 전투활동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공군부대들의 무선통신 기재 확보율은 평균 22.5%[21.8%]에 불과하다.

P-3형의 레이더 장치 4대가 있는데, 현재 2대는 작동 중에 있고, 나머지 2대는 예비용으로 보관 중이다.

레이더는 평양 비행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작동 중이며 비행장 복구작업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지대들의 인원은 60% 내지 80%만이 충원되었을 뿐이다.

### 3. 전투훈련

#### 1) 조종사 훈련

전투경험을 가진 각 연대 소속 조종사들은 전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종술 및 비행훈련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다.

(전투경험을 갖지 못한) 나머지 비행사들은 비행술 및 전투수행 훈련을 받고 있다.

비행은 비행훈련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적인 조종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면밀하게 실시한 결과 조종사들의 지상 및 출발전 훈련의 질이 제고되었다.

비행일의 결정 및 비행 후 검사 실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비행 중에 나타난 조종사들의 모든 실수와 결함이 주의



깊게 분석되고 있다.

## 2) 지도군관의 훈련

각 연대장들은 자신의 주특기인 항공기 조종에 있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자신의 비행업무 관련 지식을 부하들에게 전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연대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결함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적(방법론적) 숙련부족을 들 수 있으며, 예하부대들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다.

비행날짜의 편성에 명료함이 없고 부하에 대한 엄격성도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낮은 수준, 부족한 실무경험, 지도부의 엄격성 결여 등은 조종사 훈련과 일상적인 전투 및 교육임무 수행 등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

전문교재(공기동력학, 조종술, 폭탄투하, 공중사격, 공중전 전술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도조종사들은 자신의 이론지식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휘하 조종사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 4. 전투준비태세

### 1) 승조원의 전투준비태세

모두 62[60]명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조종사가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IL-10기 승조원 21명
- YAK-9p기 승조원 13명
- LA-9기 승조원 18명
- PO-2기 승조원 8명

IL-10기 조종사들은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저고도에서 편대대형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YAK-9p 전투기 조종사들은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고도에서 편대대형으로 전폭기 엄호, 공중전 수행, 육안정찰 등의 전투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

LA-9 요격기 조종사들은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고도에서 편대대형으로 공중전 등의 전투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PO-2기로 편성된 야간폭격 항공조종사들은 야간에 중고도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 요격기편대는 경보가 발령되면 2분 내지 6분 안에 전투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할 수 있으며, 비행중 무전을 통해 전투임무를 접수할 수 있다.

## 2) 장비유지

물적장비들은 만족할 만큼 유지되고 있으며,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병지도부의 엄격성이 제고된다면 비행기, 모터, 병기 등의 장비는 훌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군 기

조종사, 기술자, 참모군관 등의 군기는 매우 양호하다.

## 5. 공군부대의 보급

- (1) 공군 지휘부 예하에 2개 공병대대가 편성되었지만, 비행장 건설장비들이 완전하게 보충되지 않았다. 즉 트랙터, 그레이더, 쇄석기, 콘크리트 믹서기, 불도저 등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 각 공병대대는 비행장의 수리 및 건설에서 수작업을 통해 흙을 덮고만 있다.
- (2)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수리소에는 전문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행기와 모터를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을 뿐이다.
- (3) 항공기술대대들에 대한 장비 보급률은 27.5%[28.0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장비가 매우 부족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모든 항공부대의 전투임무 수행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표 2-16〉 조선인민군 항공기술대대 장비 보급률(1951. 4. 15)

장 비	편제수량	실제수량	부 족 분
탑 재 차	190	70	120
가솔린 급유차	38	11	27
급수·급유차	20	2	18
가솔린 탱크자동차	84	9	75
트 랙 터	20	5	15
압축장치	12	5	7

(4) 각 부대에 대하여 탄약 및 항공기용 연료는 다음과 같이 보장되었다.

- YAK-9p기의 경우 승조원을 20명으로 해서 34 탄약기준수량 [기본휴대량]이 보장되었다.
- LA-9기의 경우 승조원을 20명으로 해서 39 탄약기준수량이 보장되었다.
- IL-10기의 경우 승조원을 23명으로 해서 26 탄약기준수량이 보장되었다.
- 항공기용 연료는 항공기를 63대로 계산해서 5회 비행용 급유량을 보유하고 있다.

## 6. 기술교육 운용

### 1) 교육 및 운용의 개선

(1) 조종사의 비행준비 교육에 모형항공기가 도입되었으며, 이

륙전 훈련은 직접 비행장에서 항공기 동체를 실제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형비행 또는 전투비행 훈련은 ‘지상에서 걸으면서 대열을 형성해 보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 (2) 훈련비행 및 특히 전투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실시에 있어 정확한 비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전과탐지기 정보들이 이용되고 있다.
- (3) 실루엣 사진자료와 실제 관측, 격추된 비행기의 부품 등을 통해 적기에 대한 연구가 주의 깊게 진행되고 있다.
- (4) 소규모 비행장에서의 조종사의 이착륙훈련을 위하여 대규모 비행장에는 활주로에 제한표시가 부착되고 있다.
- (5) 항공기 정비원들의 지식제고를 위해 전투비행 및 일상비행의 준비방식과 규칙을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전체 전문가 회합이 진행되고 있다. 공병지도원들의 비행기 이륙준비에 대한 통제는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
- (6) AM-42 모터 수리시 이용되는 특수고무 삽입기의 제조과정이 습득되었다.
- (7) 정비기관 전문가들은 듀랄루민 장비수리 및 전기용접 작업을 터득하였다. 공랭식 모터 프로펠러의 수리방식도 완성되었다.
- (8) 항공기 가열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터 가열용 특수 난로가 모방 제작되어 동계조건에서 시험되었다.
- (9) 비행장에서의 비행유도를 위하여 전투기용 무전기인 RSI-6가 고정장치대 위에 설치되었다.
- (10) 물적장비를 보존하고 적 항공기의 공습에 항공기를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개호들을 건설하였다.

## 2) 문제점

- (1) 학원에서 배출되는 조종사들은 충분한 조종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전투부대에 배치된 LA-9 및 YAK-9p 요격기 조종사들은 배가된 실전비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조종사들의 취약한 준비정도의 원인은 학원 교육시 충분한 비행을 하지 못한 점에 있다.

실전비행 및 전투비행 교육시 발생하는 비행사고의 대부분은 낮은 수준의 조종술(특히 이륙시)과 이착륙시 실수로 인해 일어난다. 이미 실전비행을 실시하는 조종사들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주간에 중고도에서만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각 공군부대들에는 예비부품과 기자재가 극히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 항공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제출된 신청서에 따른 예비부품은 입수되지 않고 있다.

- (3) 조선에는 연료분석을 위한 실험실이 없다. 도입되는 연료에 대한 증명서가 언제나 첨부되지 않는다. 연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련(大連)이나 보로실로프[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서 분석하도록 해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

- (4) 각 공군부대에는 의료용 산소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YAK-9p 및 LA-9 전투기들이 중고도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 (5) 평양 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행장 건설은 지상의 공격뿐 아니라, 특히 공중공격에 대한 방어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에 건설된 모든 비행장들과 새로 건설되는 비행장들이 적 항공기의 체계적인 공격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비행장의 복구 및 건설을 위해 필요한 비행장 건설장비가 극히 부족한데, 이는 작업진행 기간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다.

- (6) 러시아어로 쓰여졌거나 또는 조선어로 번역된, 비행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재, 지침서, 교범 등이 전무한데, 이로 인하여 항공부대 조종사 및 기타 군관들은 이론과 훈련을 정확하게 실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 3) 개선대책

- (1) 소련 항공학교에서 수확하고 있는 조종사 후보들의 비행시간을 늘림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북조선 영토로 비행기를 조종해 올 수 있게 하고, 추가훈련 없이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비행장 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공군에 다음과 같은 비행장 건설장비 및 차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콘크리트 믹서기 : 40대
- 구레이더 : 6대
- 불 도 저 : 4대
- 금속롤러 : 10대
- 트랙터 : 6대

- 차 량(자동차) : 600대
- 쇠 석 기 : 10대

(3) 비행장 건설은 북조선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고사포와 특히 단동(丹東)과 신의주 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들에 의해 최대한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서북지역의 개별 지대로부터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지대의 비행장 건설이 완료되면, 즉시 그 비행장에 전투기를 투입하여 건설 중인 두 번째 지대의 비행장을 엄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건설체계는 건설 중인 비행장에 최대한의 장비와 노동력, 대공화기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양의 건설자재 운반을 보장할 것이다.

(4) 각 공군부대에 다음과 같은 수량의 자동차, 특수차량, 통신수단을 공급해야 한다.

- 자 동 차 : 120대
- 가솔린 급유차 : 27대
- 가솔린 탱크자동차 : 75대
- 급 유 차 : 18대
- 압 축 기(컴프레서) : 4대
- 충 전 소 : 4곳
- 가연물 실험소 : 4곳
- 기 중 기 : 4대
- 이동산소펌프 : 6대
- 트 랙 터 : 15대
- LAF 무전기 : 10대
- 폭격기용(RSB) 무전기 : 6대



- B-100 무전기 : 6대
- 전 화 기 : 80대
- PK-30 교환기 : 5대

(5) 조선인민군 공군부대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련군]고문관들을 편제에 포함시키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 ① 비행기술항공학원 참모장 : 1명
- ② 무선통신 엔지니어 : 1명
- ③ 지상무전소[기지] 무전전문가 : 1명
- ④ 공군 연료 책임자 : 1명

#### <비행부대>

(1) IL-10 습격기연대는 적 부대에 대한 강습, 도로 및 도선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철도역이나 화기진지에 배치된 포대 혹은 박격포대에 폭격을 가할 수 있다.

(2) YAK-9p 요격기연대는 중고도에서 공중전을 수행하고, 전 폭기들과 동행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3) LA-9 요격기연대는 중고도에서 공중전을 수행하고 도로상에 있는 적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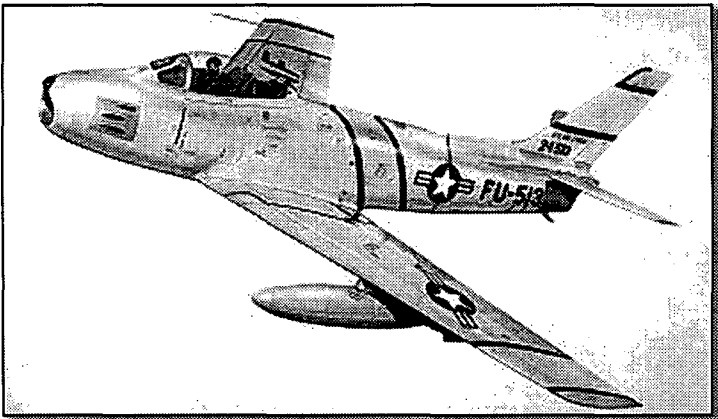
모든 부대들은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 주간에 중고도에서만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MIG-15 제트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각 학원에서는 초급 조종사들이 전투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투부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시에



<MIG-15 전투기>

제 원	최대속도 : 1,016km/h	무장 : 23mm 기관포×2
	항속거리 : 963km	37mm 기관포×1



<F-86 세이버 전투기>

제 원	최대속도 : 1,050km/h	무장 : 12.7mm 기관총×6
	항속거리 : 1,400km	

비행시간을 늘려야 한다. 전투부대에서의 초급 조종사들의 실전비행은 수행해야 할 전투과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비행장들은 자주 적 항공기의 공습을 받고 있다.

항공부대의 전투과업 수행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조선에 탄약, 연료·윤활유, 특수차량, 무전장비 등을 공급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현재 기술장비 및 연료, 탄약 등의 재고분은 기껏해야 10일 정도의 강력한 전투과업을 보장할 수 있다.

확정된 신청서에 따라 장비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공화국 비행기술학원의 조종사 훈련사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장 건설은 고사포의 엄호 하에서뿐만 아니라 건설되는 비행장 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체계적으로 초계하는 전투기들의 엄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투부대 조종사들의 직책을 확정해야 하며, 전투부대 편대장이 항공학원 교관과 동일한 급료를 받는 것과 같은 결함이 시정되어야 한다.

전투과업 수행을 위해 비행을 하는 전투조종사에게는 기본급료 외에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제 9 장 조선인민군 해군(1951. 4)

### 1. 해군부대 재편성

#### 1) 해군의 재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해군 참모부는 공화국 해군 정원(편제)을 감축하는 쪽으로 검토하였다.

새로운 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화국 해군 참모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다.

- 해군 전투장비의 실제 수량 및 단기간 내에 (해안포병용) 무기 입수 가능성
- 해군조직 및 주요 간부의 유지 필요성
- 관측연락과 조직, 기뢰장애물 작업 실시, 향후 간부훈련 등과 같이 최근에 결정된 해군의 제한된 임무

1951년 2월 18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127호에 의

거하여, 해군 참모부는 1951년 3월 15일 육전대[해병대] 부대를 육군에 이전하고, 새로운 정원에 따라 해군을 보충하였다. 편제 이외의 인원, 즉 군관 431명, 하사관과 전사 128명이 육군으로 전군하였다. 가까운 시일 안에 군관 625명, 하사관과 전사 187명도 육군에 넘겨질 것이다.

새로 확정된 편제에 따르면, 해군 편제에서 제외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청진 해군기지
- 해군 조선지휘부
- 수병학교
- 해군병원
- 공화국 해군 해안방어/육전여단 지휘부
- 고사포연대
- 해군 건설대대

육전대 6개 여단 가운데 육전대 2개 대대, 원산 해군총기지 예하 육전대 1개 대대, 남포 해군기지 예하 육전대 제2대대(아직 편성되지 않았음)는 해군에 남게 되었다.

해안포병 2개 연대는 107mm 포 독립포병 3개 대대와 76mm 포 독립포병 5개 대대로 재편되었다.

기존 해군기구와 비교하여 바뀐 편제는 70% 정도로 축소되었다.

## 2) 해군의 편성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군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 해군 참모부
- 해군 정치부
- 해군 후방부
- 해군 통신부
- 해군 운항부
- 해군 간부부
- 해군 재정부
- 해군 의료위생부
- 해군 공병부
- 해군 정치보위부
- 해군 검찰소
- 해군 재판소
- 원산 해군총기지
- 남포 해군기지
- 해안방어부대
- 해군학교
- 해군함정

## 2) 1951년 4월 1일 현재 참모부와 해군기관 충원

- 군 관 : 100%
- 하사관 : 93%
- 전사 : 93.9%
- 군사학교 학생 : 74.5%

### <함정구성>

- ‘관측자’형 BO 제11호 : 1척(소련에 유치되어 있음)
- OD-200형 MO 제14호 : 1척(소련에 유치되어 있음)
- G-5형 어뢰정 제29호 : 1척(소련에 유치되어 있음)
- 초계함 제52호(배수량 240톤, 진남포에서 건조) : 1척(신의주)

- 초계정 제23호 (이전에는 경비함) : 1척(신의주)
- 진남포 해군기지 : 스쿠너 : 30톤 : 1척(전투태세)  
스쿠너 : 30톤 : 1척(1951. 2. 22.까지 수리)  
[Schooner : 통상 2개 이상의 돛대를 가진 범선]  
쿤가스[보트](기뢰용) : 20톤 : 4척(전투태세)
- 원산 해군기지 : (어로조직들로부터 동원됨)  
스쿠너 : 50톤 : 3척(전투태세)  
스쿠너 : 30톤 : 2척(전투태세)  
스쿠너 : 50톤 : 1척(수리중)  
쿤가스(기뢰부설용) : 20톤 : 2척(전투태세)
- 청진항 : 스쿠너 : 35톤 : 2척(전투태세)  
쿤가스(기뢰부설용) : 20톤 : 2척(전투태세)
- 나진항 : 스쿠너 : 50톤 : 1척(전투태세, 공화국 해군학교)
- 웅기항 : 스쿠너 : 50~80톤 : 5척(예비용)

### <해안포병>

- 독립포병(OADBO 76mm 포 5문) : 5개 대대
- 독립포병(OADBO 107mm 포 3문) : 3개 대대

포병대대는 다음과 같이 충원되었다.

- 인원 : 30~40%
- 지휘성원 : 100%

장비 및 기술설비는 전무하다.

해안방어 포병대대들의 향후 충원은 원산 해군충기지에서 실시하도록 예정되었다. 보충은 1951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예정된 기자재 도입으로 완료될 것이다.

새로운 편제에 따르면 해군 총 병력은 7,213명이 되어야 한다.

- 군 관 : 1,006명
- 하 사 관 : 1,946명
- 수병 및 전사 : 2,761명
- 해군군사학교 학생 : 1,500명

실제 병력은 6,544명이다.

- 군 관 : 1,006명
- 하 사 관 : 1,828명
- 수병 및 전사 : 2,593명
- 해군군사학교 학생 : 1,117명

3) 1951년 4월 1일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군의 조직 및 구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과제

- 해안 관측연락 업무 실시
- 만(灣) 입구 및 그 내부에 수중장애물로서 기뢰부설
- 승조원 및 해안방어 간부 양성

현재 해군은 관측 및 통신업무의 조직과 운용을 현저히 향상시켰다. 무전소에서 무선전문 및 전문도달시간이 1950년 후반기와 비교하여 1.5배 내지 2배 가량 향상되었다.

공화국 해군은 외국산 무기의 전투운용 방식을 습득하였고(조선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조수단으로 어로용 스쿠너[근해용 소형어선], 쿤가스 보트 등에 무기·장비 설치를 하고 있다.

보고기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성진, 청진, 원산항 입구를 엄호하는 AMD-1000형 기뢰 600개가 부설되었다. 황해에서도 진남포항 입구를 엄호하는 AMD-1000형 기뢰 25개가 부설되었다.

북조선 지역의 해방과 함께 관측연락 업무 직책들이 편제에 포



함되었다.

## 2. 부대지휘 현황

- (1) 해군과 해군기지 각 참모부는 새로운 편제에 따라 완전하게 충원되었다.

북반부로의 후퇴시기에 미 항공부대에 의하여 해군 참모부들 및 기관들의 주요 문서자료들이 소멸되었는데, 이들은 보고기간에 아직 완전 복구되지 않았으며, 복구진행 중에 있다. 해군 참모부나 해군기지 참모부 등에서의 해군 지휘는 [소련군] 고문관들의 조력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 (2) 1951년 1월부터 2월까지 참모교육의 조직은 개별인원들의 모집결과 새로운 지역으로의 집중배치, 그리고 새로운 편제에 따른 부대재편 등의 원인으로 미 실시되었다.

3월부터 우선 해군 참모부와 해군기지에서 전투훈련 계획과 조직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휘관 훈련의 기초문제부터 시작하여 전투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1951년 3월 한 달 동안 지휘관에 대한 전투훈련 계획에 따르면, 해군 참모부 교육은 전투작전 문서의 연구, 습득 및 작성, 그리고 작전업무 조직, 해군교범 및 지침 가운데 기본 조항 습득 등을 위한 것이다. 해군 군사장비와 그 운용, 해군부대에 대한 전투지휘에서의 전쟁경험 연구도 포함되었다. 교육방법과 참모훈련은 강의진행 방식이다.

- (3) 상급 지휘관들의 명령 불복종 사례는 없으며, 신속하게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들은 있다.

계급식별 표식이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군관성원은 다양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 때문에 군복착용이 내규에 위배되고 있다. 개별 지휘관들 가운데는 직무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소련 고문관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나라가 겪고 있는 난관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 병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해군의 여러 부서들은 계획성 없이 일하고 있는데(전사 충원부, 군관 간부부, 후방부), 이들은 여태까지 인원이나 기자재의 손실에 대한 계산도 하지 않고 있다.

해군 통제조직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사령부와 참모부는 업무와 규율에 대한 수많은 결함과 태만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4) 해군부대의 통신장비 확보율은 30% 정도이다.

### 3. 전투훈련

- (1)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해군 참모부 지휘관 교육은 1951년 3월 1일부터 조직되었다.

매주 다음과 같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참모훈련 : 4시간
- 지휘관 교육 : 4시간

- 정치학습 : 4시간
- 당원교육 : 2시간

독자적인 교육은 충분히 조직되지 못했다.

학습 출석률은 80% 내지 85% 정도이며, 그 이유는 잦은 출장(파견) 때문이다. 전투훈련 계획은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훈련의 질은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해군 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투훈련 조직은, 특히 해군 기지에 인원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으며, 북조선의 먼 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고 있다.

동해와 서해에서 기뢰부설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학습진행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다.

- 참모부원 및 지휘관들에게 해군부대들의 훌륭한 전투지휘 경험을 접목시키고 정세와 관련된 연구를 시기 적절하고도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
  - 정세 평가 및 결정
  - 전투 작전문서의 작성능력
  - 이[작성된 문서]에 대한 집행 통제
  - 조선전쟁 경험 연구
  - 해안포병과 육전대 간부 및 성원의 지속적인 양성 등
- (2) 해군의 각급 지휘관 성원들의 준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족할 만하다고 여겨지나, 지도간부 다수에게 필수적인 해군훈련이 부족하여 그들의 주도권과 전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소련군] 고문관들의 일상적인 직접원조 없이는 지도성원의

90%는 독자적으로 전투임무를 해결할 수 없다.

#### 4. 전투준비태세

- (1) 1951년 4월 1일 현재 공화국 해군은 전투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전투함 선단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2척이 침몰되었고, 3척은 소련에 유치되어 있으며, 2척은 신의주에서 수리 중이다.

화포와 총기는 육전대 여단들과 함께 육군에 이양되었다.

새로 편성된 포병대대를 위한 기자재가 소련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대략 만주 땅을 통과하고 있다.

1951년 3월 초에 도입된 닳기뢰 1,000개와 여울기뢰 100개는 상태가 좋은 편이다. 그 가운데 스쿠너 선에 의해 닳기뢰 600개, 여울기뢰 25개가 부설되었다.

- (2) 해군의 군기는 양호하다.
- (3) 해군은 소부대에 의한 분산 배치로 인해 배치지역에서 경보를 통한 집결이 실시되고 있다.

#### 5. 해군부대의 보급

1951년 4월 1일 현재 공화국 해군의 식량비축은 다음과 같다.

- 쌀 : 45일분

- 채 소 : 20일분
- 고기 및 기름 : 없음
- 군 장 : 완전 지급됨
- 연료 및 윤활유 : 40% 정도 확보됨

## 6. 기술교육 운용

### 1) 교육 및 운용의 개선

현재 해군은 관측연락 조직 및 운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무선기 RB-M-1은 300km까지 통신을 실시할 수 있다.

무선전문 및 전문의 도달시간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두 배로 줄어들었다.

공화국 해군은 조선에서 사용되는 형(모델)의 기뢰무기에 대한 전투운용을 숙달하였으며, 스쿠너, 쿤가스, 울리-울리 단정(短艇)을 사용하여 적 함대의 일상 항해지역에서 기뢰부설을 하고 있다.

조수의 간만 차가 큰 지역(황해)에서는 기뢰장애물 부설작전에 비접촉 여울기뢰만이 사용되고 있다(진남포 항구에는 AMD-1000 기뢰 25개가 부설되었고, 75개는 재물포 항구가 해방됨에 따라 그곳에 부설이 계획되고 있다).

### 2) 문제점

편제표에 따라 완전히 충원된 해군 및 해군기지 참모부와 기관

들은 제기된 과제를 작성하고 습득하는 단계에 있으며, 기본과제로는 해군기지, 해안방어부대, 감시연락소를 전투태세형태로 신속히 구축하고, 소실된 전투서류를 복구하는 것이다.

해군 참모부와 기관들의 퇴각시기에 많은 수량의 주요 문서들이 파괴되었는데, 그것들은 여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고문관들은 소실된 전투관련 서류들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조력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해군 지휘성원들의 일부는 자신의 업무행동을 고문단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고문단은 피조언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언 집행을 요구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해군 지도성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어느 정도에 따라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부정확하고 교양 없이 나타나는 독단적인 결정 및 개인교육에 대한 경시풍조를 낳고 있다. 고문관들은 피조언자에게 기본적인 전문분야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과업을 주고 그것들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감시연락망은 통신장비 부족으로 인해 모든 해안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요청에 따라 소련에서 이 기재들이 도입되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해군의 해안방어는 기자재 및 기술설비의 부족 때문에 해군기지 엄호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련에서 기자재가 당도하는 대로 예정된 화기진지가 구축될 것이다.

결론 : 현재 공화국 해군은 자신의 전투능력 및 기술기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해양감시 및 연락
- 스쿠너로부터의 기뢰부설
- 간부양성

### 3) 개선대책

- (1) 기자재, 해안방어 기술설비, 통신장비, 해군 성원에 의한 교육용 실험실 설비 및 교재 등을 해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것.
- (2) 피조언자들은 고문관들의 지시를 의무적인 지침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모든 업무활동을 고문단과 협의하도록 할 것.
- (3) 해군 전투장비의 실제적인 운용 가능성 및 향후 해군의 발전전망에 입각하여 고문단 편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제10장 후방상황(1951. 4)

### 1. 후방부대 재편성

각 부대의 전투행동 및 필요한 예비품목 준비에 대한 그간의 지원상황을 고려한 결과 각 후방부대 및 기관들에서 일련의 조직적인 조치가 실시되었다.

- (1) 12개 독립도로대대를 3개 독립도로연대로 편성하였으며, 4,260명이 축소되어 다른 부대에 충원되었다.
- (2) 연료국 예하 1개 화물수송대대가 해체되어 780명이 축소되었다.
- (3) 운수국 예하 2개 독립대대가 해체되어 1,300명이 축소되었다.
- (4) 후방지휘기관에서 350명이 축소되었다.

### 2. 후방지휘부 강화

- ① 후방참모부



- ② 경 리 국
- ③ 위 생 국[군의국]
- ④ 운 수 국
- ⑤ 연 료 국
- ⑥ 도 로 국
- ⑦ 군사교통국
- ⑧ 군수생산국
- ⑨ 수 의 부
- ⑩ 간 부 부

후방참모부 및 군관성원 지휘부는 완전하게 충원되었다. 후방군관들은 이론적 준비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1950년에 입대한 군관들).

군관훈련 체계에서 실시된 학습은 훈련 도중 많은 수의 인력 차출(50~60%)과 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다.

### 3. 전방부대 지원능력

각 부대에 대한 보급지원에서의 기본적인 결함과 난관은 다음과 같다.

- 군 보급체계 미흡 및 창고(저장소)에 기준치에 미달된 예비식량
- 수송차의 심각한 부족으로 화물수송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철도에 대한 적 항공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한 불리한 철도 작업조건

- 전방창고와 각 부대로 화물운송시 취약한 통제
- 모든 물자에 대한 부정확한 계산
- 부대간 연락체계의 미비는 군대유지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곤란하게 함.
- 부하에 대한 지도원의 엄격성 부족
- 고문관들의 부족한 자질

이와 같은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 (1) 군에 필요한 예비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經理)책임자와 도정(摶糶)부장이 이끄는 후방군관 65명이 파견되었다.
- (2) 화물발송 책임자들은 자신의 대리들을 전방창고와 부대까지 파견하고 있다.
- (3) 1951년 5월 1일까지 모든 업무책임자들은 정산 및 보고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명령과 지침에 의해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엄격성을 제고해야 한다.
- (4) 부대간 연락을 개선하고 모든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5) 통제를 강화하고 부여받은 명령 및 지시를 기일 안에 정확히 수행할 것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후방업무 담당군관들의 전문적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군관들에게 자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교재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으로 출석하지 못한

군관들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100% 참여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결 론

- (1) 후방 군관교육에서의 심각한 결함 및 군대 화물수송의 난관(차량 부족, 불리한 철도 작업조건)에도 불구하고 1951년 1/4 분기 동안 각급부대에 식량지원은 단절되지 않았다.
- (2) 후방부대 및 기관의 군관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여된 임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
- (3) 연료국 고문관 대신에 도로국 예하에 고문관을 편제에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밖에도 군단 후방 책임자, 후방 참모장, 경리책임자 예하에 고문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2-17〉 조선인민군 후방 예비식량 현황(1951. 4. 10)

?	단위	3개월(4.10~7.10)간 450,000명 분 편제수량	실제수량 (창고 및 군)	도 입 예정량	합 계	부족분	비고
?	톤	36,000	8,225	9,603	18,172	17,828	
?	"	6,000	-	-	-	6,000	
?	"	9	-	0.8	0.8	8.2	
?	"	6,000	5	7	12	5,988	
?	"	72	16	50	66	6	
?	"	70	70	-	70	-	

[쌀, 보리, 조, 수수, 콩, 밀 등일 것으로 추정됨]

<표 2-18> 조선인민군 하복지급 일람표(1951. 4. 10)

대상품목	단위	소요량 (450,000명분)	전방창고 소 재	지급수량	계
군 관 모	개	63,199	16,750	1,138	17,888
군관하복	벌	63,199	15,880	1,041	17,031 [16,921]
전사하복	"	386,000	121,350	11,815	133,165
전 사 모	개	386,000	117,300	13,524	130,824
내 의	벌	1,052,644	271,550	293,426	564,976
군화 및 단화	"	526,322	160,810	28,999	189,809
전사용 혁대	개	386,000	-	135,900	135,900
군관용 혁대	"	63,199	-	18,900	18,900

대상품목	평창소 양고재	만포와주 신의주 창고소재	수송중	창고 소 재	합 계	부족분	여 분
군 관 모	2,094	2,782	83,486	88,362	106,250	-	43,051
군관하복	4,309	2,782	35,070	42,161	59,192	4,007	
병사하복	8,220	9,584	392,127	409,931	545,096	-	159,096
병 사 모	5,175	20,219	323,641	349,035	479,839	-	93,839
내 의	8,220	9,644	511,116	528,980	1093,956	-	41,312
군화 및 단화	9,220	13,357	323,433	346,710	536,519	-	10,197
병사용 혁대	84,855	-	-	84,855	220,755	165,245	-
군관용 혁대	17,401	-	-	17,401	36,301	26,898	-

[합계에서 소요량을 뺀 것이 부족분/여분임]

〈표 2-19〉 각 부대 배치차량(1951. 4. 1)

부대명칭	편 제 수 량				실 제 수 량				부 족 분			
	경 자 동 차	수 송 차	특 장 차	합 계	경 자 동 차	수 송 차	특 장 차	합 계	경 자 동 차	수 송 차	특 장 차	합 계
차량화연대	15	445	30	490	3	76	11	90	12	369	19	400
제3차량화대대		165	11	176	3	50	6	59		115	5	120
제4차량화대대		165	11	176	1	74	7	82		91	4	97 [95]
제6차량화대대		165	11	176	2	57	10	69		108	1	109
제1차량화대대		165	11	176	1	114	-	115		51	11	62
제2차량화대대		165	11	176	2	130	-	132		35	11	46
자동차학교		42	2	44	2	47		49			2	
제1정비대대		8	12	20		6		6		2	12	14
제2정비대대		8		21	2	4		8		4	10	14
예비대대		12		13	1	4		5		8		
통 제 소		5		7	1	4		6		1		
제5차량화대대		135	135	135		100		100		35		
중앙직속창고						1						
계	20	1,480	[234]	1,612 [1,610]	18	667	37 [34]	722 [721]	12	819	75	90 [860]

<표 2-20> 유류 비축량(1951. 4. 1)

연료 명칭	1회 급유 중량	편 제 량						실 제 량					
		5월 1일 전공 급량	군 대 예비	군 창고 예비	전방 창고 예비	중앙 직속 창고 예비	합계 (톤)	합계 (주유)	조선 소재 창고	중국 소재 창고	합 계 (톤)	?	
항공 연료 B-95	-												
항공 연료 B-70	31	30	45	45	-	60	180	6	-	-			
휘발유	306	1,200	450	450	700	1,200	4,000		80	850	1,000	1,930	20
디젤 연료	67	60	100	100	-	150	410		105		730	835	-

중국 노상에는 모두 자동차 휘발유 탱크 44대가 있다. 1951년 4월 13일 현재 이들 탱크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심양(瀋陽) : 2대
- 단둥(丹東) : 5대
- 무순(撫順) : 5대
- 하얼빈 : 32대

중국 소재(무순) 창고에 자동차 휘발유 1,000톤이 공급되었다. 부족한 연료량은 압호전신에 따라 수송된 연료로 충당될 것이다.

## 4. 군의국 현황

### 1) 군의국 재편성

조선인민군 군의국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의료병력이 충원되었으며, 상당수는 의료교육을 마치지 못하였다. 의과대학 4학년 내지 5학년 학생들이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학년과 심지어 2학년 학생도 준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원과 위생지도원은 기본적으로 전쟁중 20일 내지 30일간의 단기과정을 통해 양성되었다.

군 위생방역대장, 사단 군의 및 병원 책임자 등과 같은 군의국의 지도급 병력들조차도 위생실습, 야전군 외과, 전염병[예방] 등의 구성요소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상병들에 대한 단계적 치료체계 조직 및 방역투쟁을 극히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적에 의해 거의 완전하게 파괴된 가옥과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밀집, 파괴된 급수시설, 급양의 난관, 비누 부족 등은 민간인들에게 전염병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대 및 주거지에 목욕탕과 살균실의 부족, 여분의 내의(속옷)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 지속적인 군대이동, 민간인들과의 긴밀한 접촉은 이의 박멸에 커다란 난관을 불러일으키고, 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DDT와 같은 약제를 통한 단순한 살균법, 환자들의 격리, 기타

다른 조치들에 의해 조선인민군의 발진티푸스와 간헐티푸스의 발병률은 1월에 3,269명에서 3월에 417명으로 줄어들었다.

4월부터 솜옷을 하복으로 교체하고 여분의 내의를 공급한 것은 티푸스와의 투쟁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다.

4월에 조선인민군의 모든 인원은 노농적군[소련군] 위생실험연구소(NIISI)의 백신 접종 및 종두, 발진티푸스 접종을 받고 있다. 모든 구성군 및 병원에는 외과도구와 부목(副木), 붕대 등이 지급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의료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부상자 후송이 돌아오는 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각 병원 및 의무대대는 1대 내지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들로는 식량 및 연료 수송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이다. 차량이 5회 내지 6회 왕복하는 동안 각 기관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인원은 도보로 이동한다.

방역기차는 300km 내지 400km 왕복에 20일 내지 30일 밤낮이 소요될 만큼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것 역시 부상자와 환자 수송을 위한 시간 단축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급양조직은 불만족스럽다. 이동형 취사장이나 고정식당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쌀이나 채소보다는 조나 수수가 배급되고 있으며, 고기와 지방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열악한 조건에서 준비된 식사는 식중독과 위장염을 발생시킬 가



능성이 있다.

전쟁발발 초기에 설립된 병원들(야전 이동외과병원 5개, 후방병원 11개)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전쟁과정에서는 종합병원을 기반으로 일련의 병원들이 설치되었다.

현재 전선에서부터 후송로의 제한, 철도 후송능력이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단일한 후송치료 보장체계가 형성되었다.

- (1) 각 군단에 야전 이동외과병원 2개씩이 편성되었으며, 야전 이동외과병원 4개는 주요 후송로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해 연합참모부에 직속되었다. 축선별 후송병원 1개, 후송병원 6개, 야전 이동내과병원 2개, 방역병원 2개, 군경상자 병원 3개(침상 1,000개씩), 후방병원 19개(전체 침상 수 35,800개, 이 중 31,250개 침상이 부상자와 환자들로 채워졌다).
- (2) 돌아오는 빈차를 잘 활용하기 위해 후방으로 가는 모든 자동차로 하여금 부상병들을 치료기관으로 수송할 의무를 부여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공포되었다.
- (3) 부상병 후송사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구에서 무기와 함께 부상병을 운반한 위생병에게 포상하도록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공포되었다.
- (4) 사업총화 및 사업에서의 결함 및 해명, 그리고 위생전술, 야전 외과술, 전염병[예방] 등의 기본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군단과 사단 군의국장, 야전이동병원과 의무위생대대의 선임 외과군의관, 병원장들의 화합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과오 및 그 극복방안이 제시되었다. 일련의 이들 조치는 모든 군의사업을 개선시켰다. 즉 부상자와 환자의 복귀가 촉진되었으며, 방역 및 부상자 후송사업이 개선되었다.

## 2) 문제점

군의사업의 기본적 결함은 다음과 같다.

- (1) 각 부대들 간 양호하지 않은 연락상태, 불규칙한 보고서 제출
- (2) 군의국 지도성원들의 부하 통솔에 대한 낮은 엄격성
- (3) 위생 수송수단(의료용 차량)의 부족으로 환자이송 지체
- (4) 지도성원들의 지시집행 태만

## 3) 개선대책

- (1) 군의국은 각 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 위생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부상병들에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부상병 후송을 위해 각기 72대씩의 자동차로 2개 자동차 위생중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 (3) 각 병원에 자동차를 2대씩이라도 지원해야 한다.
- (4) 거주시설 부족으로 각 병원에 7~10개의 막사가 필요하다.

- (5) 조선인민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장애자는 노동성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
- (6) 군 병원에 있는 결핵환자는 보건성 병원으로 옮기고 제대시킬 필요가 있다.



붉은군대 총참모장 S. M. 슈테멘코 장군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제5군단과 제7군단의 전투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한 총 결과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첨부 : 9매 - 수신인만 열람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

1952년 7월 ??일



## 제11장 조선인민군 제5, 7군단에 대한 검열결과 보고서[1952. 6. 28]

### 1. 개 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위원회는 후방총국, 포병지휘부 및 공병지휘부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전투 및 사격훈련 지휘부장 박(朴) 장군을 위원장으로 하여 1952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5군단과 제7군단의 전투 및 사격훈련, 그리고 전투준비태세 현황을 검열하였다.

위원회는 수행된 검열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비일상적인 대규모의 인력차출과 군관요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부대의 교육훈련 과정이 1951년도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조직·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도 각 부대의 전투 및 사격훈련과 전투준비태세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군단 참모부, 사단 참모부, 연대 참모부 및 특과부대 등과 함께, 제5군단 예하 제12보병사단 제32보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160보

병연대 및 사단포병연대, 제7군단 예하의 제7보병사단 제53보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1보병연대 및 사단포병연대 등이 검열을 받았다.

전술훈련과 관련해서는 보병부대들이 ‘고지 공격시 증강된 보병중대’와 ‘고지 방어시 증강된 보병중대’라는 주제에 따라 검열을 받았다. 사격부분에서는 보병화기의 최초 단독 전투사격 실습과정을 통해 검열되었다.

포병연대들은 소대사격 및 중대(포대)사격을 실시하였다(전투 및 사격훈련 검열결과는 <표 2-21> 참조).

기본 전투유형 전술에서 병사들의 행동은 우수했으며(4점), 그중에는 매우 우수하다는(5점) 평가를 받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결함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제46보병사단 제160보병연대(연대장 조천식)의 경우 고지전술에서 점령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보다 용이한 계곡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포병 지휘관들은 모의 포병사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다량의 폭약과 신관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였다.

각급 지휘관들 간의 상호협조는 모든 단계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전투준비시에 미리 고려되고 있지만, 실제 전투 중에는 각 부대 간의 협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단 예하 여타 부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 전투사격은 훈련사격 때와 마찬가지로 야지가 아닌 사격장과 같은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전투사격을 실시할 때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 2. 전투준비태세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는 군단장이 결심을 채택하고 그 결심과 관련된 지시들을 예하 사단장들에게 하달하도록 요구된 작전계획을 군단장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검열하였다. 군단 참모부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결심을 완성시킨 후, 이를 예하부대들에 하달하고, 마지막으로 총참모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검열하였다. 사단장, 연대장 및 해당 부대 참모부들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 및 참모부들로부터 하달된 지시를 시의적절하게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지휘관이 채택한 결심의 합리성 정도를 통해 검열하였다.

예하부대들에 대해서는 전투경보 발령시 전개선으로의 출동을 검열하였다.

전투경보 발령시 3개 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 그리고 이 보병연대들의 보강을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던 여타 특과부대들이 출동하였다. 전투경보가 발령되자 제5군단의 경우 지휘관의 결심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2보병사단 제32보병연대와 제46보병사단 제160보병연대가 출동하였다. 제7군단의 경우에는 제7보병사단 제53보병연대가 출동하였다.

검열을 통하여 볼 때 각 군단은 매우 중요한 이 문제 - 전개선으로 출동하는 것 - 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군단 및 각 사단 지휘부는 전투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예하부대들뿐 아니라 특과부대들까지도 전개선으로 출동시키지 않았는데, 이를 볼 때 각 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많

은 부분의 실제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함들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병력의 상당수가 상비주둔지역에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제53연대장 이동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약 40%의 연대병력을 전개선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 (2) 야간행군 군기가 확립되지 못하였다(소음, 무단흡연, 휴식중 화기사용, 행군 중의 혼잡 및 지체, 통제미숙).
- (3) 각 연대 참모부는 행군 및 전개선에서의 예하부대 통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제160보병연대 참모부가 특히 그러하였다.
- (4) 행군 및 전개선상에서의 각종 전투지원활동이 부재하였으며(제160보병연대와 제53보병연대는 정찰대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경계대책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전개선에서는 대공방어도 조직되지 않았다.
- (5) 전개선까지의 행군로에 대한 사전정찰을 수행하지 않았고,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 즉 제32보병연대의 경우 사단장이 행군지원대를 조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대포 4문과 박격포 1문이 전개 예정시각까지 화기진지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 (6) 제7군단 예하 제7보병사단 제53보병연대는 가용탄약을 거의 휴대하지 않은 채 전개선에 투입되었다. 즉 중기관총들은 탄띠 1개씩만을, 경기관총들은 기관총 탄창 1개씩만을 휴대하였으나, 소총병과 자동소총병들은 탄약을 전혀 휴대하지 않았고, 박격포들은 박격포탄 1발씩만을 휴대하였으며, 포병

대대는 전투장비의 30%만을 출동시켰다. 탄약보급소가 조직되지 않았고, 사단과 연대의 후방지원 병과들은 각 연대에 대한 탄약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제12보병사단 제32보병연대는 완벽한 전투력을 보여 주었다. 동연대의 전투준비태세는 우수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연대장과 그 참모부는 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대는 전반적으로 사단장의 전투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제46보병사단 제160보병연대의 전투준비태세는 연대 참모부 기능의 일부 결함을 보완할 경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7보병사단 제53보병연대의 전투준비태세는 불만족스러웠다.

### 3. 작전계획, 전투, 사격 훈련계획

각급부대 참모부의 작전계획 및 전투훈련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된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각 부대 참모부는 참모부의 완성도(숙련도)를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참모군관들은 적절하게 행동하였다. 각 참모부는 상급 참모부의 지시나 지령을 기계적으로 전사(轉寫)하지 않으면서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특히 전투 및 사격훈련계획), 계획의 지속적 통제와 계획 완수를 위한 노력 등이 수행되고 있는 제5군단 예하 각 부대의 참모부들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은 단지 전시용으로 수립되어 있고, 어려움을 핑계대면서 계획 완수를 위한 집요한 노력이 부족한바, 특히 제7군단 예하 각 부대 참모부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제5군단의 군사고문관들은 지휘관과 참모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조언을 통해 조선의 동지들이 총참모부에서 수립한 각 계획들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참모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그들이 각종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주지 않고 있다.

제5군단과 제7군단 작전계획들은 다양한 대안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예하제대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완전하게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단 감시소가 전개선으로부터 20km 내지 30km 떨어졌고, 전차와 자주포 연대에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작전시 대안에 따른 물자지원 계획이 부적절하게 수립되었다.

제7군단 참모부에서는 실제상황에 맞지 않게 전투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제7군단장은 계획의 적시적 수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민족보위상에게 직접 계획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청원을 제기하였다. 계획 프로그램은 단지 예하 보병부대들에서만 수행되고 있었으며(그것도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여타 모든 활동이 동 부대들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단 포병연대를 포함한 예하 특과부대 및 소부대들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관련 활동을 제시한 기간 동안에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제7군단 참모부는 특과부대에 어떠한 지시도 하달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참모부의 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참모부에 다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 4. 군관요원 및 참모 양성

1952회계연도에 실시된 소집 및 교육과정을 통해 특기별 소속 별로 모든 군관들이 대규모 재교육을 받은 결과 군관요원의 관련 지식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제 군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부대의 교육훈련과 야전 부대지휘에 보다 많은 독자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참모 양성과정에서는 각 연대 참모들이 취약한 중간 연결고리 임이 판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참모업무에 무지한 군관들이 연대 참모부에 투입되었고, 다른 한편 상급부대 참모부들이 연대 참모부들의 참모활동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현지에서 실제적 훈련이 부재하다는 것은 군관 및 참모를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함이다. 군단장으로부터 대대장까지 집단적으로 받는 교육이 지도와 상황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참모 집단들의 교육도 이와 동일하게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관 및 참모들에게 야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재하다. 그 결과 다수의 군관이 현지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모군관들은 전투관련 문서의 작성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5. 특과부대 및 소부대 훈련

특과부대 및 소부대의 전투훈련은 보다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전투력은 보병부대에 비하여 상당히 강하다. 이는 특과부대 및 소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포함한 여타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예하 병사들이 훈련에 빠지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특과부대들의 검열결과는 <표 2-22> 참조).

## 6. 훈련시 병력 차출

훈련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군단에서 다양한 작업(간선도로 및 철도 보수, 야전작업, 공병설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의 차출이 민족보위상 혹은 총참모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립시켰다. 앞에 열거한 작업의 수행을 위한 병력 차출은 주로 보병 소부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검열 당일 각 사단은 고정 주둔지역에 1개 보병연대, 포병연대 및 소규모 특과부대들만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 7. 하사관학교 교육

각 군단장들은 군단 예하 하사관학교에서의 하사관 요원 교육

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다. 각 학교에는 우수한 군관요원들이 보충되고 있고, 학교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교육적-물적 기반이 확립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시설의 반지하 숙소가 제공되고 있다. 각 학교는 6월 1일부터 조직적인 교육에 착수하였다. 특히 제7군단 예하 학교는 하사관 교육이 군관교육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훌륭한 하사관 교육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개 군단 모두 예하 하사관학교들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는 군단 지휘부의 정원규정 위반을 들 수 있다. 즉 군단 지휘부들은 피교육요원 중 1개 보병중대 정원을 감축하고, 그 대신 남는 자원을 군단 참모부 소속 군관들을 보좌하는 데에 전용하고 있다. 각 학교의 정원은 한 번 배출할 때마다 1개 보병사단의 하사관 요원을 충족시키는 한편, 1년 만에 군단 내 거의 모든 하사관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고려하여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1개 중대씩 감축되어 있는 한, 이 과업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 ※ 제 안

- (1) 각 사안과 관련된 비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군단 참모장들은 금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군단의 작전계획문서들이 공개된 장소에 방치되어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제5군단 후방국장의 경우 후방지도에 군단의 전체 현황을 모든 계획안

들과 함께 기록해 두었다. 또한 제5군단은 군단 참모부와 예하 제12보병사단 간에 유선통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시가 무선으로 하달되고 있다.

따라서 적에게 감청당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유선통신을 설치할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 보안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2) 전투장비들의 유지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병기에 윤활유가 칠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소총용 윤활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제7군단 통신대대에서는 전선이 부식되어 있고, 제5군단과 제12보병사단 통신대대의 경우 축전지가 부식되어 있다.

각 군단에서는 포병부대 보급 및 통신요원 보직에 적합한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즉시 교체해야 할 것이다.

- (3) 총참모부 및 주요 지휘부 구성원들이 일선부대를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완벽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군관들만 있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지휘부의 책임자들에게 일선부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4) 일선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총참모부 지휘부의 책임자들이 군단 및 사단의 지휘관급 군관요원들을 빈번하게 호출하여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는 불만이 접수되어 있다.



지휘부의 책임자들은 임의로 일선부대의 군관들을 총참모부에서 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호출도 총참모장이나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 (5) 각 군단과 총참모부 간의 거리가 매우 멀고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총참모부로 출장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로 소환되는 장군들이나 군단장들은 각 군단에 지시되는 임무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곤 한다. 군단장들 및 그 참모들의 총참모부 업무출장을 현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두 달에 한 번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다.

대령 아바셰프

1952년 6월 28일

<표 2-21> 각 보병사단 전투 및 사격훈련 검열결과

검열항목		피검부대	제 5 군 단			제 7 군 단			
			12사단	46사단	군단전체	7사단	37사단	군단전체	
전 술	공 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방 어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백 병 전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사 격	소 총	사격인원	33	18		20	14		
		매우 우수	18	7		9	2		
		우 수	4	3		5	2		
		보 통	-	6		4	3		
		저 조	11	2		2	7		
		평 가	70% 보통	90% 우수	보통	90% 매우 우수	50% 저조	보통	
	자동총	사격인원	23	21		21	24		
		매우 우수	16	8		13	13		
		우 수	2	8		-	3		
		보 통	1	2		-	1		
		저 조	4	3		8	7		
	평 가	82% 우수	85% 우수	우수	62% 저조	70% 보통	저조		
	경관총 기관총	사격인원	26	17		27	27		
		매우 우수	14	1		9	11		
		우 수	6	6		5	4		
		보 통	4	5		7	4		
		저 조	2	5		6	8		
		평 가	92% 매우 우수	72% 보통	우수	77% 보통	70% 보통	보통	
		중기관총	사격인원	17	13		17	18	
			매우 우수	10	9		15	16	
			우 수	1	2		1	1	
보 통			3	-		1	-		
저 조	3		2		-	1			
평 가	82% 우수		89% 우수	우수	100% 매우 우수	94%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사단별 평가			우수	우수		보통	보통		

〈표 2-22〉 특수부대들의 전투훈련 검열결과

소속부대 \ 병과	포 병	통 신	공 병	정 찰	후방지원	사단별 평 가
5군단 12사단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46사단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군단 전체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7군단 7사단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낙제	보통
37사단	우수	우수	보통	우수	낙제	보통
군단 전체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저조	



대장 슈테멘코(C. M. Штеменко) 동지 앞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상황에 관한 김웅(金雄)의  
정기보고서를 보고함(1951년 9월 30일자 김일성 앞으로 발송).

추신 : 6페이지 직무보고서 - 수신인만 열람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

1951년 10월

No. 00120

## 총사령관 앞

### 직무보고서

당신[김일성]의 [1951년] 8월 25일자 명령을 9월 16일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동안 허가이(許哥而), 박일우(朴一禹), 이승엽(李承燁) 세 동지의 참석 하에, 군사위원회 전원회의 및 후방사령관과 전투사령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허가이 동지와 이승엽 동지가 당신께 구술로 보고했기를 기대 하며, 정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전선부대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 제12장 조선인민군 전선부대 상황 [1951. 9~10]

### 1. 미군 및 남조선군 작전

적은 전투 참여 후 20일간 공세적 활동을 벌인 제1사단 선견부대가 인민군 제3군단 전방까지 접근했으나, [1951년] 9월 16일부터 점차 전투가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적군은 수도사단 예하부대들이 고성(高城) 방면에서 공세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진지를 강화하며,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승만 부대들은 자주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제7사단은 자신의 진지들을 완전히 미군부대에 넘겼다. 9월 28일 미 제6군단 경계인 양구(楊口)로 이승만군 제7사단과 교체한 미군부대들이 접근했으며, 제7사단은 유엔군 제10군단 예비로 전환하였다.

제2군단과 제6군단 전선 전방에는 이승만군 제2 및 제3사단, 미

제2사단, 프랑스,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의 독립대대들이 공세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허가이 동지와 이승엽 동지가 떠난 뒤 적군은 공세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동해안에서 적군의 군함들은 해안을 포격하고 있으며, 전선부대들에 대한 공중폭격도 더욱 강화되었다.

연합사령부 참모부의 정보에 의하면, 미군 제○사단(유엔군 제○군단)은 미군 제2사단과 작전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훈련한 미국 제187공수연대는 유엔군 제○군단과 접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그들이 동해안 연합상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 전방부대 전황

인민군 제6군단과 제3군단 배치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2군단 및 제5군단 배치에는 일부 변동이 있었다. 즉 제2군단 제2, 13보병사단을 전투에 투입하였다.

연합사령부 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10월 10일 이전에 인민군 제5군단을 제20병단 소속 제68군과 교체할 것이다. 우리는 방어전선의 중심을 건설하고 약간의 휴식기회를 주기 위해 제5군단을 화천(華川), [사창리]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결국, 더욱 압박해 가고 있는 적군의 동해안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충분한 전선 중심을 확보해야 한다. 전쟁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전투를 2교대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군부대



에 활기를 불어넣기가 곤란할 것이다. 특히 이미 당신의 결정을 요청했듯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교대해야만 하는 제2군단의 전선에서는 당장 난관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제○군단 예하부대들은 미 제2사단 및 이승만 제○사단 부대들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 3. 인원 재배치

#### 1) 조직편제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시 및 총참모부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편제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9월 20일 현재 보완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급부대에서 많은 수의 서기, 요리사, 후방 순찰원들을 362명에 달하는 여성 및 장애인으로 교체시켰다. 9월 30일까지 1,934명이 전선 및 후방병원에서 퇴원할 것이다. 전선부대들은 예비연대에서 교육받은 전사와 하사관, 그리고 교육 중에 있는 포로들로 보충될 것이다. 그리하여 총 보충인원은 6,900명에 이르고 있다.

#### 2) 사단장 교체 및 간부 총원

제5군단 제32보병사단장은 질병상의 이유로 전선에서 업무를 계속하기 힘들다.

우리의 견해로는, 제32보병사단장으로 제15보병사단 참모장 심정찬 동지를 임명하고, 김자헌은 휴가 후 참모사업으로 전임시키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현재 우리에게는 각 병과 중대장 60명, 소대장 270명 등 군관 545명이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림(李林) 동지에게 이미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간부국 부국장도 전선참모부에 다녀갔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중대장 및 소대장 충원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3) 군무원의 사상적 상태

전사들의 사기는 높고, 사상적 상태 또한 건전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당 정치국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단 열성자협의회 및 각 초급당조직집회가 진행되었다. 이 집회들은 부대 임무와 당 정치사업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부대 전투력 강화와 군 유일관리제의 공고화, 그리고 부대 내 정치사상 교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 하에, 이들 집회는 부분적이거나 부대 내에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정치국원 허가이 동지와 이승엽 동지가 제시한 현 정세의 당면과제들은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이들 정치국원이 행한 강연에 매우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정치국원들의 강연이 끝난 후 지휘관과 병사들이 우리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1년 9월 25일 전선참모부 군사회의 위원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사단장들, 군사회의 위원들, 그리고 허가이, 박일우, 이승엽 동지가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 박일우 동지가, 9월 초에 있었던 연합참모장들 협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조선전쟁의 장기화와 전술적 문제들이다. 협의회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부대에 직면한 문제들(방어문제, 월동준비, 보충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4일 전체 전선부대에서 군무원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서는 “조국을 위해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는 결의 표명이 있었으며, 또한 최고사령관 앞으로 맹세문을 작성하였다.

전사들의 전체적인 사상상태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건전한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후방에서부터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각 부대 내에 악질적 소문들이 나돌았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땐, 단지 도망갈 생각만 들더라”, “적군의 포격이 강하게 퍼부어 댈 때에는, 적지로 도망가야 한다”, “봐, 상급지휘부가 탄환을 확보할 수 없다니까, 아마 북조선엔 탄환이 없을 거야” 등등이다.

해방된 일부 전사들(이전 이승만 군대의 병사들) 사이에서는 “인민군의 애국적 이념은 좋다, 그러나 배고픈 건 싫다”고 말하기도 하고, 식량의 부족과 관련해서 다른 일부 전사들은 “빨리 공격했으면 좋겠다, 적군의 식량을 탈취해 먹을 수도 있을 테니까”라고 하기도 한다.

게다가, 지휘관에서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관련하여 조금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왜 우리는 방어만 해야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부대 내에서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4개 군단에서는 탈영과 총기 자해사건이 316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탈영은 제2군단에서 32명, 제3군단 82명, 제5군단 00명, 제6군단 00명 등이다.

위에서 열거한 결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같은 악행에 대해 다각적 조치들을 취할 정치 일꾼, 검찰소 일꾼 및 정치보위부 일꾼들이 동원되었다.

#### 4. 보급상황

9월 1일부터 28일까지 후방에서 받은 부대 내 물품보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3〉 후방부대 물품보급 상황(1951. 9. 1~28)

물품명	수량	전선참모부 비축분	물품명	수량	전선참모부 비축분
양 식	4,656톤	983톤	연 료	285톤	
소 금	33톤	44톤	여름군복	3,652톤	
비 누	11톤	4톤	내 의	62,068벌	
식 용 류	29톤	10톤	군 화	200컬레	
생선기름	24톤	3톤			

각 군단은 7일간의 예비식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선참모부 후방국은 5일분을 비축하고 있다. 연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제3군단은 40일분 소금을 비축하고 있다(이것은 벌써 군부대들에 지급되었다). 제2, 5, 6군단에는 소금 예비량이 완전히 바닥났다. 일부 전사들의 군화는 완전히 헤어졌다. 올해 4월부터 군화를 보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병사들은 짚신을 신고 다니며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제2군단 제27보병사단 172연대 전사 일부는 맨발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무원들에게 비누와 수건이 긴급히 요구된다. 게다가 일부 전사들은 영양부족으로 인해 야간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선기를 및 기타 약품이 필요하다. 겨울 군복을 신고 온 트럭 70대가 00리에 도착하였다. 9월 30일에 각 부대로 군복을 운송하였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운수국으로부터 트럭 250대를 수령받아야 하는데, 아직 110대만이 도착한 상태이다. 동계간 전사용 병원 설비작업 및 다른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동물사료 준비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료가 제때에 입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말들이 굶주리고 있다.

#### 전선참모부 군사회의

김 웅(金 雄)	/서명/
김재욱(金宰旭)	/서명/
김광협(金光俠)	/서명/

1951년 10월 14일

## 제13장 조선인민군에 대한 총결론

### 1. 조선인민군에 대한 평가(1951. 5. 11)

- (1) 훈련과 무장 및 군기상태의 수준으로 보건대, 조선인민군은 완전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전투형태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전쟁경험을 고려하여 편성된 군의 조직구조는 현 단계에서 군에 제기되는 모든 요구에 부응한다. 조선인민군은 충분한 수의 훈련된 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대에서 연대에 이르는 군관들은 필수 훈련을 받았으며, 부대 지휘에 있어서 실무능력을 축적하였다.
- (3) 모든 단계의 참모부들은 자체 충원에 따라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추었으나, 참모군관의 부족한 이론적 준비와 실무에서의 필수적인 경험부족은 부대 전투지휘와 전투준비 조직에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 (4) 모든 부대들은 풍부한 전투경험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새로 편성된 부대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보병인원은 총기로써 적 항공기와 싸우는 방법을 익혔다. 항공기 공포증은 현저하리 만큼 줄어들었다. 방어와 퇴각시 전투경험 및 유격대 작전을 통해 포위된 상태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과감하게 적 후방을 통과하는 법을 습득하였다.
- (5) 조선인민군 포병은 모든 전투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물자, 통제장비, 견인차량의 불충분한 보충은 포병 및 전군의 전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 (6) 땅크(전차)부대는 각종 전투에서 작전능력을 습득하였고, 또한 전투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비부대 장비 및 기재 등의 부족은 기갑부대의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7) 통신부대는 자체의 조직적 구조 및 훈련과 인원보충 정도에 있어 각종 전투에서 부대지휘를 보장할 수 있다. 통신기재의 많은 부족은 그들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 (8) 공병부대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각종 전투에서 다른 병종의 부대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 (9) 후방부대 및 기관은 훌륭한 경험을 획득했으며, 전투상황의 복잡한 조건에서 각 부대들에 각종 보급을 보장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적인 예비물자의 부족은 후방 사업을 곤란하게 하며 전투활동 및 군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0) 고문단은 각 부대의 충원과 교육, 해안방어 조직, 부대에 보급 보장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선인민군 지휘부에 상응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해 오고 있다.

군단과 중앙지휘부에서 일하는 고문관들의 대다수는 연대 참모부에서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단위 부대에서 필수적인 과업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고문관들이 자신들에서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마땅한 지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다.

고문관의 교체는 특히 군단 지휘부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군단에는 각 병과 공통의 선임 고문관 3명이 필요하다.

(11) 향후 각 부대의 전투력 조직 및 제고를 목적으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부대라 하더라도 전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모든 단계의 참모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쟁경험을 고려하여 산악병과 작전교육을 전투훈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12) 군대 지휘조직 내 결함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군기를 강화시켜야 한다.

1951년 5월 11일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B. H. Разуваев)



## 2. 전선부대 상황에 대한 결론(1951. 12)

작년 한 해 동안 조선인민군은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조직적으로도 강화되었고, 대부분의 부대는 공격전 및 방어전 그리고 작전수행을 통해 큰 전투적 경험을 체득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부대의 전투활동은, 각 성원의 사기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개별적인 불건전한 경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사, 하사관, 군관 대부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노동당에 헌신적이며,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외국 침략자들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각급부대 성원들의 높은 사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9월 1,571건, 10월 1,343건, 11월 575건이 발생했다. 탈영이 이들 사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897명, 11월 297명이다.

탈영사건 중 대다수는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오랫동안 정체가 폭로되지 않은 채, 교란활동을 시기 적절히 벌이고 있는 적대분자들의 존재와 연관이 있다.

각급부대 내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유일관리제의 강화, 성원에 대한 군인 교양 강화, 조선인민군 교범, 군인 선서, 국가 법률 등의 교육요구에 대한 설명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 전시 동안 고급·상급·하급 군관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군종(軍種)의

군관들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부하에 대한 엄격성의 부족
- 특히 사단장과 군단장들의 군사교육 부족
- 군관성원(고급과 상급)은 병사, 하사관 및 하급군관들과 교류가 적다.
- 모든 병과의 고급지휘 성원 및 정치성원은 자신의 지식향상과 전투경험 연구를 위해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
- 전투행동 과정에서 고급 및 상급 지휘관들은 자주 전투수행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격대식 지도 및 활동방식을 사용한다.

많은 경우에 공격시 연대, 사단, 군단 지휘관 감시소는 복잡한 상황조건 속에서 부대의 전투대형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주 지휘력을 상실하였다.

제한된 국가적 동원능력과 조선인민군의 불충분한 기술장비로 인하여, 1951년 전투력 신장은 주로 질적인 발전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1951년 2월과 10월 초 2개 군단이 해체되었고, 이 결과 보병사단의 전체 숫자는 줄었으나, 그 성원들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기갑부대(제10 및 제105기계화사단), 포병부대(최고사령부 예비대-2개 포병연대), 공군(제1, 제2전투비행(추격기)사단, 제2혼성비행사단) 등이 전투장비를 보강하고 훈련된 인원을 충원하는 등 재조직되거나 새롭게 편성되었다.

작전 중인 부대용으로 산약포가 준비되었다. 야포와 고사포 부대들은 상당한 물자를 보충받았다.

군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휘보장에 신중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으며, 무선통신의 개선을 위해 수행된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통신기재의 소요 해결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12월 현재 통신부대의 통신기재 보급률은 50% 내지 60% 정도이다. 기존 무선기의 40%는 진공관의 부족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 제14장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평가

### 1. 제13병단의 작전(1950. 10. 27~11. 7)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 사령관의 최초 결정에 따라 남조선 제2군단의 섬멸을 위해 4개 중국인민지원군(제39, 40, 38, 42군 : 12개 사단)이 집결하였다. 각군은 최단 하강[아래, 남쪽] 방면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병력들은 모든 전선에서 고루 배치되었다. 제2작전 제대는 편성되지 않았다.

4일간의 전투기간에 동쪽 및 북동방면에서 진격한 중국인민지원군 제39, 제40군은 전방으로 25km를 전진하였고 공격과정에서 후퇴하는 적을 끌어들이면서 남쪽 방면에서 90도로 방향을 변경하였다. 남서쪽으로 공격한 중국인민지원군 제33군은 남조선군 제8보병사단 부대를 격퇴하였으며, 전방으로 50km를 전진하였다. 제42군은 종전의 결정과는 달리 자체 주력을 함흥 공격에 운용하였고, 남서쪽의 공격은 제125보병사단이 맡았다.

이들 전투과정에서 적[미군]은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 부대

의 타격으로부터 남조선 제2군단을 구출하여 남쪽으로 후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방면에 미군 제1군단이 투입되어 중국인민지원군 제39, 제40군의 우익(右翼)에 공격을 가했는데, 이것은 이 2개 군이 남쪽 전선으로 방향을 돌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공격과정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 사령관은 청천강 북방 미군 주력을 섬멸시킬 두 번째 결정을 내렸다. 이 목적을 위해 역시 4개 군(제66, 39, 40, 38군 : 12개 사단)이 동원되었다. 이번에도 병력은 모든 전선에서 골고루 배치되었고 돌격부대는 편성되지 않았다. 4개 군 가운데 3개 군이 박천(博川) 아래 방향에 대해 정면돌파 공격을 단행하였다. 우회하는 좌익(左翼)에서는 제38군(3개 사단)만이 공격을 맡았다. 여기서도 제2제대는 편성되지 않았다.

7일간의 공격전투에서 집단군 우회군대는 전방 20km를 전진하였고, 얼마간 적을 청천강 후방 남쪽으로 압박하였으나 섬멸시킬 수는 없었다. 적은 제13병단 사령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군대를 타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남동쪽으로 후퇴시켰다. 거기서 부대배치를 전환시켜 11월 7일 공세로 전환하였다.

## 2. 제13병단의 미군에 대한 작전(1950. 11. 26~12. 2)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 사령관은 적의 작전성격에 따라 집단군의 작전에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하였다. 그는 미군 공격부대를 안주 지역에서 분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집단군 배치는 11월 24일 전투과정에서 편성된 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병력은 모

든 전선에서 균등하게 배치되었다. 4개 군(제66, 39, 40, 38군)은 청천강 북방에 위치한 이들 군의 전선 전방에서 적을 분쇄하기 위해 여러 분산된 방면으로 공격을 하였다(마치 돌과 타격처럼). 오직 좌익 제42군(3개 보병사단)만이 적 우익에 포위공격을 가해 안주 지역에 위치한 적 후방으로 진출하였다.

중국군 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4개 군(제66, 39, 40, 38군)이 동쪽으로 배치를 바꾸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격은 24시간 지연되었다. 그러나 배치 교대 후 병력은 모든 전선에서 골고루 소개되었다.

새로운 결정에 의해 3개 우익군(제50, 66, 39군)은 총공세 개시보다 하루 늦게 공격으로 전환하였으며, 적을 구속하여 청천강 너머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정면공격을 감행하였다. 3개 좌익군은 마치 포위하는 형태로 공격하였고, 미군 주력의 후방을 돌파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군대의 조직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지 못했으며, 제2제대도 편성되지 않았다.

6일간의 공격전투에서 제13병단 군대는 미군 제2보병사단과 남조선군 제2군단(제7, 8보병사단) 주력을 분쇄하였으며, 터키여단을 거의 완전히 섬멸하였고, 미군 제24, 제25보병사단과 제1군단, 남조선군 제1보병사단, 영국군 제27보병여단에 패배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작전의 주된 목표인 미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적은 집단군의 공세에서 벗어나 평양 방면으로, 그 다음 38선 너머로 후퇴하였다.

### 3. 제9병단의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에 대한 작전(1950. 11. 27~12. 10)

중국인민지원군 제9병단 사령관[송시륜(宋時輪)]은 2개 군(제20, 27군 - 8개 사단) 병력으로 하갈우리[마석우리]와 구진리 지역으로 전진하는 적에게 포위공격을 가해 섬멸할 결정을 내렸다. 적(제1해병사단, 제7보병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위해 5개 사단만이 동원되었다. 3개 사단은 남쪽과 북동에서 작전지원에 가담하였다. 제26군(4개 보병사단)은 예비병력으로 남아 있었지만 전투과정에서 포위된 적을 섬멸하기 위해 운용되었다.

13주야를 끈 이 작전에서 중국군은 외부로부터 적의 예상 공격방면에서 단호한 작전을 펼치지 못했으며, 최소한의 밀도만을 유지하였다. 제26군은 작전 초기에 함흥을 점령하여 동해안에서 작전 중인 적 병력 후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함흥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적은 심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12월 10일 포위망을 뚫고 함흥에서 벗어났다.

#### ※ 결 론

- (1) 모두 세 차례의 공격작전에서 병력 및 장비는 모든 전선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돌격부대는 창설되지 않았으며, 공격은 개별방면에서 각군에 의해 진행되었고, 적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가해진 강력한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 (2) 제13병단의 두 차례 작전에서 제2제대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제1제대가 거둔 최초의 성공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며 작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3) 군대의 작전, 특히 정면공격을 담당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은 단호하지 않았는데, 이는 적으로 하여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후퇴하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4) 제13병단의 마지막 작전에서 각 부대의 공격은 적에게 있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중단되었으며, 이 때 적 주력은 청천강을 도하하는 중이었고 제38, 40, 42군 병력을 피해 남쪽에서 쉽사리 우회할 수 있었다.
- (5) 제9병단 제20, 제27군은 적을 포위한 후에도 완만하고도 단호하지 못한 작전을 구사하였다. 예비에 속한 제26군은 함흥 방면에서의 공격 및 외곽 포위전선의 형성에 동원되지 않았다.

대좌 고를라체프(Горлачев)

1950년 12월 15일



극비  
사본 No. 4

중장 파블로프스키(Н. О. Павловский) 동지 앞

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군 전투행동의 특성에 관한  
중국어 번역문을 발송함.

첨부 : 5페이지

중장 샬린(Шалин)

1950년 12월 18일

No. 300958



#### 4. 중국인민지원군이 평가한 미군 및 남조선군의 전투능력

- 1) 미군은 방어 중인 자체 주력군 배치의 위장 및 인민군 선전 부대의 진격 저지를 목적으로 자체 진지 앞에 강력한 화기를 갖춘 독립부대(분대에서 소대까지)로 구성된 전투 초계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증강된 전투 초계부대의 진지는 간편한 형태의 공병시설로 꾸며져 있고, 동시에 그것은 종종 기만 방어지역 전면이기도 하다. 전투 초계부대가 전투를 할 때 방어부대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전투 초계부대는 퇴각 후에도 주력군에 가담하지 않는다.

인민군은 저항하는 전투 초계부대를 괴멸시키고 주력군의 배치상황을 알아낸다.

- 2) 적 전투 초계부대는 주로 고지, 주요 교통로, 숲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인민군대에게 실제 윤곽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방어진지를 용의주도하게 위장하고 있다. 인민군 부대가 방어지역 전면으로 접근하면 적은 짧은 대간거리를 유지하면서 발포한다. 적은 돌파한 인민군 집단을 신속히 봉쇄한 채 괴멸시키려고 시도한다.

전투 초계부대 진지를 고지에 배치하는 데서 오는 이점은, 한편으로 퇴각이 편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군 공격부대에 대한 관측 및 사격이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3) 미군은 포위, 교통로의 피탈, 백병전, 야간전투 등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따라서 미군은 지탱점 체계방어를 조직하며 이를 큰 중심으로 제형 배치한다.

근접거리에서 수류탄이 폭발하고 사격이 가해질 때 미군은 무질서하게 퇴각하거나 포로가 되고 만다. 전쟁 전 기간 미군은 인민군대와 백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 4) 괴뢰(이승만)군은 공병시설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연결되는 교통호도 만들지 않고, 대개 진지는 단독 참호로 되어 있다. 미군은 공병시설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개별적인 경우에도 그것을 유지하고자 애쓴다. 미군 병사들의 참호에는 개인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탄약, 흡연용품, 술, 다양한 향신료 등이 보관된다.

- 5) 미군은 비교적 대규모 포병부대를 가지고 있다. 포병사격은 전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포병진지는 통상적으로 도로 근처에 배치된다. 적은 목표물 발견시 발사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다.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지에 사격한다. 이 경우에 도로 및 인민군대의 가능한 집결지, 그리고 기타 지역은 세밀한 포격을 받는다. 이러한 지역 선택은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 6) 미군과 이승만군의 전술은 모든 군사작전이 미군의 지휘 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러나 이승만군은 미군보다도 우세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군대의 분대와 소대는 독자적인 전투행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들은 백병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승만군대 다음으로 강한 전투력

을 가지고 있는 부대는 미군 흑인들이다. 미국인[백인]들로 구성된 미군부대는 전투경험이 없으며, 난관을 이겨 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군대 병사들은 전투에서 죽든지 포로가 되어 죽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승만군대 후방에는 병사들의 모든 행동을 엄격하게 관측하는 독전대가 창설되고 있다. 후퇴하는 병사들은 현장에서, 또는 나중에 특별명령에 따라 총살된다.

- 7) 미군은 주로 도로에 연하여 작전하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도보이동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전투행동 수행이 어려워진 지역은 이승만군에게 양도된다.
- 8) 전투과정에서 후퇴 순간에 이르기까지 미군 포병은 끊임없이 사격을 가한다. 미군은 후퇴시 혼란상태를 보인다. 인민군의 기습작전시 미군은 무기를 버리고 혼란 속에 진지를 이탈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무기는 엄폐된다(숨겨진다). 전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차 운전병들은 전차에서 벗어나면서 인민군 부대가 신속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물쇠를 채워 버린다.
- 9) 적은 정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보통 부대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서 전진한다. 따라서 인민유격대의 기습작전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10) 인민군 부대에 의한 도시 및 기타 지탱점 점령 후 문자 그대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군 폭격기들이 출현하여 엄청난 폭격과 기총소사를 퍼부음으로써 인민군이 거둔 성과

를 강화시키는 데 난관을 조성한다.

- 11) 영국군은 훌륭한 통신기재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 휴식 중 대화에서 영국군은 코드를 이용하며, 전투 중 모든 교신은 공공연하게 영어로 수행한다.

번역 : 소좌 보로비예프(Воровьев)

확인 : 대좌 구리코프(Гуриков)

1950년 12월 8일

No. 300958

극비  
유일사본

### 소련군 총참모부 총작전국장 앞

1950년 11월~1951년 6월 중국에서 사업기간 얻은, 개별문제들에 대한 인상을 보고함.

## 5.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능력

많은 문서를 비롯해서 중국 동지들 및 중국인민군과 가까이 접촉할 기회를 가진 우리 동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건대, 중국인민군은 매우 훌륭한 전투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전사 및 지휘관은 전체적으로 전투수행시 인내력이 강하며 단호하고 완강하다. 또한 전투생활의 모든 궁핍과 고통을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다.

각 부대는 산악지형에서도 능숙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전투를 위해 야간과 악천후를 잘 활용한다. 그러나 중국군은 동계 군사작전 수행에는 적응력이 부족한데 그것은 동계피복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으며, 또한 동상을 예방하는 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전투자질 및 높은 사기는 군에서 훌륭하게 수행된 정치사업에 의해 이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점에 의해 때로 많은 손실과 온갖 궁핍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전투력 및 방어에서 역공

으로 신속한 이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설명된다. 초기에 나타난 ‘미군공포증’은 승리를 거둠에 따라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춘계 작전과정에서 ‘미군공포증’이 재발되었다. 이것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전선구역 공격을 피하려는 데서 드러난 것이다. 이들 전선구역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경우 중국인민군에게 자주 우유부단함이 표출되었으며, 전투는 끝까지 수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에 포위된 미군부대들을 섬멸시키는 데 있어서 끈기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군은 많은 손실 및 탄약부족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포위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1) 작전의 특징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상황이 조선에서의 전투행동을 규정짓고 있다. 첫째 미군과 비교하여 취약한 군사장비, 둘째 견고하지 못한 후방조직이 그것이다.

충분한 식량 및 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소요는 40% 내지 5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선부대들은 식량이 부족하며, 많은 경우 굶주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개시된 작전을 끝까지 이끌지 못할뿐더러 되찾은 영토를 지킬 수조차 없게 되고 있다. 전선부대에 대한 지원부족 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미 공군의 교통로 공습으로 인해 철도 및 기타 운송수단은 통상 야간에만 운행된다.
- ② 차량 및 짐마차 운송의 부족
- ③ 모든 후방체제의 조직적 취약성



최근까지 중국인민지원군 동북군구 사령관[고강(高崗)]이 군대에 직접 식량 및 탄약 운송을 책임졌다. 팡덕회(彭德懷) 자신은 후방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5월 말이 되어서야 전선, 군단, 사단, 연대로 구성된 후방 구성군을 창설하고 압록강에 이르는 모든 후방지역을 팡덕회에게 직속시키기로 결정되었다.

그 밖에도 차량 및 짐마차에 의한 수송량 증대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손으로 운반하는 간편한 형태의 철수레가 널리 공급되었다. 이것은 주로 연대 및 사단들로 구성된 후방 구성군에서 사용될 것이다.

후방체제의 재편, 운송수단의 확대, 극동의 교통로 증강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단기간 작전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취약한 장비와 연관되어 중국인민군은 다음과 같은 전술방식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 ① 전투행동(군대이동이 아닌)은 통상적으로 부대가 빠르게 힘을 소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야간에만 진행된다.
- ② 소규모 병력이 적과 접전한다. 주력군은 적 포병화력 사정권 밖과 전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배치된다.
- ③ 전면적인 방어전선을 형성하지 않는다. 군대는 도로(여기를 따라 전차공격이 가능한)를 장악하지 않는다. 방어는 도로에 인접한 고지에서 수행한다.
- ④ 공격은 보통 적과의 근접상태가 아닌 5~15km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다.
- ⑤ 진지전투 수행은 [전투력] 손실 및 빠른 탄약소모를 야기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동전투(공격하는 적에 대한 조우공격) 수행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충분한 군수물자 지원과 관련하여 공격작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단기작전(5~6주야. 이는 전사들이 단지 5~6일 전투만의 식량 및 탄약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② 미미한 종심(30~60km)
- ③ 목표물의 제한(주로 전술대형)
- ④ 쟁취한 전술적 성공을 작전 성공으로 전개할 능력부족(5~6일 간의 전투 후 군대는 휴식 및 예비품의 보충을 위해 기지로 귀환한다.)

부대의 전투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 ① 전투조직(공격과 방어)은 사전 정찰이나 지형정찰, 협동작전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매우 단순한 성격을 띤다.
- ② 전투지휘의 중앙집권화는 극히 불충분한데, 이것은 전투의 전개에 있어서 방임상태를 야기하며, 전장의 각 부대 및 구성군 조차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③ 공격 출발단계 돌입상태로 이동하는 것과 함께 공격으로 전환에 앞서 전투에 의한 적정정찰(敵情偵察)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 ④ 익(翼: 측방)과 전투접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
- ⑤ 자주 수행되는 부대의 후퇴에 대한 지원이 조직되지 않고 있다.
- ⑥ 공격과 방어 모두 포병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 포병예비

(포병사단)의 대부분은 포탄 부족과 집중사격술이 부재한 관계로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

- ⑦ 조선에 배치된 3개 전차연대는 장비손실을 우려한 나머지 지금까지 전투에서 활용되지 않았다(원산과 평양 지역에 주둔해 있다).
- ⑧ 적의 진격을 둔화시킬 목적으로 방어 및 퇴각시 장애물 사용은 극히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⑨ 군대 지휘는 중국인민군의 최고 약점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국민당과의 투쟁시기)에도 각 참모부는 진정한 지휘기관이 아니었으며,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받지도, 군대 내에서 권위를 누리지도 못했다. 현재까지 상황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전투지휘는 보통 구성군 지휘관들이 실행하며, 참모부는 후방에 남아 부대지휘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춘계) 작전에 제3군 사령관은 제12단장 지휘소에서 지휘를 수행하였다. 제3군 참모부는 후방(전선에서 약 100km 떨어진)에 남아 있어서 전세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작전의 전 기간 제3군에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유일한 통신기재로서 무선기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동통신을 포함한 다른 통신기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군대와의 통신단절로 인해 당혹감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불안도 야기되지 않는다.

## 2) 총참모부의 역할

중국인민군 총참모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은 지

금까지 자신의 위상을 찾지 못했으며, 무력 및 군사행동의 지휘에 있어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총참모부 예하에는 작전국(인민혁명위원회 작전국으로 불림)이 있는데, 이는 10명 내지 12명의 군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위한 정보보고 작성을 수행하고 있다.

상황 연구 및 제의안 작성은 작전국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작전국은 획득된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공받으며, 무엇인가를 확인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특정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팡덕회 참모부에도 그것이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작전국은 제출된 작전계획을 연구하지도, 그에 대한 일정한 자체 구상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팡덕회가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한다. 게다가 그는 총사령부 부사령관이며, 총사령관 주덕(朱德)은 질병과 다른 이유로 군대지휘에서 떠났고, 팡덕회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려 줄 권리는 모택동 동지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택동 동지도 팡덕회의 계획에 관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임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역시 팡덕회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聶榮臻) 동지는 군사 지도자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편인데, 그의 중국식 신중한 태도로 인해 다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총참모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확신이 없으며, 무력 지휘체계 내에서 총참모부의 역할과 위상규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3) 소련군 군사고문단의 역할

중국 동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문단을 잘 대해 주고 있다. 그들은 고문단의 모든 조언과 구상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만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한다. 이것은 특히 조선전쟁과 관련한 문제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조선전쟁의 수행문제들에서 중국 동지들은 우리가 그들의 군 발전 및 장비수준에 맞지 않은 작전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나 않을까 염려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다고 간주되었을 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섭영진). 한 번은 팽덕회가 자신이 압록강 쪽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최단 교통로상에서 미군 섬멸을 위한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동지들은 자신들의 후방에 적이 상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부대가 해안을 지키고 있으며, 남조선으로 깊숙이 내려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기간에 적을 섬멸하는 것은 힘에 부친다고 여기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기전 속에서 적을 분쇄하지는 ‘10년간의 조선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

사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들에게 보다 현대적인 무기(100mm 고사포나 질적으로 미군의 것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모델의 자동무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모든 측면들 및 군대조직과 전술에서 지지부진

합과 이전방식의 답습은 [중국의] 내전시기의 유물로서 우리 군사고문단 기구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고문관들은 군대의 조직과 전술영역에서 기존의 그릇된 견해들을 깨뜨리는 데 끈기를 보이지 않고 있을뿐더러 중국식 ‘만만다’(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에 부딪혀 기존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

중국인민군대에 우리의 군사경험을 심어 주는 일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휘와 전투조직, 포병, 전차, 그리고 기타 병과 운용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고문관들은 방임하고 있다. 군사고문단장은 중국 체류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양(瀋陽) 출장만을 다녀왔고, 이 밖에 사업경험의 교환을 위한 고문관들의 협의회도 한 차례만 소집되었을 뿐이다.

소장 코체르긴(Кочергин)

1951년 6월 16일

대장 S. M. 슈테멘코(Штеменко С. М.) 동지에게

개성회담 시기 간섭군과 이승만 군대의 군사활동에 대한 간략한 군사·정치적 개관을 송부합니다.

첨부 : 5매 - 수신인만 열람

중장 라주바예프

1951년 1월 12일





## 제15장 개성회담시 남조선군과 유엔군의 활동(1951. 7. 10~1952. 1. 10)

### 1. 개성회담 초기 전선상황

1951년 7월 10일 현재 동부전선의 경우 고성(高城) 서남방 14km - 사기점(沙器店) - 교동(橋洞 : 화천(華川) 서북방 22km) - 철원(鐵原) 남방 2km 지역까지, 그리고 서부전선의 경우에는 철원 서남방에서 문산(汶山) 북방 4km 지역까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지도 참조).

제1선의 적은 12개 보병사단과 3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3개 사단만이 미군이다. 따라서 전투작전의 중심은 이승만 군대에게 부여되어 있다. 미군은 전선상의 일정부분을 독자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이승만의 사단들과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의 부대들 사이에서만 활동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을 UN군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미군의 기본전력을 추종국들 군대의 희생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미군 4개 사단과 이승만군 2개 여단, 터키군 1개 여단이 최근접 작전예비로 배치되어 있다.

전선에 고밀도로 전개되어 있는 전투대형(주요 전선의 경우 보병사단들은 전선에서 8km 내지 10km의 정면을 가지고 있다)과 효과적인 장비로 무장한 미군사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력한 작전예비전력이 특징인 적의 배치는, 미군 지도부가 군사행동의 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성회담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즉 ‘평화에 대한 선동적 성명으로 위장한 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과 해상의 우세를 이용하여 전선에서의 공세적 전투행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속적 압박과 통제 하에 후방 목표물과 교통로를 공중과 해상을 통해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이후의 전쟁과정에서 명백해졌다.

## 2. 개성회담 중 전선의 변동

개성회담 시기에 보여진 적 지상군의 전투행동은 다음과 같은 2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51년 7월 10일부터 1951년 11월 27일까지, 즉 분계선을 설정하는 제1단계와 1951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이다.

제1단계는 전선 전체에 걸친 적의 공세적 전투행동이 특징이다. 각 작전은 국지적 성격을 띠었으며, 주로 감제고지나 유리한 지형의 점령 등이 중심이 되었다. 전투행동 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의도된 목표물에 항공기 및 포병이 강력한 공격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때때로 전차지원을 받는) 1개 여단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연대 및 해당 사단의 후속부대들이 점령지점으로 투입되었다. 하지만 공격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항공기 및 포병을 포함한 모든 공격과정이 반복 실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동부 전선 지역의 일부 중요한 고지들에서는 16차례나 그 주인이 바뀌기도 하였다.

적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장비상의 현격한 우세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시기 전선은 전 지역에 걸쳐 평균 4km 내지 8km 정도만이 변경되었다. 적은 1951년 11월 27일에 약 1,200km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고성(高城) 동남방 4km, 사태리(양구 동북방 24km), 금성(金城) 남방 3km, 월성리(철원 북방 3km), 사천(沙川) 하구(문산 서방 11km)지역까지 진출하였다.

1951년 11월 27일부터, 즉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후부터 적의 공세적 전투행동이 중지되고 전선은 완전히 고착되었으며, 각 부대는 정찰과 진지전(陣地戰)만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미군 지도부는 남조선의 유격대 활동 지역들에 대하여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선에서 후방으로 이승만군 2개 사단(제8보병사단과 수도보병사단)이 투입되었다. 또한 적은 1951년 12월부터 인원보충(1개월 동안 43,000명이 보충되었다)과 새로운 사단의 투입(일본에서 남조선으로 제45보병사단, 제187공수사단 및 제11공수사단이 투입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40보병사단이 투입되고 있다)을 통하여 지상군을 강화하였다.

미군은 1951년 7월부터 B-29 중폭격기와 예비전력을 제외한 전투기와 수송기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남조선 공항으로 서서히 이동시킴으로써, 공군 주력을 전선에 최대한 근접시켰다. 이를 통하여 적 공군은 출격횟수를 매일 700회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총 출격횟수 중 80%는 철도망, 터널, 간선도로망 등의 후방 목표물에 폭탄 투하였으며, 단지 20%만이 전선상의 지상군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1년 7월 말 미군 항공기들은 평양(平壤)의 민간인 거주구역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조선인민들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념일 전날 B-29와 B-26 등 다수의 미군 폭격기들을 투입하여 당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임시수도였던 평양에 8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개성회담의 지연과 때를 같이하여 미 공군의 활동은 보다 증가하였다. 동시에 간섭자들은 미 공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서해 및 동해 연안의 함정을 동원하여 야만적인 포격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적 함정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활동하였다.

- 연안지역의 간선도로 및 철도망 파괴
- 철도역, 교량, 도선장 등의 파괴
- 해안포병의 포진지에 대한 포격
- 도시, 항구 및 심지어는 소규모 민간인 주거지역에 대한 포격

적은 1951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상과 같은 목표물들에 10만 발 이상의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개성회담 시기 미군 지도부는 북한 영토에서 스파이와 유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에 많은 수의 스파이와 파괴분자들을 침투시켰다. 1951년 5월부터 10월까지 동해 연안에서만 980명의 스파이가 체포되었다. 미군 지도부는 적극적인 스파이활동을 통하여 북조선 지역에 스파이와 폭도 집단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 현재 그들의 수는 2,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 ※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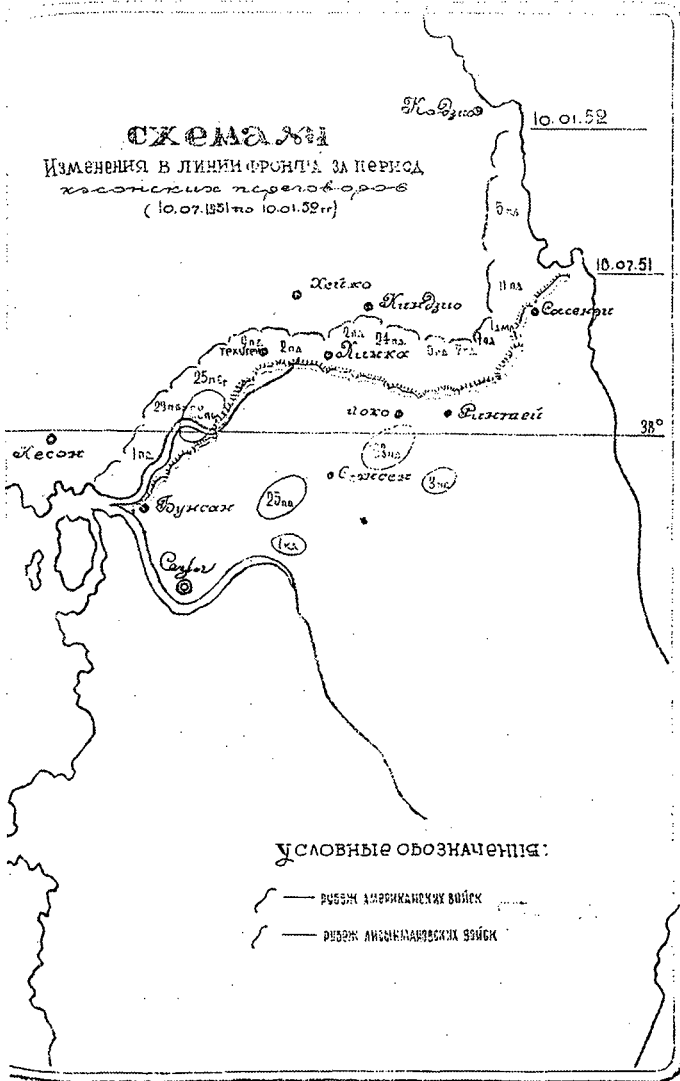
- (1) 미군 지도부는 개성회담의 진행에 압박을 가하고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지도부를 위협할 목적으로, 1951년 7월 10일부터 1952년 1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지상군, 공군, 해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 (2) 리지웨이 사령부는 개성회담을 통하여 진의(眞意)를 은폐하면서, 지상군에 병력, 무기 등을 보충하는 한편, 새로운 부대들을 조선 전투지역에 집결시키고 있다.
- (3) 위에 기술한 사실들은 미군 지도부가 개성회담에서 긍정

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극동으로 공세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대규모의 적극적 전투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장 라주바예프

1951년 1월 12일

전선 상황도('51. 7. 10~'52. 1. 10)



## 제16장 피아의 작전 개관 (1952. 1. 1~1953. 7. 27)

### 1. 양측의 병력배치

1952년 1월 1일 현재 인민군[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다음의 지역을 따라 총 210km에 이르는 전선지역을 방어하고 있다. 임진강(臨津江) 하구, 어룡리[관문점 부근], 오음리(梧陰里), [구화리], 고잔리, [마장리], 월정리, 울목리(栗木里), [구읍리], 금성(金城), 1098고지[거진 서방 18km, 양구 북동방 46km], 469고지[월비산, 고성 남서방 5km], 포외진리[浦外津里, 고성 남동방 5km, 월비산 동방 5km, DMZ 북측 한계선과 동해안이 만나는 감호 부근의 없어진 마을]. 이 방어선은 기본적으로 1953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인민군은 적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면들을 방어하는 데 기본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면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 서울, 평양



- 철원, 김화, 춘천에서부터 평양과 원산으로 진출하는 중부방면
- 조선의 동해안 방면

해병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 서해안의 안주, 진남포 구역
- 동해안의 함흥, 원산 구역

인민군은 적의 공격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따라 아래와 같이 배치되었다.

- 지상전선의 제1제대로 (군 제2제대를 포함해서) 33~36개 보병사단이 방어를 담당하였다.
- 서해안에서는 13~14개 보병사단과 2~3개 기관총 및 포병여단이 방어를 수행하였다.
- 동해안에서는 14~15개 보병사단과 4~5개 기관총 및 포병여단이 방어를 수행하였다.
- 연합사령부의 예비병력으로 9~10개 보병사단이 있었다.

인민군의 이상과 같은 병력배치는 1952년 1월 1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 7월 27일까지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기간 전반에 걸쳐 원칙적으로 더 이상 변동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인민군 부대들의 배치 변동은 주로 1개 구성군 방어선을 다른 구성군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인민군 전투부대 구성은 4개 보병사단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동되었다. 1952년 1월 1일의 경우 인민군이 중국인민지원군 52개 사단과 조선인민군 18개 사단을 합한 총 70개의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1953년 7월 27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56개

사단으로 늘어난 총 74개의 보병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간섭군은 제1선에 14개 내지 19개에 이르는 사단을, 그리고 예비로 5개 사단을 두고 서울 방면 및 중부 방면에 기본역량을 집중하였다.

1952년 1월 1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적은 19개 사단에서 24개 사단으로 5개 사단을 증강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상군 병력 비율은 인민군이 3 : 1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적은 공중과 해상에서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 2. 인민군과 연합군의 전투

해당 기간 동안 지상전선에서 행해진 양측의 전투행동은 주로 정찰, 포병사격 및 진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별고지 점령전으로 국한되었다. 단 1953년 7월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에 의해 수행된 개별작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지전 성격을 지닌 지상전선과는 달리, 적 공군과 해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북조선의 전투부대, 후방 목표물, 공항 등에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민군 지도부는 전투를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적 병력의 제거(말살)에 주목적을 두었으며, 아울러 각 부대의 전투경험 습득도 염두에 두었다.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양측에서는 주로 소대에서 대대까지의 소부대, 그리고 간혹 2개 내지 3개 대대나 연대를 투입하였다. 당

시의 전투규모를 보여 주는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1952년 3월 1일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 방어구역에서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두현리[미 제45사단의 전초인 사미찬(임진강의 지류) 부근의 후크(Hook)고지] 지역으로부터 중대 병력의 적 보병이 위력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전차 2대가 중국인민지원군의 포사격에 의해, 그리고 전차 11대는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다. 적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 1952년 4월 3일 개성 남동쪽 지역의 전선 서부구역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65군 예하부대들이 전투정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보병중대를 투입하였다.
- 1952년 5월 19일 적이 부포리(해주 서남방 28km, [웅진반도 강령 동남방 16km]) 지역에 500명에 달하는 정찰대를 상륙시켰다. 이후 전개된 전투에서 적 정찰대는 인민군 부대에 의해 섬멸되었으며, 그 잔여병력은 대수압도(大睡鴨島 : 해주 남방 40km)로 퇴각하였다.
- 1952년 5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 제63군 부대들은 문산 서북쪽 지역에서 보병대대 병력이 증강된 영국군 1개 보병사단의 여러 차례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 1952년 6월 중반 이후 개별 전선구역들, 예를 들어 철원 서쪽 지역과 김화 동북쪽 지역, 그리고 금성 동남쪽 지역에서는 양측이 보병중대에서 대대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하여 자기측 진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투를 수행하였다.
- 1952년 9월 18일 삭녕(朔寧) 동남쪽 3km 지역(개성 동북방

40km)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 예하 제2보병사단 돌격대(1개 57mm 대전차포소대 및 2개 공병소대가 보강된 보병중대)가 222.9고지[진곡리 부근]의 적을 공격하여, 불과 반시간 만에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돌격대는 고지의 방어를 위해 1개 소대와 노획한 기관총들을 남겨 둔 채 공격개시선으로 퇴각하였다. 적은 9월 19일과 20일에 걸쳐 20차례에 이르는 무익한 반격을 시도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280명이 넘는 전사상자만을 남기게 되었다.

- 1952년 9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 1개 중대가 고왕리(개성 동북방 38km, [삭녕 동남방 8km]) 지역에서 적 수비대를 급습하였으며, 25분간의 전투를 통해 200명에 달하는 적 사병과 장교를 사살하고 전차 4대를 파괴하였으며, 16명을 포로로 잡았다. 아군은 70명의 병력손실이 있었다. 적은 수차례에 걸친 반격을 통해 중대를 고잔리 지역에서 격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제65군 주둔지인 송산리(松山里 : 개성 동남방 12km, [현재 대성동 마을]) 지역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1개 보병중대가 3개 포병대대의 지원 하에 2시간 동안 전투를 벌여 적 2개 보병소대를 격파하고 5명을 포로로 잡았다. 중대는 11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 1952년 9월 21일 야간에 남조선군 제3군 관할지역인 중서곡(개성 동남방 23km, [현 판문점 남방 9km 부근]) 지역에서 1개 보병중대와 1개 공병중대, 그리고 1개 정찰소대로 편성된 돌격대가 남조선군 제1보병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354.1고지[36

고지를 오해한 것임]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필사적인 공격을 실시한 끝에 430명에 달하는 적 사병과 장교를 사살하였고, 대대장과 4명의 미군을 비롯한 54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대대참모부와 산악용 전차 4대를 온전한 상태로 노획하였다. 돌격대의 손실은 전사 12명과 부상 16명이었다. 적은 다음 이틀 동안 해당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보병연대 규모 병력으로 여러 차례의 반격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돌격대는 9월 22일 야간에 원위치로 퇴각하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이 전투를 통해 적은 1,500명이 넘는 전사상자와 67명의 포로 손실을 입었다. 돌격대의 손실은 전사상자 211명이었다.

- 1952년 9월 23일 가전리[원통리 북방 22km 부근] 지역 전선 동부구역에서 조선인민군 제1군단 예하 돌격대가 적에 대한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260명의 병력손실을 입히고 13명을 포로로 획득한 후 원위치로 퇴각하였다.
- 1953년 5월 개성 동남쪽 전선의 중앙구역에서 제60 및 제67군 예하부대들이 적 진지들에 대하여 16개 지점에 22회에 이르는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격결과 적 4개 보병중대와 20개 소대가 섬멸되었다. 바로 이 지역에서 5월 말에 적 3개 대대와 27개 소대에 맞선 소규모 국지전투가 30개 지점에서 벌어졌다. 해당 전투에서 적은 4,000명이 넘는 병력손실을 당하였고, 인민군의 병력손실은 1,066명이었다.

1953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에 의해 제한적 목적을 지닌 개별작전이 실시되었다(동 작전상황은 후

에 제시한다).

1952년 12월과 1953년 초에 조선전선에서 적의 전투행동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인민군 연합사령부는 적이 1953년 봄에 지상전선 및 해상을 통한 공세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조선과 중국지도부는 1953년 1월부터 3월 초반까지의 시기에 북조선의 서해안과 동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수행하였다. 이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보충부대들이 배속된 제1, 제16 및 제54군 등을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각 부대의 작전상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투력이 우수한 제15, 제38 및 제40군은 전선에서 차출되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즉 제38 및 제40군은 서해안의 방어력 강화에, 제15군은 동해안의 방어력 강화에 각각 투입되었다. 한편 이 군들을 대신하여 전선에는 전투경험이 없는 제23, 제24 및 제45군이 배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향후의 방어진을 완벽히 구축하기 위하여 방어설비의 건설이 수행되었다.

조선 및 중국인민지원 공군의 전투행동은 주로 북조선과 중국 동북 지역에 위치한 군대 및 주요 목표물의 방호를 위한 방어적 공중전 실시에 국한되었다.

반면 이 시기 적 공군의 전투행동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항공기 출격이 빈번하여, 1일 평균 항공기 출격횟수가 대체로 700회 내지 1,000회였다. 적은 조선에 대규모 항공전력을 집결시켰다. 즉 1952년 1월의 경우 적은 2,000대 가량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반면, 1953년 초에 와서 항공기 대수가 2,300대 가량으로 증가되었다. 그중 600대는 해군 및 해병 소속 항공기였으며, 100대는 다른 나

라 공군 소속 항공기였다. 2,300대의 항공기 중 1,900대가 전투용이었다.

전투행동 과정에서 적 공군은 항공기 운용상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즉 1952년에는 전투기 및 폭격기들이 8대에서 24대 정도의 소집단을 이루어 작전하였던 반면, 1953년의 경우 미군은 폭격집단을 구성하는 항공기 대수를 70대 내지 200대로 증대시켰다. 또한 폭격집단의 활동을 엄호하기 위해 직접적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집단과 ‘엄호대’를 조직하였는데, 엄호대는 통상 폭격기들이 작전하게 될 지역, 혹은 조선이나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전투기의 공격예상 방면들을 초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F-86 제트전투기 60대 내지 100대로 편성되었다.

적 항공기들은 인민군 전투대형과 후방 목표물 및 교통로 등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장진강(長津江 : 함흥 서북방 15~45km)과 허천강(虛川江 : 함흥 동북방 125km) 수력발전소 및 압록강 수풍발전소 등에도 대규모의 집중폭격을 감행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미 항공기들은 안동(安東) 지역에 위치한 중국과 조선 공군기지들 및 수풍발전소에 대한 집중폭격을 수차례 감행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북조선 도시 및 지역들은 적 항공기의 공격을 많이 겪었던 곳이다.

웅진(甕津), 해주(海州), 연안(延安), 배천(白川), 개성, 평강(平康), 금성(金城), 고성, 은율(殷栗), 진남포, 사리원, 황주(黃州), 중화(中和), 평양, 남천동(南川洞), 학산(鶴山), 비운(飛雲), 통천(通川), 세포

리, 이도구, 원산, 숙천(肅川), 안주(安州), 철원, 신의주, 태천(泰川), 개천(价川), 덕천(德川), 고원(高原), 영흥(永興), 함흥, 신흥(新興), 북청(北靑), 성진, 희천(熙川), 강계(江界), 만포진(滿浦鎭), 나남(羅南), 청진, 나진(羅津), 웅기(雄基).

해당 기간 동안 간섭군 소속 해군 또한 110척 내지 120척의 각종 전투함, 250척 내지 280척의 특수임무 선박 및 보조함, 그리고 600대 내지 700대의 전투항공기와 40,000여 명의 해병을 보유한 채 전투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북조선 해안봉쇄나 여타 임무수행에 앞서 언급한 전력 중 30척 내지 40척의 전투함과 20척 내지 25척 이상의 특수임무 선박, 350대 가량의 항공모함 항모 소속 전투기, 그리고 간섭군 소속 해군의 기지항공단 비행기들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조선 해상에서 활동했던 적 해군 전투함 및 항공기는 초계 및 정찰, 소해작업 등을 수행하는 한편, 해상에서 북조선 해안의 항구나 여타 목표물에 체계적인 사격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선의(동해)연안 구역에서 작전하는 부대들에 대하여 화력을 지원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연안 및 내륙지역에 있는 병력과 주거지역 등에 대한 폭격 및 기습포격을 실시하였다. 해상으로부터 체계적 사격을 받았던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있다.

연안(延安), 해주(海州), 웅진, 진남포(이 지역들은 북조선의 서해안에 위치해 있다), 고성(高城), 통천(通川), 원산(元山), 고원(高原), 함흥(咸興), 홍원(洪原), 신포(新浦), 차호(遮湖), 단천(端川), 성진(城津), 나남, 청진(淸津), 나진(이 지역들은 북조선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 3.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의 작전(1953. 7. 13~18)

- 지도 No. 26은 1 : 500,000 축척도이며 지도 No. 27은 1 : 200,000 축척도임 -

제20병단의 개별 공격작전이 실시되기 이전의 전선상황은 주로 전선의 안정, 감제를 위한 개별고지들의 점령을 목적으로 한 소부대들의 전투수행, 그리고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의 휴전협정회담 등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양측 병력의 장기적 주둔은 진지설비 차원에서의 점령지 강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1953년 7월 10일 현재 양측 병력 배치현황은 지도 No. 26에 나타나 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남조선군 수도사단 및 제6, 제8, 제3보병사단을 섬멸하고, 금성(金城)의 남쪽과 동남쪽 지역에서 전선을 분할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였다.

1) 주공을 담당한 부대의 진격경로는 다음과 같다.

- 제68군(제203, 제204 및 제130보병사단)은 울동[栗洞, 금성 서남방 7km], 금성 지역(전선 연장 10km)에서 월봉리[月峰里, 금성 남방 6km, 화천 북서방 30km], 두울동[豆栗洞, 화천 북서방 27km, 월봉리 동남방 3km] 방면으로 공격하여, 수도사단과 제6보병사단을 섬멸한다.
- 제67군(제199, 제200, 제201보병사단)은 과호리[科湖里, 교암산 동방 8km] 남쪽 2km에 위치한 화전[火田] 지역(전선 연장 12km)에서 교암산[轆岩山, 화천 북방 30km], 세현리[細峴里, 화천 북방 25km], 주파령[注坡嶺, 화천 북방 17km]

방면으로 공격하여, 적 제6 및 제8보병사단을 섬멸한다.

2) 조공인 제60군(제179, 제180, 제181 및 제33보병사단)은 과호리 남쪽 2km, 문등리[文登里, 양구 북방 23km], 여골[餘洞, 과호리 남동방 9km]를 연하는 선(전선 연장 18km)에서 남쪽 방면으로 진격하여 적 제3 및 제7보병사단을 고착시키는 한편, 이들 사단 예비부대들의 저항을 격파한다.

제68 및 제67군을 보강하고 이 군들의 전과를 화천 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20병단 예비로는 제54군 제134 및 제135보병사단, 제68군 제202보병사단, 제67군 제201보병사단 등이 차출되었다. 제68군 우익에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134보병사단은 세포리[洗浦里, 평강 북동방 14km] 지역에, 그리고 제202보병사단은 하구만리[현리 동북방 10km, 창도리 북서방 32km], 절골[寺洞, 하구만리 동북방 2km], 삼암동[절골 북방 1km] 지역에 집결하였다.

중부집단(제67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201보병사단은 창도리[昌道里, 화천 북방 44km] 동쪽 지역에, 제135보병사단은 작덕산[금성 북서방 11km, 854m] 부근, 두목동[금성 동방 4km], 방평리[금성 남동방 5km] 지역에 집결하였다.

제21군 제63보병사단은 제60군 예비로 말휘리[末輝里, 어은산 북방 31km] 남쪽 및 서쪽 지역에 전개하여 제179보병사단과 제33보병사단의 지경선에서 어은산[魚隱山, 1,277m, 화천 북동방 34km], 큰골[大谷, 어은산 남서방 7km, 백석산 서북방 3km] 방면으로 전과확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해서 48km에 달하는 전선에 작전수행을 위하여 총 15개 사단이 전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10개 사단은 제1선 부대였으며, 나머지 5개 사단은 예비대였다. 적은 이 전선의 제1선 부대로 6개(수도사단, 제6, 제8, 제3, 제7 및 제20) 보병사단, 그리고 예비대로 2개(제5 및 제11) 보병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 이외에도 인제 지역에 미 제40보병사단이, 그리고 송우리[양구 동남방 3km] 지역에 미 제2보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미 제45보병사단을 판단 착오].

2개 미군 사단을 제외한 양측의 전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

〈표 2-24〉 남조선군과 중국 제20군의 전력비교

중국 제20군	비율	남조선군
15개 사단	1.8 : 1	8개 사단
15개 사단	1.5 : 1	10개 사단(미군 2개 사단 포함)

항공기 및 전차 보유대수는 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작전개시 무렵에 공격정면의 축소를 위하여 최초 작전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제60군 예하의 제33보병사단이 제21군에 배속되었으며, 제21군은 준동을 통하여 대치하고 있는 남조선군 제7 및 제20보병사단 부대들을 고착시킬 목적으로, 제33 및 제63보병사단을 제60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지역의 방어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조치결과 제67 및 제60군의 공격정면이 축소되었다.

제67군(제199, 제200, 제201보병사단)은 2개 보병사단을 제1선에, 그리고 1개 보병사단을 예비로 하여 기존의 폭 12km 대신 8km의 정면에서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60군(제179, 제180, 제181보병사단)은 2개 제대를 형성하여 용호동[龍湖洞, 화천 북방 28km], 내성동리[內城洞里, 화천 북방 23km], 1,179고지[백암산, 화천 북방 19km] 방면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20병단에는 제1선에 9개 보병사단을, 그리고 4개 보병사단을 예비로 두고 (제21군을 제외하고) 각 사단당 2km의 작전밀도를 가지면서 26km의 전선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 전투행동 과정

- 지도 No. 28은 1944년 제작된 1 : 20,000 축척도 -

제20병단 부대들은 변동된 결정에 따라 필요한 부대 재배치를 실시한 후 1953년 7월 13일 21시에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적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면서 7월 14일 11시 무렵에 3km 내지 6km를 전진해서 다음의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 제68군 : 뒤재[後峴, 금성 남서방 10km], 간풍동[풍동리, 금성 남서방 8km], 552고지[금성 남서방 5km] 남쪽 1km, 후천리[금성 남방 2km]
- 제67군 : 송동리[금성 동남방 12km], 가막골[加莫洞, 금성 동남방 5km], 교암산[轎岩山, 금성 동남방 7km, 768.7m]
- 제60군 : 집실리[執室里, 교암산 남동방 4km] 서쪽 1.5km, 광

대동[廣大洞, 교암산 남동방 6km], 양지[陽地, 교암산 동남방 7km]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적은 병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남조선군 수도사단, 제6 및 제8보병사단을 화천으로 신속히 철수시켰다. 미군과 남조선군 지도부는 후위부대들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부전선 구역에서 부대 재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제20병단 예하부대들의 진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가진 예비대를 화천에서 북쪽으로 추진하였다.

7월 14일 오후 늦게 제20병단 예하부대들은 다음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 제68군 : 밤골[栗洞, 금성 서남방 7km], 간진현[금성 남방 9km, 두울동 서방 2km] 두울동
- 제67군 : 두울동, 602고지[두울동 동남방 3km] 북쪽 1km, 서운리[두울동 동방 6km]
- 제60군 : 금성천[金城川] 북쪽 천변, 양지

각군은 주력으로 하여금 점령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식량 및 탄약을 추진하고, 노획장비들을 후송하도록 하는 한편, 보강된 선두지대들로 하여금 남쪽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케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24군(제9병단)은 제68군의 우측방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68군의 전과를 활용하면서 공격으로 전환, 1953년 7월 14일 오후 늦게 적 중심을 향해 3km까지 진격하여 갈골[葛洞, 금성 서남방 14km]

남쪽 및 서남쪽 2km와 432고지[갈골 동방 2km] 선까지 진출하였다. 부대는 주력으로 하여금 그 곳에 진지를 구축케 하였으며, 선두부대로 하여금 감봉리[甘鳳里, 갈골 남방 2km], 안골[內洞, 432고지 남방 5km, 감봉리 동남방 4km] 방면으로 적을 추격케 하였다.

선두부대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7월 16일 17시 40분 무렵 봉미[감봉리 북서방 1km], 갈골 남쪽 고지[논고개 부근], 636고지[바조봉, 갈골 동남방 5km], 승암고개[바조봉 동방 4km]간 소로, 서막골[西幕洞, 백암산 서방 9km, 적근산 동방 3km] 동북쪽 1km, 주파리[注坡里, 백암산 서북방 7km], 신둔지[新屯地, 백암산 서방 3km] 동남쪽 1.5km, 흰바우산[백암산, 1,179.2m] 선까지 진출하였지만, 동 선에서 새로이 추진된 미 제3보병사단, 남조선 제 5 및 제11보병사단과 퇴각하던 부대들의 저항과 반격을 받았다.

7월 16일부터 17일 및 18일 오전에 걸쳐 제9병단 제24군, 제20병단 제68, 제67 및 제60군 예하부대들은 적의 반격을 격퇴하는 한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두부대들을 진지구축이 진행되고 있던 432고지, 이실골[梨實洞, 432고지 동방 3km], 두울동, 서운리, 금성천(金城川) 북쪽 천변, 양지를 연하는 선으로 퇴각시켰다.

7월 18일 오후와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20병단 예하부대들은 미군과 남조선군의 수차례에 걸친 격렬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확보지역에 계속 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0병단은 제68, 제67 및 제60군 주력으로 하여금 432고지, 두울동, 서운리, 금성천 북쪽 천변과 양지를 연하는 선의 방비를 확고히 구축하게 함으로써, 적이 북쪽 방면으로 돌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이 지역에 1.5km 내지 2km 간격으로 3중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군에도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되었다.

- 제68군은 432고지, 두울동, 송포[松浦, 금성 남동방 7km], 울동[금성 서남방 7km] 선을 방어하며, 2개 제대의 전투대형을 구축한다. 제1제대는 제203 및 제204보병사단이며, 제2제대는 제134보병사단이다.
- 제67군은 두울동, 서운리, 울사리[栗沙里, 교암산 북동방 3km], 송포 선을 방어하며, 제1제대는 제200 및 제135보병사단, 제2제대는 제201보병사단이다.
- 제60군은 서운리, 양지, 여골[양지 동남방 7km], 울사리 선을 방어하며, 제1제대는 제180보병사단과 제181보병사단 제542보병연대이고, 제2제대는 제179보병사단이다(제542보병연대를 제외함). 제181보병사단은 휴식 및 충원을 위하여 현리[縣里, 금성 동북방 20km] 지역으로 퇴각한다.
- 제21군(제33 및 제63보병사단)은 대치하고 있는 남조선군 제7 및 제20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을 섬멸 및 고착시키기 위하여, 7월 14일 23:00 제63보병사단으로 하여금 바우골[峇洞, 어은산 남서방 3km] 남서쪽 1.5km 지역에서, 그리고 7월 17일 23:34 제33보병사단 제99보병연대로 하여금 1219고지[어은산 남방 1km] 북동쪽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적은 300명의 전사상자 및 22명의 포로 피해를 입었으며, 아군은 30명의 전사상자 피해를 입었다.

제20병단 예하부대들에 의한 점령지역의 방어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적 저항에 직면한 적은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공격행동을 중단하였다.

제20병단은 1953년 7월 13일부터 17일에 걸쳐 실시된 개별작전을 통해 3,190명의 적 병사와 장교를 포로로 획득하고, 대포 153문, 전차 50대, 박격포 29문, 차량 137대, 로켓포 13문, 기관총 110정을 노획하였으며, 적 항공기 격추 10대, 반파 20대의 전과를 올렸다. 제20병단의 손실은 전사상자 8,653명이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제20병단 예하부대 진지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은 전사상자 5,900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인 민지원군의 손실은 198명이었다.

- (1) 중국인민지원군 제20병단 작전은 적에 의해 1년 반 이상 준비된 확고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던 상황 하에서 시작되었다.
- (2) 작전은 남조선군 3개 사단을 섬멸하고 금성 남방 및 동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3) 적은 공군 및 전차 전력이 월등히 우세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은 주로 야간에만 공격을 실시하였다.
- (4) 제20병단 예하부대들의 성공적 공격으로, 적은 작전개시 첫날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수도사단 및 제6, 제8보병사단을 후방지역으로 황급히 퇴각시켰다. 작전 첫날 적 중심 6km 내지 10km, 그리고 전선에 따라서는 30km를 진격한 제20병단 부대들은 보급의 지체와 역수 같은 비로 인해 진격을 중단하고 주력으로 하여금 확보지역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 미군의 수동적인 방어태세와 야간전투행동의 미숙성이 재차 입증되었다. 적의 반격은 강력한 항공공격이 실시된 이후에 항공기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만 실시되었다.

\* \* \*

1953년 7월 27일 조선 시간으로 10시(모스크바 시간으로 03시)에 전쟁을 수행하던 양측이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당시 양측 병력의 배치에 관해서는 지도 No. 29(축척 1 : 500,000)에 표시되어 있다.

## 제17장 미군 작전의 개관 [1950. 7~1953. 3]

### 1. 미군 참전과 공격작전

#### 1) 미군 참전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6일 뒤인 1950년 7월 1일부터 자국 병력을 일본과 미국에서 남조선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37일 동안 미군 5개 사단(제2, 제24,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 및 제1해병사단)과 2개 독립보병연대(제5 및 제29보병연대)가 해상을 통해 조선으로 투입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미국에서 제7보병사단, 제187공수연대 및 5개 독립전차대대가 투입되었다.

1개 사단이 해상을 통해 일본에서 조선으로 투입되는 데 10일 가량 소요되고, 미국에서 조선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었다. 즉 사단을 선적항에 집결시키는 데 12일, 함정에 승선하는 데 7일, 해상 횡단에 18일, 하선 및 정리에 7일 등이었다(도표 No. 1 및 표 No. 2 참조).

모든 사단은 보충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채 조선으로 수송되었다. 사단포병과 전차, 공병지대 등은 통상 보병연대별로 분배되었으며, 각 연대는 예하 지대별로 보충장비를 분배하였다.

보병부대는 포병, 전차, 공병 및 모든 유형의 보급품들과 함께 수송되었는데, 이는 보병부대가 상륙 이후 모든 전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총사령부 예비 보병 및 전차부대들은 제병과 구성군과는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수송되었으며, 조선에 도착한 이후에야 각 사단별로 배분되었다.

해상을 통해 미국에서 조선으로 1개 보병사단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 소요 척수를 산정함에 있어 미국인들은 병력 1인당 10톤을 적용하였다. 기갑부대(지대)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 척수의 결정에는 병력 1인당 15톤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1개 보병사단을 해상 수송하는 데는 배수량 10,000톤의 선박 20척이 필요하였으며, 1개 기갑사단을 수송하는 데는 동일한 배수량을 지닌 선박 25척이 요구되었다.

미군을 조선에 집결시키던 시기 전선의 상황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38선 지역에서 인민군에 의해 괴멸당한 남조선 군대는 당시 잔류병력으로 저항다운 저항 한 번 해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부산 방면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군 지도부로 하여금 남조선으로의 병력 집중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 강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들은 자국 부대가 조선에 도착하는 즉시 부분적, 축차적으로 전투에 투입시켰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조선으로 공수된 제24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예하 1개 대대가 조선인민군 진격부대에 대항하여 1950년 7월 6일 전투에 투입되었다. 일본에서 해상으로 수송된 동 연대 주력은 7월 7일 전투에 투입되었다. 동 사단의 두 번째 연대는 7월 8일, 그리고 세 번째 연대는 7월 10일 전투에 투입되었다. 제25보병사단 역시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연대별로 전투에 투입되었다.

미국은 1950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24, 제25보병사단 및 제1기병사단 등 총 3개 사단을 전투에 투입하였다. 다수의 항공기 지원을 받는 이 3개 사단은 낙동강 선에서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3개 사단(제2, 제7보병사단 및 제1해병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 제29보병연대 및 제187공수연대)의 남조선 집결을 보장하였다.

전쟁 초기 미군 사단들은 주요 간선도로에 의지한 기동방어 방식으로 전투행동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후방에 있는 다음 방어선으로의 퇴각까지 고려된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방어를 수행하였다. 각 사단은 20km 내지 25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선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군은 지연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미 보병은 우회나 측방 포위와 같은 미미한 위협에도 포병, 전차 및 항공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다음 방어선으로 퇴각하였다. 전차부대는 고착사격 방식으로

보병의 퇴각을 엄호하였으며, 유리한 상황에서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보병의 뒤를 이어 전차가 항공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퇴각을 시작하였다. 보병과 전차의 퇴각을 엄호하는 항공기는 조선인민군 부대의 추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군 부대의 종대 대형에 공격을 가하였다.

소부대 단위로 전투에 투입되어 기동방어 방식을 실행했던 미군 사단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즉 미군 사단들은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정지시키고, 시간을 벌었으며, 그 결과 주력을 집결시키고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 2) 공격작전

1950년 전쟁 초기 미군은 결정적인 목표를 지닌 3차례의 공격 작전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공격작전은 미 제10군단의 제물포 상륙과 동시에 미 8군에 의해 수행된 부산 교두보에서 38선에 이르는 작전이었다 (도표 No. 3 참조).

작전중심은 250km였고, 작전기간은 23일간이었다. 평균 진격속도는 적의 전술적 방어중심 점령을 목표로 하는 경우 1일 6km였고, 추격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14km 내지 15km였다.

10개 사단이 중 6개 사단은 남조선군 사단이었다), 영국군 1개 여단, 3개 독립보병연대 및 5개 독립전차대대로 편성된 미 8군이 250km의 전선에 전개하였는데, 당시 사단당 작전밀도는 20km였다.

양측 전력을 비교하면, 보병은 1 : 1, 포병은 1.3 : 1, 전차는 12 : 1 등으로 미군측이 우세하였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미군측이 절대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차대대들이 보강된 6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편성된 군 공격 집단이 70km의 전선에 전개되었다. 모든 사단이 일선에 전개하였으며, 각 군단 혹은 군 예하 제2제대 및 예비대는 두지 않았다. 각 사단과 연대는 2개 제대대형으로 정렬하였다. 돌격집단 예하의 6개 사단 각각은 3km 내지 4km 가량의 방어선을 돌파하였으며, 그 후 도로에 연해 있는 개별 방면들을 따라 약 10km 정도 진격하였다.

주공방면의 경우 미군은 보병 1.4 : 1, 포병 2.3 : 1, 전차 12 : 1의 우세를 보였다. 전선 1km당 전술밀도는 보병 1대대 내지 1.2대대, 전차 35대 내지 50대에 달하였다.

이 작전에서 미군부대는 결정적으로 행동하였다. 포병 및 항공기가 돌격 예정구역의 방어선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전차가 보강된 보병이 인민군 후방으로 진출하여 해병과 합류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 돌파를 실시하였다. 조우를 목적으로 한 제8군과 제10군단의 결정적 행동에 의해 조선인민군 6개 사단이 남조선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양 공격집단 주력은 포위된 적을 섬멸하기보다는,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포위된 조선인민군 병력이 섬멸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인민군 부대는 이를 활용하여 진격하는 미군부대의 뒤를 따라 북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상당수의 전력이 포위에서 벗어나 조선의 북부지역으로 빠져나갔다.

두 번째 공격작전은 미군에 의해 38선에서 청천강까지 수행되

었다. 이 작전은 조선인민군이 동 지역에 방어선을 황급히 조성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도표 No. 4 참조).

이 작전의 중심은 250km에 달했고, 작전수행 기간은 15일이었으며, 평균 진격속도는 1일 16km 내지 17km였다.

13개 사단, 3개 독립연대, 1개 여단 및 5개 독립전차대대로 편성된 미군 공격집단은 38선을 넘어 황급히 구축된 방어선을 돌파한 후 추격을 실시하였다.

초전에 비해 2차 작전에서의 미군부대 작전대형은 보다 강력하였다. 200km 전선의 제1선에 8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전개하여, 사단당 작전밀도가 23km였다. 예비대로는 5개 사단이 있었는데, 이 중 2개 사단은 조선 북동지역으로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차 공격작전에서 미군은 전력상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총 병력은 3개 사단이 채 안 되었는데, 그것도 분산된 부대들이 미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미군은 조선인민군의 방어체계를 수월하게 제압한 후,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북쪽으로 진격하였다. 후퇴하는 인민군 부대들을 추격하기 위해 미군은 각 사단에서 선견부대들을 차출하였는데, 이 선견부대는 퇴각하는 부대를 따라 느린 속도로 추격하였으며, 적을 우회 및 포위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미군의 공격작전은 청천강 선에서부터 조·중 국경선까지로 계획 및 수행되었다(도표 No. 5 참조).

작전중심은 150km였다. 5개의 분산된 지역으로 진격이 이루어졌다. 부대 대형은 1개 제대 형태로, 모든 사단이 각각 10km 내지 15km의 전면을 갖고 제1제대에서 진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미군에는 조선인민군 잔여병력을 괴멸시키고 중국 국경까지 진출하여, 1950년 말까지 전쟁을 종결시키라는 결정적인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반격을 가하자, 미군은 진격을 중단하고 38선 이남으로 황급히 무질서한 퇴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 이 작전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추격을 하지 않았던 덕분에 미군은 괴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50년에 있었던 각 공격작전에서 미군이 보여 준 특징은 포병 사격과 항공공격으로 방어진을 완전히 제압한 후, 보병과 전차가 방어선의 일부를 돌파하고, 인민군 부대의 지휘 및 보급을 마비시키면서 중대대형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방어병력의 후미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공격행동에서 그와 같은 방식은 진격속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미군 지도부에 조선인민군부대를 포위 섬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조선인민군의 양익과 후방에 있는 잔여병력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들을 각각 포위 및 섬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군은 조선인민군의 와해를 예상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조선인민군은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소로나 산악소로를 이용하여 적의 뒤를 따르거나, 적 보병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따라 미군 공격중대와 평행하게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심지어 진격 중에 조선인민군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군은 1일 15km 이하의 느린 속도로 진격하였다.

가장 최근의 공격작전[제3차 공격작전]에서 미군은 간선도로를



따라 일괄적인 진격에만 몰두한 채 양 측방 산악지대에 은거해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4개 사단이 포위당하고 거의 전멸하는 상황을 맞았다.

통상 미군 보병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포병 및 항공기의 강력한 공격 준비사격이 있었다. 이 경우 포병 밀도는 전선 1km당 대포 100문까지였다.

미군 보병과 전차는 진격 중 미약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전진을 중단하고 새로이 포병 및 항공기 사격을 시작하였다.

후퇴하는 조선인민군 부대의 추격은 미군이 각 사단에서 특별히 발탁된 부대들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수행하였다.

미군의 추격부대들은 보병중대 및 대대, 전차중대 및 대대, 포병중대 및 대대와 공병지대로 구성되었다. 부대들은 인접부대들과 평행을 이루면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기동하였다. 추격부대들의 뒤를 이어 각 사단 주력이 중대대형으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미군이 추격을 실시하는 중에 소규모의 조선인민군 부대를 포위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도보로 퇴각한 반면, 미군은 차량으로 추격했던 상황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0년의 공격전 과정에서는 취약한 군사훈련, 각 병사들의 미약한 군기, 취약한 정찰조직, 각 병과(특히 보병, 전차, 포병 및 항공기) 간의 낮은 협조수준, 도로를 따른 기동에의 집착, 취약한 측방 및 야간전투 수행준비의 결여 등을 그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군은 공중 및 해상세력에서의 절대적 우위, 장비상의 압도적 우세 등에도 불구하고 1950년 공격을 수행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섬멸 및 조선 전역의 점령이라는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

패하였다.

반격을 감행했던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간섭자들을 38선 이남으로 퇴각시켰다.

미군은 1951년에도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행동들은 짧은 진격중심(60km 이하)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행동들과 구별되었다.

새롭게 수행된 미군의 공격방식은 보다 세밀한 정찰(특히 측방에서의), 각급부대들 간의 긴밀한 통신유지 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부대 기동은 매우 조심스럽고 느려서, 1일 2km 내지 3km를 넘지 못했다.

미군은 기복이 많은 산악지형을 전술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일반 차단지역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진격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한 연속적 전선을 따라 실시되었으며, 이 경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색임무를 지닌 소규모 부대들이 행동하였다. 산악기복의 특성을 이용한 우회기동은 실시되지 못했다.

미군은 매번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공격구역 정면에 위치한 방어선의 모든 병력이 섬멸될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포병 및 항공기에 의한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공격 준비사격은 2시간 내지 3시간에서 24시간까지 지속되었다.

포병 및 항공기의 강력한 공격 준비사격에도 불구하고, 진격은 극도로 느린 속도로 그리고 비결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퇴각하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의 뒤를 따르는 단순한 진격 형태로 귀결되었다.

사단 예하 포병 전체와 보강된 항공기가 이 부대들에 대한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다. 부대가 저항에 직면하는 경우, 포병 및 항공기의 사격이 재개되었다.

선두부대들의 행동이 성공적일 경우, 이 부대들의 뒤를 따라 각 사단 주력이 10km 내지 15km의 거리를 두고 전진하였다. 진격은 주간에만 실시되었다. 어둠이 시작되면 진격이 중단되었으며, 선두부대들은 점령 지역에서 멈추거나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퇴각하였다.

미군은 방어선을 돌파한 이후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부대가 퇴각하는 경우에 전 전선에 걸친 추격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추격은 재차 선두부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추격속도는 진격속도와 동일하여, 1일 3km 내지 5km를 초과하지 못했다. 그 덕분에 인민군 병력은 피신하거나 후방지역으로 퇴각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느린 진격속도로 인해 추격하는 선두부대들은 인민군 후위부대들이 이미 퇴각한 후 2일 또는 4일 만에 점령하곤 하였다.

미군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퇴각하는 인민군 부대를 포위하거나 퇴각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선두부대들은 미약한 저항에라도 직면하면 진격을 멈추었으며, 그에 따라 그 뒤를 따르던 주력도 진격을 멈추었다. 그 후 포병 및 항공 공격이 30분 가량 실시되었다. 그런 다음에도 선두부대들이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격 자체가 중단되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던 1951년 7월 10일 이후 미군은 새로운 공격방식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공격은 일정한 고지나 주거 지역 점령에 국한되었다. 공격이 의도된 목표에는 1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포병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이 실시되었다. 수비병

력이 섬멸되거나 후퇴한 이후에야 비로소 미 보병이 해당 목표를 점령하였다.

1951년 미군에 의해 수행된 공격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일반적으로 공격은 인민군의 지탱점과 저항거점들에 대한 포병 및 항공기의 연속적 제압과 그 후의 선두부대 진출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주력은 선두부대들이 해당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야 진격을 실시하였다. 병력은 전선 전체에 걸쳐 분산된 선형배치 방식에 따라 배치되었다. 조선에서는 주공방면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시키고, 병력을 중심 깊게 배치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다.
- 미 보병 및 전차가 항공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만 행동하였기 때문에, 공격은 주간에만 그 실시가 가능하였다.
- 사단 공격정면은 8~15km였다.
- 진격속도는 1일 1~5km 정도였다.

부록 : 도표 No.1, No.3, No.4, No.5 : 4매

표 No.2 : 1매

부록 합계 총 5매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1953년 1월 22일

도표 No. 1 조선으로의 해상을 통한 미군부대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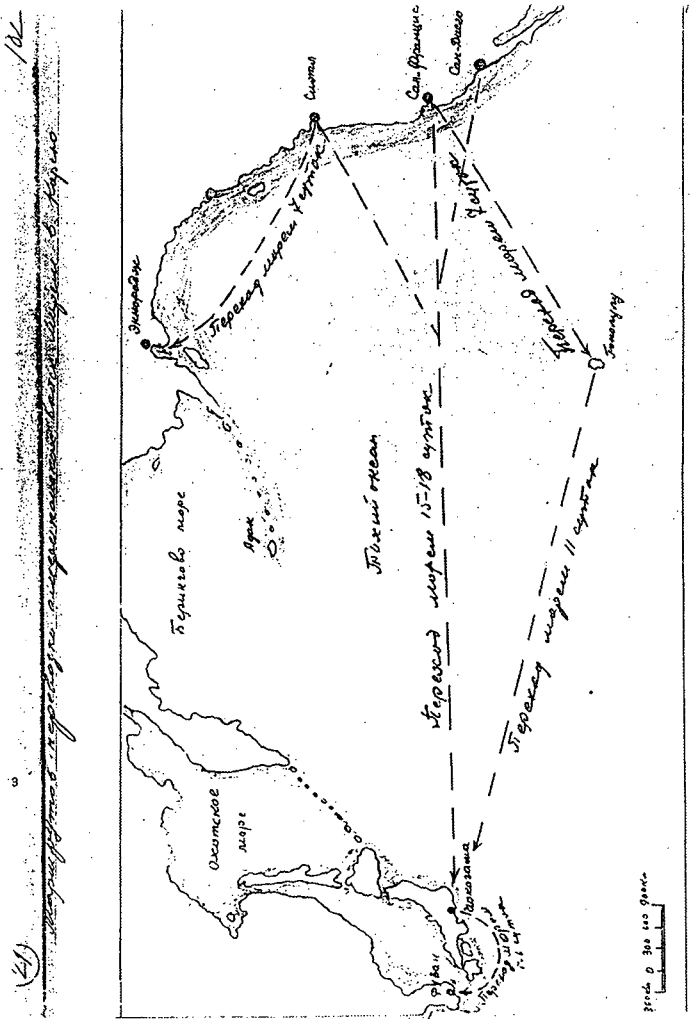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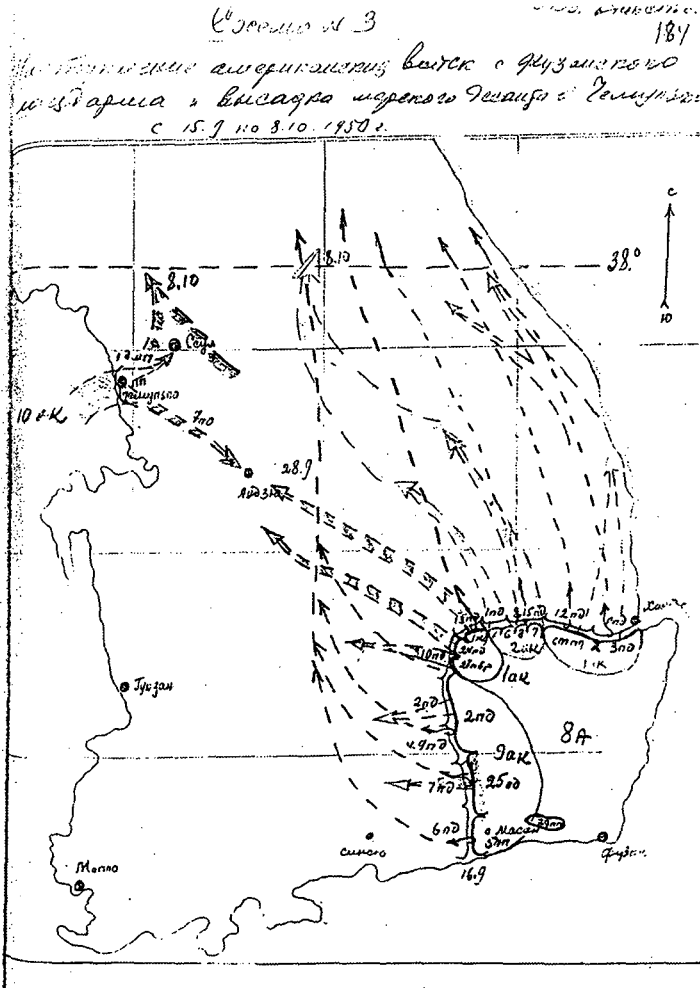




도표 No. 3 1950년 9월 15일~10월 8일 부산 교두보에서 미군의 공격 및 상륙군의 제물포 상륙









### 3) 기갑부대의 작전

미군은 조선전쟁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던 초기 산악전투에서 전차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경시하고, 자신들의 대전차장비를 과신함으로써 전차를 보유하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전차에 대항할 미군의 대전차장비들의 효용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산악전투에서도 전차를 운용할 필요성이 확인되자, 미군 지도부는 조선전쟁에 전차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구식 경전차인 M-24 ‘치피’와 중(中)전차 ‘셔먼(Sherman)’으로 편성된 전차부대들이 일본에서 투입되었다. 그 후 ‘피싱’과 ‘페이튼’ 중(中)전차를 보유한 전차부대들이 미국에서 투입되었다.

1951년 말 무렵 조선에서는 3개 독립전차대대와 각 보병사단에 편제된 7개 전차대대, 그리고 각 보병연대에 편성된 18개 전차중대가 작전을 수행하였다. 조선에서 기갑사단과 같은 대규모 전차구성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에 투입된 전차부대들은 공격전뿐만 아니라 방어전에서도 운용되었다.

공격시 전차부대는 주로 보병에 대한 직접지원, 정찰 및 추격 등에 운용되었다. 일정한 경우 전차는 공격부대에 동반하는 대포 혹은 화력 지원용 대포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보병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주로 도로를 따라 기동하는 보병연대 예하 전차중대나 보병사단 예하 전차대대가 이용되었다. 주공방면에서 진격하는 보병사단들은 사단에 편제된 전차대대 외에도 총사령부 예비 독립전차대대들에 의해 보강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격전에서 전차를 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포병사격이 중심으로 전환된 후, 전차가 보병 전투대형과 합동으로 적 화점들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포병 공격사격이 끝날 무렵 전차가 전선에서 500m 내지 700m에 위치한 화기진지로 진출하여 화점들을 제압한 후, 진격하는 보병의 뒤를 따라 전진하는 것이었다.

전차부대는 공격이 개시될 때까지 전선에서 15km 가량 떨어진 집결지에 위치하였으며, 포병의 공격 준비사격이 개시되기 직전에야 공격출발선으로 진출하였다. 공격출발선은 조선인민군 방어전단에서 1km 내지 3km 떨어진 지역에 선정되었다.

조선인민군이 퇴각하고 미군부대가 이를 추격하는 경우, 전차는 임시 전술집단 운용에 이용되었다. 보병과 전차가 편성된 집단은 주로 1개 보병대대 병력과 1개 전차대대로 구성되었다. 이 집단에 편성된 보병은 통상 전차에 탑승하였으며, 적군과 조우할 경우에만 전차에서 하차하였다.

전차는 직접조준 사격을 수행하거나 후위부대로 차출된 보병부대와 협조 하에 행동하는 방식으로, 보병의 전투이탈이나 퇴각을 엄호하였다. 그 외에도 전차는 퇴각하는 종대 주력의 선두에서 기동하면서 종대 대열에 대한 유격대의 기습을 저지하였다. 때때로 전차는 전선에 물자를 보급하는 수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차는 포격의 강화에도 이용되었다(엄폐호 및 엄개호로부터). 엄폐호에서 사격을 실시할 때에는 양각(仰角)을 보장하기 위

하여 전차의 앞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는 흙으로 된 차폐물을 쌓아 올렸다. 사격은 전방관측요원들에 의해 수정되었다.

조선에서 수행한 전차부대의 전투행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에서는 전차가 기본적으로 각급 보병부대에 편제되어 운용되었다. M-46 ‘페이튼’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된 기종이었기 때문에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조선에 투입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갑부대 단위는 전차대대였다.
- 대부분의 경우 전차부대는 보병과 함께 도로 및 전차 접근이 가능한 계곡분지 등을 따라 기동하였다. 미군 전차부대는 산악지대나 격오지에서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조선에 투입된 미 기갑부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전투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행동은 조선인 민군의 저항이 미약한 틈을 타서 겨우 진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보병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었다.
- 공격(진격)시 전차는 대규모 독립임무 수행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보병에 대한 사격지원을 실시하거나 보병 전투대형과 함께 기동하였다. 아주 드문 경우에만 전차가 진격부대 주력으로부터 8~10km 떨어져서 기동하였다.
-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병기가 곧 전차’라는 미군 지도부의 공식적 방침은 그들이 수행한 방어전에서 입증되지 못하였다. 즉 대전차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한 ‘치피’ 및 ‘셔먼’ 기종 전차는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전차보다 무장 및 장갑에 있

어 그 성능이 떨어졌으며, 이들과 맞서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차 이외에 항공기나 포병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의 전차와 맞서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전차병기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 조선전투를 통해 엄폐호에서 사격을 할 때에 전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교범 및 지침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 기갑부대 조직구조 및 전구의 특성으로 인해 미군 지도부는 조선에서 방어전뿐 아니라 공격전에 있어서도 대규모 전차 전력을 운용하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1953년 1월 22일

#### 4) 공군의 작전

조선전쟁 초기에 미군은 일본과 오키나와에 750대 가량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100대는 B-29 중(重)폭격기, 90대는 B-26 및 AD-3 중(中)폭격기, 440대는 F-51, F-82, F-80 및 F-84 등의 전투기였으며, 그 외에도 정찰기 20대 및 수송기 100대가 있었다. 미군은 이 항공기들을 이용하여 1950년 6월 27일 조선인민군에 대항하는 전투행동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군사행동이 개시된 직후 미군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항공기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1950년 7월과 8월 두 달 내내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들이 이동되었다.

- 2개 중(重)폭격항공집단
- 1개 중(中)폭격집단
- 2개 전투항공집단
- 3개 수송항공집단
- 3개 항공모함 항공집단 및 1개 해병항공단

부산 교두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무렵 미군은 1,360대 가량의 항공기를 보유하고었는데, 그 중 전투용 항공기가 1,100대 가량이었다. 미군은 1950년 11월 조선에서 매우 큰 희망을 갖고 제트전투기 F-86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투경험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한 희망은 적중되지 않았다. MIG-15가 F-86에 비해 속도 및 무장에 있어 더 우세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미 공군은 통합적으로 운용되었다. 모든 전술항공부대들이 제5공군으로 통합되었다. 1952년 9월 1일 현재 미 제5공

군에는 미 공군 소속의 2개 중(中)폭격항공집단, 10개 전투항공집단, 1개 정찰항공집단 등이 편제되어 있었다. 공군에는 미 공군 소속 항공집단들 외에도 남조선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투비행중대들이 편제되어 있었다. 각 중(中)폭격항공집단은 중폭격기 48대, 각 전투항공집단은 전투기 75대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제5공군은 총 1,0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지상군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군은 약 300대 가량의 항공기를 자체 보유한 항공모함 항공기와 150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해병군단 항공을 운용하였고, 중(重)폭격항공은 3개 중폭격항공집단으로 구성된 통합전략 공군사령부(B-29 130여 대 보유)에 소속되었다. 미군은 1952년 9월 1일 현재 조선에서 총 1,700대에 이르는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였는데, 이 중 1,280대 가량이 전투기였다. 전쟁개시 직후 미 공군은 조선의 공항, 산업 목표물 및 조선인민군 교통로 등을 공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미 공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한 정찰을 실시한 후에 1950년 6월 27일 및 그 이후 공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항공공격을 실시하였다.

인민군 비행장들에 대한 항공공격에는 전투기의 엄호 하에 15대 내지 50대가 1개 집단으로 비행하는 중(中)폭격기들이 이용되었다. 당시 전투기와 폭격기의 비율은 1 : 2 내지 2 : 3이었다. 인민군 비행장에 대한 미 공군의 공격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폭격기들이 도착하기 전 10분 동안 제트전투기들이 비행장에 기총사격을 실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폭격기들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비행장이 고사포 및 기관총 등으로 방호되고 있는 경우, 적 항공

기는 고고도에서 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폭격을 실시하였다. 그 경우 폭탄투하의 정확도는 떨어졌다.

비행장에 대한 지속적인 항공공격의 결과 조선인민군 공군은 막대한 물질 손실을 당하였으며, 이후의 전투에서 미 공군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 전략항공은 조선의 산업 목표물, 후방에 위치한 철도역 및 도선장 등에도 체계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은 자신감을 갖고 전술적 행동의 선택에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폭격기들은 전투기의 엄호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비행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전투활동을 수행하던 미군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공격 혹은 방어작전도 실시하지 않았다. 열악한 기상상황이나 여타 원인으로 인하여 전술항공의 운용이 제한되는 경우, 미군의 진격속도가 급속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부대가 방어로 전환하거나 아예 퇴각하기까지 하였다. 미 보병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방어전에서도, 그리고 공격전에서도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였던 것이다.

미군은 제공권 장악을 공군이 수행해야 할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다. 그러나 미군이 전쟁 초기에 이미 조선에서의 제공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전술항공은 1952년 중반까지 전투작전 지역의 격리 및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전투작전 지역의 격리임무는 교통로, 철도 분기점, 교량 및 저장고, 열차 및 차량운송 수단, 전술중심 및 작전중심에 있는 병력과 장비 집결지 등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경우 다



음과 같은 목적들이 추구되었다.

첫째, 장비·탄약·식량 및 증원병력 수송을 차단한다.

둘째, 조선인민군의 자유로운 기동 및 재배치를 저지한다.

셋째, 공격시 전과를 확대할 가능성 혹은 적의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미군 전술항공은 현재 B-26 중(中)폭격기, F-51, F-80, F-84, F-86, F-4U 전투기 및 항공모함 발진용 폭격기인 ‘스카이레이더(Skyraider)’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은 1950년 가을부터 전술임무 및 작전임무의 수행에도 B-29 중(重)폭격기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의 경우 이 항공기들은 전략임무 수행에만 운용되었다.

지상군 부대에 대한 직접지원은 조선인민군 부대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민군 부대 및 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진지들에 대해 강습 내지 폭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임무는 F-51, F-80, F-84, F-86, F-4U(해군) 전투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군의 주요 표적은 조선인민군 병력·포병·전차, 기관총 진지 및 박격포 진지 등이었다. 조선에서 군사행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진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던 부대들은 미 공군에 의한 손실이 크지 않았다. 미군 전술항공 조종사들은 1일 1회 내지 3회 출격하였다. 즉, 전투기는 2회 내지 3회, 중(中)폭격기는 1회 내지 1.5회, 그리고 정찰기는 1회 출격하였다. 조선에서 미 공군이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을 하는 데 있어 보여 주었던 전투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군은 전투작전지역 격리 및 지상부대에 대한 직접적 항공지

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조선에 F-80 및 F-84 제트전투기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전장에서 이러한 기종을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부대와 협조하기 위한 특수 제트공격기의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간에 MIG-15 전투기들에 의해 초래된 B-26 전술폭격 항공부대들의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미군 지도부는 1951년 중반부터 동 기종 항공기의 운용을 야간에만 실시하였다.

전략항공 부대들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시에도 작전중심 및 전술중심에 위치한 표적들을 타격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다. 조선 전쟁에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상군 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항공을 전술임무 및 작전임무 수행에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은 조선에서 헬기를 광범위하게 운용하였는데, 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의 수행에 투입되었다.

- 전장에서 부상자 후송
- 접근근란 지역에 위치한 부대와와의 연락 및 보급품 조달
- 소규모 전술공수부대 및 교란집단의 공중투하

이외에도 표적에 대한 전투기 유도, 포병사격 수정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1953년 1월 12일

## 2. 소련 고문단 보고

불가닌(Булганин) 동지에게

현재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합니다.

1952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조선을 방문한 이후, 미군이 조선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보다 증대되었습니다. 클라크의 공격계획에 대한 첩보, 일련의 미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진술, 그리고 조선에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극동지역 미군의 실질적인 방책들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책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남조선군의 증강을 통해 미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52년 남조선군은 12월 2개 보병사단, 3개 독립보병연대 및 6개 보병연대 등을 창설하였습니다. 남조선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15개 보병사단으로 증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에는 10개 사단이었습니다).
- 남조선군의 무장이 강화되고, 장비 보급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보병사단에는 4개 대대 규모의 포병집단(대포 72문), 탄착관측 항공부대(항공기 8대) 및 1개 전차중대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조선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 참전병력의 증강을 요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터키 정부는 이에 동의를 하였으며, 현재 조선에 1개 여단을 증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타이완 섬에서 미군은 조선에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 3개 국민당 사단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 일본과 조선에 진주하고 있는 9개 미군 사단들 중 7개 사단이 상륙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군은 자기측의 상륙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의 동해안에서 최종적인 상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진해·부산·제물포 등 조선에 있는 해군기지 및 항구들에서 준비, 북조선 서해안의 진남포-해주 구역에 위치한 섬 기지들에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섬들에서는 미 제2해병지원여단 지대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 북조선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정찰 및 교란활동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정찰활동지역은 안주(安州)에서 해주(海州)에 이르는 서해안과 성진(城津)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안, 그리고 교통 분기점 및 보급기지 등입니다.
- 미 공군의 활동에서는 북조선 서부지역의 도로, 도선장 및 인민군 기지 등에 대한 폭격 강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전선에서는 미군 사단들이 점차적으로 남조선군 사단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1952년 12월에 3개 미군 사단이 제1선에서 예비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지도부는 조선에서 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방책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에서 장기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리하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조선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은 대규모

상륙군의 상륙일 것이다.

미군은 주공방면을 조선 서해안의 고군산도-군산 구역에 두고 약 7개 보병사단을 상륙시켜 공격을 가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군은 조공으로 1개 내지 2개 사단을 동원하여 원산 지역에 상륙시킬 것이다. 한편 전선에서의 전투행동이 격화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인민공화국 군 지도부는 안주(安州), 운산, 개천(介川) 지역에 1개 사단 병력의 공수부대가 투하될 가능성이 있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용진]반도에 대한 상륙은 단지 전선의 연장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적은 11개 내지 12개 사단을 상륙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중 6개 사단까지는 주전선에서의 차출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5개 내지 6개 사단은 새로운 구성군(일본으로부터 1개 사단, 장개석군 2개 내지 3개 사단, 미국으로부터 1개 사단)의 조선 파병을 통하여 투입할 수 있습니다. 상륙의 가능성이 보다 큰 시기는 1953년 [2]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군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핵무기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1) 북조선에 배치된 병력의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중국에서 제1, 제16, 제54군 등 3개 군(9개 보병사단)과 보강장비 및 1개 전차사단을 투입한다. 그 외에도 1953년 3월에 1개 군을 만주의 [집안], 임강(臨江) 지역(압록강 북방)에 집결시킨다.
- (2) 서해안에 대한 방어태세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에 배치된 병력의 재배치를 실시한다. 전투력이 탁월한 군들

(제40, 제47, 제38 및 제15군)을 전선으로부터 차출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치한다. 제40 및 제38군은 서해안에, 제15군은 동해안에, 그리고 제47군은 전선예비로 배치한다. 이 군들이 담당하던 전선구역은 전투경험이 없는 제23, 제24, 제46 및 제1군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한다.

재배치 결과, 서해안의 병력은 6개 보병사단, 1개 전차사단 및 각급 포병부대 등에 의해 보강될 것이다. 전선 동부구역의 경우 전투대형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선에 조선인민군 제7군단을 투입하고, 조선인민군 제3군단을 서해안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4군단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부대 투입을 포함한 부대 재배치는 1953년 1월 20일까지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수행되도록 예정되었다. 그러나 인민군의 재배치는 중국으로부터 부대 도착이 지체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 (3) 각 부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서해안 방어참모부와 동해안 방어참모부를 창설한다. 서해안 방어참모부는 중국인민지원군 제38, 제39, 제16, 제40, 제50군과 조선인민군 제3군단을 통할한다. 동해안 방어참모부는 중국인민지원군 제12, 15군 및 제33보병사단과 조선인민군 제2, 제5군단 및 제24여단을 통할한다.
- (4) 해안 방어시설의 강화에 즉각 착수한다.
- (5) 최단시일(약 200일) 동안에 구성, 영변, 순천간 철도를 건설하고, 차량용 주요도로 확장을 착수한다.
- (6) 적을 고착시키고 손실을 입히며, 상륙부대의 전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작전기간이 각각 1개월인 3개 작전을 수행한다.

- (7) 중국인민지원군의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1953년에 250,000명의 예비대를 창설한다. 각 사단과 군에는 예비대대를, 그리고 각 병단에는 예비연대를 조직한다.
- (8) [웅진]반도에 대한 적 상륙부대의 상륙에 대비하여 조선인민으로 구성되는 유격대를 조직한다.
- (9) 철근콘크리트 시설 및 터널 건설을 포함하여 적 상륙부대를 격퇴할 수 있는 모든 사전 방책들을 1953년 3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우리는 중국 지도부가 조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채택한 방책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의 [용암포]-진남포 구역의 경우 대규모 상륙부대의 상륙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군이 다른 군사행동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 해병 전력을 투입하여 진남포 지역으로부터 주공을 가하는 동시에 서울 북부지역으로부터 공격을 가하여 해주 동북방의 인민군 부대들을 섬멸한 후, 계속해서 평양, 안주(安州) 축선으로 진격한다.
- 해병 전력을 투입하여 원산 지역으로부터 주공을 가하는 동시에 철원, 김화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가하여 인민군 좌익 전력을 섬멸한 후, 계속해서 평양으로 진격한다.

미군의 각 방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안에 대비하여 조직된 인민군 제 부대의 배치는 확고한 방어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강화반도[개풍지역으로 판단]에 해병을 상

륙시커 개성(해주 동방 75km)-[금천] 선으로 진출토록 함으로써 인민군 우익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개별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군은 1952년 중반기 이후 [강화]반도에 대한 유격집단 및 정찰집단의 상륙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적 상륙군의 상륙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 상륙저지를 위한 방어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거한 스트렐비쯔키(Стрельбицкий) 동지가 중국군 지도부와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진남포 방면에 배치되어 있는 제64군 예하부대들에 의한 동방면 방어선의 강화 및 제2제대 전력의 기동
- 전선 및 병단 예하 예비 대전차포병전력 조직
- 동해안 방어부대들에 포병전력 보강

이외에도 우리는 글라주노프(Глазунов) 동지에게, 만약 중국인 민해방군 총참모부에서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통신 및 공병 전문가들을 조선으로 일정기간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중국측에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륙저지용 방어진 구축에 대한 예규를 작성하여 스트렐비쯔키 동지를 통하여 중국군 지도부에 이를 전달토록 할 것입니다.

바실레프스키(Василевский)

소콜로프스키(Соколовский)

1953년 1월 21일

No. 546759



I. K. 비노쿠로프(И. К. Винокуров) 동지에게

사본 : 코토프(Котов) 동지에게

파블로프스키(Равловский) 동지에게

상륙저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군 지도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 상륙저지 방어선에 배치된 부대들의 임무는 적 상륙부대 및 공수부대의 해안진출을 저지하는 것이다. 적이 해안으로 진출하는 경우, 방어부대들은 진출한 적들이 진지를 구축하거나 후속제대들의 상륙을 통하여 전력을 증강시킬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해안에서 이들을 섬멸시켜야 한다.
- 상륙저지 방어선에 배치된 부대들은 적의 상륙저지 및 적이 상륙에 성공한 후 주요 목표물 혹은 지상전선 구역을 방어하고 있는 주요 부대들의 후방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데 용이한 해안 구역의 지탱에 주요 전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 방어선은 해안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구축되어야 한다. 즉 상륙이 용이한 지역에는 정규 전선의 방어원칙에 따라, 그리고 상륙이 덜 용이한 지역에는 광범위한 전선의 방어원칙에 따라 방어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상륙이 곤란한 지역에는 경비 및 감시소가 조직된다. 주방어선의 전단은 통상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선을 따라 선정된다.
- 각급 보병부대들은 해안의 점령진지들을 굳건히 지탱해야 한다. 방어진역 전단뿐 아니라 중심의 경우에도 십자포화 및 사사(斜

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보병 화력장비들을 전선 및 중심에 분산 배치한다. 상륙군과 대결을 위한 각종 병기의 밀도 높은 화망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적 상륙군 격퇴시에는 포병 전체의 직접조준사격뿐 아니라, 전차 및 자주포의 사격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포병사격에 있어 보다 유리한 사격 순간은 적이 상륙장비로 옮겨 탑승하는 때와 상륙장비에 탑승한 병력이 해안으로 진출하는 때이다.
- 방어선 설비를 구축할 때에는 수중장애물 및 해안장애물의 구축 방안뿐 아니라, 적 함포사격 및 공중공격으로부터 병력과 화기를 확실하게 엄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방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어설비의 위장 및 모의설비의 구축 등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어진지는 지상전선 구역의 방어진지 구축시 채택되는 원칙과 동일한 원칙들에 따라 구축된다.
- 각군 및 사단은 제2제대와 예비대, 즉 일반 병력 및 전차, 대전차 및 장애물 장비를 보유한 공병 등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2제대와 예비대는 방어진역 중심 및 상륙한 적 부대를 제1제대와 합동으로 섬멸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이 가능한 해안 외곽지역에 배치된다. 제2제대와 예비대의 손실은 즉각 보충된다.
- 공수부대와와의 대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적 공수부대의 투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관측조의 조직, 전차 및 고사장비 등을 보유한 보병 예비기동대 배치, 공군의 대기 등이 필요하다.

- 해안에서의 상륙저지작전 성공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방어에 투입되는 모든 병력과 장비, 그리고 정밀하게 조직된 협조체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부대 지휘관 및 참모부는 채택된 방어계획을 현지에서 직접 연구하여야 한다.

각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휘통제를 위하여 예비지휘소, 예비통신장비 등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지휘소의 교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해 두어야 한다.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1953년 3월 21일

## 스탈린(Сталин) 동지에게

조선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배치한 우리 군사고문단을 소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합니다. 조선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사령관 팡덕회)가 북경으로 이전하였으며, 향후 조선에서의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이 수행하는 전투행동을 북경에서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배치시킨 우리 군사고문단(고문단장 살린 동지)이 조선에 체재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지[스탈린]의 승인이 있을 후에 살린 동지가 조선으로부터 소환되었으며, 고문단에는 크라마르 소장, 스트렐비츠키 포병중장 및 페트로프 중좌 등 3인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지휘와 관련된 모든 근본적인 결정들이 북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북경에 있는 팡덕회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연絡책임을 중국에 있는 군사고문단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선 전선상황에 대한 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까지 그러한 정보들은 라주바예프 동지 및 중국 주재 군사고문단장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고문단을 조선에서 소환하는 것에 대한 동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바실레프스키(Василевский)      소콜로프스키(Соколовский)

1953년 1월 17일

No. 546702

원본 확인 : 중장 글레보프(Глебов)

비밀  
유일사본

### 3. 미군 지휘부 편성

극동지역에서 조선 간섭군으로 참가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휘는, 지상군 사령관의 직무가 극동지역 군 사령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미군의 규범에 따라 조직되었다.

미 8군사령관은 조선에서 작전 중인 지상군을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영국과 남조선 각급부대 또한 그의 직할 하에 있다.

1950년 9월 중순까지, 즉 미군의 제물포 상륙 전까지 사단 및 여단 지휘관들은 제8군사령관에 예속되어 있었다(이 시기에 군단 지휘부는 없었다).

제물포로 상륙부대가 상륙하고 부산 교두보에서 미군이 공세로 전환할 즈음(1950년 9월 15일), 미군 이외에도 영국과 남조선군부대로 구성된 3개 군단지휘부(제1, 9, 10군단)가 편성되었다.

상륙부대의 제물포 상륙 및 미군이 부산 교두보에서 이동할 즈음 2개의 사령부(남부와 북부)가 편성되었다.

제1, 9군단은 남부사령부로, 제10군단은 북부사령부로 편입되었다. 남부사령부 예하부대들은 제8군사령관이 지휘했으며, 북부사령부의 작전은 맥아더가 직접 지휘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제8군은 제10군단과 결합된 후에도 각 사령부는 따로따로 남아 있었는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말썽이

일어났으며, 지휘 및 합동작전의 조직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미군 사령부는 북동전선 작전을 위해 원산 지역에 제10군단을 상륙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사령부’는 맥아더에 직속된 ‘북동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제8군은 이전 구성체계를 유지한 채 작전을 계속하였으며, ‘서북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각 사령관은 자체의 지원 항공부대와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두 ‘사령부’간에는 그 어느 합동작전도 조직되지 않았다. 양측 사이의 간격은 100km에 달하였다. 맥아더는 군 지휘상의 이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각 부대들의 긴밀한 합동작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1950년 11월 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부대의 공격으로 간섭자들의 군대가 참패한 후에야, 두 사령부가 고립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10군단 예하부대들은 포위상태 속에서 큰 손실을 치르고 나서야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제8군은 남쪽 38선 너머로 격퇴당했다.

조선에서 전투행동 과정 중 미 군단들의 전투편성은 자주 수정되었으며, 전황에 따라 군단 예하 사단 수는(남조선사단까지 포함하여) 2개 내지 5개까지 변동하였다. 사단편성 또한 매우 자주 바뀌었다.

이는 군단 예하 사단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제기된 임무, 지형의 특징, 기상조건 및 전황에 따라야 한다는 미군규범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이다.

전구(戰區)에서의 군대지휘는 군 참모부, 군단 및 사단 참모부들을 통하여 직접 실시되고 있다. 구성군 참모부들은 통상적으로 전방제대와 후방제대로 나누어진다. 전방제대는 각 부대들의 전투행동 지휘에 반드시 필요한 참모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지휘소는 참모부 전방제대가 배치된 장소에 있다. 모든 통신기관 역시 여기에 집중되었다.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전방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관측소에 위치하면서 전투를 지휘한다. 지휘관과 함께 관측소에는 참모부의 소규모 부대가 주둔해 있다.

미군은 지휘소, 특히 대부대 지휘소의 배치위치에 대한 기밀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휘소들을 면밀하게 위장, 방어하고 있으며, 출입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비행장·공중통신소 및 무선통신소를 지휘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있다.

인민군 부대들에 의해 지휘소를 점령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군은 지휘소를 자기 군대의 전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시킨다(사단지휘소는 15km, 군단지휘소는 25km까지).

부대 지휘에는 다양한 통신기재들이 이용되고 있다(유선통신, 무선, 조명 및 음향신호, 전서 비둘기, 연락병). 이동전투시에 주요 통신방법은 무선이지만, 공격이나 배치변경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무선통신을 엄격히 통제한다.

조선에서의 전투행동 제1기에 미군은 각 병과의 합동작전을 미약하게 조직했으나, 최근 이 방면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다. 미군은 공격전과 마찬가지로 방어전에서도 각 병과의 합동작전 조직

화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였다. 포병작전이 보병작전과 결합되고, 전차는 항공부대와 합동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미국은 전술항공부대를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에 운용하고 있다.

- 대공(對空) 우위의 획득과 유지
- 전투행동 지역들의 고립
- 전투지역에서의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지원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지원 임무는 직접 교전이 가능한 구역 내에 위치한 부대 및 이들이 차지한 진지에 대해 공습하거나 폭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집행하기 위해, 제트기 F-80기 및 F-84기, 그리고 전투기 F-52기와 F-4U기(해군기)가 운용되고 있다.

항공지원 임무수행시 항공기의 주요 목표는 병력, 대포, 전차, 기관총 및 박격포 거점이다.

조선 내 전투행동 경험은, 미 공군의 전술항공부대에 의한 저고도 공습 및 폭격시 사전에 준비된 진지를 점유한 군대는 단지 미미한 손실만 입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합동작전의 계획 및 통제는 미 제8군 참모부 정찰부와 작전부의 장교들로 충원된 전술항공부대와 지상군 합동작전 지원반, 그리고 제5공군 참모부의 작전부와 정찰부의 장교들로 충원된 전술항공부대 전투행동 지휘반 등이 주동이 된 특별기관인 합동작전센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전술항공부대와 지상군 합동작전 지원반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야전군과 합동작전시 전술공군에 대한 세부적 운용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 항공부대와 야전군 부대의 합동작전 조직을 지도한다.
- 해당 참모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 전술공군 참모부, 야전군 참모부 및 예하 각급부대들의 해당 단 위부서들(분대들)과 합동군사작전의 계획 및 수행을 위해 연락을 지원한다.

조선 내 전술항공부대 비행기에 대한 전투이륙 지휘는, 특수 레이더부대인 공중관측통보 및 연락소를 예하에 두고 있는 제502 전술항공부대 지휘반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전술항공부대 유도센터는 규정된 지역 내에서 비행기들을 지휘하는 하급기구이다.

지상군 직접지원을 위한 항공부대를 배치할 경우, 각 지상군 부대에는 전술항공부대 유도소가 배치된다. 유도소의 배치 수 및 수순은 일정하지 않다. 유도소는 해당 전방구역 내의 항공 직접지원의 소요에 따라 사단, 연대 또는 대대에 설치된다. 전술항공부대 유도소의 주요 임무는 전선에 인접한 지상목표물로 비행기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각 군단과 사단 참모부에서 항공부대와 지상군의 합동작전의 직접 지원은 먼저 정찰부장 및 작전부장 고문과가 담당하며, 다음으로 항공부대 작전부장 고문이 수행한다.

항공지원 및 공중정찰에 대한 요청은 군단 참모부를 통해서가 아니라(이에 관한 규범에 규정되어 있듯이), 전술항공부대와 지상군

의 합동작전 지원반으로 보병부대가 직접 전달하고 있다. 육군부대는 전체적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제5공군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술항공부대 전투작전 지휘반에 전달한다.

조선에서 육군부대에 대한 항공지원의 주요방법은 사전 계획된 이륙이다.

전투과정 중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신속한 항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신속 이륙요청서가 전술항공부대 유도소를 거쳐 합동 작전센터로 전달된다.

조선에서의 전투행동을 통해 전술항공부대와 지상군 간의 합동작전에 여러 결합이 밝혀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전술항공부대의 소속 및 그 운용방법 문제에 관한 미 지상군 사령부와 공군사령부 간의 의견차이.  
이 문제의 본질은 미 지상군 사령부가 전술항공부대를 지상군 사령부로 조직적으로 직할시키거나, 합동작전 기간 동안 최소한 지상구성군 사령부에 배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공군사령부는 전술항공부대의 주요 임무가 육군에 대한 항공지원이 아니라, 제공권 획득 및 전투행동 지역들의 고립작전이기에 그러한 편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합동작전 체계, 그리고 전술항공부대의 유도 및 지휘체계의 방만함과 비탄력성
- 합동작전 조직간 통신기재의 불안정성
-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에 있어 조종사들의 낮은 전술훈련 수준
- 전술항공부대의 무장면에서 전구 작전용 전폭기의 부족

공격 및 방어시에 포병, 보병 및 전차의 합동작전은 해당 부대 지휘관에 의해 조직되었다. 전투과정에서의 합동작전은 통신장교 및 포병에서 보병부대로 파견된 전방관측병들을 통하여 조직, 유지되었다.

포병과 보병간 연락은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즉, 포병대대는 보병연대 참모부로 연락장교를, 각 보병대대 참모부로는 연락장교 1명씩을, 각 보병중대에는 전방관측병 1명씩을 파견한다. 연락장교 및 전방관측병과 함께 필요한 수량의 통신기재도 발송된다. 각 연락장교와 전방관측병은 상호간 유무선 통신을 한다.

연락장교의 주요 임무는 포병과 보병의 합동작전 조직 및 전방관측병에 대한 작전지휘이다. 전방관측병들은 적정 정찰, 포병사격 지원요청 및 수정의 임무를 가진다.

미군 전차부대들은 공격시 우선적으로 보병에 대한 직접지원과 정찰 및 추격을 위하여 투입된다. 가장 일반적인 전차운용 방식은, 소대와 중대, 간혹 대대로 구성된 보병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전차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끔 전차들은 보병을 동반하는 대포로, 또는 공격시 보병에 화력지원을 하는 포병으로 사용된다.

미군의 규범은 보병대대에 1개 또는 몇 개의 전차소대를 증강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병 강화를 위한 보병연대의 전차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차들은 적군 전차들과의 전투를 위해, 전차 기동가능 방면에서 보병 전투대형의 정면에 배치되었다.

보병의 반격을 지원할 경우 보병사단 예하 전차대대 및 보병연대 예하 전차부대가 사용되었다.

추격시 전차들은 임시 전술그룹으로 편성되어 사용되었다. 임시

전술그룹은 자신이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는 임무에 따라 구성되었다. 통상적으로 임시 전술그룹은 1개 중대에서 2개 보병대대 및 1개 전차대대로 편성되었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극비  
유일사본

#### 4. 방어작전

다양한 정세로 인해 조선 내 미군의 방어작전은 매 단계마다 각각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다.

##### 1) 부산 교두보 방어

1950년 8월 5일경, 미군은 유리한 자연방어선(포항 남부, 경주 북부, 영천 북부, 대구 북서부, 낙동강 서부, 마산 서부)으로 후퇴했으며, 압도적인 제공권을 이용하여 공세로 전환할 때(1950년 9월 16일)까지 방어를 실시하였다.

부산 교두보 방어시, 미군 각급부대들은 광범위한 전선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보병사단 방어의 폭은 25km 내지 30km를 오갔으며, 개개의 경우에는 40km에 이르기도 하였다(낙동강 방어선 방어시).

부산 교두보 방어는 전술상 중요한 지점 유지의 원칙 하에서 수행되었으며, 지점 중간지대는 사격 및 다양한 장애물에 의한 엄호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지점들 중간지대를 인민군 부대들이 공격할 시에는 강력한 공중공격을 실시하였다. 교두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개 구역에는 빈틈없는 방어전선이 구축되었다.

완벽한 방어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인민군의 적극적인 작전 때문에 미군 사령부는 2개 사단 규모의 예비를 편성하였다. 그 외에도 전선의 다른 구역으로 투입된 부대들은 예비로 운용되었다. 군대 투입은 주로 운송수단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 단계에서 야전축성은 방어전단에서만 단순한 요새화진지 설비 및 장애물(주로 지뢰) 부설로 이루어졌다. 중심에는 어떠한 공병 건조물도 설치되지 않았다.

## 2) 38선 지역 방어작전

이 시기의 미군 전술은 전선의 상대적인 안정과 관련하여 변동되었다. 미군은 각급부대 간에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엄격한 방어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정상적인 전선(1개 사단에 10~16km)에서는 거의 방어준비가 완비될 정도로 전투대형에는 빈틈이 없었다. 미군 사령부는 야전축성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방어전단에 장애물(지뢰, 부비트랩, 철조망장애물 등)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인원 및 화력장비용 참호 구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1951년 11월부터 방어태세는 점차적으로 더욱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방어전단의 주요 방면에는 교통호 구역이 구축되었고, 목재와 흙으로 된 건조물들이 축조되었으며, 각 고지에는 구역의 중요도에 따라 교통호가 2 내지 3개선으로 구축된 저항거점으로 통합된 지탱점이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거해, 미군 방어작전의 전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 (1) 조선 내 미군의 방어는 대체적으로 미군 야전교범에 따라 구축되고 있다.

방어지대를 제외하고 야전군 방어대형의 전체 중심은 50km에 이른다. 조선에서의 방어작전 전 시기 동안 미군은 제2제대를 유지하지 않았고, 1개 내지 2개 보병사단을 예비로 남겨 놓았을 뿐이다. 군단 전투대형은 통상적으로 주로 2개 제대로 구축되었다. 전투대형 전단(주요 방어정면)에서 제2제대가 25km 내지 50km 정도로 떨어진 것은 기준에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다. 사단 전투대형은 대부분 2개 제대 및 예비로 구축되고 있다. 미군의 주요 전선 평균 방어 밀도는 1개 사단당 8km 내지 12km에 이른다. 참모부들이 서로 많이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각 사단참모부는 10km 내지 20km 간격으로, 군단참모부들은 30km 내지 50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 (2) 전투진지(주요 방어정면)와 군단 예비지대(제2지대)는 원거리 관측 및 전면 지형사격이 용이한 통제고도에 구축된다.

방어진지는 원형방어를 위해 마련된 중대 및 대대 배치지역들에 구축된다. 산지 기복의 특징을 고려하여, 미군은 화력장비를 다면적 시스템에 의거하여 배치하고 있다.

방어시 가장 취약한 지점은 각급부대들 간의, 특히 전투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군대들 간의 경계지점이다. 방어전단의 엄호를 위해 미군은 지뢰지대 및 철조망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 전차통과 지형에서는 대전차포병 및 대전차로켓포 '바주카포'를 사용하는 등 대전차방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차가 출현할 경우 바주카포는 제자리 사격 및 반격에 사용된다. 전투위치의 전단 전방에서는 강력한 전투경계가 실

시되고 있다. 첫 기회가 마련될 경우 방어진대가 구축된다.

- (3) 조선 내 미군의 전투 방어작전의 경험은 전단 엄호 전투에 모 든 병력 및 장비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군 부대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집중공격으로 전투위치의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포 병이 전투에 참가한다. 항공기의 공격은 전투위치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더욱 강화된다.

총기사격은 최대 사거리에서 시작된다.

방어진 수행 하에서의 반격은 확실한 군사력 우위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반격은 통상적으로 측방에서 실시된다. 때때로 전단 전방에서 반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군단 예비대에 의한 반격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군단 및 군단 예비대의 제 2제대는 방어진 수행과정에서 전선의 복구에 주로 동원되었다.

인민군 부대들이 10km 내지 15km 거리를 두고 방어에 돌입하자 (즉 전투위치의 돌파와 함께) 미군 사령부는 엄호부대들을 남겨 둔 채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은 철수 위협시 미리 구축된 지역 원형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둔다. 미군부대는 방어작전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완강함과 지구력이 부족하였으며, 항공기를 우선으로 하는 지원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 3) [압록강] 철수시 미군부대들의 작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부경계에서의 후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압록강 남쪽에서 간섭자들이 겪은 패배 이후



미군 사령부는 제1단계(부산 교두보로의 후퇴)의 작전방식과는 다르게 신속한 후퇴전술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공격하는 인민군 군대 및 중국인민의용군 부대들에 대해 모든 화력장비와 항공기의 공격이 예정되었으며, 그들의 엄호 속에서 근접전투를 치르지 않고 다음 분계선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미군부대들의 후퇴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주력군은 취약한 후위군대의 엄호 속에서 종대로 후퇴하였다. 후퇴속도는 보통 하루 10km 내지 15km를 초과하였다. 임의의 경계에서 전개시 미군 사령부는 제1제대 각 사단의 후퇴 엄호를 위해 1개 내지 2개 사단으로 예비대를 구성하였다. 이 예비대는 보다 단호한 목표(반격)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보병사단들의 작전지대의 폭은 25km 내지 30km 또는 그 이상에 달하였다. 이 단계에서 야전축성은 개별 참호들의 구축, 파괴작업(주로 병참지역 도로들) 및 신속한 장애물 설치로 대별되었다.

서부전선 미군 주력은 10일간(안주 지역으로부터) 250km를 후퇴하였다. 철수는 무질서하게 수행되었다. 8개 보병사단 및 2개 여단은 평양까지 한 도로를 따라 후퇴하였다. 평양에서부터 남조선군 부대들은 38선 경계의 방어 예정지역으로 나 있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후퇴하였다.

미군 동부전선 부대(제10군단)는 조선 북부 국경선으로 향하는 선견부대였는데, 이 때 함흥 북부에서 중국인민의용군에 의해 포위되었지만 탄약 및 기타 보급품(도로가 봉쇄되고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이것들을 지원하기는 특히 어려웠다) 부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섬멸당하지 않았다. 미군 동부전선 부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포위에서 벗어나 함흥으로 철수하고, 거기서 동부 전선 부대들을 38선 너머로 철수시키라는 미군 사령부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동부전선 부대들의 철수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극비  
유일사본

## 5. 상륙부대 운용

조선전쟁 기간(1950년 6월 25일부터 1952년 말까지) 미군 사령부는 후방교란 전술 상륙부대들의 대규모 상륙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대규모 상륙부대 상륙은 모두 제1해병사단 및 제7보병사단으로 구성된 증강된 제10군단이 담당하였다.

첫 번째 상륙부대는 1950년 9월 15일 제물포 지역에, 두 번째는 1950년 10월 26일 원산 지역(제1해병사단)과 1950년 10월 29일 이원(제7보병사단)에 상륙하였다.

### 1) 상륙부대의 제물포 지역 상륙(1950. 9. 15)

이 작전에서 미군 사령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 대규모 상륙부대의 제물포지역 기습상륙 후 서울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남부에서 미군에 대항하여 작전 중인 인민군 주력을 보급기지에서도 차단하는 것
- 부산 교두보에서 인민군 부대에 공격을 가하는 것
- 인민군 부대들을 포위 섬멸하고 공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국경까지 진출하는 것

상륙작전 수행은 육·해군 연합군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그 구

성은 다음과 같다.

- 군함 약 300척 및 비행기 400대로 구성된 해군 제7연합함대
- 육군-제1해병사단, 제7보병사단 및 단대호와 구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개의 영국과 남조선 해병부대 등으로 구성된 제10군단

공수부대는 미군 제11공수사단 예하 제187연대가 차출되었다.

제2특수공병여단은 상륙을 지원하였다. 간섭군 상륙부대 총 병력 수는 40,000명 이상이었는데, 이 병력규모는 제물포 지역에 배치된 인민군 부대 병력에 비해 20배나 많았다(상륙시 제물포 지역에는 인민군 육전대 5개 대대 미만, 57mm 포 1개 대 및 76mm 연대포 2개 중대가 있었다).

작전의 총지휘는 조선 간섭군의 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수행하였다. 그의 예하에는 해군연합사령관(미 제7함대 사령관 : 해군중장 스트러블), 지상군연합사령관 및 공수연대장이 있었다.

작전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① 준비단계, ② 상륙부대의 이동(진군·기동), ③ 상륙교두보 확보 및 해안 승리의 확대

준비단계는 작전계획, 군대의 훈련 및 상륙부대의 승선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작전 위장도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상륙군 구성으로 작전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들(제1해병사단 및 제7보병사단)은 1개월간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훈련은 당면한 작전조건과 유사한 환경(제1해병사단-부산, 제7보병사단-일본 항구지역인 요코하마(橫濱), 고베(神戸),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구레(呉))에서 수행되었다.

작전 위장조치의 실시는 대략 상륙부대가 상륙하기 3주 내지 4

주 전에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주요 공격방향을 은폐하고, 인민군을 부차적 전선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작전수행 수일 전부터 항공기(해군 및 지상군 소속)와 함대의 활동이 모든 군사작전 지역에서 강화되었다.
- 상륙부대들이 편성되어 출항하기 10일전 해군 및 공군 항공단은 도로망 및 철도 교두보, 인민군 부대, 비행장과 행정·경제 중심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 상륙부대 주력의 실질적인 상륙지역에서 인민군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부차적 방면에서 전술적 양동상륙부대와 후방교란 및 정찰대의 상륙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간섭자들이 상륙시킨 가장 큰 전술적 상륙부대들은 포항(浦港)과 군산에 상륙하였다.

포항 상륙부대는 남조선 해병대로 구성되었고(700명), 전선에서 포항 지역으로 인민군을 분산시키는 임무를 지녔다.

그러나 상륙부대는 큰 손실을 입은 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며, 상륙부대 패잔병들은 미 상륙부대 군함에 의해 철수되었다. 군산 상륙부대는 남조선과 영국 해병대로 편성되었으며, 주력 상륙지역에서 인민군을 분산시키는 임무를 띠었다. 1950년 9월 15일 상륙부대는 철수하여, 제물포 지역 주력의 제1제대에 편성되었다.

- 상기한 작전의 수행과 동시에 부대의 상륙전 3주 동안, 간섭군 군함 및 항공단은 인민군에 의해 해방된, 상륙 실시에 적합한 조선 해안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가했다.

-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구레 및 남조선의 부산 등 여러 항구와 기지로 해병대 병력을 분산하였다.
- 미군 사령부는 작전 준비기간 무선통신 금지, 야간운송, 군함 및 수송선의 등화관제를 실시하였다.

부대 상륙에 앞서 상륙지역, 철도거점 및 도로망에 대한 항공기 및 포병의 강력한 사격이 3일간 실시되었다. 부대가 상륙하기 이틀 전, 제물포만 입구에 위치한 월미도에서 전투정찰이 수행되었다. 부대 상륙예정 해안지역은 3개 지점으로 나뉘어졌다. 제물포 항구 남부 및 제물포 북서 해안선과 월미도. 모든 상륙지점은 ‘푸른색’, ‘적색’, ‘녹색’ 등 암호로 불려졌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만조시, 포병 및 항공기의 공격준비사격 후, 선견부대는 월미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해병 선견부대들과 상륙장비의 이동시, 월미도는 함포의 집중포격 및 공중폭탄 공격을 받았다. 해병대대로 구성된 선견부대의 상륙은 방어측의 미미한 저항 속에서 30분 내지 35분간 수행되었다.

제물포상륙 전 3시간 반 동안 항공기 및 포병은 위력적으로 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준비사격이 끝나 갈 즈음, 상륙부대 군함 2개 그룹이 해당 상륙지점에 도달하였다. 군함에서 상륙은 총 1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경미한 저항(미 언론에 의하면, 상륙전투에서 4명이 전사하였고, 14명이 중상을 입었다) 속에서 간섭군 부대들은 재빨리 상륙지점을 신속히 장악하였고, 곧바로 해병사단 주력이 도착하여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제10군단 및 예하 각급부대는 상륙시 자신의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군단 제1제대에는 제1해병사단이 있었는데, 이 사단은 제1제대에 2개 연대를, 제2제대에는 1개 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연대는 제1제대에 대대 2개씩을, 제2제대에 대대 1개씩을 거느렸다. 해병 보병사단의 공격작전과 동시에 제7보병사단 제2제대는 3일간(1950년 9월 18일~21일) 계속하여 상륙을 실시하였다. 제7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은 2개 방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1개 보병연대는 남쪽으로부터 서울을 점령할 임무를 지닌 제1해병사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 방면에서, 그리고 주력군은 부산 교두보로부터 공격을 개시한 제8군 부대들과 결합하기 위하여 남동부 방면에서 각기 운용되었다. 제7사단 예하부대들과 제1기병(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이 결합한 후 10월 초 제7보병사단은 부산으로 이동하여, 조선 동해안에 상륙 전까지 군함에 승선해 있었다.

## 2) 상륙부대의 원산 및 이원(利原) 지역 상륙(1950. 10. 26/29)

간섭군이 38선으로 진출함에 따라, 미군 사령부는 조선인민공화국 영토를 신속히 점령할 목적으로, 한반도 북동부에 부대 상륙과 동시에 2차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상륙은 10월 상반기로 예정되었다가 10월 말(1950년 10월 26일과 29일)에 실시되었다. [이원 : 함경남도 단천과 북청 사이] 이 즈음 북동방면 군대의 상륙 및 공격조건들을 확보하며(거점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조선 동해안을 연하여 공격하던 남조선 군대가 상륙지역으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상륙작전 또한 간섭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미군이 조선에서 실시한, 이들 해안상륙작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이 얻었던 교훈들에 의거해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시했던 상륙작전과 마찬가지로, 상륙작전의 동일한 기본원칙이 지켜졌다.
- (2) 상륙작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함대 및 항공기가 거의 전무한 데 비해, 간섭군은 몇 배 우세한 함대 및 항공기와 병력과 장비를 갖추고서 수행되었으며, 순조로운 기상조건(시계가 투명했으며, 파고는 3~4등급을 넘지 않았다) 하에서 비교적 미미한 수중장애물을 통과하여 병력과 물자를 순조롭게 수송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리하여 작전의 성공은 뛰어난 지도나 병력 및 장비의 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륙지역에서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위력의 결여로 인해 성공한 것이다.
- (3) 부대 상륙은 항공모함 항공기의 증강작전 및 함포사격 등의 지원을 받았다.
- (4) 병력 및 장비의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륙 초기단계에 간섭군의 공격속도는 하루 5km를 초과하지 못했으며, 서울 전 투는 약 10일간 계속되었다.
- (5) 미군의 해안접근은 해병 항공기가 주로 지원하였는데, 차량 ‘윌리스’에 장착된 무전기를 보유한, 해병 각 대대 예하 항공부대 선두 비행단이 목적지로 투입되었다.
- (6) 상륙작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의 작전과는 달리, 공수부대 투하가 해병대 상륙에 선행되지 않았다.



- (7) 상륙작전은 전투물자지원에 특별히 많은 주의가 기울여졌다. 이를테면 제물포에 상륙한 병사들에게는 1인당 식량, 탄약 및 전투장비를 1톤씩 지급하였다. 평균 4인당 참모차량이나 화물차량, 또는 전차가 지원되었다. 하루 평균 하역량은 6,765톤이었고, 보급품만 해도 하역속도는 하루 400톤에 이르렀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극비  
유일사본

## 6. 공수부대와 헬기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에서 미군 사령부는 공수부대들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 1950년 10월 20~21일 숙천(肅川) 지역 : 전선 45km 지점
- 1951년 3월 23~24일 문산(汶山) 지역 : 전선 25km 전방지점

공수부대는 이들 이내에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예정으로 투하되었다.

제187독립공수 보병연대가 공수부대로 운용되었다.

### 1) 1950년 10월 20~21일 공수부대 투하

10월 20일경 미군 주력은 평양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사령부는 공수부대를 숙천, 영유(永柔), 순천(順川) 지역으로 투하하였는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인민군 평양부대의 북부 및 북동부로 퇴각을 차단
- 인민군 참모부 점령

공수부대 투입 전에 10일간의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는 투입지역이 선정되고 공중촬영이 있었으며, 예상 작전지역이 검토되었다. 위장을 목적으로 항공기는 다른 전선지역에 대한 비행을 실시하였다. 공수부대의 준비훈련은 김포(제물포 북쪽)비행장에서

수행되었다.

10월 20일 새벽에 공수부대가 투하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인해 6시간 늦게 시작되었다. 공수부대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투하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10월 20일 낮 숙천으로(공수부대 대원 4,100명, 고사포 20문, 곡사포 4문, 무반동포 및 차량 60대), 두 번째 그룹은 10월 21일 아침 순천 지역으로(무장 공수부대 대원 1,800명) 각각 투입되었다. 첫날에는 10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공수부대를 투하하였다. 공수부대원의 수송을 위해 S-82 및 S-119 수송기 약 120대가 사용되었다.

기습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기들은 조선 서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 상공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 때문에 항공로의 총 연장은 500km, 비행고도는 2,000m에 이르렀다. 시간은 1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600m에서 낙하하였으며, 장비 및 무기들은 공수부대 낙하 후 화물용 낙하산으로 투하되었다. 공수부대의 신속한 집결을 위해 장교들은 다양한 색상의 낙하산을 지급받았다.

낙하 후 공수부대의 전투행동은 인민군 주력 투입지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인민군 후위대와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제187독립공수 보병연대는 매우 제한적인 시간 동안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투하 후 둘째 날 그들은 전선에서 진군해 온 군대들과 합류하였다.

## 2) 1951년 3월 23~24일 공수부대의 투하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수행 중이던 1951년 3월 미군

사령부는 공수부대를 2차로 투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선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인 문산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임무는 서울에서 북부 및 북서부로 이어지는 이동로를 차단하고 전선에서 진격 중인 군대들과 합동작전으로 서울 북부에 위치한 인민군 부대들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공수부대의 훈련은 약 1개월 간에 걸쳐 대구(大邱)에서 진행되었다. 3월 23일과 24일 밤중, 공수부대 투하전 1시간 반 동안 B-26기 및 F-51기 100여 대가 투입지역에 강력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1951년 3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 야포, 차량 및 기타 장비들과 함께 모두 3,300명을 투하하였다. 5차례에 걸쳐 실시된 투하에서 세 차례는 군인들이, 그 직후 두 차례는 장비 및 무기들이 낙하되었다. 투하는 3월 23일 9시에 시작되었으며, 수송에는 S-46기 및 S-119 수송기 145대가 동원되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민군 주력이 투하지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부대의 전투행동은 인민군 개별 부대들과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만 하루 동안 공수부대는 전투항공부대에 의해 엄호를 받았다. 3월 30일 19시경 공수부대는 전선으로부터 진격해 온 부대들과 합류하였다. 부대들과 합류한 후, 공수부대는 얼마 동안 자신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며 전투행동을 수행하다가, 그 후 군사령관 예비로 변경되었다.

## ※ 결 론

- (1) 미군 사령부의 공수부대 운용은 전체 전선상황에 부적절하였다. 왜냐하면 공수부대들은 인민군 후위만을 공격할 수 있었고,

전투행동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투입지역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25~45km), 그리고 주요 장애물인 하천장애물 남쪽으로 선택되었다. 이 분계선에서도 하저점을 장악했을 경우, 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의 퇴각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퇴각부대들은 공수부대가 장악한 지역을 우회하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도하하였다.
- (3) 미군 사령부는 공수부대 투입을 통해 전술적 목표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전투상황에서 공수작전의 경험 획득, 일정한 정치적 효과 달성 및 군 사기 앙양 등을 노렸다.

공수부대의 투입은 지상 및 공중에서 저항이 없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 3) 헬기운용

전투행동 과정 중 미군 사령부는 공수부대 수송 및 부상자 후송을 위해 헬기를 운용하였다. 헬기는 두 번째 공수작전(1951년 3월 23~24일) 및 그 이후에 사용되었다.

1951년 9월 헬기는 해병 공수부대 228명을 갑산(甲山) 북서지역으로 수송하였다. 중립지대 내에 위치한 1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수부대를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위 공수부대는 전투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헬기의 도움으로 공수작전의 수행 가능성을 위한 경험적 목표에 의해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헬기는 부상자 후송, 포위병 및 격추된 비행기 승무원의 철수, 통행이 곤란한 지역 내에 배치된 부대에 보급품 수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구조 비행대대에 배속되어 있다.

미군 사령부는 각급부대의 편제에 헬기를 직접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헬기 23대씩(2대는 정찰 및 연락, 나머지는 군대와 보급품 수송을 위해)으로 중대를 편성하고, 우선 사단에, 그 다음에는 연대에 헬기중대를 배속시킨다는 것이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극비  
유일사본

## 7. 포병운용

### 1) 병력, 장비 및 조직

1950년부터 1951년까지 조선 전투행동에는 각 보병사단과 독립 보병연대 및 총사령부 예비 포병부대 등과 조직적으로 결합한 포병이 참가하였다.

각 보병사단 포병은 105mm 곡사포 3개 대대 및 155mm 곡사포 1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각 대대는 3개 포병중대로, 각 중대는 대포 6문으로 이루어졌다.

해병사단에는 105mm 곡사포 3개 대대 및 155mm 곡사포 1개 대대, 114.3mm 방사포 1개 대대로 구성된 포병연대가 있었다.

총사령부 예비 포병대대들은 보병사단에 조직적으로 결합한 포병대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군부대들은 조선에 각 부대별로 수송되었기 때문에, 지정장소에 도착함에 따라 포병 또한 부대별로 전투에 투입되었다.

1950년 7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조선으로의 포병 수송상황은 다음과 같다. 105mm 내지 203mm 야포대대 50개, 114.3mm 방사포 1개 대대, 106.7mm 중박격포 2개 독립대대. 이 밖에 군대와 함께 다른 화포장비들도 조선으로 수송되었다. 60mm 및 88.9mm 대전차 반동로켓포, 60mm, 81mm 및 106.7mm 박격포, 그리고 사단 및 연대

무장에 사용되었으며 야포의 화력을 상당부분 보충한 57mm 및 75mm 무반동포.

보병사단의 방어 및 공격시 대부분의 경우 총사령부 예비 포병은 투입되지 않았다. 각 보병연대마다 105mm 곡사포 1개 대대가 지원하였다. 155mm 곡사포대대는 사단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위해 운용되었다. 보병연대 예하 각 대대는 1개 포병중대의 지원을 받았다.

제2제대 연대(대대)가 전투에 투입될 때는 제1제대를 지원하던 포병대대(포병중대)의 지원을 받았다.

군단 예하 포병은 105mm, 155mm 및 203.2mm 곡사포대대 및 155mm 야포대대 등을 포함하여 3개 내지 4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미 항공부대가 제공권을 장악한 것과 관련하여 고사포병은 주로 지상목표물에 대한 사격 실시를 위해 운용되었다. 편제에 따라 각 보병사단에는 4개 포병중대로 구성된 자동화기를 갖춘 자주고사포 1개 대대가 있다. 포병중대는 2개 소대가, 각 소대는 사격반 4개를 보유하고 있다. 각 반의 병기로는 12.7mm 4연식 고사기관총 M-16과 40mm 2연식포 M-19가 있다.

총사령부 예비 고사포병은 조직적 측면에서 보병사단에 편제된 포병대대와 유사한 독립자주고사포대대 및 90mm 내지 120mm 독립고사포대대들로 구성되었다(포 4문으로 구성된 4개 대대씩).

## 2) 공격시 포병운용

통상적으로 공격에 앞서 포병 및 항공기의 공격준비사격이 진행되었다. 포병 공격준비사격은 40분 내지 60분간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25분 내지 30분 동안은 집중사격이 이루어졌다. 포병 공격준비사격이 수행되는 동안 인민군 방어선은 중심 7km까지 사격처리되었다. 경포와 박격포는 중심 2km 내지 3km를 사격하였다. 남은 방어중심은 중간포와 중포, 항공기에 의해 사격처리되었다.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때를 맞추어 전차도 동원되었다. 제1제대 부대들의 공격은 자주포병을 비롯한 각 포병의 지원을 받았다. 주요 방면에서 전선 1km당 대포 및 박격포의 밀도는 100문 이상 이었고, 부차적인 방면에서는 50문 내지 80문에 달하였다.

제1제대 부대들의 공격이 인민군에 의해 지연될 경우, 30분 이상 계속해서 포병 및 항공기의 준비사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포병 및 항공기의 두 번째 준비사격이 목적인 결과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인민군 방어선에 대한 장기간의 사격처리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라도 지속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다수의 화포 및 박격포를 부차적인 방면에서 주요 방면으로 이송하였다. 보병 및 전차들의 공격은 (산악지대의 특성상) 보통 연속 집중사격에 의해 지원되었다.

화기진지의 교체는 중대 또는 대대 단위로 실행하였다. [미군은] 공격 전과가 확대되고 있을 때, 예컨대, 제물포 지역에서 상륙부대의 상륙 후, 중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포는 보병부대에 이양되었다. 정면조준 포격용 대포들은 선견부대의 뒤를 따르게 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견부대로 보냈다. 해안 작전지역들에서는 해군 함포가 화력과 원거리 사격능력을 고려한 사격임무를 가지고 지상군 지원을 위해 동원되었다. 1개 군함의 함포 위력은 야포대대와 대체적으로 동등하였다.

조선에서 미군은 인민군 부대들을 엄폐호에서 나오게 한 다음

유탄[고폭탄] 및 지향성탄[시한/접근 신관]을 통해 그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목적으로 소이탄 포격을 실시하였다. 연막탄도 또한 사용하였다.

미군은 인민군 부대 배치지역 내 목표물 및 대상물의 제압 및 섬멸을 위해 중간포와 중포를 주로 사용하였다. 포병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좌에서 우로, 그리고 전단에서 중심으로 바뀌 가면서 연속 집중포격을 가했다. 포병의 전단과 중심의 목표물에 대한 사격은 24시간 계속되었고, 이때 도로, 고지, 주거지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육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및 보다 나은 합동작전을 조직할 수 있도록 고사포병은 임시 전술그룹에 투입되었다. 고사포병 소부대들은 정찰반에도 투입되었다. 고사포병은 지상야포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야전포병의 포격거리를 초과하는 원거리 사격을 실시하였다. 90mm 고사포는 보통 최대거리(17,000m)까지 사격을 하였다. 자동고사포는 전단 또는 인민군 부대의 방어선 인근에 위치한 목표물에 정조준 포격용으로 사용되었다.

### 3) 방어시 포병운동

조선 내 미군의 방어작전 첫 단계에서 야전포병은 대체적으로 작전에 운용되지 않았고, 후퇴하는 부대들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미군의 야전포병은 후퇴하는 부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엄호를 맡았을 경우에도 보통 도로 인근에 배치되었다. 후퇴하는 부대들을 지원한 초기의 기본 포병장비는 57mm 및 75mm 무반동포,

박격포, 60mm 대전차로켓포 등이었다. 부대 엄호를 위해서는 사단포병 가운데 105mm 곡사포중대 및 그 외 다른 병기들이 배치되었다. 보통 각 보병연대에는 105mm 곡사포 1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대략 1951년 후반경부터 미군의 방어작전은 보다 조직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포병은 초기보다 명확한 목표하에 운용되었다.

인민군 공격부대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의 전체 포병이 동원되었다. 155mm 곡사포부대를 포함한 각 포병부대는 인민군 전차, 병력 및 화력장비에 대한 정조준 사격을 위해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포병운용은 미군교범에도 명시되어 있다. 은폐위치에서 작전 중인 포병은 조선인민군의 전차와 보병 공격을 차단사격 및 집중사격으로 격퇴하였다. 사격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미군은 인민군 공격부대들에 처음에는 항공기에 의한 폭탄투하 및 중포와 중간포의 사격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단 1~2km 거리에서는 전차, 박격포 및 경포에 의한 차단사격을, 200m 내지 500m 거리에서는 전차를 포함한 모든 보병 화력장비들이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미군부대들의 반격은 포병의 집중사격과 항공기가 지원하였다. 인민군 부대들의 야간공격이 격퇴될 즈음 미 야전포병은 차단사격을 실시하였다. 미군은 인민군 병력과 화력장비의 배치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기습사격을 가하는 방식을(특히 야간에) 폭넓게 운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적의 전차와 맞설 수 있는 최선의 장비는 전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미군은 1948년 말 경 총사령부 예비 대전차-전투기 포병부대

를 해체하고, 기존의 보병연대 예하 대전차중대를 대신하여 보병사단 편제에 전차대대를 도입하였다.

인민군 전차들과의 교전을 위해서 기존의 대전차무기(60mm 대전차로켓포 ‘바주카’, 57mm 및 75mm 무반동포)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대전차무기와 전쟁 초기에 사용된 전차경전차 M24 ‘차피’ 및 중간전차 M4A3 ‘셰르만’)는 인민군 전차에 대항하기에는 비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군은 아직 실험 중인 다음과 같은 대전차 신무기 모델들을 급히 제조하여 조선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 전차 M46 ‘파톤’
- 88.9mm 대전차로켓포 ‘바주카’
- 차량 ‘윌리스’[1/4톤 쫓차]에 장착된 105mm 대전차 무반동포 M27[106mm의 오기]
- 전차 M26 및 M46용 90mm 대전차 집적탄
- 165.1mm 및 298.5mm 비행기용 로켓탄 및 비행기 투하용 네이팜탄 등

도로, 도하, 송신선, 비행장 및 각 부대에 대한 대공방어는 미군이 부산 교두보로 후퇴할 때(1950년 6~9월)와 남으로 재차 후퇴시(1950년 11~12월)에만 조직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방공목적의 고사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 주로 고사포병은 지상 목표물에 대한 사격수행을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 4) 상륙부대 상륙시 함포사용

함포는 상륙부대의 제물포 상륙(1950년 9월) 지원을 위해 사용

되었다. 상륙부대의 지원을 위해 중순양함 2대, 경순양함 3대 및 구축함 8대로 구성된 화력지원 그룹이 조직되었다.

군함(주로 미국과 영국 배로 이루어진)들은 작전보장을 위한 대책 수행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목적으로 해상 군함들은 상륙 때까지 28일간 연안에 배치된 자기 부대들의 해안 양측방을 지원했으며, 원산(조선 동해안)에서 [실미도](조선 서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해안 목표물 및 항구에 사격을 가했다.

상륙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륙 3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임박한 상륙지역에 대한 강력한 포병 사격 및 [월미도]의 화력 시스템에 대한 전투정찰이 실시되었다.

해병 선견부대들과 함께 상륙장비들이 [월미도]로 이송되고 있을 때, 화력지원 군함들은 [월미도]에 대해 45분간 집중사격을 가했다. 미사일을 갖춘 상륙군함들 또한 해안에 사격을 퍼부었다. 선견부대가 [월미도]로 접근하자 함포사격은 제물포 항구지역으로 옮겨졌다.

제물포 항구 상륙 및 돌격시, 사격지원 군함들은 상륙부대들의 양측방을 지원하였으며, 상륙부대가 제물포를 장악할 때까지 그곳에 사격을 가했다. 군함들은 주간에는 전투용 포탄으로, 밤에는 조명탄으로 (항공모함 항공기의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24시간 사격을 실시하였다.

##### 5) 포병 지휘 조직 및 계획

미군 포병의 화력통제는 포병중대와 포병대대 화력통제소에서,

사단규모에서는 사단포병 화력통제소에서 실시되었다. 보병 각급 부대의 해당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전방관측병들이 지원 요청, 관측 및 화력수정을 수행하였다. 탄착관측비행기의 지원을 받은 화력수정은 아주 널리 실시되었다. 조선 내 전방관측병들은 사격지원 요청시 다양한 색상의 조명탄을 사용하였다.

방어작전 시기, 특히 제1단계의 포병지휘는 전투행동이 광범위한 전선에서 수행되고 있었기에 완전히 분산화되었다. 후퇴하는 부대의 엄호를 직접 지원하고 있던 각 포병대대 및 포병중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방어전 및 후퇴시기(1950년 9월과 11월) 포병지휘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중앙집중식 포병지휘는 단지 사단규모에서만 수행되었다. 전선이 보다 안정되었던 1951년 후반경부터 포병지휘는 더욱 중앙집중식이 되었으며, 상당히 탄력성을 띠게 되었다. 중앙집중식 지휘는 사단 및 군단 규모에서 실시되었다(상륙부대의 제물포 상륙 후부터). 거의 모든 포병이 보병부대에 편입되었던 후퇴시기의 포병지휘는 분산되었으나, 재차 포병의 공격준비가 수행되었을 때 포병지휘는 다시금 중앙집중식으로 수행되었다.

포병의 사격계획에는 보병지휘관들의 요구가 깊이 고려되었다. 포병 사격은 보병의 모든 화력장비를 고려하여, 잘 알려진 예상 목표물들에 대해 계획되었다. 가장 세부적인 계획은 보병연대-포병대대 고리에서 입안되었다.

조선 내 미군 포병의 전투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미군은 항공기의 대규모적 운용에도 불구하고, 자체 포병사격을 보병 및 전차들에 대한 주된 지원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 보병에 대한 공격지원시 포병사격은 목표물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목표물에 집중된다. 공격지원을 위한 포탄의 규정량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화력통제반과 전방관측장교의 존재는 사격수행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 대포병사격은 완전 제압을 위해 수행된다
- 60mm 박격포 및 60mm 대전차로켓포 등의 장비들은 산악지역에 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거리도 짧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극비  
유일사본

## 8. 공병지원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군 공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총사령부예비 독립공병대대 및 공병건설대대 : 37개
- 독립특수공병중대 : 18개
- 야전공병집단 참모부 : 8개
- 건설지원집단 참모부 : 7개
- 각 보병사단 예하 공병대대 : 7개

다수의 공병대대는 인원편제표에 의거해서 보충되었고, 공병기재를 갖추었다. 대대 평균인원은 800명 내지 900명이며, 그 구성은 4개 공병중대와 1개 참모중대, 1개 설비중대로 되어 있다.

사단 예하 각 공병대대는 보병, 전차 및 항공기 작전에 대한 공병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공병대대의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 도로 및 교량의 수리
- 정비 및 파괴
- 정찰
- 도로 지뢰 제거 및 매설
- 장애물 내 통로 구축
- 도하설비
- 지뢰지대 설치
- 활주로 건설 등등



공격[진지], 강화 및 철수에 대한 공병지원을 위하여 보통 사단 예하 공병대대에서 1개 중대가 각 보병연대에 배속되었다. 방어전 수행에서 사단 예하 각 공병대대는 중앙집중식 지휘 하에 운용되었다.

총사령부 예비 독립공병 및 공병건설대대들(3개 중대로 구성된)과 독립특수공병중대들은 군단 지휘관 및 제8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는 야전공병집단과 건설지원집단에 통합되었다. 아마도 각 군단에 야전공병집단 1개 내지 2개가 배치되었을 것이며, 각 집단은 임시적으로 독립공병대대 2개 내지 3개와 특수공병중대 2개 내지 3개씩을 자체 편제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군 사령관 직속에는 건설집단에 편입된 공병건설대대들 및 여러 개의 독립특수중대가 있었다. 일부의 경우에 군 사령관은 총사령부예비 독립공병대대들도 지휘하였다.

군단 및 군 예하 공병부대들은 해당 후방지역에서 도로 및 교량방어·비행장 건설·항만과괴 및 기타 작업에 운용되었다. 공격시 군대의 이동에 따라 군단 공병부대는 사단 공병이 개시한 작업을 인수하였다. 개개의 경우에 군단 공병 일부는 사단 공병에 재배치되지 않고 제1제대 각 사단을 지원하는 데 운용되었다.

조선 내 미군의 간섭시기에 그 어떤 새로운 공병장비의 사용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쪽이 누락됨)

1951년 후반부터 적군은 상당한 중심으로 전개되어 보다 견고한 공병설비를 갖춘 정상적인 전선에서 통상적으로 편성되는 다

수의 진지방어 체계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제1제대 부대들이 차지한 제1방어지대가 공병운용 면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다.

제1방어지대 내에 미군이 건설한 설비는 다음과 같다.

- 보병대대 진지
- 연대 예비진지
- 야포, 박격포 및 전차의 화기진지 배치지역
- 후방진지(사단 예비를 위해)
- 진지구역의 분리
- 공병장애물 시스템

방어진지는 고지 및 산비탈에 배치된 개별 지탱점 및 저항거점 시스템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다.

지탱점은 사격 및 화력장비용 참호, 대인용 엄폐호 및 파편방비 은폐장소들로 설치되었다. 일부 참호는 교통호와 교통로 간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방어진지에는 교통호가 빈틈없이 설치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방면의 지탱점과 저항거점이 공병운용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야포, 박격포 및 전차의 화기진지는 주요 예비참호들로 설치되었다. 진지 내 야포위장을 위해 위장용 그물 및 보조장비들을 사용하였다. 대포 및 전차 진지에는 도보부대 행군로가 개설되었다.

방어시설 작업에는 모든 병과가 동원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방어중심에서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가끔 폭발물 및 공기 압착장치를 이용하여 암석지대가 처리되었다. 기초 구멍은 불도저를 사용하여 뚫었다. 야전축성 작업에 다른 기계장비들의 사

용은 목격되지 않았다. 도로 및 건설용 차량은 공병에 의해 주로 비행장과 도로건설 작업에 널리 사용되었다.

전술지대에서 장갑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되지 않았다. 미군은 장애물 축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대인장애물(지뢰 및 철조망)이 방어진지 조건상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

대인장애물은 방어전단 전방에, 그리고 연대와 사단 예비진지 전방에, 그리고 포병 화기진지 엄호를 위해 구축되었다. 장애물의 최대밀도는 방어전단 전방이 차지하였는데, 거기 일부 구역에는 장애물이 상당한 깊이(100m 내외)로 설치되었다.

철조망장애물 중 미군은 단순하나 강도 있는 철조망, 2줄 내지 3줄의 일반철조망 및 운형장애물을 사용하였다.

지뢰장애물들은 지뢰지대 및 소규모 개별장소에 설치되었다. 지뢰지대는 대부분 전단 전방에 위치하였다. 지뢰매설 평균밀도는 규정 밀도(1m당 지뢰 1.6개)에 반하여, 장애물 전선 1km당 지뢰 약 1,000개에 달하였다. 몇몇 경우에 지뢰지대는 전체 20m 내지 25m 중심으로 지뢰가 4줄로 매설되었다.

지뢰장애물의 기본 기재로서 미군의 유명한 대전차지뢰 및 대인지뢰가 사용되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유도지뢰 및 비유도지뢰, 네이팜지뢰를 매설하였다.

공병장애물로 널리 사용된 것은 조명탄 및 로켓이었다.

### 1) 공격전에 대한 공병지원

공격시 공병지원을 위해 미군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지형 및 적군에 대한 공병정찰
- 공격출발단계 돌입에서의 야전축성
- 공격과정 중 점령지역의 부분적인 진지구축
- 기동, 수송 및 철수를 위한 도로와 교량의 정비 및 보수
- 지뢰제거 및 장애물 내 통행로 부설
- 하천 장애물에서 도하지점의 설비 및 보수
- 활주로와 야전비행장의 건설 및 보수
- 다른 병과부대들과의 합동작전 준비
- 각 부대에 식수, 공병장비 및 물자 보급

전술 및 작전방어 중심에서의 방어진조물과 진지 및 지형에 대한 공병정찰 임무는 항공기와 공병, 포병, 기갑부대에 의해 수행되었다.

1950년과 1951년 초순에 미군은 공격준비단계 돌입시 야전축성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공격 중에도 점령지에서 공병기재를 사용하여 구축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의 공병의 준비정도는 도로와 교량 보수, 지뢰제거, 간단한 포병진지 설비에 지나지 않았다. 인민군의 반격에 의해 공격작전이 와해된 뒤에야 미군은 공격 준비위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병력]집중지역, 포병의 화기진지, 지휘소들을 장애물로 엄호하였고, 원형방어를 위해 참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공격 중에 점령한 지역은 장애물에 의해 강화되었고, 방어진지화되었다.

미군은 주로 도로에 연한 공격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도로보수 및 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도로보수 및 정비작업은 통로의 확장, 대피로 및 우회로 설치, 장애물 제거, 교량정비 및 건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미군은 도로작업에 기계장비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수량의 기계장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소규모 원주형 도로 및 인입로 부설만 하였을 뿐 새로운 도로는 거의 건설하지 않았다. 공격시 보병사단 및 군단은 보통 1개 도로를, 드물게는 이동시에 적절한 2개 도로를 운용하였다.

미군은 활주로 및 야전비행장 설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활주로는 눈(겨울에), 또는 곧고 넓은 도로구역 및 평지에 설비되었다.

활주로 및 비행장의 포장재료로는 조립식 금속매트 및 철사매트를 널리 사용하였다. 활주로 또는 비행장의 고속설비에는 2일 내지 5일간이 소모되었다.

미군은 자체 지뢰지대 통행로를 공격에 앞서 야간에, 또는 간혹 주간에 부설하였다. 한편 인민군 지뢰지대에 대한 통행로는 주로 주간에, 때로는 연막의 엄호 하에 만들었다. 대인장애물 지대에 통행로를 내기 위해서는 가끔 전차가 사용되었고, 대전차 지뢰지대에는 전차에 의해 추진되는 파괴통이 사용되었다. 지뢰지대에 사격엄호가 있을 경우에 포격 및 폭격의 지원을 받아 통행로를 부설하였다.

## 2) 하천장애물 강행 공병 지원

강행 도하에서 공병지원을 위해 미군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강 및 강변 지형에 대한 공병정찰
- 도하장비의 징집 및 준비
- 강행을 위해 출발지점에서의 신속한 공병 대기

- 도하지점의 설비 및 보수
- 도하장비를 통한 직접적인 부대 도하 지원
- 반대편 강변 거점의 장악, 확장 및 공고화를 위한 공병지원
- 통로준비 및 도하 후 군대 공격에 대한 공병지원

미군은 조선에서 큰 하천에 대해 강행 도하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공격시 마주치는 강들은 심각한 장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름에 강들은 얕아졌고, 군대 및 장비는 그냥 건널 수 있었다. 미군은 도하에 앞서 인민군 부대진지에 대해 항공기와 포병을 동원하여 강력한 사격을 실시하였다.

강행 도하시 군대는 미합중국 군대교범 및 편제에 규정된 도하 장비의 약 50% 정도를 소지하였다. 이로부터 도하속도는 군대가 강까지 접근한 속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부대들은 전체 공격전선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좁은 강 구역에서 도하를 실시하였다.

미군은 강행 도하시 새로운 공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1953년 1월 22일      극동방면 국장   소장   소콜로프(СОКОЛОВ)

소련군 총참모장 슈테멘코(Штеменко С. М.) 동지 수신

조선에서 전투상황에 따라 작성된, 미군과 남조선 군대의 포병 배치와 전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첨부 : 17쪽/수신인만 열람

1952년 3월 10일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Разубаев)





## 제18장 미군과 남조선군의 포병(1952. 1. 15)

### 1. 포병부대 현황

조선인민군과 중국의용군 앞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그 밖에 독자적인 부대를 파견한 나라들의 군대와 남조선 이승만 군대가 활동하고 있다.

1952년 1월 1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중국의용군은 다음과 같은 군대와 맞서고 있다.

• 미군 보병사단	: 3
• 영국군 여단	: 2
• 캐나다군 여단	: 1
• 터키군 여단	: 1
• 남조선군 보병사단	: 10
총 22개 보병사단 및 여단	

위의 부대 이외에도 조선에는 남조선군과 미군 5개 연대,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15개 대대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남조선군에는

10개의 핵심사단을 제외하고도 ‘국가방위군’ 11개 사단과 군사의 무 교육기관 8개(대략 8개 사단으로 청년들을 훈련)가 있다.

1951년 말 미국에서 새로운 2개 보병사단(제40사단, 제45사단)이 한국에 들어왔다. 미군 제1기병사단은 일본 열도로 철수하였다.

22개 사단 및 여단 가운데 미군과 이승만군 보병사단 12개, 4개 여단 그리고 10개 이내의 독립대대가 제1선에 포진해 있다. 4개 보병사단은 근접 작전예비이며, 나머지 17개 사단은 후방에 전개되어 남조선군의 예비전력을 형성하고 있다(5개 군단으로 통합됨).

제1선 사단들은 3개 군단(제1, 9, 10군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들 군단의 구성은 자주 변동되고 있다. 군단의 조직적 구성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에서 각각 2~3개 사단이 들어간다. 전투대형에 있어서 미군과 이승만군 사단들은 상호교대하고 있다.

최근 적들은 전방 및 후방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원과 물자·탄약 등을 보충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 자체 진지의 강화를 위해 일련의 빈번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선에서 작전 중인 남조선군과 미군 사단의 포병화기는 구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기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다.

- 박격포 60, 81(M2, M1), 106.7mm [4.2"]
- 무반동포 57mm(M18), 75mm(M20) [3.5"]
- 대전차로켓포/바주카포/60, 88mm/로켓포
- 사단포병 105mm(M2A1), 155mm 곡사포
- 화력증원포병(火力增援砲兵) 155mm, 203mm 곡사포 [8" 곡사포]

미군이 다연장로켓포/18~24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

고사포병은 12.7mm 4연식 고사기관총과 40mm 2연식포를 사용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지역에는 90mm 중구경 대공포가 배치되어 있다.

조선전구에서 다른 신형 모델의 포병화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병의 편제배치는 균등하지 않다. 미군 사단들은 대략 1949년의 편제에 따라 대포와 박격포로 무장하였으며, 남조선군 사단들의 포병화기는 보다 허약하다. 이를테면, 미군 사단에는 4개의 야전포병대대가 있는 반면, 남조선군 보병사단에는 105mm 곡사포 1개 대대가 있으며 다른 장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1952년 1월 10일 현재 제9, 10군단의 포 및 박격포 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5〉 제9군단의 화포 · 박격포 보유현황

화기 부대	박격포			대전차포		대전차로켓포		사단포(곡사포)		고사포	
	60mm	81mm	106.7mm	57mm	75mm	60mm	88mm	105mm	155mm	12.7mm	40mm
미군 제? 보병사단	102	47	34	92	34	79	539	52	18	32	31
미군 제? 보병사단	92	44	34	37	33	79	538	52	18	32	31
미군 제? 보병사단	81	39	35	77	32	79	539	53	18	32	31
터키군 보병여단	32	21	12	21	12	24	79	-	-	-	-
남조선제? 보병사단	50	36	?	17	-	186	-	17	-	-	-
남조선제? 보병사단	51	32	?	17	-	187	-	17	-	-	-
합계	410 [408]	219	115	261	111	634	1,695	191	54	96	93

<표 2-26> 제10군단의 화포·박격포 보유현황

화기 부대	박격포			대전차포		대전차로켓포		사단포 (곡사포)		고사포	
	60mm	81mm	106.7mm	57mm	75mm	60mm	88mm	105mm	155mm	12.7mm	40mm
미군 제? 보병사단	80	38	38	76	31	84	538	51	19	32	31
미군 제? 해병사단	79	32	34	74	30	78	539	50	19	32	31
남조선제? 보병사단	47	36	?	17	-	184	-	17	-	-	-
남조선제? 보병사단	102	46	?	15	-	-	167	17	-	-	-
남조선제? 보병사단	40	29	?	15	-	134	-	16	-	-	-
남조선제? 해병사단	20	16	?	6	-	50	-	-	-	-	-
합 계	368	197		203	61	530	1,244	151	38	64	62

비고 : ① 9군단 지휘부에는 88mm 대전차로켓포 60문이 있다.  
 ② 표에 나타난 88mm 대전차로켓포 이외에도 10군단의 지휘부는 88mm 대전차로켓포(바주카포) 약 100문을 보유하고 있다.

<표 2-27> 미군과 남조선 군대의 화포·박격포 총 수량

화기 부대	박격포			대전차포		대전차로켓포		사단포		고사포	
	60mm	81mm	106.7mm	57mm	75mm	60mm	88mm	105mm	155mm	12.7mm	40mm
미군 8개 보병사단	716	312	276	653	270	700	4,320	420	137	288	250
4개 여단	99	52	58	82	38	92	189	24	-	-	-
남조선군 19개 보병사단	2,270	1,232	?	380	-	3,807	509	378	-	?	?
총 계	3,085	1,605 [1,596]	334	1,115	308	4,599	5,018	822	137	288	250

비고 : ① 미 제40, 45보병사단은 편제표상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② 미국 괴뢰 독립대대들의 무장은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③ 86mm 곡사포병은 영국군 제28, 29여단에만 있다.

그러므로 포의 전체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전 구경 박격포 : 5,024문
- 무반동 대전차포 : 1,423문
- 사 단 포 : 959문
- 고 사 포 : 500문[538문]
- 대전차로켓포 : 9,577문[9,617문]

위에 지적된 포 수량 이외에도 고려할 점은 조선 주둔 미군이 각 보병사단마다 1개씩, 즉 도합 8개 이상의 화력증원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포 및 박격포의 총 수량에 110~130문이 더해지며, 이는 화포수가 1,060문 내지 1,080문까지 증가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수의 포병무기로 제1선에 전개된 각 사단은 방어선 1km당 야포, 박격포, 대전차로켓포 60문까지의 밀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60mm 박격포 및 60mm, 88mm 대전차로켓포와 같은 근거리용의 화력이 약한 무기를 제외한다 해도 전선 1km마다 평균 배치밀도는 18문이 해당된다(전선연장은 약 200km).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 사단들이 보유한 포의 대다수는 60mm, 81mm 박격포, 대전차로켓포(60mm, 88mm)로 이루어지며, 1946년에 미군이 재편된 이후로 예정된 편제보다도 거의 두 배나 많다. 60mm 박격포, 대전차로켓포, 고사기관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조선 주둔 미군 사단은 전선후방으로 3km 이상 떨어져서 방어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부대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포와 박격포 300문까지를 보유하는 것이며, 8km 내지 10km에 걸친 사단 방어에서 전선 1km에 30문 내지 40문의 배치밀도를 갖

추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보병사단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미 보병사단 포병은 조선인민군 포병보다도 두 배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은 포 무장에 있어서 남조선군 보병사단보다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를 사단별 보유 포병화기를 기본 구경에 따라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28> 피아 포병화기 기본 구경 비교

부대	화기		대전차로켓포, 기관권총		사단포	고사포	
	81/82mm	120/106.7mm	45/57mm	75/76mm	76,120,122/105,155mm	12.7/12.7mm	37/40mm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81	18	48	18	36	12	12
미 보병사단	44	35	79	34	71	128	62
남조선군 보병사단	44	0	17	-	17	-	-

비교 : ① 비율 1:0.9:0.5      0.6:1:0.4      0.5:1:0.3      0.1:1:0      0.2:1:0  
 ②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포 무장은 편제표에 의한 것이며, 적의 경우는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선에서 작전 중인 포병대대의 단대호는 정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2-29> 미국·영국군 포병부대 구분

사 단 명 칭	105mm 포병대대 단대호	155mm 포병대대 단대호	고사포대대 단대호	비 고
미 제1보병사단	6, 77, 99	66	92	
미 제2보병사단	15, 37, 38	503	15	
미 제3보병사단	9, 10, 58	999	9	
미 제7보병사단	48, 49, 57	31	?	
미 제1해병사단	1, 2, 3	4	?	
미 제24보병사단	13, 52, 63	11	15	
미 제25보병사단	90, 64, 159	8	25	
영국 제28보병여단	43(?)	-	-	
영국 제29보병여단	45	-	-	

새로 들어온 미 제40, 45보병사단 포병대대의 단대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조선군 사단들의 야포대대 단대호 중 확인된 것들로는 다음과 같다. 8, 10, 11, 16, 17, 18, 20, 26, 27, 2?, 30.

## 2. 지휘 및 통신

### 1) 포병지휘

조선의 상황에서 야전포병은 일반적으로 대대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수개 포병대대의 집결은 적이 방어태세로 돌입한 시기와 공세 초기(포병 공격준비사격)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군단 포병의 운용(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나, 전투과정에서 미군은 155mm 및 203mm 포를 대포병사격과 개별구역에 대한 집중사격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사단과 군단 간 포병 배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조선군 사단 각각의 포병대대 운용에 대해 말하자면, 보통 이들이 대대 또는 빈번하게 포병중대 단위로 운용되었지만 포병화력 증강이 필요할 경우 남조선군 사단 구역에 인접 미군사단 포병대대나 화력지원포병이 가담하였다.

포병대대의 화력통제는 다음과 같은 화력통제반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 작전장교(소령) : 1인
- 작전장교(대위) : 1인
- 선임계산자(하사관) : 1인
- 계 산 자 : 3인
- 작전원(하사) : 1인

• 통 신 병	: 3인
통제반 총원	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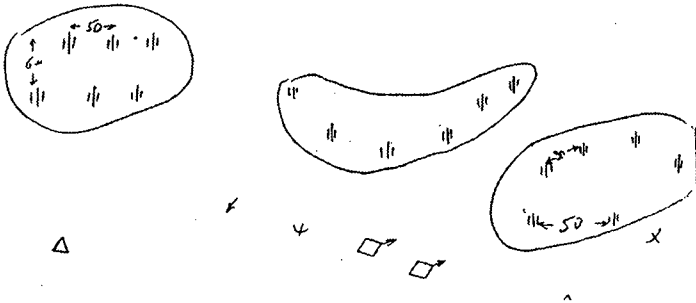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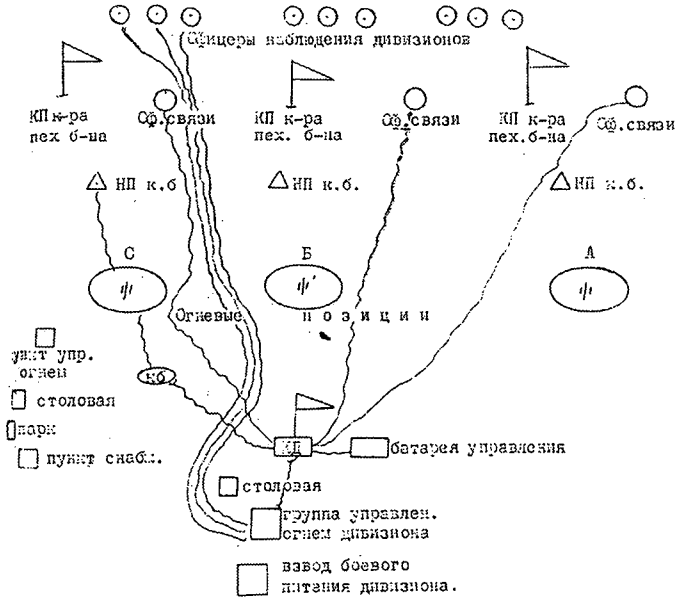
그 밖에도 각각의 포병대대에는 감시소 전방에서 적 및 포탄의 탄착점을 관측하고 관측을 수행하는 9명의 전방관측장교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들이 관측한 내용은 지휘소에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화력수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목표물일 경우 최초 화력계획이 준비되는데, 그 다음 지휘소로부터 포병중대에 명령이 하달된다. 포병대대 지휘소는 포병중대장에게 유선전화를 통하여 명령을 하달하며, 포병중대장은 무전기로 화기소대에 전달한다. 각각의 포에는 확성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 밖에도 포병대대에는 각 보병대대(포병대대가 보병연대를 지원할 경우) 혹은 보병중대 소속의 통신장교 3명이 배속되어 있으며, 사격요청은 화력통제반을 통해 실시된다. 이들 장교는 목표물의 좌표와 특성을 화력통제반에 전달한다. 목표물에 대한 사격 결정은 보병 지휘관과 더불어 포병대대장이 내린다. 포병중대가 독자적으로 사격할 경우 포병중대 화력통제 역시 위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사격통제 및 통신체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Схема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и связи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виде:



## 2) 포병부대 통신

포병대대의 통신은 유선과 무선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무선통신은 유선통신이 단절되거나 부설이 곤란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경우(기동전, 전투상황의 진전)에 이용된다. 각 포병대대는 통신기재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미군 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각 포병대대에는 다음 표와 같은 수량의 통신기재들이 확보되어 있다.

<표 2-30> 미군 포로 증언으로 파악한 적 포병대대의 통신기재

구 분		포 병 대 대		
		105mm	155mm	고사포대대
통신기재	화기			
1	교 환 기	10	10	12
2	텔레그라프 통신장비	1	1	-
3	유선전화기 EE-8	61	61	90
4	무전기 CK-593(?)	-	-	9
5	무전기 SCR-610	-	-	5
6	무전기 SCR-528	-	-	7
7	무전기 SCR-608	18	18	13
8	무전기 SCR-619	21	21	-
9	무전기 SCR-193	1	1	-
10	무전기 SCR-536	26	26	-
11	무전기 A/SCR-19	2	2	-
12	야전선 W-110	20	20	?
13	야전선 W-130	70	50	?

고사포대대의 통신기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남조선군 사단 예하 포병대대와 연대 및 대대 포병의 통신기재 확보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렇듯 야포대대는 대대 내부는 물론 지원을 주거나 받는 지대 및 부대들과의 통신을 보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무전기 6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소형 무전기의 존재는 포병대대가 화력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선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정찰반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산악지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군 야포대대의 통신기재 보급도는 조선인민군 포병대대에 비해 10배나 앞선다.

미군 포병대대의 통제 및 관측장비는 아래와 같이 확보되어 있다.

- 쌍 안 경 : 38
- 포대경(砲臺鏡) : 9
- 방 향 틀 : 8
- 수평각 측정기 : 8
- 통제상황관 : 1
- 나 침 반 : 24
- 탄착관측 비행기 : 2

방향틀 수량을 통해 판단하건대, 포병대대에는 포병의 배치와 표적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지소대가 있다. 탄착관측 비행기[포병관측 비행기]의 존재는 산악지형의 조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격 실시, 특히 대포병 사격 실시를 가능케 하고 있다.

### 3. 전투대형 및 사격

#### 1) 포병 전투대형

공격전에서 미군과 남조선군 야포대대의 화기진지는 전방으로부터 3km 내지 5km, 방어시에는 5km 내지 8km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 포병중대장은 전방에 자체 감시소를 두고서 화기진지 배후 100m 지점에 위치한다. 포병중대의 장비창과 취사장은 포대 배후 300m 이내에, 보급소는 화기진지 배후에서 350m 내지 500m 거리에 있다.

포병대대장과 화력통제반은 포병중대 화기진지 배후에서 대략 500m 내지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포병대대 장비 취급소와 보급소는 포병대대장 배후(지휘소 배후) 200m 내지 300m에 위치한다.

화기진지에서의 포의 배치는 다양한데, 이는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포병대대 화기진지 배치는 치밀하며, 이에 대한 방어는 포병대대장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데, 그 형태는 <표 2-35>와 같이 나타난다.

화기진지는 야전 참호형태로 구축되거나, 때로는 포수 대피를 위한 호(壕)조차 없기도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항공부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포병조차 부족한 조선전쟁의 조건에 의해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화기진지에서 포병중대가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포대 역시 방어를 편성한다.

## 2) 포병사격

최근 6개월간 미군 포병은 방어시에서도 주로 1개 내지 3개 포병대대에 의한 동시적이고도 집중적인 사격방식을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별 포병중대의 사격은 드물게 이루어진다. 연대와 대대에 로켓포나 박격포 같은 무기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60mm 박격포나 60mm 및 88mm 대전차로켓포 등은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선견부대들 간의 중립지대가 1km가 넘는 곳에서는 이러한 병기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57mm 무반동포도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탄약을 소모하는 포병대대와 화력지원포병이 주로 사격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다.

1951년 12월 16일부터 1952년 1월 16일까지 탄약 소비량을 대략적인 수치로 다음 <표 2-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31>에서 드러난 것처럼, 포병대대와 화력 증원포병에 의해 막대한 양의 탄약이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제1군은 구경105mm 이상 포의 포탄 458발, 제2군은 706발, 제3군은 400발을 사용하고 있다. 미군과 남조선군 부대의 포병은 전선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1개월간 조선인민군에 대하여 1일 평균 구경 105mm 이상 포의 포탄만도 1,500발 내지 1,600발을 소비하였다. 각 사단 구역에 포병대대가 2개씩 있다고 간주한다면(남조선군 보병사단에는 1개, 미군 보병사단에는 4개 내지 5개의 포병대대가 있다), 각 포병대대는 한 달 동안 매일 105mm 곡사포 포탄 150발을 소비한 셈이다. 특히 구경 155mm와 203mm 포의 포탄소비가 많았

〈표 2-31〉 미군 포병의 탄약 소비량(1951. 12. 16~1952. 1. 16)

화기명칭	포탄수 및 전선구분	포 탄 수		
		제1군 전선 23km	제2군 전선 12km	제3군 전선 14km
1	57mm 무반동총	80	580	-
2	60mm 박격포	-	-	-
3	81mm 박격포	181	4,000	330
4	106.7mm 박격포	180	-	-
5	105mm 곡사포	1,864	14,604	3,547
6	155mm 곡사포	11,882	6,306	3,147
7	203mm 곡사포	-	120	5,176

다. 이는 미군들이 대포병 사격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포탄이 포대 및 후방에 위치한 목표물에 대한 사격에 소비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공격지원, 심지어 소규모 부대의 공격을 지원하는 데도 포병사격은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1951년 10월 1052 및 1211고지, [가칠봉] 마을에서 적은 1주일 동안 개별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국지적 전투를 수행하였다. 10월 1일 내지 7일간 8km 전선에 걸쳐 적은 구경 105mm 이상 포의 포탄 19,500발을 소비하였는데, 이를 하루 평균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2,780발이었다. 조선 인민군 방어중심에 대한 포탄 할당은 다음 〈표 2-32〉와 같다.

〈표 2-32〉 조선인민군 방어중심에 대한 미군의 포탄 할당량(1951. 10. 1~7)

방어중심(km)	방어측의 전구질서	발사포탄수량	중심투하비율
0~0.5	보병연대 제1제대, 대대 포병	11,984	62.5
0.5~1	화기진지 및 82mm 박격포	1,355	7.0
1~2	보병연대 제2제대, 연대 포병 화기진지 및 120mm 박격포	402	2.0
2~3		980	4.8
3~4		745	3.8
4~5	보병사단 제2제대, 사단 포 병 화기진지	74	0.4
5~6		1,888	9.6
6~7		1,968	10.2
7~8	보병사단 후방	50	0.3
8~9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은 방어진역 전단에 가장 밀도 있는 사격을 실시하였으며(69.5%), 더욱이 이 사격은 보병대대의 공격에 해당되는 공격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 사격은 수개 포병대대의 강력한 화력공격(포사격)으로 수행되며, 매 포사격은 10분 내지 30분간 지속된다. 포사격 후에 공격에 나선 보병이 저항에 직면할 경우 포사격은 반복되며, 그 포사격 수량은 무제한적이다. 세 차례에 걸친 포사격 실시 이후에도 보병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공격대상에 대한 포사격을 다음날에 재개한 경우도 있었다.

적이 포사격을 실시한 피공격구역을 전선의 20%(8km 중 20%)와 1km의 중심으로 상정한다면 피공격구역 1km당 일간 사격밀도는 박격포 사격과 공습을 제외하고도 구경 105mm 이상 포의 포탄 80발 내지 83발에 해당되었다. 그러한 포격이 실시된 이후에는 모든 것

이 초토화되었다.

화기진지에 대한 포사격에 있어서도 포병은 전체 포탄 소비량의 20% 이상을 소모하였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주로 155mm 및 203mm 포가 운용되었다. 각 포병대대 화기진지의 피격지역을 10내지 12헥타르로 친다면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의 3개 포병대대를 제압하기 위한 포사격 면적은 30내지 36헥타르가 된다. 그러면 화기진지 구역에 대한 일간 사격밀도는 1헥타르당 포탄 110발 내지 130발이 되는 셈이다. 조선에서 미군 포병이 많은 탄약을 소비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는 일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격 시 포병대대에 할당된 일일 표준 탄약 소비량은 포탄 1,500발 내지 2,000발이다.

포병진지에 대한 제압은 포병대대에 의한 수차례, 통상 6차례에 걸친 포사격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포탄 표준소비량은 100발 내지 110발이다. 조선과 같은 지리적 환경(산악지역)에서 볼 때 이러한 표준량은 50% 정도까지 증가된다.

박격포 4문이 배치된 포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포탄 50발 내지 60발을 소비하는 것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압은 세 차례의 포격으로 실행된다.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표준량 역시 50% 정도까지 증가한다. 1개 포병진지를 제압하기 위해 155mm 포탄 450발 내지 460발이라는 비교적 많은 양의 포탄이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제압의 결과는 미미하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 포병 화기진지는 잘 방비되어 있고 깊이 3m에 이르는 엄폐물이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피탄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세 시에 화기진지가 황급히 구축되고 강력한 엄폐물



을 가지지 못한, 때로 단순한 야전참호일 경우 적 포병 사격의 효과성은 급격히 향상된다. 포병대대 내 측지부대 및 탄착관측 비행기[포병관측 비행기]의 존재로 인해 미군은 매우 정확한 포격을 가할 수 있다.

### ※ 결 론

- (1) 조선의 상황에서 미군과 그 괴뢰들은 주로 105mm 이상 구경의 대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반동총, 박격포, 대전차로켓포(바주카) 등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탄약소비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으며, 특히 공격 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표물에 대한 포사격은 저항이 완전히 중지될 때까지 수행되며, 그때서야 보병이 공격해 들어간다.
- (3) 포병진지의 제압을 위해 탄착관측 비행기[포병관측 비행기]를 운용하고 막대한 양의 탄약을 동원한 정밀한 사격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조선인민군 포병 화기진지의 양호한 방어설비로 인하여 저조한 편이다.

## 4. 전투능력

### 1) 보 급

각 항구는 주요 보급기지인데, 여기서 해상으로 운반된 탄약이

철도 및 차량을 통하여 각 제대에 보급된다. 전방보급소는 각 포병대대로부터 8km 내지 30km 떨어진 군단 후방지역에 설치되며, 여기서부터 각 포병대대는 자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대로의 보급임무를 수행한다. 각 포병대대에는 탄약보급장교가 있으며, 2.5톤 견인차 12대로 구성된 보급부대를 지휘한다.

통상적으로 포병대대는 화기진지에 1세트의 전투용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포병중대 보급분대에 의해 운반된다(각 포병중대에는 보급분대가 있다). 두 번째 전투용 탄약 세트는 포병대대 예하 보급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포병대대는 전체적으로 2세트의 전투용 탄약을 보유하며, 이 기준은 방어 시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1개 105mm 곡사포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용 탄약세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33> 105mm 곡사포대대의 전투용 탄약세트

탄종(彈種)	중량(kg)	사거리(m)	포병대대 보유량	보급부대 보유량	비 고
WT	15	11,000	300	300	장거리 유산탄
WP	"	"	150	150	소이탄으로 불림
녹색 연막탄	14.5	100	18	18	지정목표물에 대한 화력수정시 이용. 연막은 무풍지대에서 3분간 지속
적색 연막탄	"	"	"	"	
청색 연막탄	"	"	"	"	
황색 연막탄	"	"	"	"	
TP	15	8,100	1,050	1,050	유 산 탄
QE, PP	15	11,000	973	973	매설용 세열-지뢰탄
HEAT	약 15	7,650	150	150	1,000m 거리에서 140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대전차용 포탄
합 계			2,700	2,700	

원격신관이 75mm 무반동포 및 박격포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군사작전 상황에서 미군과 남조선군 사단들은 탄약보급에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데, 이는 남조선군 후방이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도로는 정비되어 있고 수송은 주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수송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전투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 2) 견인차량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단 포병은 6톤 내지 8톤급 견인차량 54대와 8톤 내지 13톤급 견인차량 18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견인차량 이외에도 105mm 곡사포는 2.5톤 견인차량으로 운반되며, 연대포와 박격포는 ‘닷지(dodge)’와 같은 3개 차축 차량으로 운반된다.

### ※ 결 론

- (1) 조선에서의 전투행동은 미군이 보병과 포병의 전투대형을 제압하기 위해 공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측 포병의 화력을 보병과 전차부대 지원의 기본형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2) 보병 공격지원 시 포병사격은 공격목표가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그 목표에 집중 실시되는데, 이를 통하여 공격측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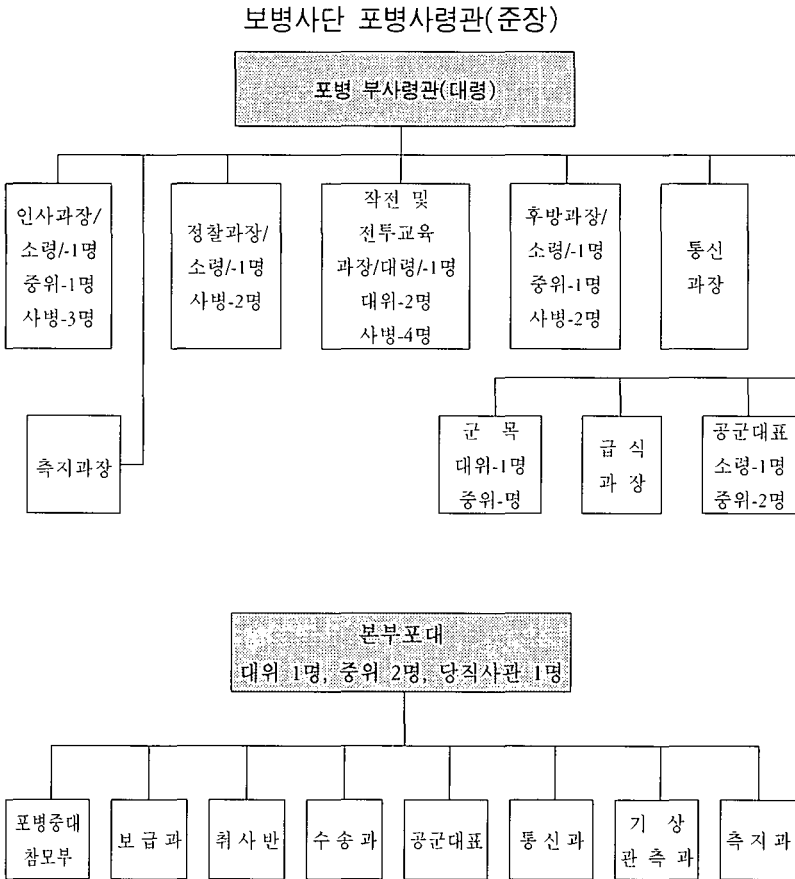
소한의 손실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며 전투원의 사기를 유지시킬 수 있다. 공격지원을 위한 포탄소비 규정량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 (3) 대량의 통신기재와 관측 및 화력통제장비, 그리고 측지소대, 관측항공기 등의 존재는 지속적인 정찰수행과 포병의 중단 없는 화력통제, 산악지역 조건에서도 정확한 조준사격의 실시를 보장해 주고 있다.
- (4) 화력통제반 및 전방관측장교의 존재는 사격수행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 (5) 대포병사격은 실질적으로 초토화를 목적으로 수행된다.
- (6) 산악조건에서 60mm 박격포 및 60mm 대전차로켓포 같은 화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짧은 사거리로 인해 사격효과도 낮다.

조선인민군 군사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Разубае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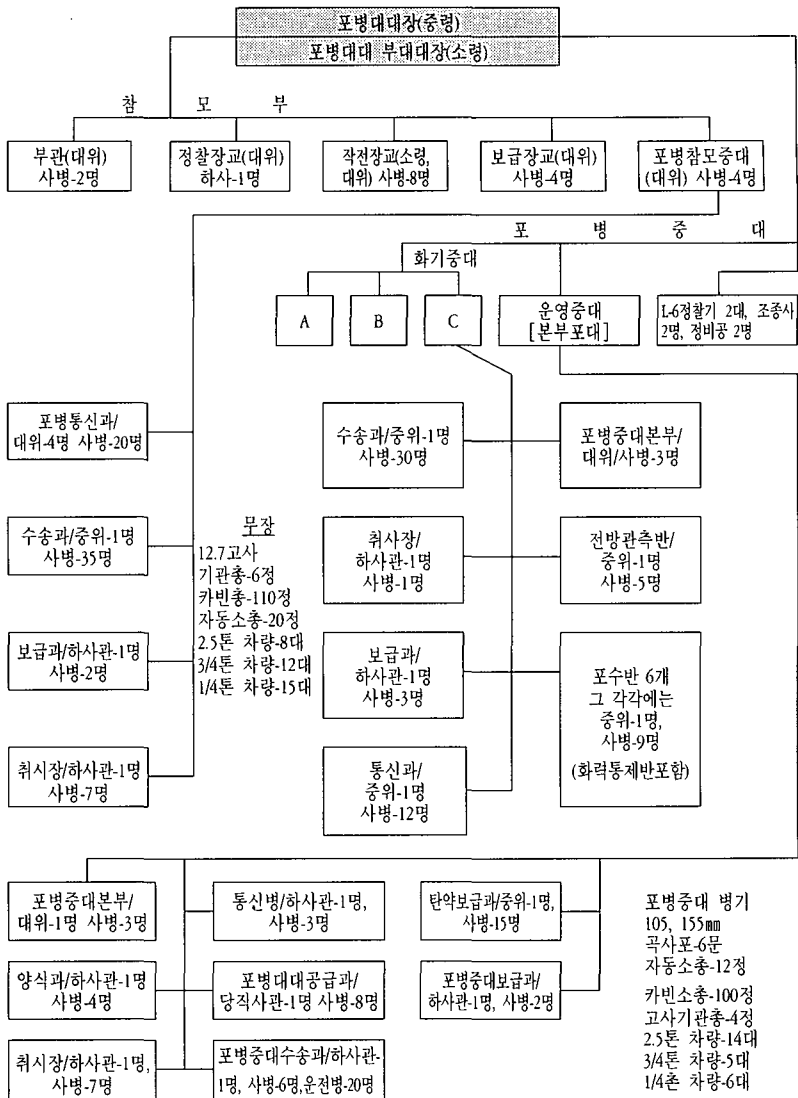
첨부 No 1

<표 2-34> 미군 보병사단 포병참모부 조직도



\* 본 조직도는 1951년 6월 미군 포병중대장의 진술에 따라 작성되었음.

<표 2-35> 미군 보병사단 포병대대 조직도



비밀. 사본 제1호

소련군 총참모장 대장 슈테멘코(С. М. Штеменко) 동지 앞

조선전쟁의 전개에 따라 작성된, 미군과 남조선 군대의 공병부  
대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부기 : 총 21쪽

1952년 3월 10일

조선인민군 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Разуваев)





비밀  
사본 제1호

## 제19장 미군과 남조선군의 공병[1952. 3]

본 문서는 조선인민군 공병국이 소장한 일부 자료 및 포로 신문, 공병정찰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본 문서는 미군 공병부대에 대한 기존 자료를 개괄하는 최초의 시도이며, 조선전구에서 작전 중인 미군 내 공병사업의 조직 및 공병부대 활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종합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고찰되고 있다.

- 미 8군 및 이승만군 공병부대의 조직
- 방어진역에서의 야전축성
- 장애물 파괴
- 도로, 교량 및 도하작업

## 1. 공병부대 현황

### 1) 미군 공병부대 편성

(1)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 8군 공병부대는 기본적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 야전공병부대(사단공병대대)
- 건설공병부대(건설공병대대, 비행장건설대대)
- 특수공병부대(측지, 위장, 부교·교량, 도로, 용수공급, 공병차량)

(2) 야전공병부대는 사단공병대대와 군 직할 공병연대의 공병대대가 해당된다.

각 보병사단 예하 연대 내에는 자체 공병부대가 없으며, 필요할 경우 보병연대는 사단공병대대에 의해 보강된다. 사단 공병대대는 사단 작전지역 내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병대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장애물 설치 및 극복, 지휘소 설치
- 도로 및 교량 건설과 정비(복잡하거나 크지 않은 작업규모)
- 도하설비 구축, 연락 비행기를 위한 착륙장 건설 등

사단공병대대장은 사단공병참모를 겸하고 있다. 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의 공병작업 계획, 조직 및 수행통제를 위해서 대대장은 항상 사단 참모부에 소속되어 있는 2명 내지 3명의 하사관으로 구성된 보좌관반을 통제한다. 그 밖에도 공

병대대 참모부에는 보병사단의 공병지원 문제들에 대한 일체의 보고와 문서를 담당하는 특별작전반을 두고 있다.

사단공병대대는 참모[본부]중대와 4개 공병중대, 도합 5개 중대로 이루어져 있으며(대대조직도 No 1을 참조할 것), 인적 구성원은 장교 37명, 하사관과 사병 680명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된 자료들에 따르면, 사단공병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량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은 자료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도면 No 1에 인용된 장비에 대한 정보는 조선에서 작전 중인 사단공병대대들의 장비를 충분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정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 (3) 건설공병대대와 비행장 건설대대로 대표되는 건설공병부대는 아직 충분할 정도로 연구되지 않았다.

건설공병대대는 주로 작전중심에서 운용되며, 일반적으로 보병사단에는 배속되지 않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도로·교량 및 비행장 건설작업이다. 건설공병대대는 예하에 3개 건설중대와 각종 공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굴 착 기
- 그레이더(grader)
- 기 계 삽
- 불 도 저
- 로드롤러(road roller)
- 컴프레셔 스테이션(compressor station)
- 콘크리트 믹서

- 용접기구
- 정수기

건설공병대대의 차량운송수단으로는 트럭 88대와 덤프 트럭 3대가 있다.

비행장건설대대는 비행장과 그에 이르는 간선도로 건설임무를 담당한다. 이 대대는 3개 건설중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공병대대보다도 더 많은 굴착 및 건설장비를 보유한다.

(4) 특수공병부대는 부교·교량중대, 측지중대, 용수공급중대, 공병차량중대, 공병보급중대 등을 일컫는다. 이들 중대는 독립부대로서 존재하거나 또는 공병연대에 소속되어 있다.

(5) 일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제8군 소속으로 제2, 제36공병연대가 있는데, 제36연대는 제9군에서 옮겨왔다고 한다.

공병연대는 3개 공병대대(야전)와 특수중대(교량, 부교, 도하 경기갑, 조달, 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공병연대에는 행정부서, 정보부서, 후방부서가 있고, 경찰, 통신, 운송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편제되어 있다. 현재까지 공병연대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 2) 남조선군의 공병부대 편성

남조선군 공병부대 지도기관으로는 공병감실이 있다. 공병감은 엄홍섭 대령(편제상 소장급)이다. 공병감실은 5개 과, 즉 행정, 경찰[정보], 작전, 조달, 건설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매 부서는 장교 4명과 하사관 10명, 전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공병감과 각 부서장 예하에는 미군 공병부대 고문장교들이 배치된다.

측지중대와 건설중대 등 2개 중대는 공병감실 직할부대이다. 남조선군 공병부대는 3개 그룹으로 세분화된다.

- 중앙직할 공병부대
- 군(군단)직할 공병부대
- 사단직할 공병부대

중앙직할 공병부대는 각각 3개 대대로 편제된 두 개의 공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공병단은 이승만군 총참모부 설비임무를, 두 번째 공병단은 지하방공호, 도로, 교량 등의 건설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들 그룹 각 대대의 인적 구성은 약 7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군(군단)에는 3개 야전공병대대로 이루어진 1개 공병단이 편제되어 있다.

군 내에는 공병임무의 지도, 계획, 통제를 위한 공병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행정과, 작전과, 정찰과, 조달과로 구성된다. 각과의 구성원으로는 장교 2명, 하사관 5명, 사병 1명이 있다.

각 보병사단은 사단공병반과 사단공병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사단공병반은 사단공병 부대장과 10명의 공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공병대대는 참모[본부]중대(돌격소대, 교량소대, 경비소대)와 3개 공병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대 총원은 약 700명이다.

사단공병대대는 공병장비 가운데 공기팽창식 보트, 발전소, 컴프레셔 스테이션(compressor station), 불도저 2대, 그레이더(grader)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대에는 차량수송을 위하여 특장차 45대와 트럭 10대가 편제되어 있다. 보병연대 내에는 공병부대가 없다. 각 연대는 상황에 따라 사단공병대대의 공병중대에 의해 보강된다.

## 2. 방어진역 야전축성

군사행동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조선에서 미군이 다양한 형태의 방어진 수행수단과 방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편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야전축성 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요 도로에서는 중심을 향한 연속적인 (대대) 방어거점 및 (중대) 지탱점의 형태로 중심 깊은 제대별 방어진지(도면 No 2 참조)를 구축한다. 방어거점과 지탱점들 사이의 (중심을 향한) 중간지대에는 도로(계곡)를 감제하기 위하여 고지사면에 (소총분대, 독립기관총·자동소총 등의) 독립화점(獨立火點)들을 구축한다.
- ② 부차적 도로에서는 중대 혹은 소대 지탱점들이 구축되며, 또한 주로 독립기관총 병커, 즉 토치카가 광범위하게 운용된다.
- ③ 전단지역의 각 도로들 사이, 그리고 때로는 보병 기동가능구역 및 중심에는 전단으로부터 2~3km 거리에 독립화점들, 혹은 소규모 교통호가 구축된다(도면 No 3 참조).

- ④ 전단에서 4~6km 떨어진 곳에는 사단 전체 병력의 40%에 달하는 사단반격부대(예비)가 배치되고 있다.

방어시 제1제대의 보병대대들은 통상 1개의 선형으로 이루어진 중대 지탱점들에 의해 배치되며(도면 Na 4 참조), 지탱점들 사이의 중간지대에는 강력한 대인 및 대전차장애물(전차 기동가능구역의 경우)이 설치된다.

중대 지탱점은 1개 또는 2개 선의 교통호(대부분의 경우 단절되어 있는) 혹은 화점이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 선은 교통호, 그리고 두 번째 선은 독립화점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대 지탱점에서 원형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방어시설 및 장애물의 원형배치 방식이 활용된다. 격오지(隔輿地) 산악지형에서의 방어에는 1개선으로 배치되는 화점들로 이루어진 독립소대 지탱점들이 구축된다. 야전축성의 기본요소는 독립참호, 개인호, '토치카', 교통호이다.

다수의 포로들은 미군의 교통호 운용을 부인하지만 공병정찰 자료에 따르면, 적은 전단, 즉 주요 방면들에서 교통호를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교통호는 방어거점과 지탱점들에 단절적으로 설치되며, 전투와 관련해서는 개인호, 기총구역, 엄개(掩蓋)호 등이 설치된다.

교통호의 폭은 0.80m 내지 1.00m, 깊이는 1.00m 내지 1.50m 정도이다.

일부 사례에서 미군은 일반적 야전축성 요소 이외에도 2m 내지 3m 길이의 교통호 구역에 엄폐물을 활용한다(도면 Na 5 참조). 이

구역의 교통호는 1.8m 내지 2.00m까지 깊어지며 2.00m까지 폭이 넓어진다. 엄폐물은 파편과 탄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경형(輕型)으로 만들어진다. 엄폐구역에는 2명 내지 3명의 병사가 들어갈 수 있으며, 주요지역의 경우 6m 내지 10m마다, 그리고 부차적 방면의 경우에는 30m 내지 40m 정도마다 가로질러 설치된다.

교통호 시설에는 기관총 설치를 위한 엄폐 총좌 또는 엄개구역이 있다. 기관총은 야간에만 엄개구역에 설치되며 주간에는 엄폐호 속에 거치한다. 대다수의 독립 토치카는 경형으로 총탄과 파편에 의한 손상만을 막아 준다. 중형 축조물은 거의 있지 않다.

최근 미군은 방어시 전차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차는 야전축성이 되어 있는 고지에 올라가 대포의 직접 조준사격 형태로 사격을 가한다.

교통호 및 참호의 축조에 공병들은 동원되지 않고 있으며, 드물게 ‘토치카’ 설치에 있어 보병지원을 위해 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3. 장애물 운용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장애물 체계는 다음과 같다.

- 대전차장애물, 주요 도로 및 분지에 지뢰 매설
- 대인지뢰 및 철조망(대인지뢰와 조명지뢰에 의해 보강된) 장애물
- 지뢰지대, 도로시설 및 기동로 파괴(교량, 도관 등)방식의 도로장애물

산악전구의 특성 및 조선인민군의 전차운용 감소와 관련하여



야전축성을 보강하는 데 있어 대인장애물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도면 No 2, 3 참조).

대인지뢰지대와 철조망장애물은 전단뿐 아니라, 방어진지 전방의 전술중심에 대량으로 설치되고 있다.

대체로 철조망장애물은 소총·기관총 사격이 양호한 지형에, 대인지뢰지대는 반대로 사격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의 야간작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군은 조명지뢰를 폭넓게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전단과 그 직후방에 대량으로 매설되어 있다.

조명지뢰지대는 소총·기관총 및 포사격에 의해 지원받는다. 야간에 매설지역의 지뢰가 작동할 경우 적은 온갖 무기를 동원하여 강력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방어중심으로의 침투를 저지한다.

때로 조명지뢰는 대인지뢰와 함께 매설되기도 한다.

대전차 지뢰지대도 운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방면 방어진역 전단의 전방지역 및 파괴준비가 완료된 우회로 혹은 지뢰가 매설된 도로지역의 중심에만 드물게 조성된다.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도로상에 직접 대전차지뢰를 매설하는 방식이 널리 운용되고 있다.

공격 시에는 공격부대의 측방을 엄호하는 데 지뢰장애물이 이용되고 있다. 미군부대들은 유격대의 기습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인지뢰지대를, 그리고 군대 집결 및 숙영지의 방호를 위해서 조명지뢰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 지뢰는 야간에만 설치되었다가 주간에 다시 거두기도 한다.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군과 다른 국가 군대들은 장애물 설치시 기

본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애물 장비들을 운용하고 있다.

- 신관 T3-E1을 장착한 대전차지뢰 M6-A1, M7
- 대인지뢰 M2-A1, 'M3'
- 조명지뢰 M4-8 이 몸체(케이스)에는 폭렬탄 대신에 낙하산이 달린 조명탄이 들어 있다(도면 № 6a 참조).
- 복합신관 M1(인력작용식과 압력식), M1 압력신관, 화학식 지연신관, 15초 지연발화 신관, 자동작동 신관
- 집적탄 K3-M1(금속외피), K3-M2(플라스틱 외피)
- 장약 M1-A1

1951년 봄 일부 전선구역에서 '목각대인지뢰-6' 유형의 새로운 대인지뢰가 등장하였다(도면 № 7a 참조). 이 지뢰는 목각 몸체와 압력신관 M1, TNT 225g, 기만용 마분지 덮개로 싸인 화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뢰는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1951년 여름부터 전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주로 최근 미군이 인력작용식 지뢰와 비교하여 압력식 지뢰의 저효율성 때문에 이것을 지뢰지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연장의 전선 엄호를 위해서 압력식 지뢰는 인력작용식 지뢰보다 6배 내지 7배 이상 더 많이 소요된다. 일부 전선 구역에서 미군은 인력작용식 지뢰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수류탄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는데, 더욱이 이는 주로 관목지대나 숲 속에 설치되었다. 이 경우 수류탄은 지상에서 0.3m 내지 1.00m 높이의 나무에 달아매어진다.

미군이 자동차 바퀴를 핑크넬 목적으로 특수한 '마름쇠장애물'을 이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면 № 66 참조). 날카로운 금속 파이프 조각으로 제조된 이 '마름쇠장애물'은 비행기로부터

터 도로에 살포된다.

속이 짝 찬 쇠못이 아닌 텅 빈 파이프의 사용은 바퀴의 펑크 시 그로부터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는데,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전단지역 전방 및 도로장애물 구역의 우회로 중심에 위치한 대전차지뢰지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뢰부설 원칙, 즉 표준형 및 연장형 구역 원칙에 따라 부설되고 있다.

대전차지뢰지대의 제거와 극복을 어렵게 하기 위해 미군은 인력작용식 및 압력식 대인지뢰를 함께 매설하고 있다.

미군은 하천의 여울과 하상에 지뢰를 매설하기 위해 때때로 산악 및 도로에서 운용되는 M3-A1형 대전차지뢰를 폭넓게 사용한다. 이 경우에 지뢰는 물 밑에 특수하게 파낸 구멍에 매설되며, 지뢰의 위장을 위해 그 위에도 판석을 덮는다.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군 및 다른 국가 군대들이 사용하는 대인장애물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유자(有刺)철선 장애물. 이 장애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충철조망
- 2~4줄의 철조망 세트
- 윤형철조망 ‘브루노’, 간편철조망
- 숲 및 관목에 휘감는 철조망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철조망 이외에도 미군은 각각 6~8m의 간격을 갖고 설치되는 2~3개의 일반철조망(그 사이에 윤형 철조망 브루노나 간편 철조망이 채워진다) 형태의 복합적 구조를 활용한다(도면 No 8a 참조). 철조망장애

물 설치 시 자주 금속 지주대가 사용된다.

- (2) 2~3줄의 복합철선 장애물. 이는 각각 60~80m 거리를 두고 설치되며 그 사이에 인력작용식 대인지뢰지대가 조성된다 (도면 № 86 참조).
- (3) 대인지뢰지대에는 주로 인력작용식 지뢰가 매설된다. 지뢰지대는 6~10m의 중심을 가지며 각각의 열(줄)에 4~6m 간격으로 매설된 2~3열의 지뢰들로 이루어진다.

적은 대인지뢰를 가옥과 채소밭 및 뜰의 헛간 등에 매설함으로써 부비트랩처럼 사용하고 있다.

방어중심에 조성된 지뢰지대는 특수한 표식(지뢰지대를 향해 붉은색을, 바깥쪽에는 하얀색을 칠한 삼각표지) 및 1m 내지 1.5m 높이 길이에 걸친 새끼줄로 보호되고 있다.

자체 장애물 내에서 미군은 수개의 통로를 조성하는데, 그 장소는 2일 내지 3일마다 변동된다. 말하자면 기존의 통로를 폐쇄하고 새 통로를 내는 것이다. 지뢰지대 통로는 통로 양측에 설치되는 특수 'T'자 표시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미군 공병은 철조망장애물의 통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약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절단기(가위)는 전연 사용되지 않는다.

도로 지뢰매설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노상에 대전차지뢰를 설치하고, 그 다음 모든 지뢰 매설구역에 흙을 뿌려(40~50m) 도로가 수리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도면 № 9a 참조).

- 노상 구멍에 대전차지뢰를 설치하고 각 지뢰를 개별적으로 위장시킨다. 노변에는 압력식 대인지뢰를 매설한다(도면 No 96, 9B 참조).

도로 지뢰매설 구역의 우회를 막기 위해 인력작용식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도면 No 9 참조).

적이 도로에 연한 통신선로를 가로질러 인력작용식 지뢰를 개별적으로 매설한 경우도 있다(도면 No 9 참조). 이는 정비 및 통신선로를 복구하는 통신병들을 겨냥한 것이다.

미군은 도로의 노면을 파괴하거나 깔때기 모양의 포탄흔을 조성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 수직으로 솟아 있는 바위 절벽을 폭파하여 길이 100m까지의 도로장애물을 조성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적이 교량파괴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방식은 강의 가장 깊은 곳 위에 있는 교량 상판 1개 내지 2개를 폭파하는 것이었다. 어떤 교각들은 전혀 손상 없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교량파괴는 미군이 퇴각 시 보다 완벽하게 파괴할 여유가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이후에 주요 방면들에서 교량들이 공중폭격에 의해 심대한 손상을 입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공병이 하지 못한 것을 공군이 완료시킨 것이다.

#### 4. 도로, 교량 및 도하작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에서의 도로 및 교량작업은 미군 공

병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그레이더, 굴착기, 불도저, 콤프레셔 등 충분하리만큼 현대적인 도로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남조선군 예하 각 사단공병대대까지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공병건설부대는 도로건설장비들을 가지고 있다.

도로 및 교량 건설, 정비, 복구를 위해 미군은 지역주민들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주민은 전선에 근접한 군부대 지역에서 이 작업에 동원된다.

조선에서 미군에 의한 새로운 도로건설에 관한 자료는 미미하다. 하지만 입수한 정보로는 그들이 기존 도로의 복구, 정비, 완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작업에서는 노반의 개량과 확장이 주로 실시된다. 도로를 통한 전차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폭은 7m 내지 8m까지 확장되었다. 도로건설에는 암석 분쇄작업을 목적으로 불도저, 공기굴착기가 달린 콤프레셔 스테이션(compressor station)과 같은 기계화 장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미군과 남조선군 예하 공병부대에는 도하를 보장할 목적으로 공기팽창식 고무보트 M4-A2, 알루미늄 반(半)부교 M-4 등의 도하장비와 베일(Bale) 시스템의 단단한 받침대가 달린 조립식 교량, 경(輕)·중(重) 수륙양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도하장비들은 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군이 깊고 넓은 강을 도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전체 군사행동 기간 중 가장 넓은 강의 도하작전은 1950년 김포·서울 지역에서 미군이 수행한 상륙작전이었다. 당시 적들은 서울 북서쪽 한강의 도하 시에 많은 도하장비를 사용하였다. 보병

및 경포의 도하를 위해 수백 대의 크고 작은 수륙양용차가 사용되었고, 대구경포와 전차를 위해서는 도하용 부교가 운용되었다.

베일(Bale) 시스템의 단단한 받침대가 달린 조립식 교량은 큰 강에서만 드물게 사용되었다.

하천의 특성 — 돌 투성이 바닥, 얇은 깊이 — 과 관련하여 미군은 도보로 도하하는 방식을 널리 택했다. 0.40m 내지 0.50m 깊이를 갖는 강에는 돌과 쌀가마니로 수중담을 설치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 ※ 결 론

- (1) 조선에서 작전 중인 미군 공병부대와 장비사용에 대한 기존 자료를 연구·개괄해 보면, 미군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수한 공병장비나 공병작업 실행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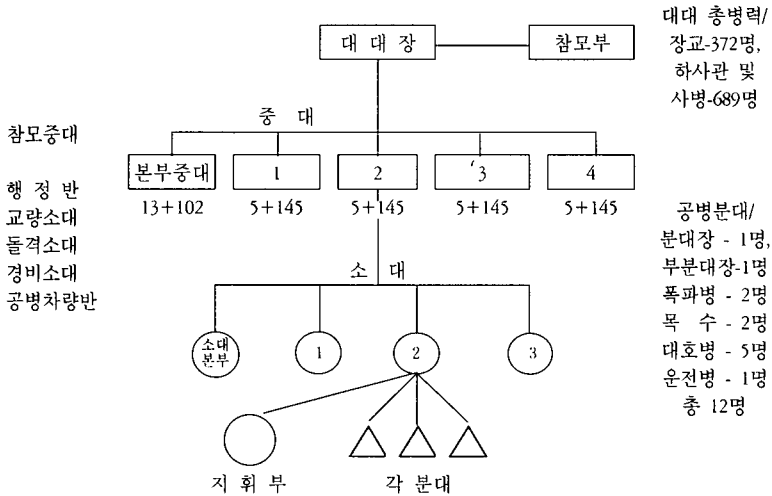
그러나 전투행동 과정에서 수행되는 공병방책들은 산악지형 조건에서 공병의 전투지원이 갖는 일부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2) 이 간략한 개관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해 많은 공병지원 분야를 상당부분 조명하지 못했다. 이것은 미군 공병부대 활동문제에 대한 향후 다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개괄을 수행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1952년 3월      조선인민군 고문단장 중장 라주바예프(Разуваев)

조직도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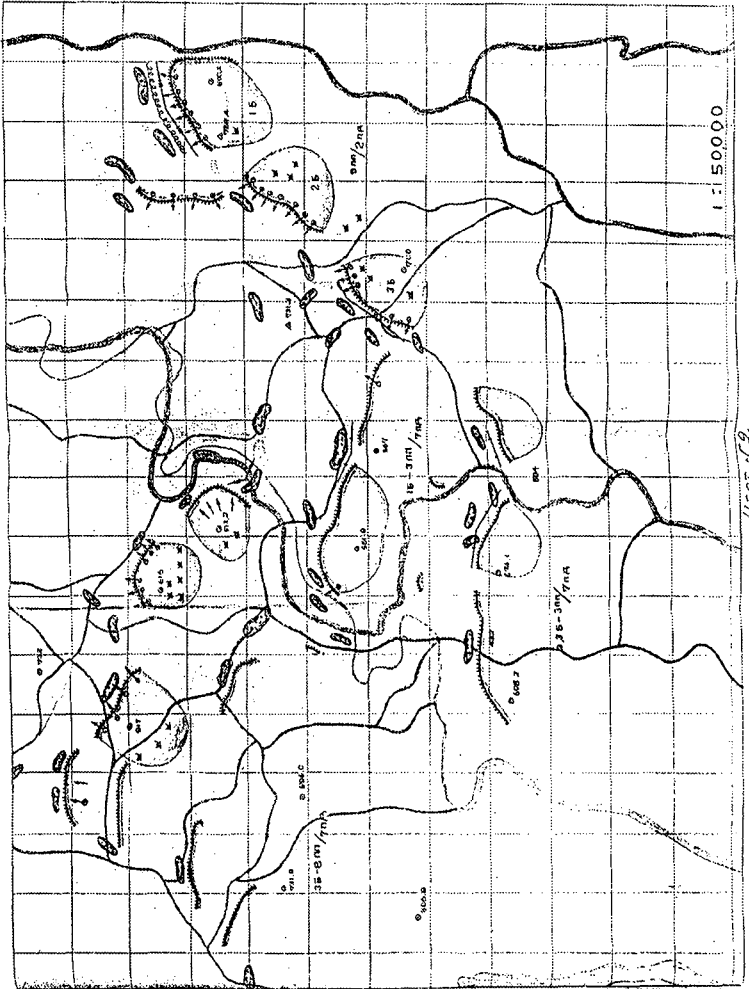
<표 2-36> 보병사단 야전공병대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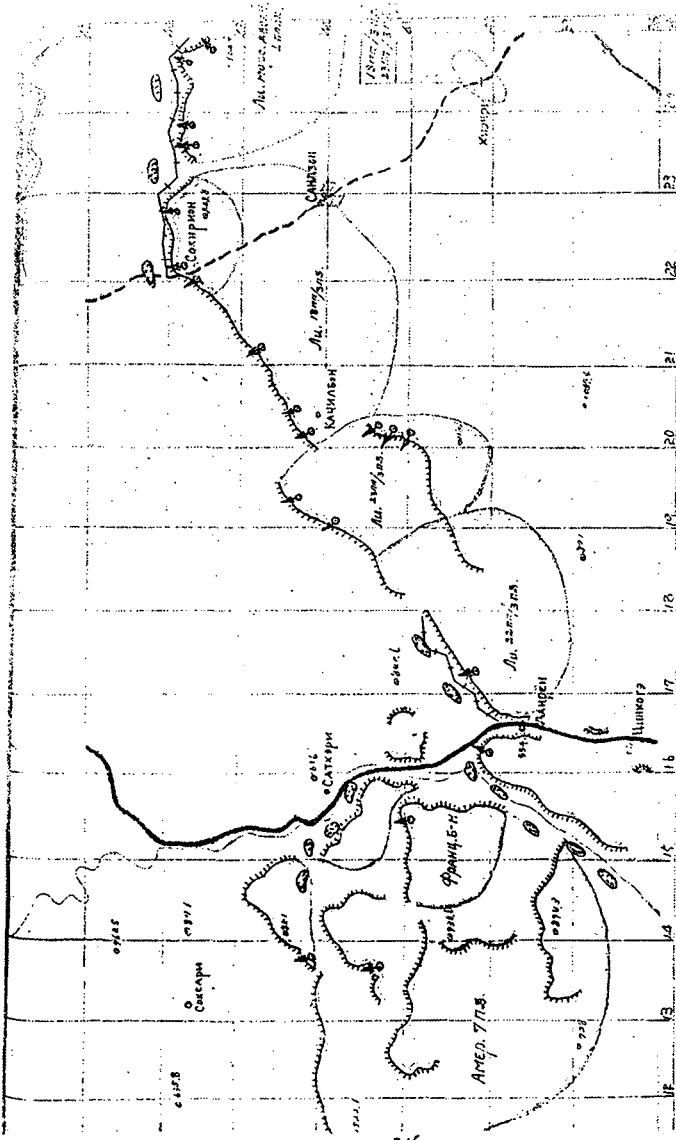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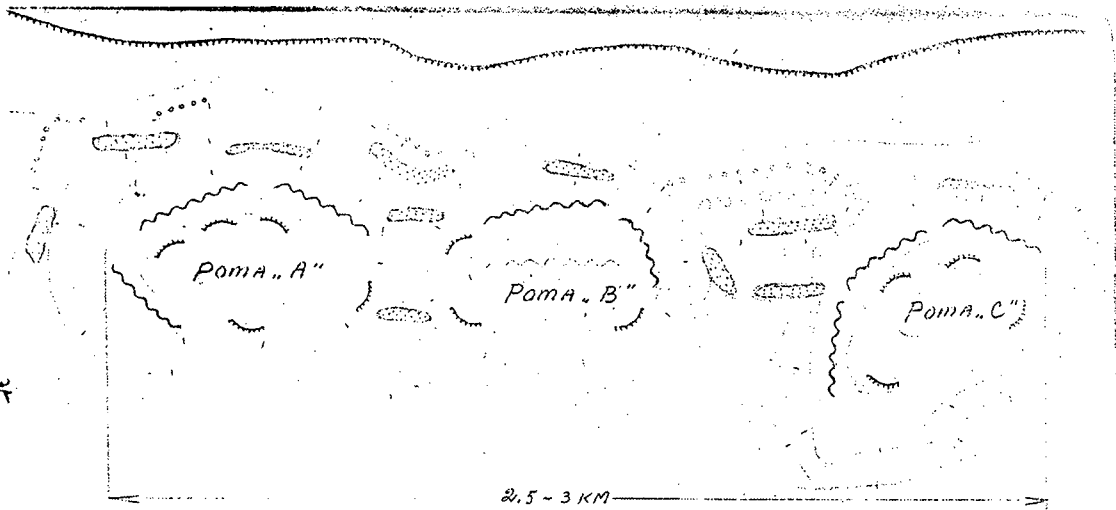
<표 2-37> 야전공병부대 기술장비표

공 병 장 비	운 송 수 단
그레이더(grader) - 3	경(輕) '빌리스' - 34
발도저 - 3~5	트럭 3 1/4톤 - 21
굴착기 - 1	트럭 2.5톤 - 80
기계삽 - 3~5	트럭 6톤 - 6
로드롤러(road roller) - 1	트럭차 - 55
컴프레서 스테이션(compressor station) - 5	트랙터 4톤 - 1
제재기계 - 1	트랙터 10톤 - 1대
전동톱 - 12	통신장비
발전기 - 1	무전기 - 12
교량장 M4-A2 - 1	전화교환기 - 2
수중모터보트 - 16	전화기 - 15
휴대용 필터 - 4	텔레그래프 통신장비 - 10
수중익선 - 1	전투장비
지뢰탐지기 - 36	소해정 탱크 M4-A3 - 5
대전차지뢰 - 1080	
대인지뢰 - 360	
폭약 - 8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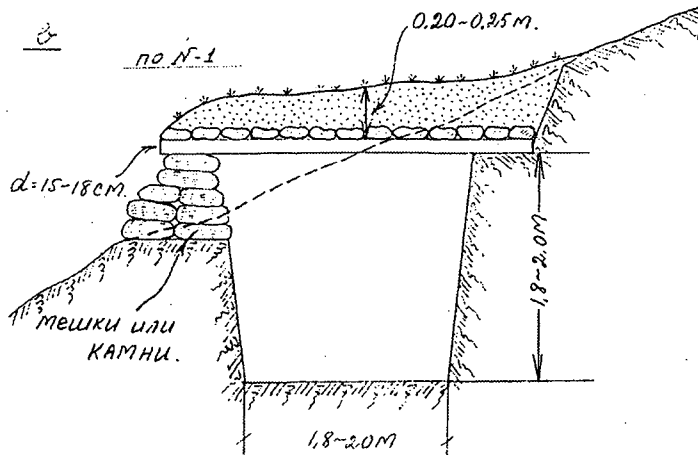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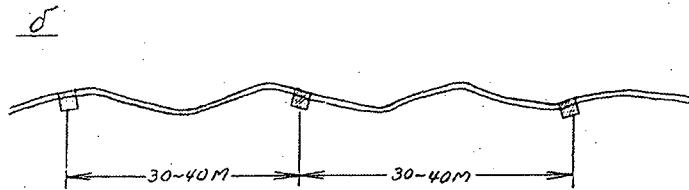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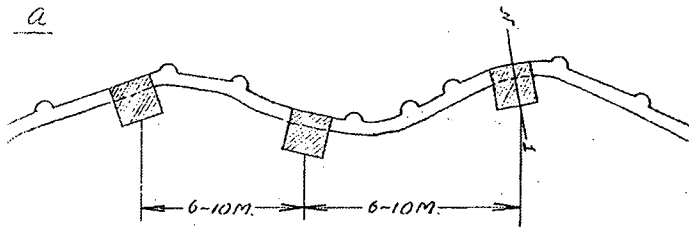
2,5 - 3 км

Услов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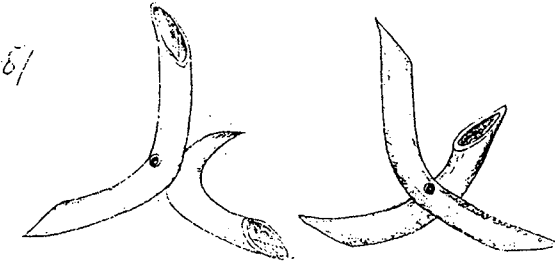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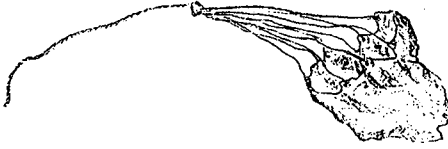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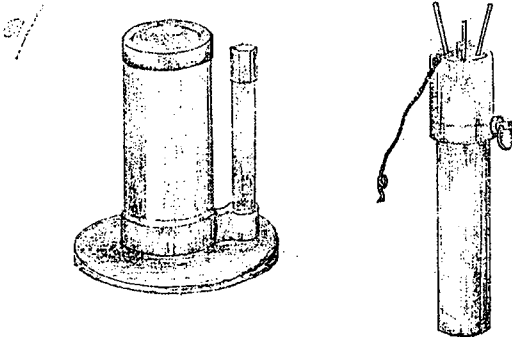
- ~~~~~ — траншея.
- ☀ — отдельн. огневая точка.
- ☪ — минное поле.
- — — — — ЗАбар из колок. проволоки.
- — Сигнальные мины.
- ☉ — спираль из колок. проволоки.

Черт № 4

1992 年 10 月 10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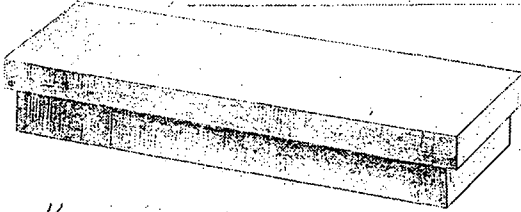


Черт. № 5



487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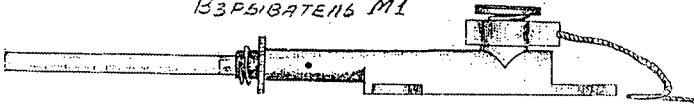
2) ПЛОТНО ИЗОЛИРОВАННАЯ ЯЩИКОВАЯ МИ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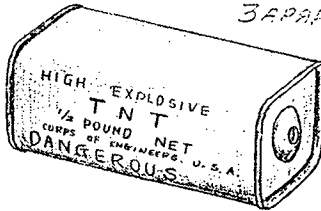
Корпус мин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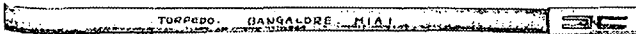
ВЗРЫВАТЕЛЬ М1



ЗАРЯ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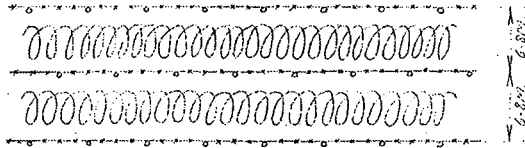


б) УДЛИНЕННЫЙ ЗАРЯД М1-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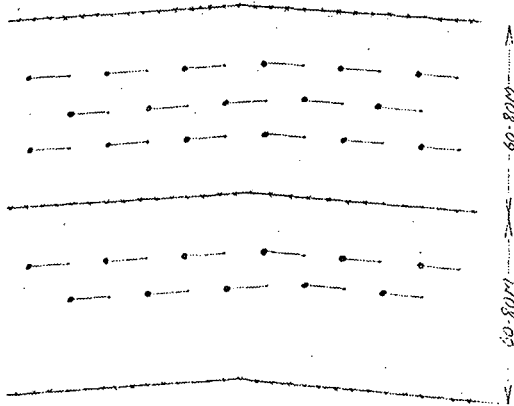


ЧЕРТ.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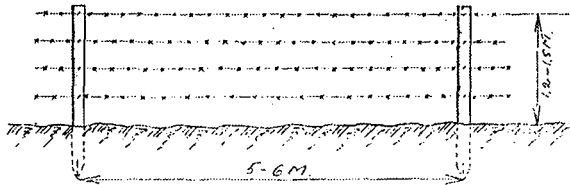
а. Проволочные заборы с проволокой в надрез (сетчатый).



б. Проволочные заборы с противопехот. мин. поля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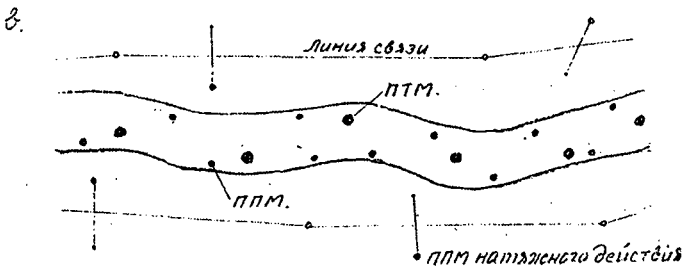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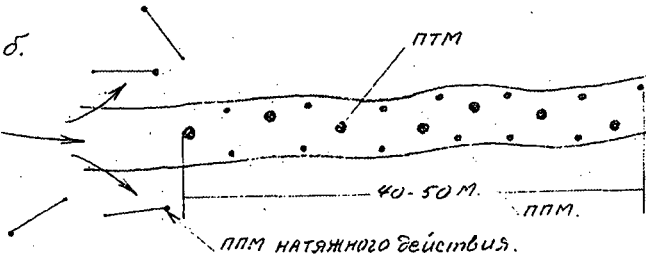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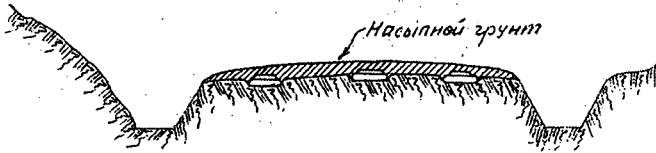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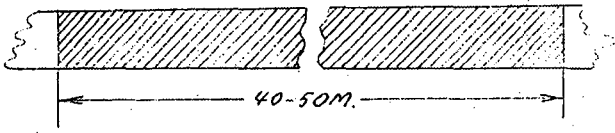
Проволочный забор.



Черт. № 8

Минирование дорог

а.



Уч. 10



## 색 인

- 112고지 / 20  
 340고지 / 29  
 350고지 / 29  
 432고지 / 254  
 469고지 / 240  
 533고지 / 25  
 AM-42 모터 / 149  
 B-100 무전기 / 153  
 B-70 휘발유 / 132  
 DDT / 175  
 DMZ / 240  
 F-4U기 / 296  
 F-52기 / 296  
 F-80 / 282, 296  
 F-84 제트전투기 / 282, 296  
 F-86 세이버 전투기 / 154  
 LAF 무전기 / 152  
 LA-9 / 134, 140, 141  
 MIG-15 요격기연대 / 134  
 MIG-15 전투기 / 154, 282  
 PK-30 교환기 / 153  
 PO-2 / 141  
 RSI-6 / 149  
 T-34 전차 / 28, 31  
 YAK-9p / 140  
 ZIS-3 / 27, 30  
 가솔린 급유차 / 152  
 가솔린 탱크자동차 / 152  
 가연물 실험소 / 152  
 간섭자 / 304  
 갈현동 / 36  
 감봉리 / 254  
 갑령재 / 32  
 갑산 / 317  
 강건(姜健)종합군관학교 / 66  
 강계 / 135, 248  
 강동 / 38, 135  
 강화반도 / 287  
 개성 / 12, 247  
 개천 / 248, 285  
 거리측정기 / 87  
 건설노동연대 / 61  
 건설부장 / 82  
 견인차량 / 8, 89  
 계산리 / 25  
 계평동 / 33  
 고군산도 / 285  
 고를라체프 / 216  
 고배 / 308  
 고사포연대 / 61, 94, 157

- 고성 / 233, 247  
 고원 / 248  
 고잔리 / 240  
 고정진지 / 43  
 곽폭탄 / 6  
 곡사포 / 6, 35  
 공격전개선 / 24, 29  
 공군력 / 26  
 공군사령부 / 82  
 공군지휘부 / 134  
 공기팽창식 보트 / 365  
 공병교육대대 / 63  
 공병군관 / 123  
 공병대대 / 64, 115  
 공병부대장 / 123  
 공병설비 / 9  
 공병연대 / 115  
 공병장애물 / 43, 116  
 공병정찰 / 125  
 공병정찰중대 / 116  
 공병중대 / 32  
 공수부대 / 75, 314  
 공주 / 23, 28  
 공중공격 / 290  
 공중지원 / 34  
 관측기 / 5  
 관측장비(파노라마) / 75  
 광정리 / 22  
 괴산 / 24  
 교동 / 233  
 교량복구 / 18  
 교육과정 / 10  
 교육생 / 11  
 교육연대 / 11, 27, 63  
 구룡리 / 21, 22  
 구리코프 / 222  
 군관예비대대 / 63  
 군관학교 / 65, 67, 112  
 군기위반 / 67  
 군단 / 7  
 군단예비연대 / 63  
 군단장 / 68  
 군단참모장 / 68  
 군단포병지휘관 / 1  
 군무원 / 202  
 군사고문단 / 292  
 군사우편 / 100, 110  
 군사우편소 / 104  
 군사지식 / 83  
 군산 / 285  
 군수공장 / 95  
 군의국 / 175, 177  
 굴착기 / 363  
 궤도차량 / 131  
 그레이더(grader) / 147, 363  
 글라주노프 / 288

- 금성 / 235, 247  
 금성천 / 254  
 금정리 / 25  
 급유차 / 152  
 기갑 / 10, 129  
 기계삽 / 363  
 기계화부대 / 10, 41  
 기계화사단 / 20, 42, 43, 62  
 기계화여단 / 10  
 기계화연대 / 64  
 기관총 / 9, 15, 61  
 기동방어전술 / 27  
 기동화기 / 3  
 기술지원중대 / 64  
 기중기 / 152  
 김광협(金光俠) / 205  
 김두봉 / 78  
 김웅(金雄) / 197, 205  
 김일성 / 197  
 김재욱(金宰旭) / 205  
 김포 / 314  
 나남 / 72, 248  
 나진 / 248  
 낙동강 / 3, 26, 33  
 난지도 / 39  
 남부사령부 / 293  
 남원 / 28  
 남조선군 / 76, 219  
 남천동 / 11, 12, 247  
 남해안 / 30  
 낭림리 / 38  
 노무부대 / 36  
 논산 / 28  
 뇌관용화약 / 88  
 다연장로켓포 / 338  
 단기훈련 / 30  
 단동 / 125  
 단양 / 35  
 닷지(Dodge) / 8  
 당현리 / 21  
 대공기관총 / 28, 30, 31  
 대공엄호 / 42  
 대공포 / 8  
 대구 / 25, 316  
 대구경기관총 / 30  
 대구경포 / 8  
 대대포병 / 7  
 대동강 / 121  
 대련 / 150  
 대령강 / 37  
 대수압도 / 243  
 대인지뢰 / 74, 117, 369  
 대전 / 20, 21  
 대전차 로켓포 / 61  
 대전차방어계획 / 7  
 대전차장비 / 6

- 대전차장애물 / 16  
 대전차지뢰 / 117  
 대전차포 / 4, 8, 24  
 덕암리 / 29  
 덕천 / 58, 248  
 도봉산 / 15  
 독립고사포대대 / 64  
 독립공병대대 / 63  
 독립교육 땅크연대 / 10  
 독립도로건설연대 / 62  
 독립유선통신운동대대 / 102  
 독립전신건설중대 / 102  
 독립전신운동중대 / 102  
 독립차량운송대대 / 63  
 독립통신대대 / 61, 63  
 독립통신연대 / 100  
 독립특수공병중대 / 328  
 독립항공기술사단 / 62  
 독립후방통신중대 / 102  
 돌격지대 / 61  
 동곡리 / 19  
 동암리 / 21  
 두울동 / 255  
 디젤 / 8  
 땅크연대 / 11, 31  
 라주바예프 / 55, 197  
 레이더 / 4  
 로드롤러(road roller) / 363  
 마르크스·레닌주의 / 78  
 마름쇠장애물 / 370  
 만포진 / 248  
 말휘리 / 250  
 명예재판소 / 79  
 모조무기 / 61  
 모터사이클 / 10, 11  
 모형사관 / 43  
 모형항공기 / 148  
 무개화차 / 18  
 무반동포 / 4, 8  
 무선장비 / 100  
 무선통신 / 110  
 문주리 / 22  
 미 보병사단 / 1  
 미 해군 / 7  
 미국 / 337  
 미군 / 20, 284  
 미군 지도부 / 1  
 미군 포병 / 5  
 미군공포증 / 224  
 미군규범 / 294  
 미립 / 135  
 미호천 / 23  
 민족보위성 / 86  
 바주카 / 8  
 박격포 / 3, 8, 35, 61  
 병참선 / 57

- 보로비예프 / 222  
 보로셀로프 / 150  
 보병교육연대 / 63  
 보병군관 / 65  
 보병대대 / 31  
 보병사격 / 39  
 보병사단 / 1, 10, 30, 59  
 보병연대 / 1  
 보병지휘관 / 1  
 보전협동공격 / 37  
 봉화산 / 29  
 부교 / 116, 124  
 부산 / 284  
 부평 / 13, 19  
 부포리 / 243  
 북동사령부 / 294  
 북부사령부 / 293  
 북청 / 248  
 불가닌 / 283  
 불도저 / 147, 363  
 비노쿠로프 / 289  
 비운 / 247  
 비행기 사냥꾼조 / 73  
 비행기술사단 / 61  
 비행기술항공학원 / 134  
 비행사단 / 61  
 비행장 건설대대 / 61  
 빌리스 / 8  
 사격도구 / 61  
 사격장 / 61, 184  
 사격지점 / 45  
 사격통제 / 2, 6, 7  
 사기점 / 233  
 사단참모장 / 68  
 사단포병지휘관 / 1  
 사리원 / 135, 247  
 사창리 / 200  
 사천 / 235  
 사태리 / 235  
 삭녕 / 118, 243  
 산개대형 / 45  
 산악도로 / 118  
 산악애로 / 60  
 산악용 곡사포 / 8  
 산악조건 / 60  
 산악지대 / 74  
 산악지형 / 41  
 산악포병 / 93  
 살균법 / 175  
 삼암동 / 250  
 상륙군 / 29  
 상륙훈련 / 284  
 상리 / 13  
 샘목리 / 29  
 생산노동자 / 36  
 샬린 / 292

- 서막골 / 254  
 서운리 / 255  
 서울 / 15, 38  
 서천 / 34  
 서파 / 13  
 서해 / 30  
 섬멸작전 / 81  
 섬영진(聶榮臻) / 228  
 성진 / 76, 248, 284  
 세열포탄 / 6  
 세포리 / 247, 250  
 셔먼(Sherman) / 274  
 소련 고문단 / 283  
 소이탄 / 6  
 소총 / 61  
 소콜로프 / 268, 291, 300  
 송산리 / 244  
 송포 / 255  
 쇠석기 / 147  
 수병학교 / 157  
 수송수단 / 57  
 수송중대 / 64  
 수송차량 / 40  
 수원 / 19, 28  
 수유리 / 15  
 수정사격 / 2, 6, 7  
 수중장애물 / 290  
 수평각 측정기 / 347  
 숙천 / 28, 248, 314  
 슈테멘코 / 55  
 슈파긴 / 130  
 스쿠너 / 165  
 스트렐비쯔키 / 288  
 습격기연대 / 138  
 시변리 / 118  
 시준의 / 87  
 시한신관 / 6, 7  
 신령 / 32  
 신망리 / 12, 118  
 신분증명서 / 78  
 신서리 / 38  
 신읍리 / 13, 118  
 신의주 / 37, 135, 248  
 신참군관 / 112  
 신흥 / 248  
 실미도 / 325  
 심양 / 230  
 십자포화 / 289  
 쌍안경 / 347  
 아바셰프 / 193  
 아세틸렌 가스등 / 98  
 아이젠하워 / 283  
 안성 / 21  
 안악 / 135  
 안주 / 248, 284, 285  
 압록강 / 124, 285

- 압축기 / 152
- 야간공격 / 323
- 야간폭격대대 / 139
- 야전 곡사포 / 8
- 야전공병집단 / 328
- 야전군단 군사위원회 / 79
- 야전군단 사령부 / 63
- 야전이동병원 / 177
- 야전전선사령부 / 63
- 야전축성 / 302
- 양구 / 199
- 어룡리 / 240
- 어은산 / 250
- 엄홍섭 / 364
- 여골 / 250, 255
- 여단지휘관 / 68
- 연막탄 / 6
- 연안 / 75, 247
- 연합사령부 / 73
- 연합전선공병부대 / 115
- 영국 / 337
- 영덕 / 7
- 영동 / 25, 26
- 영등포 / 18, 39
- 영유 / 314
- 영주 / 33
- 영흥 / 248
- 예비 화기진지 / 4
- 예비공병부대 / 116
- 예비교육연대 / 66
- 예비군관 / 69
- 예비기동대 / 290
- 예비병력 / 59
- 예비연대 / 62
- 예비인력 / 62
- 예비탄약 / 34
- 예비통신연대 / 100
- 엔지 / 72
- 오음리 / 240
- 온정리 / 135
- 옹진 / 247
- 옹천동 / 33
- 요격기연대 / 138
- 요코하마 / 308
- 용암포 / 287
- 우천리 / 25
- 운산 / 285
- 운수국 / 205
- 운전병 / 10
- 웅기 / 248
- 원격신관 / 7
- 원산 / 38, 284, 311
- 원형방어 / 303
- 월미도 / 325
- 월성리 / 235
- 월정리 / 240

- 위도측정기 / 87
- 위생전술 / 177
- 위수부대 / 37
- 유격대 / 12, 117
- 유격지휘 / 118
- 유격폭파수 / 118
- 유도소 / 297
- 유류 저장소 / 40
- 유성 / 23
- 육전대 / 157
- 울리 / 165
- 울목리 / 240
- 울사리 / 255
- 은울 / 247
- 은폐지역 / 15
- 의무대대 / 64
- 의정부 / 12, 13, 118
- 의주 / 135
- 이동경로 / 30
- 이동산소펌프 / 152
- 이동장비통신 / 110
- 이동장애물대 / 119
- 이동조애사격 / 3
- 이동통신장비 / 104
- 이림(李林) / 202
- 이승만군 / 14, 20, 93
- 이승엽(李承燁) / 198
- 이실골 / 254
- 이원 / 76, 311
- 인민공화국 / 58
- 인천 / 7, 19
- 인포리 / 30
- 임강 / 285
- 임진강 / 240
- 자격향상강습회 / 114
- 자동소총중대 / 31, 32
- 자아비판 / 81
- 자주포 / 35, 39
- 자주포대대 / 61, 64
- 작전밀도 / 261
- 작전장애물 / 123
- 작전중심 / 263
- 장갑차량 / 11, 19, 34
- 장비지원중대 / 32
- 장진강 / 247
- 장흥동 / 36
- 저격대대 / 13, 28, 36
- 저격연대 / 12, 17, 37
- 저공비행 / 77
- 저항거점 / 5, 6, 27
- 적정정찰 / 226
- 전도리 / 13
- 전면장갑 / 9
- 전문군관 / 10
- 전방관측요원 / 2
- 전선참모부 / 100



- 전술공군 / 297  
 전술항공부대 / 296  
 전신국 / 16  
 전연방공산당 / 78  
 전염병 / 177  
 전장지역 / 5  
 전주 / 28  
 전차 / 3  
 전차공격조 / 6, 7, 44  
 전차교육연대 / 63  
 전차도하 / 18  
 전차연대 / 64  
 전차장 / 10  
 전투정보 / 185  
 전투대형 / 3, 4, 15, 34  
 전투준비태세 / 61  
 전화기 / 153  
 정세홍보 / 78  
 정조준 사격 / 323  
 정주 / 35, 38  
 정찰부장 / 82  
 정찰중대 / 31, 64  
 정치교양 / 78  
 정치사업 / 80  
 제105기계화사단 / 25  
 제107땅크연대 / 24  
 제109땅크연대 / 23  
 제10군단 / 293  
 제15보병사단 / 23  
 제16기계화여단 / 28, 29  
 제17기계화사단 / 31, 40  
 제17기계화여단 / 30  
 제1군단장 / 40  
 제1보병사단 / 38  
 제203땅크연대 / 24, 25  
 제24보병사단 / 24  
 제24포병여단 / 38  
 제25보병사단 / 39  
 제27보병사단 / 24  
 제2군단장 / 32, 33  
 제2땅크대대 / 28  
 제33보병연대 / 40  
 제3보병사단 / 24, 25  
 제7보병사단 / 23  
 제8군사령관 / 293  
 제8보병연대 / 23  
 제공권 / 18  
 제물포 / 284, 310  
 조명지뢰 / 369  
 조명탄 / 6  
 조선로동당 / 58  
 조선인민군 / 16, 29  
 조종사 / 144  
 조준사격 / 4, 39  
 조준장치 / 75, 87  
 조치원 / 20, 21, 22

- 종파집단 / 82  
 주간공격 / 43  
 주공방면 / 12, 14  
 주덕(朱德) / 228  
 죽암리 / 33  
 중간방어계선 / 5, 57  
 중국의용군 / 81, 82  
 중국인민지원군 / 37, 38, 212  
 중기관총 / 35  
 중앙군사우편기지 / 103  
 중앙군사통신수리소 / 103  
 중앙군사통신창 / 103  
 중앙청 / 16  
 중화 / 247  
 지린 / 72  
 지상군 / 7  
 지상군 합동작전 / 296  
 지하방공호 / 121  
 지하통로 / 121  
 지향성지뢰 / 74, 117  
 지형사격 / 303  
 지휘관측소 / 89  
 진남포 / 129, 247  
 진지구축 / 4  
 진지전 / 235  
 진천 / 21  
 진해 / 284  
 짜안 / 72  
 차량화 저격연대 / 11, 13  
 천안 / 20, 21, 28  
 천전동 / 7  
 철근콘크리트 / 287  
 철원 / 12, 13, 28  
 철조망장애물 / 74, 117  
 청주 / 21  
 청진 / 248  
 청진 해군기지 / 157  
 청천강 / 38, 58  
 초강리 / 25  
 초강천 / 26  
 초상리 / 38  
 총정치국 / 82  
 최고사령부 / 31, 38, 62  
 축전지 / 131  
 충전소 / 152  
 측방엄호 / 26, 43  
 측정기 / 85  
 치산동 / 33  
 치안대대 / 37  
 캐나다 / 337  
 컴프레서 스테이션(compressor station)  
 / 363, 374  
 코체르긴 / 230  
 코토프 / 289  
 콘크리트 믹서기 / 147, 363  
 쿤가스 / 165

- 크라마르 / 292  
 클라크 / 283  
 타이완 섬 / 284  
 탄약정량 / 88  
 탄착관측 비행기 / 347  
 탑선리 / 25  
 태천 / 248  
 태천강 / 36  
 터키 / 337  
 도벌작전 / 235  
 통신교육연대 / 63  
 통신국 / 101  
 통신기재 / 57  
 통신대대 / 64  
 통신부대 / 99, 112  
 통신장교 / 2  
 통신장비 / 106, 132  
 통신중대 / 31  
 통신지휘군관 / 112  
 통제상황판 / 347  
 통천 / 76, 247  
 투먼 / 72  
 통화 / 72  
 트랙터 / 8, 147, 152  
 특수교육부대 / 63  
 티푸스 / 175  
 파블로프스키 / 217, 289  
 파열방식 / 7  
 팔공산 / 33  
 팡덕회(彭德懷) / 225, 228  
 페트로프 / 292  
 평강 / 247  
 평안북도 / 35  
 평양 / 38, 135, 247  
 평택 / 21  
 포대경 / 85, 347  
 포병교육연대 / 63  
 포병대대 / 1, 64  
 포병물자 / 57  
 포병사령관 / 90, 97  
 포병종합학원 / 66  
 포병중대장 / 2, 7  
 포병지원 / 5, 43  
 포병지휘관측소 / 90, 97  
 포병총국장 / 97  
 포병학교 / 67  
 포병항공 관측 / 4  
 포병화기 / 85  
 포외진리 / 240  
 포항 / 309  
 포항동 / 7  
 폭격기용(RSB) 무전기 / 152  
 폭발장애물 / 117  
 표적획득 / 7  
 풍천 / 135  
 프로그램 / 59

- 프로펠러 항공기용 / 135  
 피로사격 / 3  
 하구 / 235  
 하사관 / 112, 113  
 하신리 / 21  
 하이룽 / 72  
 하천장애물 / 333  
 학산 / 247  
 한강 / 39  
 함흥 / 58, 248  
 항공기 / 5, 22  
 항공모함 / 248  
 항공전문인력 / 140  
 항공지원 / 23  
 항공편대 / 14  
 항구 / 284  
 해군 건설대대 / 157  
 해군 조선지휘부 / 157  
 해군 참모부 / 157  
 해군기지 / 166, 284  
 해군병원 / 157  
 해병 공수부대 / 317  
 해병대 / 75  
 해안방어부대 / 75, 166  
 해안봉쇄 / 248  
 해안장애물 / 290  
 해주 / 247, 284  
 행군제대 / 15  
 행정중대 / 64  
 행주 / 39  
 허가이(許哥而) / 198  
 허천강 / 247  
 헬기중대 / 318  
 현남리 / 29  
 현리 / 255  
 화기진지 / 9  
 화대리 / 13  
 화력수정요원 / 2  
 화력장비용 참호 / 302  
 화력통제반 / 343  
 화약재료 / 88  
 화천 / 200  
 황간 / 26  
 황주 / 247  
 후크(Hook)고지 / 243  
 희천 / 248

- 자료수집 및 해제번역  
전현수(경북대학교 교수)
- 번역  
기광서(조선대학교 교수)  
백준기(한신대학교 교수)  
이신철(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 감수  
백선엽(제7대 육군참모총장)  
김영관(제8대 해군참모총장)  
장지량(제9대 공군참모총장)  
공정식(제6대 해병대사령관)  
이석호(국방대학교 교수, 군사전략)  
김현기(경기대학교 교수, 국제정치)  
강성문(육군사관학교 교수, 한국사)  
전기원(해군사관학교 교수, 국제정치)  
김영주(공군사관학교 교수, 한국사)  
김현영(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박병남(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이환준(군사편찬연구소 국제협력부장)
- 기획편집  
장학근(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서인한(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유태하(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북한군사관계사료총서 2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②

2001年 6月 日 印刷

2001年 6月 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發行人 河 載 平

印刷處 軍人共濟會 第1文化事業所